

#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2021-25

정책연구

A Study on the US Arts and Culture  
Administration System and Institution

박종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21-25

#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US Arts and Culture Administration System and Institution

박종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박종웅 문화예술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법학 박사, LL.M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COVID-19, 세계적인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의 침체, 문화예술 지원의 주체인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됨
-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분석은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고, 현장 수요가 반영된 상향식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자연발생적 생활문화 육성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체계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 지방정부(뉴욕주 사례 포함)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 체계, 행정체제, 법률 및 제도, 거버넌스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는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라는 대상적 범위와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 ‘미국 지방정부(뉴욕주/뉴욕시) 문화예술정책’을 내용적 범위로 구분
- 문헌 연구, 웹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행
-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분석틀을 설정하며,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각 정부는 행정체계와 법/제도구 구분하여 분석함

## 2.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와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 가.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

- 미국 정부는 독립선언과 헌법을 근거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 그 중에서 주된 관심 영역인 행정부 조직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으로 구성

- 연방제는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하위 지방정부들이 실질적 통치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연방정부는 세금의 부과, 전쟁의 선포, 군대소집, 화폐 및 차관, 주간 통상규제, 연방제판소의 설치, 이민자들에 대한 귀화법규의 제정 등 담당
  - 주정부는 경찰권 행사(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수행), 교육(고등교육은 주정부, 공립학교는 주정부 감독 하에 지방정부 담당), 사회 안보, 공중위생서비스(보건, 복지,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
  -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등을 담당
- 미국 법의 개괄적인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
  - 명확한 권력분립, 다양한 법원(sources of law), 판례법 '선례구속의 원칙', 당사자소송체계
- 미국 헌법은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립예술인문재단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을 다루고 있음
- 한국과 미국(연방정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기본체제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양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통일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미국 문화예술정책 영역을 미국 법(US Code)을 기준으로 도출하면 예술과 인문학의 진흥, 문화정책 중 국제문화교류(공공외교),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확대, 고유문화 보호(인디언 보호 외)로 정리됨

## 나. 미국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 대공황과 뉴딜 정책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의 예술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고도화 됨
  - 경기부양책으로 시작된 정부예술지원, 1934년 당시 루스벨트(Roosevelt, 1933-1945) 행정부에서 구제정책을 담당했던 해리 홉킨스는 예술가를 위한 일 자리 창출 정책인 '공공예술 프로젝트(Public Works of Art Project, PWAP, 1933-34)' 발표. PWAP 사업은 공공예술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시행 첫 4개월 동안에 3,749명  
의 예술가를 정부가 고용하는 등의 성과

- 1960년대 NEA 설립과 예술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예술 개념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변화함
  - 1964년에 이르러서야 국립예술기금(NEA)의 운영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  
공할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Arts, NCA)가 구성되었고,  
1965년에 NEA가 설립됨
  - 공공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에 대한 정의 및 범주가 1950년대 이후 점차 확대,  
변화함
  - 엘리트주의 예술에서 아마추어 예술을 포함한 참여 중심의 예술, 즉 문화 민주  
주의 방향으로 미국 예술정책이 변모
  - 위조미어스키(Wyszomirski, 2004)는 1953년, 1963년, 1997년에 각각 작성된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방정부의 공공예술지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변천을 제시
- 1990년대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문화전쟁 발생
  - 예술에 대한 정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예술가들과 NEA, 그리고 보수주의 정  
치 진영 및 종교단체 간 갈등 시작
  -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함축될 수 있는 1990년대 미국 문화전쟁(Culture  
Wars)의 중심에는 바로 예술의 ‘품위(decency)’가 자리
  - NEA의 예술지원에 대한 논란은 1990년 NEA 예산 삭감과 총 예산 중 주정부  
예술기관(SAAs)에 책정할 예산 비율을 20%에서 27.5%로 늘리는 내용을 의회  
에서 통과. 이후 1993년과 1994년에도 적은 규모지만 NEA 예산은 삭감된 것  
으로 확인
-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문화정책
  - 오바마 행정부 (2009-2016년, 민주당)는 NEA 예산 증액, 문화외교 강화, 예술  
가를 위한 건강보험 및 조세제도 보완 등 예술분야 생태계의 회복과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
  - 트럼프 행정부 (2017-2020년, 공화당)는 NEA와 NEH, 공공방송공사(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과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에 대한 예산책정을 거부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중단을 재임 기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 이후 발의된 ‘CARES Act’에 서명. 간접적으로나마 NEA, NEH, IMLS,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추정예산 편성 승인

- 바이든 행정부 (2021년-현재, 민주당)는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예술지원 내용이 다수 발견, 예술계 일각에서는 양쪽 어느 행정부에서도 예술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 또는 정책전략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지적

### 3.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 가.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 입법부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연방의회 도서관, 스미스소니언재단이 대표적임
- 행정부의 국무부, 내무부, 교육부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독립행정기구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기금이 대표적이며, 국가기록보관기록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공공방송공사,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 미국미술위원회 등이 있음
- 백악관의 문화예술 관련 부서는 백악관 종교기능 담당조직과 대통령 스포츠, 건강, 영양위원회가 있음
-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
  -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근거
  -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인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의 동력(Copyright: The engine of Free Expression)을 제공

## ■ 조세 지원

- 미국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연방차원의 조세지원 제도는 크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연방세 면제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 공제로 구분. 비영리단체의 종류와 법인격 취득에 관해서는 각 주의 전속입법사항으로 통일된 연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다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연방세법에서 규정
- 미국연방세법(IRC) §501(c)에 따른 비과세단체(tax exempt organization)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순수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에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

## 나.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 ■ 예술 및 인문정신 확산

- 국립예술인문재단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립예술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 장르 대상 지원 기능을 수행함
- 초기에는 예술가, 예술조직, 관람객 지원을 위주로 했지만 정치적 갈등 발생 이후에는 예술교육 지원으로 변화함
- 현재 적용중인 지원금제도들은 지역 협력기구들을 경유하여서 특정 사업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들 위주로 편성, 개인들 대상 직접지원 방식들을 적용하는 제도는 거의 없음
- 국립인문기금은 1965년에 설립된 독립된 기구로 인문학 지원 기구로서 학문적 연구, 역사, 철학, 문학, 종교, 윤리, 고고학, 예술 비평이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문학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정신문화 관련 기능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50개 주와 자치령의 인문학 진흥 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신문화 관련 기능들을 지원하거나 협업하여 수행
-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으로 농촌지역 도서관서비스 보급,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문맹퇴치 등의 서비스와 신규 도서관, 박물관 및 정보 전문가 발굴과 사업 추진

■ 종합문화기관의 가치와 역할(스미스소니언재단)

- 영국의 화학자이자 광물학자였던 제임스 스미스슨(James Smithson)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수락, 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 - 스미스소니언재단 설립 법안(9 Stat. 102)을 통과시키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리젠트 이사회’(Board of Regent) 구성
- 스미스소니언은 대부분 연방 기관들과 달리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자체 수익창출도 가능. IRS(국세청)의 분류에 따라 스미스소니언은 501(c)(3)에 속하는 면세 교육기관 인정
- 현재 19개의 박물관, 21개의 도서관, 동물원 및 천체관측소, 열대기후연구센터, 자연환경연구센터, 과학교육원 등 수많은 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예술문화 과학교육기관
- 미술관, 박물관, 교육센터, 연구소들은 분야별로 속한 부서는 다르지만 이 같은 조직도 안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
-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크게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되며 연방정부 지원금과 재단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있음.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기준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10억 달러(약 62%), 나머지 38%는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과 회원권, 스미스소니언 엔터프라이즈 운영 수익(잡지, 우편 주문 카탈로그, 엔터테인먼트, 상점, 레스토랑 등)을 포함하는 신탁기금
-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2017년 ‘5개년 미래전략-스미스소니언 2022’ 발표, 미국 내 213개 미술관 및 박물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휴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 강화

- 오바마 행정부 예술정책분야 대선 공약 : ‘학교-예술단체 민간 파트너십’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같이 제시했던 예술교육의 재활성화를 시행
- 2011년도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PCAH)에서 발간한 “예술교육 재활성화: 창의적인 학교를 통한 미국의 성공적 미래 확보(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보고서 발표
- 1) 모든 학생에게 적합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K-12(유치원-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지는지 또는 부여되어야 함. 2) 소외계

층 학생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노력. 3) 양질의 예술교육을 위한 강화된 근거 마련

- 교육부 Assistance for Arts Education (AAE) 사업 : 취약계층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예술교육 행정체계와 협력 구조 : 미국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 시정부(local) 단위의 예술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성, 학생을 궁극적인 수혜자로 볼 때, 시단위 지역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교육위원회, 교육감독관, 교장, 예술강사, 학부모/학부모위원회, 지역교사노동조합, 기초예술위원회(LAAs), 예술가, 예술강사, 문화예술단체, 재정후원자, 대학, 유권자 등을 기초단위 예술교육 관련 협력주체로 파악
-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 교육기준의 핵심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 제공할 학습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학습운영 체계의 향상 견인, 개별 과목의 주요 개념, 학습 과정, 통용적 학습 규범, 학생, 교사, 행정을 포괄하는 교육 공동체의 기대와 지향방향 등이 체화된 기준을 개발, 제안

#### ■ 문화유산 보호

- 미국의 문화유산 개념은 국가지정유산(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or National Register))은 미국 문화유산의 대상을 미국 역사, 건축, 고고학, 기술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산(properties significant in American history, architecture, archeology, engineering and culture)으로 정의
- National Park Service가 만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대상을 결정. National Register에 등재되는 문화유산은 구역(districts), 장소(sites), 건물(buildings), 구조물(structures), 물품(objects)으로 대부분이 유형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정
- 1966년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재생, 고속도로건설, 연방 인프라 사업들로 인해 수많은 문화유적과 National Historic Landmarks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파손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문화유산 관리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지정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지정 및 관리 절차,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국립유적지 보호재단(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설립과 주정부의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연방정부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노력을 규정

-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 Department of Interior)와 함께 문화유산보존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가 핵심 역할
- 미국 문화유산 관리조직들 간의 협력 : 1966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서 체계화, 문화유산관리를 위한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과 문화유산기금(Historic Preservation Fund)을 중심으로 운영,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독립되어 있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법적, 정책적, 관리적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강제

#### 4. 미국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State of New York 사례)

##### 가.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 이해

- 문화예술 공공민간파트너십(PPP)
  -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은 보조금 제공,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사회 행사 주최를 통해 자금 조달 및 홍보를 지원하며 각 주정부의 예술정책, 지역 예술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등 정책과 밀접히 연계
  - 각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나 자금에는 유형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조금,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협력 단체에 대한 접근성 부여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및 협조
  -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술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의 지원함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



- 뉴욕주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교육부, 환경보호부, 지사행정지원부, 뉴욕주 예술 위원회가 대표적임
-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부서는 문화국, 공원여가국, 기록물정보서비스국, 청년지 역사사회개발국, 시장 직속 미디어엔터테인먼트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시장 직속 도시 전역 행사조정관리실, 시장 직속 특별기획 지역사회행사실, 뉴욕예술재단 등이 있음
-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법령
  - 뉴욕주의 문화예술 관련 법은 뉴욕주 통합법 예술 및 문화 업무법(New York Consolidated Laws,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 ACA)이 있음
  -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법령은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뉴욕시 행정법(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뉴욕시 행정규칙(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이 있음

## 나.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 행정체제

- 뉴욕주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보조금을 활용함
  - 뉴욕주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문화향유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되게 하여, 지역 사회의 삶에서 예술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과 관련된 개인후원자, 기관, 전문조직이 함께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정책을 선언
  - 뉴욕주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활용 대상 및 기준을 가지고 있음
- 뉴욕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함
  - 뉴욕시 행정규칙에 따르면 뉴욕시 예술위원회는 예술작품과 관련된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을 위한 일정 비율법, 예술가 인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예술가의 보호 특히 유아청소년 실연자와 공연예술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예술 소비자들의 경제적,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예술품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미술품의 거래, 예술품의 보증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문화예술자원 관련 신탁제도를 제도화 하여 문화자원 신탁 생성, 관리, 권한, 과세 관련 조항으로 공익적 목적의 신탁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문화향유와 문화기반시설
  - 뉴욕공공도서관은 세계 제일의 규모이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도서관이며, 민간지원에 정부 지원이 결합
  - 뉴욕 공공도서관은 유능한 학습자와 연구자를 만들어 평생의 배움을 고취, 뉴욕의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 통해 지식을 발전, 완전한 시민권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추구함
  -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1870년 뉴욕 시민지도자, 사업가, 예술가, 미술 수집가, 자산가 등이 힘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문화기관으로 약 200만 점의 예술 작품들 소장.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이사회(the Board of Trustee)에서 이루어지며 실무조직으로는 관장 겸 최고경영자 Daniel H. Weiss 아래 인사부, 재무부, 건설(시설운영)부, 전시부, 대외업무(커뮤니케이션)부, 개발부, 보존 및 과학부, 큐레이터부, 디지털·교육·출판·영상 및 도서관부 등 운용
  - 링컨센터는 1962년에 종합예술센터로서 문을 열었고 이후 뉴욕 필하모닉을 시작으로 줄리어드 음악학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의 단체가 차례로 상주단체로 계약을 체결하여 뉴욕시 맨하탄에 아트 콤플렉스(Art Complex)로 자리함
  - 링컨센터는 이사회와 Senior Team이 운영하는데, 이사회는 당연직(2020.12.31. 기준 4명)에 비해 일반이사(73명)가 훨씬 많음
  - 링컨센터는 거버넌스 활동도 활발한데 특히 다른 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2021년 현재 27개 재단으로부터 지원. 정부의 경우, 뉴욕시(장), 맨하탄 자치구(장), 뉴욕시 의회(대변인 1인 및 위원 11인 포함), 주택 및 경제발전국, 공

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문화국, 교육국,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소방국, 경찰국, 교통국, 뉴욕주(지사), 뉴욕주 상원, 뉴욕주의회, 예술위원회, 미의회, NEA 등 30개의 정부조직과 파트너십

- 링컨센터는 공연예술을 후원하고 대중들의 예술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미션으로 하면서, 세계 최고의 예술 프로그램 진행자, 예술 교육 및 지역사회 관계 (community relations) 분야의 미국 내 선도자, 링컨센터 캠퍼스 관리자로서의 세 가지 주요 역할 수행

## 5. 결론

-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는 문화예술정책의 집권적 시스템과 분권적 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함
- 한국 정부 부처의 업무를 미국 정부 부처의 업무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NEA는 업무 내용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
  - 주정부의 경우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집행되며, 주 교육부, 주 내무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은 다면성임
  - 자유주의, 개인주의 문화정책 특성과 미국 예외주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
  - 문화외교(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정책이 추진됨
  - 신탁과 기부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공공문화자원을 확보하고 그 결과 시민의 문화향유가 자연스럽게 확대됨



---

# 목차

|  |           |
|--|-----------|
| <b>제1장 서론 .....</b>                              | <b>1</b>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1. 연구 배경   | 3         |
| 2. 연구 목적   | 5         |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
| 1. 연구 범위   | 7         |
|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 8         |
| <br><b>제2장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와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b> | <b>11</b> |
| 제1절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                              | 13        |
| 1. 미국 행정체계 이해                                    | 13        |
| 2.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 22        |
| 제2절 미국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 29        |
| 1. 대공황과 뉴딜 정책 : 정부의 예술지원 시도(1930년대)              | 30        |
| 2. NEA 설립과 예술지원 범위의 확대(1960년대)                   | 32        |
| 3. 진보와 보수의 갈등 : 문화전쟁(1990년대)                     | 34        |
| 4.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문화정책(2000년대 이후)            | 36        |
| <br><b>제3장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b>      | <b>45</b> |
| 제1절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 이해                               | 47        |
| 1.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 개요                                | 47        |
| 2. 표현의 자유와 간접 지원                                 | 55        |
| 제2절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제                               | 64        |
| 1. 예술 및 인문정신 확산                                  | 64        |
| 2. 종합문화기관의 가치와 역할(스미스소니언재단)                      | 74        |

|              |    |
|--------------|----|
| 3. 문화예술교육 강화 | 80 |
| 4. 문화유산 보호   | 88 |

#### 제4장 미국 지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State of New York 사례) ..... 95

|   |     |
|---|-----|
| 제1절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 이해                                | 97  |
| 1. 문화예술 공공민간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97  |
| 2. 뉴욕주, 뉴욕시 문화예술정책 개요                             | 107 |
| 제2절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 행정체제                           | 119 |
| 1. 문화예술진흥과 안전망                                    | 119 |
| 2. 예술품 거래 보호와 신탁제도                                | 123 |
| 3. 문화향유와 문화기반시설                                   | 126 |

#### 제5장 결론 ..... 141

|                                 |     |
|---------------------------------|-----|
| 제1절 요약                          | 143 |
| 1.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 및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 143 |
| 2.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 144 |
| 3. 미국 지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 149 |
| 제2절 시사점                         | 153 |
| 1.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 비교       | 153 |
| 2.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다면성               | 156 |

#### 참고문헌 / 161

#### ABSTRACT / 167

#### 부록 / 169

---

## 표목차

|   |     |
|---|-----|
| 〈표 2-1〉 연방정부 주정부 간 권력 배분                    | 16  |
| 〈표 2-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배분                   | 17  |
| 〈표 2-3〉 헌법과 권리장전의 요약                        | 20  |
| 〈표 2-4〉 미국 대학의 문화정책, 예술경영 대학원의 교육과정 비교      | 23  |
| 〈표 2-5〉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제                        | 25  |
|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업무(홈페이지 참조)             | 27  |
| 〈표 2-7〉 문화예술정책 영역의 비교                       | 27  |
| 〈표 2-8〉 미국 문화예술정책 영역                        | 28  |
| 〈표 2-9〉 미국인이 공유하는 핵심 아이디어들                  | 29  |
| 〈표 2-10〉 국립문예기관 설립관련 정책 추진의 연대적 개관          | 32  |
| 〈표 2-11〉 2001-2021 NEA 예산안 추이               | 37  |
| 〈표 2-12〉 행정부별 취임 전·후 예술지원 및 참여 활동 비교표       | 41  |
| 〈표 3-1〉 미국 입법부 문화예술 관련 기관                   | 48  |
| 〈표 3-2〉 미국 행정부 문화예술 관련 부처                   | 48  |
| 〈표 3-3〉 미국 연방 문화예술 관련 독립행정기구                | 53  |
| 〈표 3-4〉 미국 백악관 문화예술 관련 부서                   | 54  |
| 〈표 3-5〉 미국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비정부 기구(참고사항)        | 54  |
| 〈표 3-6〉 NEA 지원 예술 영역 및 관련 주제                | 65  |
| 〈표 3-7〉 NCAS의 철학적 기초와 평생 목표                 | 85  |
| 〈표 3-8〉 주(state)별 예술교육정책 현황 비교 (2021.3. 기준) | 87  |
| 〈표 4-1〉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접근법      | 100 |
| 〈표 4-2〉 주별 비영리 예술단체 지원기관 및 대표 협력 문화예술 기관    | 101 |
| 〈표 4-3〉 뉴욕주 인구                              | 108 |
| 〈표 4-4〉 뉴욕주 문화예술 행정조직                       | 110 |
| 〈표 4-5〉 뉴욕시 문화예술 행정조직                       | 111 |
| 〈표 4-6〉 뉴욕주 통합법 중 문화예술 내용                   | 114 |

|   |     |
|---|-----|
| 〈표 4-7〉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중 문화예술 내용                     | 115 |
| 〈표 4-8〉 뉴욕시 행정법(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중<br>문화예술 내용 | 116 |
| 〈표 4-9〉 뉴욕시 행정규칙(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중<br>문화예술 내용    | 117 |
| 〈표 4-10〉 뉴욕공공도서관 연구센터   | 129 |
| 〈표 4-11〉 뉴욕 공공도서관 사명  | 130 |
| 〈표 5-1〉 한국과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처(부서) 비교                                 | 155 |



---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연구 대상적 범위  | 7   |
| [그림 1-2] 연구 내용적 범위  | 8   |
| [그림 1-3] 연구 수행방법 및 과정   | 9   |
| [그림 1-4] 연구 분석틀   | 10  |
| [그림 2-1] 미국 정부 법통과 조직   | 13  |
| [그림 2-2] 미국 정부 조직   | 15  |
| [그림 2-3] 2001-2020 미국 공공예술지원 추이: 연방(federal), 광역(state),<br>기초(local) | 36  |
| [그림 3-1] 스미스소니언재단 조직도   | 76  |
| [그림 3-2] 스미스소니언재단 수입, 지출 현황(2020년~2016)                               | 78  |
| [그림 3-3] 2002-2021 AAE 예산 추이  | 82  |
| [그림 3-4] 미국 예술교육 행정단위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구조                              | 84  |
| [그림 4-1] 뉴욕공공도서관의 2020 회계연도 영업수익과 지출                                  | 130 |
| [그림 4-2]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실무조직  | 133 |
| [그림 4-3] 링컨센터 입주기관  | 136 |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세계적인 경기 하락, COVID-19 등으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의 침체는 문화예술 지원의 주체인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창의성, 문화 다양성, 문화 향유의 가치가 ‘분권’이라는 정책 슬로건과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도 관심 주제가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예술정책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분권, 자치, 개인 차원의 창의성, 자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주요국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최보연(2016)은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 문화예술정책 유형을 소개하면서 국가 역할의 직접성 및 간접성, 공공성, 민간 협조 방식, 지원 방식 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국가별 문화정책 성격은 이론적 기준과 동일한 형태에서 조금 벗어난 유형 간 중복이나 결합된 방식으로 구체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분석의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특징은 주별 독자성 및 다양성, 개인주의적 문화향유, 시장 지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문화 분권의 핵심인 지역 중심, 다양성, 다원주의 성격 등과 일정 부분 이론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이래 연방정부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권력을 분배하고 각 주의 독립성, 자치권을 제도화하는 연방제라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 제도적 틀 속에서 연방정부, 주정부라는 행정국가체계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지방자치와 분권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문화예술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들에 의해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연방과 주 정부 간의 자원 배분, 이해 및 갈등 조정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문화 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운영 방식, 열린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시장 개입 등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거시경제 전환, 사업구조 변화, 정치 지형의 변동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혁신, 정부 역할 재조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과 비슷한 문화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의 주요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상당히 다른 문화 연구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지배 계층의 문화생산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능동적 주체인 노동자의 경험, 투쟁, 역사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캐나다는 영어권, 불어권, 원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변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노력의 맥락 속에서 문화연구가 이루어졌다. 호주는 원주민 문화와 식민지 유산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민자를 모두 융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문화연구의 큰 주제가 되었다. 이민자들이 세운 신생국 미국은 강한 다원주의 전통으로 인해 정치, 권력, 계급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에 집중하였다(정현철, 2015: 121-124). 흥미로운 점은 문화연구가 사회적 갈등 완화, 공동체 유지, 정체성 확보라는 공통점을 갖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을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2019년 호주는 예술부를 인프라·교통·지역 개발부서와 통합하였다.<sup>1)</sup>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체계의 고도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19년은 프랑스 문화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였다.<sup>2)</sup>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영국의 작가 시드니 스미스(Sydney Smith)는 “지구상의 누가 미국의 책을 읽거나 미국의 연극을 보러가겠는가? 누가 미국의 그림이나 조각을

1) 스코트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연방총리는 정부부처를 18개에서 14개로 감축하고 5개의 장관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 정부조직 변화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새로운 4개 부처의 출범과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청 단위 조직화를 그 골자로 함. 호주의 문화 부서인 커뮤니케이션 예술부(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인프라교통도시지역개발부(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C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와 합쳐져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로 통합함.

2) 프랑스 드골정부는 1958년 문화부 설립함.

감상 하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앨런 브링클린, 2005: 23).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미국의 문화예술을 소비한다. 미디어(영화, 드라마, 그래픽노블 등), 연극(브로드웨이 등), 미술(팝아트, 미디어아트 등), 건축(시카고파 등), 음악(컨트리, 재즈, 힙합 등) 등 미국이 만들어 내고 있는 문화예술은 어느 순간 장르가 되었다. 이런 극적인 변화의 동기와 이를 가능하게 한 동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이 연구의 고민과 닿아 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분석은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상향식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자연발생적 생활문화 육성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체계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예술 장착과 관련된 재산적 권리(저작권 등)의 중요성 인식,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예술 후원을 기본 축으로 하는 민간(시장) 중심의 지원방식 이해는 문화예술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기회를 문화예술계에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행정체계, 법, 제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 지방정부(주정부, 시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행정체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 및 제도, 거버넌스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 연방정부 내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기관, 행정부서를 정리하여 문화예술 행정체계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조직, 법률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미국 지방정부(뉴욕주 사례 분석 중심)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기관을 파악하여 문화예술 행정체계와 이를 구체화 하는 법률, 제도, 거버넌스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뉴욕주에 속해있지만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뉴욕시

에 대한 분석을 연계한다. 뉴욕시의 경우 문화예술정책과 시민들이 만나는 접점인 공공 문화시설 운영, 프로그램,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예술지원과 예술가, 시민이 어떤 상호작용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독립행정기구, NPO 간의 공공민간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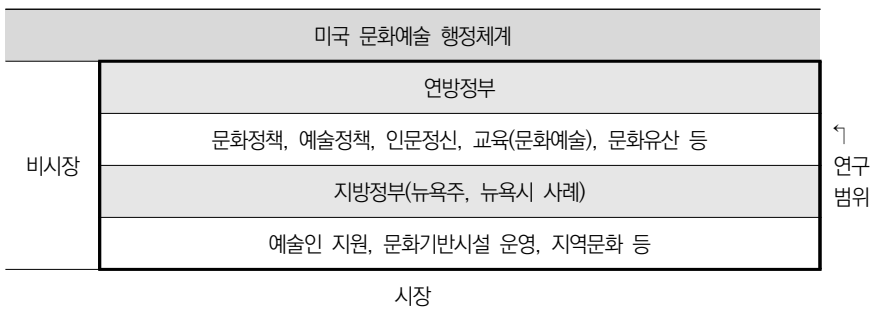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sup>3)</sup>’라는 대상적 범위와 ‘미국 연방정부 문화 예술정책’, ‘미국 지방정부(뉴욕주/뉴욕시 사례 포함) 문화예술정책’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적 범위는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문화 예술 행정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부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 조직, 법/제도, 업무내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행정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뉴욕주 및 뉴욕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부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 조직, 법/제도, 업무내용 등을 분석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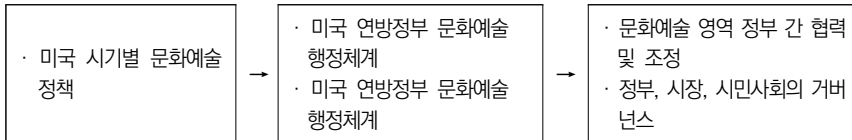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대상적 범위



3) 본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행정체계’는 문화예술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체계를 의미함. 이와 유사한 단어로 ‘행정체제’는 지방분권법 제2조(정의) 2항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에서 알 수 있듯 기능과 관련된 체계를 말함.

내용적 범위는 연방정부 문화예술 관련 정책 영역, 시기별 정책 내용, 정책 행위 주체 간 관계 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뉴욕주, 뉴욕시 사례)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 사업 및 거버넌스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관계와 행위주체별 협력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내용적 범위



##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 가.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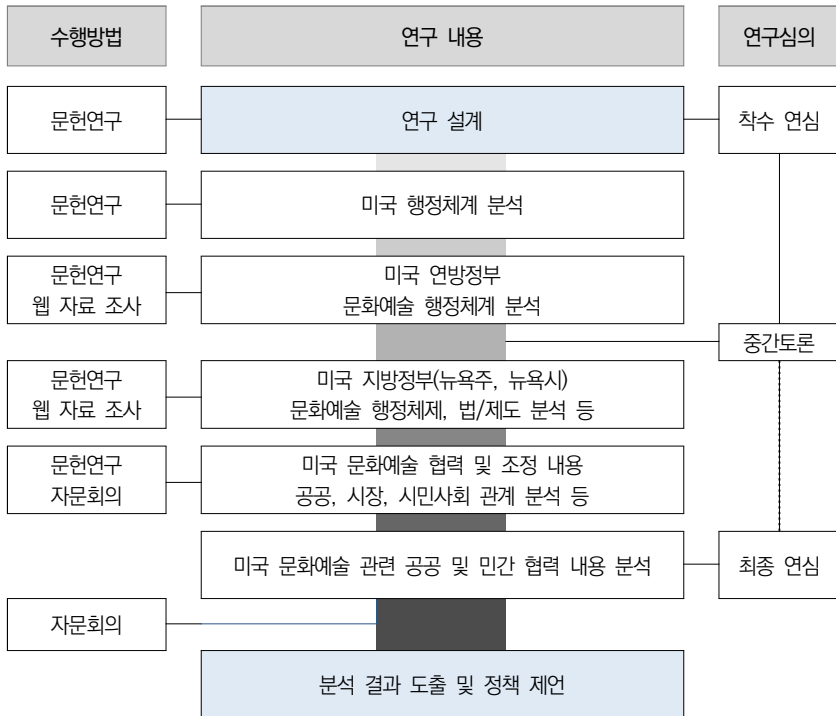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웹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다.

문헌 연구는 미국 문화예술정책 관련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미국 문화예술 관련 동향과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 논문, 언론 기사 등 다양한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에 대한 핵심 논점과 이슈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분석 프레임을 마련한다. 특히 미국 문화예술 관련 법률, 제도 등 문화예술 지원에 필요한 근거 조항의 분석을 포함한다.

미국 행정체계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 주정부의 모든 홈페이지를 페이지별로 방문, 분석하여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업무 내용 등을 찾고 정리한다.

전문가 자문은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 연수 등을 이수한 전문가와 국내 미국학 연구소에서 발간된 자료의 저작자들을 중심으로 섭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 수행방법 및 과정



## 나. 분석틀

미국은 연방국가다. 이는 여러 개의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합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정치체계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가치체계를 만들어 낸다. 이는 행정체계에도 적용되는데, 중앙과 지역이라는 개념을 희미하게 하였다. 즉, 미국은 중앙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직 여러 지방 또는 지역만 있다. 백악관이 있는 수도 워싱턴을 중앙이라고 하지 않고, 인구가 많다고 뉴욕, LA를 중앙이라고 하지 않는다(장석정, 2013: 9-10).

이런 특성은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 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연방정부 > 주정부 > 시정부 위계는 지극히 한국적 시각이다. 하지만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연구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4]와 같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각 정부는 위계의 단계가 아닌 역할 및 기능의 단위라는 점이다.

[그림 1-4] 연구 분석틀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제2장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와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 제1절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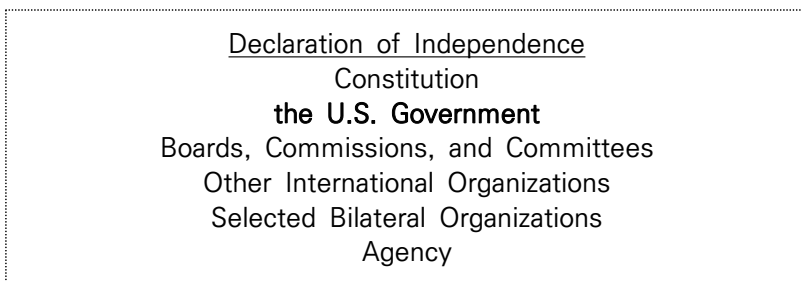
### 1. 미국 행정체제 이해

#### 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구성

##### 1) The United State Government

미국 정부는 독립선언과 헌법을 근거로 [그림 2-1]과 같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 영역인 행정부 조직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sup>4)</sup>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미국 정부 법통과 조직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백악관 비서실(White house office), 부통령실(Office of the vice President),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환경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관리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on), 행정

4) 내각(內閣, cabinet)은 행정부의 수반을 포함, 고위직의 요인들이 속해있는 그룹을 의미함. 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대통령이 내각의 수장이며 조각의 권한을 갖게 됨. 미국의 경우 장관회의라 하며, 이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함.

관리에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립마약통제정책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정책개발국(Office of Policy Development),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로 구성된다.

내각은 총 15개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D),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주택건설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재정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DOT),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조직은 부처(Department),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 공사(Government Corporation)로 구분되며, 미국 연방 부처급의 정부조직개편 권한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아닌 전적으로 의회에게 있다(김석은, 2017: 262). 참고로 1980년대 이후 2002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외에 연방 부처 단위의 개편이 없었다. 이는 미국 정부조직은 우리나라와 달리 단일 법률<sup>5)</sup>에 의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조직에 관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박종준, 201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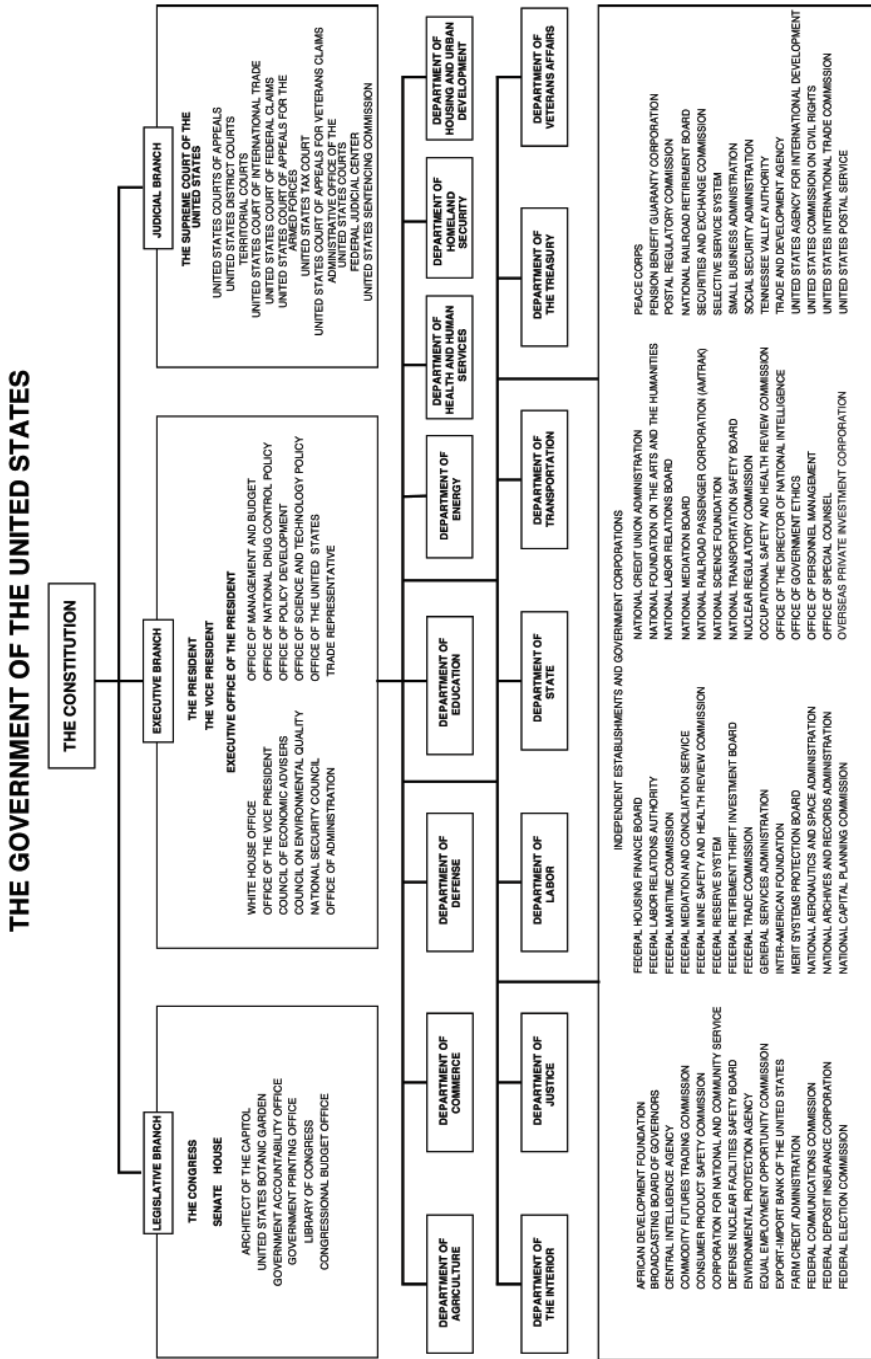
독립기관은 부처보다 업무의 영역이 좁고, 대체적으로 규제기능보다 봉사(service)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독립기관은 내각의 부처에 속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특정한 업무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규제와 진흥 업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역할 갈등이 생기기 쉽지만<sup>6)</sup> 미국 행정부의 경우 이런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런 독립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나 정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적이지는 못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5) 정부조직법(법률 제1738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6) 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유산 활용은 규제와 진흥의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2-2] 미국 정부 조직



## 2) 연방제와 권력 배분

미국은 연방제(Federal System) 국가다.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는 “본 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각 주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정부나 국민이 보유한 다(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고 적시하고 있다. 1776년 독립 이후, 1777년 대륙회의에서 연합규약을 채택하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55명의 대표들이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지며 상호 견제가 가능한 연방제도가 탄생하였다.

연방제도는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하위 지방정부들이 실질적 통치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박종준, 2017).

〈표 2-1〉 연방정부 주정부 간 권력 배분

| 구분            | 연방정부  | 공유된 권력   | 주정부  |
|---------------|---|--|--|
| 헌법에 의해 인정된 권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폐</li> <li>- 외교</li> <li>- 주간통상규제</li> <li>- 조세부과, 징수</li> <li>- 선전포고</li> <li>- 국대양성, 지원</li> <li>- 우체국 설치운영</li> <li>- 하급법원 설치</li> <li>- 주의 연방가입 승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부담·징수</li> <li>- 채무부담</li> <li>- 법률제정·집행</li> <li>- 법원 설치</li> <li>- 일반 사회복지 제공</li> <li>- 은행 및 회사의 설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내 통상규제</li> <li>- 선거관리</li> <li>- 공중보건, 안전, 도덕적 증진</li> <li>- 지방자치단체 설립</li> <li>- 헌법 수정 비준</li> <li>- 주방위군 설치</li> </ul>    |
| 헌법에 의해 금지된 권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거래에 대한 관세</li> <li>- 권리장전 침해</li> <li>- 주 경계변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위나 귀족칭호 부여</li> <li>- 노예제도 도입</li> <li>- 투표권 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부과</li> <li>- 조폐</li> <li>- 조약체결</li> <li>- 계약의무의 손상</li> <li>- 시민의 특권·면제권 침해</li> <li>- 법률에 의한 적정절차와 동등한 보호의 위반</li> </ul> |
| 함축된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과 법인체의 설립</li> <li>- 육·해·공군 사관학교 설립과 운영 권리</li> </ul>  |  |  |
| 고유의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추방</li> <li>- 탐사를 통한 영토취득</li> </ul>   |  |  |

자료: 박종준(2017), 이원희 외(2020) 내용 참조

연방제도는 통치 권력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삼권분립이 통치 권력의 기능적 분리를 의미한다면, 연방주의는 통치 권력의 지역적 분리를 말한다. 즉, 주정부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이며, 연방정부의 산하가 아니며, 헌법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표 2-1>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고유권한과 공유된 권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해 중앙정부에게 주어진 권리인 함축된 권한, 법원해석에 의해서만 중앙정부만이 갖는 권리인 고유의 권리를 보여주고 있다(윤광재, 2004: 5).

### 3) 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

연방정부는 세금의 부과, 전쟁의 선포, 군대소집, 화폐 및 차관, 주간 통상규제, 연방 재판소의 설치, 이민자들에 대한 귀화법규의 제정 등을 담당한다. 주정부는 경찰권 행사(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수행), 교육(고등교육은 주정부, 공립학교는 주정부 감독 하에 지방정부 담당), 사회 안보, 공중위생서비스(보건, 복지,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등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자치헌장(home rule charter), 선택헌장(optional charter), 특별헌장(special charter), 일반헌장(general charter), 분류헌장(classified charter) 등 헌장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 받는다(이현우, 2017: 2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배분의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2-2>와 같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기능이 한정된 특별목적 지방정부를 분류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직체로 존재(existence as an organized entity)해야 하고, 기능상 정부적 특징(governmental character)과 충분한 자율권(substantial autonomy)을 보유해야 한다(박용만, 2011: 23).

<표 2-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배분

| 구분   | 내용  |
|------|---|
| 연방정부 | 세금의 부과, 전쟁의 선포, 군대소집, 화폐 및 차관, 주간 통상규제, 연방 재판소 설치, 이민자들에 대한 귀화법규의 제정 등  |
| 주정부  | 경찰권: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공공의 풍기, 공공의 편익, 일반복지 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인신 상, 재산상의 권리 제한<br>공공서비스: 교육(고등교육은 주정부, 공립학교는 주정부 감독 하에 지방정부 담당), 사회안보(주방위군, 주경찰, 민간방위조직 등) 공중위생서비스(보건, 복지,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br>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주정부는 권고, 보고, 검사, 보조금,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도지원감독 |

| 구분       |                            | 내용   |
|----------|----------------------------|--|
| 지방<br>정부 | 주헌법<br>및<br>자치현장           | 세금징수, 도시계획, 주택 및 도심재개발, 고속도로 및 기타 도로 관리, 대중교통, 상하수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범죄인 기소 및 치안 등 경찰 서비스, 도로관리, 초·중등 교육 등   |
|          | 카운티<br>정부<br>(county)      |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사법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도로, 농업원조,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공원, 레저시설 관리, 도서관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이양 사무 계획 등<br>※ 단, 주정부 별로 카운티에 이양하는 사무 상이<br>- 뉴잉글랜드주: 법집행,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세징수자산평가, 사회복지 등<br>- LA카운티: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일괄적인 지방공공서비스 구매 |
|          | 뮤니시펄<br>리티(mu-<br>nicipal) | 상하수도, 보건 위생, 도로, 경찰, 소방, 교육, 복지, 도시계획, 휴양, 시립 기업, 교통 등   |
|          | 기초자치<br>정부<br>(Town)       | 소방, 경찰, 교육, 위생,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항관리, 주차장, 도서관 서비스, 매립쓰레기 처리, 상수원 공급서비스 등<br>※ 단, 주정부 별로 기초자치정부에 이양하는 사무 상이<br>- 뉴잉글랜드 지방: 소방, 경찰,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
|          | 특별구                        | 전기 공급, 경찰서비스, 하수처리와 위생서비스, 도시가스공급, 소방, 주택, 공원, 대중교통서비스 등   |
|          | 교육구                        | 공립학교 관련 사무   |

출처: 이현우(2017)

## 나. 법체계

### 1) 개요

미국의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법이 행정체계에서 갖는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 법의 개괄적인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정부의 구조는 명확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미국법제도는 법원(sources of law)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셋째, 미국법제도는 이러한 법원의 하나로 판례법이 있다는 특징, 일정한 경우 판례법은 ‘선례구속의 원칙(Rule of Stare Decisis)<sup>7)</sup>’에 의하여 준수한다. 넷째, 미국의 당사자소송체계로 인한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토니 예거 파인, 2016: 3-4)

연방헌법은 최고법이며 다른 모든 제정법의 상위에 있는데 Marbury v. Madison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합중국 헌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은 연방법과 주법의 다른 모

7) 사법부의 판결이 그 이후에 제기되는 동일한 법률 문제와 유사한 사실관계가 관련된 사건에서 구속을 가하도록 하는 방침을 말함.

든 법원에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8)</sup>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효력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으나, 연방 법률과 동등하다(미국 수정헌법 제6조).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지만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 법률은 미국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기 때문에 주법은 연방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일 사항에 관하여 동시에 연방 법률과 주법률이 제정된 경우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sup>9)</sup>에 의하여 연방법이 우선효를 갖는다. 연방행정부의 각 기관들의 법령, 규칙 및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은 주법에 우선한다.

미국법은 영국에서 형성·발전된 보통법 체계(Common Law)<sup>10)</sup>를 계승하여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판례는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이며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법관은 상급법원 또는 동급법원에서 먼저 내린 판결을 법규범의 하나로서 동일·유사한 내용을 가진 재판에 적용해야 한다. 미국의 각 주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한 주의 헌법은 다른 주법에 우선하나 연방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다.

영미법계에 속하는 미국에서 장래 다른 동급 또는 하급법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가진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는 기존의 판결에 구속되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인 ‘선례구속의 원칙’은 중요한 법원칙이다.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하급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유사하게 각 주 최고법원의 판결은 각 주 하급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 법원들은 선결례를 통하여 판례를 형성하여 왔고, 특별히 이러한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결정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선례가 유지되지만, 선례가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의해 선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은 선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선례 대신 공평, 공서양속, 법률적 논거에 의해 판결을 하게 된다.<sup>11)</sup>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도 제정법은 존재하지만 이의 적용과 운용에 있어

8)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9) 미국 수정헌법 제6조는 “헌법과 조약을 포함한 미합중국 법률은 이 나라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 된다.”고 규정함.

10) 일반적으로 대륙법을 뜻하는 civil law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법 체계가 법원의 판례가 제1차적 법원(法源)인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반면 대륙법 체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1차적 법원(法源)인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11) 이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는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임. 연방대법원은 백인과 흑인 분리정책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분리교육시설의 존재는 합헌이라는 종전의 판례를 파기한 바 있음.

서도 선례구속의 원칙이 유지되므로 제정법은 판례법을 보완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고 의회가 선례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게 된다.(김범준, 2010: 189)

## 2) 헌법

미국 헌법 전문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헌법을 제정한다.”<sup>12)</sup>고 선언하면서 제1조 입법부, 제2조 행정부, 제3조 사법부, 제4조 주 상호간의 관계, 제5조 헌법수정 절차, 제6조 국가 지고성, 제7조 헌법 비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3>과 같다.(이원희, 2020: 25)

<표 2-3> 헌법과 권리장전의 요약

| 헌법(US Constitution) |   | 권리장전(Bill of Right) |  |
|---------------------|---|---------------------|--|
| 전문                  |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 수정 제1조              |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
|                     |   | 수정 제2조              | 무기 소장, 휴대할 권리                              |
|                     |   | 수정 제3조              | 개인 주거지 내에 군대 숙영 금지                         |
| 제1조 (입법부)           |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의회 선출방식과 의회의 권한에 대한 규정   | 수정 제4조              |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 제2조 (행정부)           |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 임기, 선출방식, 권한과 의무에 대한 규정  | 수정 제5조              | 피의자 권리보장, 이중처벌 금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
| 제3조 (사법부)           |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설치 및 권한에 대한 규정   | 수정 제6조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소 내용과 근거에 관한 통고 받을 권리 |
| 제4조 (주정부)           | 주정부 간의 상호신뢰와 신용, 연방정부와 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규정   | 수정 제7조              | 민사재판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제5조 (헌법수정)          | 헌법 수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수정 제8조              | 과다한 보석금이나 벌금 금지, 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 금지          |
| 제6조 (국가의 지고성)       | 헌법과 연방법을 최고법임을 선언, 연맹규약 하의 채무와 조약은 본 헌법에서도 연방정부에 대  | 수정 제9조              |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을, 시민이 가지고 있            |

12) 법무부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1=1&AST\\_SEQ=1061&CTS\\_SEQ=28071](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1=1&AST_SEQ=1061&CTS_SEQ=28071)

| 헌법(US Constitution) |                           | 권리장전(Bill of Right) |   |
|---------------------|---------------------------|---------------------|---|
| (至高性)               | 한 효력을 가짐.                 |                     | 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 제7조<br>(헌법인준)       | 9개 주의 비준절차 후 헌법의 효력이 발생함. | 수정<br>제10조          | 본 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거나, 각 주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정부나 시민이 보유한다. |

출처: 이원희 외(2020: 25)

### 3) 법률

미국 법률을 알기위해 미국의 법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법의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은 크게 1차적 법원(法源, primary sources of law)과 2차적 법원(secondary sources of law)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법원은 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 판례법, 관습법 등 법적 구속력(legal authority)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차적 법원은 법에 관한 설득적 효력(persuasive authority)을 가진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학 논문집, 법재록(Restatements of the Law), 법률 백과사전 등 제정법과 판례법의 발견과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김범준, 2010: 194-195). 이런 1차 법원들은 연방헌법(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조약(Treaty), 연방법률(Federal Statutes), 연방규칙·행정명령(Federal Regulations), 판례(Cases), 주헌법과 법률(State Constitutions & Statutes), 지방조례(Ordinances)로 구분할 수 있다.

법(法)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Law는 법을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이며, 구체적으로 Constitution은 헌법, Code는 법률, 법전의 의미로 사용되며, Act는 법률, 입법부의 조치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Statute는 법률이란 의미이지만, 법률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sup>13)</sup> 즉,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은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을 말하며,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미국법전(U.S.C.)은 제1편 총론, 제2편 의회, 제3편 대통령, 제4편 국기, 제5편 정부조직법, 제7편 농업, 제8편 외국인과 국적법, 제9편 중재법, 제11편 파산법, 제12편 은행법, 제14편 해안경

13) Treaty: 조약, Ordinance: 조례, Rule and Regulation: 규정, Order/Judgement/Decree: 명령, 결정, 판결을 말함.

비, 제15편 상법, 제16편 보존법, 제17편 저작권법,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0편 교육법, 제23편 고속도로법, 제29편 노동법, 제35편 특허법, 제39편 우편법, 제45편 철도법, 제46편 선박법, 제49편 교통법, 제50편 전쟁법, 제51편 국영 또는 민간의 우주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20편 교육법 안 CHAPTER 26에 인문학과 예술의 지원과 장학, 박물관 서비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조문 체계가 편(編), 장(章), 절(節), 관(款), 조(條), 항(項), 호(號), 목(目)을 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법조문 체계는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 > Clause > Subclause > Item > Subitem의 순서이다.

## 2.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 가. 미국 문화예술정책 개요

#### 1) 미국 문화예술정책 대상

1969년 유네스코의 모나코 문화정책 원탁회의(Monaco Round Table on Culture Policies)에서 미국 정부는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문화적 지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의 보장에서 드러나듯이 예술과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정철현, 2015: 237). 이민자들로 구성된 문화적 수용태도와 이런 헌법 정신은 유럽 귀족 계급의 후원 방식인 후원자의 취향에 따른 장르별 지원방식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경향성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정책 현황이 정리된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문화정책 및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Compendium<sup>14)</sup> cultural policies & trends”<sup>15)</sup>에는 최신 43개 국가<sup>16)</sup>의 문화정책의 내용이 정리되어

14) Compendium: 개요, 요약, 개론

15) <https://www.culturalpolicies.net/>

16)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Holy See(바티칸),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있지만 미국 문화정책과 관련된 현황은 참고할 수 없었다.

미국 문화예술정책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법률인 “인문학 및 예술 분야의 지원과 장학, 박물관 서비스 법”<sup>17)</sup>은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예술이란 음악(기악과 성악), 무용, 연극, 민속 예술, 창작, 건축과 유관 분야, 회화, 조각, 사진, 그래픽과 공예, 산업디자인, 의상과 패션 디자인,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녹음 및 녹화, 발표와 관련된 예술, 공연, 제작, 이와 유사한 예술 형태의 전시, 미국 내 다양한 부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전통예술, 인류 환경에 예술을 적용하는 연구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sup>18)</sup> 이를 통해 보면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정신활동은 모두 예술로 볼 수 있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미국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 커리큘럼 검토

미국의 문화예술정책을 유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 대학의 문화정책, 예술 경영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주요 대학인 NYU, 오하이오대, 플로리다대, 카네기멜론대, 콜롬비아대, 예일대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정책 과목은 지역사회, 컨벤션 및 이벤트, 페스티벌, 관광, 디지털, 다양성 등과 같은 연관 영역과 함께 학습,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표 2-4> 미국 대학의 문화정책, 예술경영 대학원의 교육과정 비교

| 구분   | 학교명                                | 과정명                                    |
|------|------------------------------------|--|
|      | 커리큘럼 중 문화예술정책 관련 과목(일부 발췌)         |  |
| 문화정책 | New York University <sup>19)</sup> |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 program |

17) 20 U.S. Code CHAPTER 26—SUPPORT AND SCHOLARSHIP IN HUMANITIES AND ARTS; MUSEUM SERVICES

18) The term “the art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music (instrumental and vocal), dance, drama, folk art, creative writing, architecture and allied fields,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y, graphic and craft arts, industrial design, costume and fashion design, motion pictures, television, radio, film, video, tape and sound recording, the arts related to the presentation, performance, execution, and exhibition of such major art forms, all those traditional arts practiced by the diverse peoples of this country.[1] and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the arts to the human environment.

| 구분         | 학교명  | 과정명                                    |
|------------|--|--|
|            | 커리큘럼 중 문화예술정책 관련 과목(일부 발췌)   |  |
| 중심         | Law and the Performing Arts 법<br>Seminar: Issues in Cultural Policy 문화정책 이슈<br>Audie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지역사회<br>Cultural Tourism in the Arts 문화관광  |  |
|            | The Ohio State University <sup>20)</sup>   | Arts Administration program            |
|            | Cultural Policy 문화정책<br>Art Museum Education 예술박물관교육<br>Museum Basics 박물관 기초<br>Convention Services and Events Management 컨벤션 및 이벤트<br>Business and Legal Issues in Art 경영 및 법<br>Media Design 미디어 디자인                           |  |
|            | Florida State University <sup>21)</sup>  | Arts Administration program            |
|            | Arts in Community Engagement 지역사회<br>Cultural Policy 문화정책<br>Art Museum Education 예술교육<br>Convention Services and Events Management 컨벤션 및 이벤트<br>Business and Legal Issues in Art 경영 및 법<br>Media Design 미디어 디자인                 |  |
|            |  |  |
| 예술경영<br>중심 | Carnegie Mellon University <sup>22)</sup>  | Master of Arts Management program      |
|            | Arts Enterprises: Management and Structures 예술기업<br>Arts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PR<br>Law and the Arts 법<br>Sponsorships and Grants 후원과 보조금(예산)<br>Museum Operations OR Presenting Performing Arts & Festivals 페스티벌      |  |
|            | Columbia University <sup>23)</sup>   | Theatre Management & Producing program |
|            | International Touring & Festivals 관광 및 페스티벌<br>Not-for-Profit Producing Partnerships 비영리단체 파트너십<br>Digital Producing 디지털 작업<br>Critical Issues in Theatre Producing:<br>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the Arts 다양성, 형평성, 포용 |  |
|            | Yale University <sup>24)</sup>   |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 program |
|            | Environment of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 예술행정환경<br>Law and the Performing Arts 법 관련<br>Financial Accounting 금융회계  |  |

19) <https://steinhardt.nyu.edu/degree/ma-performing-arts-administration/curriculum>

20) <https://aaep.osu.edu/academics/arts-policy-administration>

21) <https://music.fsu.edu/programs/arts-administration>

22) <https://www.heinz.cmu.edu/programs/arts-management-master/right-for-me>

23) <https://arts.columbia.edu/theatre/management-producing>

24) <https://www.drama.yale.edu/about-us/david-geffen-announcement/>

### 3) 우리나라의 미국 문화예술정책 영역 연구

미국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구자료 매우 드물게 확인할 수 있었다. 최보연(2016)의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 연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4개국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예술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인 국립예술기금(NEA), 주립예술진흥위원회(NASAA), 전미예술연합회(AFTA)를 주요 조직으로 다루고 있었다. 양혜원(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는 영국, 프랑스, 미국을 다루고 있었으나, 미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배관표 외(2021)는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한국의 문화행정 기능을 문화, 예술, 관광, 미디어, 공보, 문화유산, 문화산업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비교행정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주무 부처를 없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소속 많은 부처, 부서들이 문화, 예술, 체육, 미디어, 공보, 문화유산, 문화산업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5〉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 담당 국가기구        | 문화 | 예술 | 관광 | 체육 | 미디어 | 공보 | 문화유산 | 문화산업 | 비고 |
|----------------|----|----|----|----|-----|----|------|------|----|
| 연방의회 도서관       | ○  | ○  |    |    |     |    | ○    |      |    |
| 스미스소니언재단       | ○  | ○  |    |    | ○   |    | ○    |      |    |
| 의회 청사단지 건축감처   |    |    |    |    |     |    | ○    |      |    |
| 국무부            | ○  | ○  |    |    |     | ○  | ○    |      |    |
| 내무부            | ○  |    |    |    |     |    | ○    | ○    |    |
| 교육부            | ○  | ○  |    |    |     |    |      |      |    |
| 상무부(국가통신정보청)   |    |    |    |    | ○   |    |      |      |    |
| 노동부            | ○  |    |    |    |     |    |      |      |    |
| 연방통신위원회        |    |    |    |    | ○   |    |      |      |    |
| 국가기록보관기록청      |    |    |    |    |     |    | ○    |      |    |
| 국제종교자유위원회      | ○  |    |    |    |     |    |      |      |    |
| 공공방송공사         |    |    |    |    | ○   |    |      |      |    |
|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     | ○  |    |    |    |     |    | ○    |      |    |
| 미국글로벌미디어청      |    |    |    |    |     | ○  |      |      |    |
| 국립예술기금         |    | ○  |    |    |     |    |      |      |    |
| 역사 보존 관련 자문위원회 |    |    |    |    |     |    | ○    |      |    |
| 미국전투기념물위원회     |    |    |    |    |     |    | ○    |      |    |
| 국가수도계획위원회      |    |    |    |    |     |    | ○    |      |    |

| 담당 국가기구            | 문화 | 예술 | 관광 | 체육 | 미디어 | 공보 | 문화유산 | 문화산업 | 비고 |
|--------------------|----|----|----|----|-----|----|------|------|----|
| 미국미술위원회            |    |    |    |    |     |    | ○    |      |    |
| 백악관 종교기능 담당 조직     | ○  |    |    |    |     |    |      |      |    |
| 대통령 스포츠, 건강, 영양위원회 |    |    |    | ○  |     |    |      |      |    |

출처: 배관표 외(2021)를 수정하여 재작성

특기할 만한 점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주무부처가 없음에도 내무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국무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을 비롯한 다수의 부처가 협력을 하고 있었다. 스미스소니언재단은 문화예술정책 영역 거의 대부분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기능인 관광정책과 체육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기구는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배관표 외(2021)가 작성한 기존의 내용에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면 <표 2-5>과 같다.

## 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비교

### 1) 한국 문화예술정책

행정안전부(2016)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 체계 현황<sup>25)</sup>을 살펴보면, 정부 기능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산업·통상·중소기업, 재정·세제·금융,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환경, 국방, 교통 및 물류, 지역개발, 농림, 문화체육관광, 통신, 통일·외교, 보건, 해양수산 총 17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관련 항목은 문화체육관광이며, 일반공공행정, 교육, 과학기술, 지역개발 등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실질적 접근으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와 체육부와의 통폐합, 구 교통부의 관광 업무 흡수, 그리고 언론 관련 업무 또 종교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업무 내용은

25)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 체계 현황(2016년)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aff4teiWflbjcBuXpTF0yaHArhM87hTv1FwGXf4V9aQlx0kB9H5nok57zRSWlq1t.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15&nttlId=56952](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aff4teiWflbjcBuXpTF0yaHArhM87hTv1FwGXf4V9aQlx0kB9H5nok57zRSWlq1t.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15&nttlId=56952)

〈표 2-6〉와 같다. 문화예술영역은 문화정책, 예술정책, 지역문화정책으로 구분하였고, 범문화 영역으로 중무,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국민소통, 체육, 관광을 포함하고 있다.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업무(홈페이지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      | 업무   |
|------------|------|--|
| 문화예술<br>영역 | 문화정책 |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인문정신문화, 문화교류, 국어정책, 전통문화, 국제문화, 문화분야 ODA, 국제협력                                  |
|            | 예술정책 |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 기부, 공연 예술창작 유통체계, 일상 속 문화가치 확산,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예술교육, 문학, 문학번역, 공연예술, 전통예술, 시각예술디자인 |
|            | 지역문화 | 여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 범문화 영역     |      | 중무,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정책, 국민소통, 체육, 관광  |

정홍익 외(2008: 123)는 문화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현재 문화의 영역은 좁게 보는 경우 중앙부처 통폐합 전의 문화부 업무로 i)문화재를 비롯해 ii)생활문화(취미·여가생활, 청소년 문예 등), iii)지역문화, iv)조형미술(회화, 조각, 공예, 건축, 디자인, 환경미술 등), v)공연예술(음악, 국악, 연극, 무용, 연예 등), vi)문학, vii)영화, viii)음반, ix)영상 음반, x)도서 출판, xi)국어와 구사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문화재와 일반적으로 예술로 불리는 분야들, 국민의 교양 활동, 예술산업, 그리고 국어 다섯 분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문화재(문화유산)를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람(2017)은 문화행정의 영역을 문화재, 문화산업(게임 등)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문화재로 구분하였다. 또 배관표 외(2021)는 한국의 문화행정 기능을 문화, 예술, 관광, 미디어, 공보, 문화유산, 문화산업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문화예술정책 영역의 비교

| 문화체육관광부<br>업무 영역               | 정홍익 외(2008)<br>문화정책 영역             | 정보람(2017)<br>문화행정 영역            | 배관표 외(2021)<br>문화행정 영역                            |
|--------------------------------|------------------------------------|---------------------------------|---|
| 문화정책<br>예술정책<br>지역문화<br>범문화 영역 | 문화재<br>예술<br>국민 교양활동<br>예술산업<br>국어 | 문화예술<br>문화산업<br>관광<br>체육<br>문화재 | 문화<br>예술<br>관광<br>체육<br>미디어<br>공보<br>문화유산<br>문화산업 |

## 2) 미국 문화예술정책

한국과 미국(연방정부, 지방정부 포함)의 문화예술정책은 기본체제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양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통일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심지어 미국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문화예술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sup>26)</sup> 하지만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제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국 문화예술 영역을 기준으로 미국 문화예술정책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만, 미국 문화예술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접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영역을 미국 법(US Code)을 기준으로 하면 예술과 인문학의 진흥, 국제문화교류(공공외교),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호,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확대, 고유문화(인디언, 하와이언, 알래스카인의 예술, 문화), 예술교육 영역 등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2-8>과 같다.

<표 2-8> 미국 문화예술정책 영역

| 구분                          | 관련 법률  |
|-----------------------------|--|
| 예술, 인문 진흥<br>박물관미술관         | - SUPPORT AND SCHOLARSHIP IN HUMANITIES AND ARTS; MUSEUM SERVICES (§§ 951 - 960)   |
| 국제문화교류                      | -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 2460)  |
| 문화유산, 경관 보호                 | - 16 U.S. Code CONSERVATION  |
| 문화기반시설                      | - 20 U.S. Code CHAPTER 72—MUSEUM AND LIBRARY SERVICES  |
| 고유문화(인디언,<br>알래스카인 등)       | - 25 U.S. Code INDIANS<br>- AMERICAN INDIAN, ALASKA NATIVE, AND NATIVE HAWAIIAN CULTURE AND ART DEVELOPMENT (§§ 4401 - 4451) |
| 예술교육                        | - Access to the arts through support of education (§ 954a)   |
| 헌법, 세법, 저작권법, 통상법에 의한 간접 지원 |  |

26) 김정훈 워싱턴한국문화원장과 온라인 인터뷰 내용(2021.8.28.)

## 제2절 미국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제2장 제2절에서는 미국 시대별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미국 사회는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 복잡적이다. 미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비슷하다. 이런 미국 사회·문화의 복잡성은 한편으로는 인종·민족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되지만, 지역 간 다양성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이현송, 2020: 191).

시대별 문화예술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가치, 핵심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 인종, 민족, 지역성 등과 문화예술의 장르, 예술적 행위 등이 만들어 낸 결과가 지금 미국 문화예술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미래인력연구원, 2004: 47). 미국인들은 독립성, 프로테스탄트 윤리,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제도를 발전시켰다. 미국 시대별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9〉 미국인이 공유하는 핵심 아이디어들

| 아이디어                        | 내용  |
|-----------------------------|---|
| 독립성(Independent)            | - 독립선언;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개인의 권리  |
| 프로테스탄트 윤리                   | - 소명의식<br>- 부지런함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br>- early to bea, early to rise, make a man healthy, wealthy and wise<br>- Can-do ideology<br>- 개인의 책임 및 통제(control) |
| 아메리칸 드림<br>(American Dream) | - 미국 개인주의의 핵심<br>- 성공과 개인의 이해를 조함-개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개인이 최대한 성공하는 것<br>- 개인의 만족<br>- Feeling good   |

출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미래인력연구원(2004)

## 1. 대공황과 뉴딜 정책 : 정부의 예술지원 시도(1930년대)

### 가. 표현의 자유: 미국 예술분야의 핵심 기조

미국의 예술정책 또는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근간이 되는 헌법은 바로 수정 제1조(the First Amendment)로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 종교, 집회 등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하여 미국의 예술정책 모델은 민간 주도의 시장논리에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간접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영국 예술위원회(British Arts Council)의 기본 원칙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영향도 일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Wyszomirski, 2004: 469-484). 정부 예술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외국의 예술정책 모델로부터 정부의 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신념에 확인을 받은 셈이었다.

### 나. 공공예술지원에 대한 정책철학

미국의 예술정책은 담당 정부부처의 미설치로 인해 통상적인 정책 계획이나 실행 체계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실제 공공지원금 분배의 방향과 전략이 사실상의 정책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간접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미국 예술정책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철학적인 배경 또한 공공예술지원 또는 정부의 예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당시 정치철학 또는 담론을 통해 접근과 통찰이 가능하다.

역사적 정치철학 및 담론 가운데 크게 보수주의적 접근(Puritan), 자유의지론적 접근(Jeffersonian), 그리고 잭슨주의(Jacksonian) 민주주의 철학 접근과 연결지어 예술정책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교도적 전통으로 보수주의 관점에서 예술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인간의 정신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자유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공공의 선이나 도덕성을 해치는 예술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려운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후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한 자유의지론적 관점에서는 자연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 개인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사람이 세상을 재창조 및 형성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실용적 예술(useful arts)을 지지하였다. 잭슨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



의의 질이 그 사회 시민들의 수월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인식하는 예술은 시민의 덕목을 형성하고, 예술교육을 사회화 과정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았다.

정치철학의 변천에 따른 세 가지 예술에 대한 인식 또는 예술정책철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공공예술지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로 이후 언급될 문화전쟁을 비롯하여 공공지원을 위한 예술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해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 다. 뉴딜 정책: 경기부양책으로 시작된 정부 예술지원

이처럼 법제도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는 국민 정서를 배경으로 미국에서 공공 예술지원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술가의 생존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1934년 당시 루스벨트(Roosevelt, 1933~1945) 행정부에서 구제정책을 담당했던 해리 홉킨스는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인 ‘공공예술 프로젝트(Public Works of Art Project, PWAP, 1933~34)’를 발표했다. PWAP 사업은 공공예술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시행 첫 4개월 동안에 3,749명의 예술가를 정부가 고용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무부 산하에 설치된 예술 관련 행정분과(the Section of Painting and Sculpture, 1934~42)와 이곳에서 운영한 국고구제예술지원사업(Treasury Relief Arts Project, TRAP, 1935~48), 연방예술사업(Federal Art Project, 1935~1943)도 시행되었다(US Library of Congress, n.d.<sup>27)</sup>).

1930~1940년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된 공공예술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자 예술가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 뉴딜정책 시행기관이었던 ‘공공사업추진국(Work Progress Administration, WPA)’은 음악, 미술, 문학, 극작품 등의 다양한 예술장르의 전문예술인들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1935~1943년 동안 고용된 예술가들은 정부청사, 학교, 우체국, 도서관, 지역회관, 국립공원 등의 공간에 그림,

27) “New Deal Programs: Selected Library of Congress Resources,”  
<https://www.loc.gov/rr/program/bib/newdeal/fap.html>

벽화, 조각, 건물 장식 등을 제작 및 납품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후 1960년대 등장한 NEA를 통한 공공예술지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정부가 예술가를 직접 지원했다는 사실은 그간 경계되었던 공공지원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 계기로 해석된다.

## 2. NEA 설립과 예술지원 범위의 확대(1960년대)

### 가. 국립예술기금(NEA) 설립

예술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예술지원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예술지원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시도가 반복된 이후에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실제로 1879~1963년 사이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책입안자, 문화예술 전문가 등의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12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2-10>. 그 중, 1859년 뷰캐넌(Buchanan) 대통령이 국립예술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해 위원 임명과 같은 직접적인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1964년에 이르러서야 국립예술기금(NEA)의 운영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Arts, NCA)가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65년에 마침내 NEA가 설립되었다. 비록 NEA의 설립 목적이 미국의 예술정책 수립은 아니었으나, 기관 운영과정에서 이행하는 국고의 재분배(SAAs & LAAs)와 지원사업 운영 및 적용기준을 통해 실상 미국의 예술정책을 실행하는 기능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Urice, 2003).

〈표 2-10〉 국립문예기관 설립관련 정책 추진의 연대적 개관

| 연도    | 주요 내용  |
|-------|--|
| 1788년 | 워싱턴 대통령(President Washington)은 국가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에 있어 예술의 중요성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언급한 바 있음   |
| 1826년 | 당시 미국 미술 아카데미(the American Academy of Fine Arts)의 학장이었던 존 트럼불(John Trumbull)이 예술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제안서("A Plan for the Permanent Encouragement of the Fine Arts by the National Government")를 대통령에 제출 |
| 1846년 | 미 의회의 10년간의 심의 끝에 스미소니언 재단(the Smithsonian Institution)이 설립  |

| 연도                         | 주요 내용  |
|----------------------------|--|
| 1859년                      | 뷰캐넌 대통령(President Buchanan)이 국립 예술 위원회 설립을 위해 위원들을 임명함. 그러나 미 의회가 추가적인 예산안 제출 및 적절한 추후 조치를 하지 않아 2년 후 해체됨  |
| 1880년                      |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설립  |
| 1897년                      | 국립 미술 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립 예술 사무소(National Office of the Arts) 발족에 대한 제안서를 의회에서 발표, 1910년 태프트 대통령(President Taft)이 법안에 서명하여 미술 위원회(the U.S. Commission of Fine Arts)가 설립됨 |
| 1934년                      |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의하여 미국 역사상 첫 예술 관련 행정 분과인 재무부 소속 미술 및 조각품과(the Section of Painting and Sculpture)를 설치함   |
| 1955년                      |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건교육부(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산하 예술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ssion on the Arts) 설립을 제안하여 상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1956년 하원 교육·노동 위원회에서 연기되었음      |
| 제85대 의회<br>(1957<br>~1959) | 몇몇 상원의원들 (Senator Smith of NJ, Senators Humphrey, Douglas, and Javits)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한 법안을 제안했으나 일축됨<br>의회에서 워싱턴 디씨에 국립공연예술극장(현 케네디 센터) 건립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 1962년                      | 케네디 대통령이 제87대 의회에서 예술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ssion on the Arts) 설립을 중용   |
| 1963년                      |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와 국립예술재단(National Arts Foundation)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제88대 의회 1차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두 의건 모두 상원을 통과함                                       |
| 1964년                      | 제88대 의회 2차 회의에서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얻고, 존슨 대통령이 법안(Nation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 Public Law 88-579)에 서명함으로써 국립예술위원회가 설립됨                                     |
| 1965년                      | 국립예술기금과 국립인문기금 설립을 위한 국립인문예술재단 법안에 존슨 대통령이 서명함. 이에 따라 1965년에 국립예술기금이 설립됨   |

출처: 최보연(2016: 143-144) 수정

자료: NEA(1965).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rts:1964-1964."; NEA(200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 History 1965-2008." 그리고 John K. Urice(2003), "Three Contemporary Reports That Influenced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 Retrospective",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참조.

## 나. 예술 개념과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의 변천

공공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에 대한 정의 및 범주가 1950년대 이후 점차 확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엘리트주의 예술에서 아마추어 예술을 포함한 참여 중심의 예술, 즉 문화 민주주의 방향으로 미국 예술정책이 변모하는 과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위조미어스키(Wyszomirski, 2004)는 1953년<sup>28)</sup>, 1963년<sup>29)</sup>, 1997<sup>30)</sup>년에 각각

28) The 1953 Report of the Commission of Fine Arts on "Art and Government" requested by President Harry Truman.

29) The 1963 report to President John F. Kennedy by August Heckscher on "The Ar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작성된 보고서를 문헌 분석하여 연방정부의 공공예술지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변천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연방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할은 우선 민간단체와 개인이 예술 창작활동과 지원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둘째로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지역 정부(local government) 또는 기초 지자체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Wyszomirski, 2004: 478). 이처럼 연방정부의 역할은 분권화, 민간활동 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조율하는 기능이 기대되고 있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술의 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나타난 특징은 예술정책의 범위 확대로도 해석 가능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술에 대한 태도가 문화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각 보고서에 담긴 예술에 대한 정의이다.

- 1953년 보고서: 건축, 회화, 조각, 조경술, 박물관, 디자인을 포함한 순수예술
- 1963년 보고서: 순수예술 및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건축과 관련 분야, 디자인, 공예,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단, 전문 예술가와 비영리 예술단체에 의해 제작 및 창작된 작품에 한함.
- 1997년 보고서: 인간의 창의성이 표현된 모든 형태의 예술 - 아마추어, 비영리와 상업(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산업) 영역, 다양한 민족공동체의 문화유산 모두

### 3. 진보와 보수의 갈등 : 문화전쟁(1990년대)

예술에 대한 정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예술가들과 NEA, 그리고 보수주의 정치 진영 및 종교단체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함축될 수 있는 1990년대 미국 문화전쟁(Culture Wars)의 중심에는 바로 예술의 ‘품위(decency)’가 자리하고 있었다(Bedoya, 2004).

---

30) The 1997 report from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on "Creative America."

1977년 숙련된 정치전략가이자 의회와 언론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유지했던 낸시 행크스(Nancy Hanks) 의장이 NEA의 임기를 마치고 떠난 이후, NEA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때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한때는 엘리트주의 예술에 과도한 지원(대개 뉴욕, LA와 같은 도시지역)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때는 대중적인 성향(populism)으로 편중 지원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DiMaggio & Pettit, 1999).

이러한 가운데 외설과 신성모독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 전시에 NEA 지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드러나면서 NEA는 예산 삭감과 존폐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7년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한 현대미술관(Southeastern Center for Contemporary Arts)에서 안드레스 세라노의 작품을 전시했다. 문제는 전시한 작품 중 하나가 〈오줌 예수(Piss Christ)〉으로 해당 전시에 NEA의 지원금 일부(15,000달러)가 사용된 것이었다. 해당 지원금은 세라노의 전시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미술관에 수여된 매칭 지원금이었음에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NEA는 외설작품을 전시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가책 기관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듬해인 1988년 동성애를 주제로 한 사진전<sup>31)</sup>에도 NEA의 지원금이 간접 사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보수 시민단체와 의회는 NEA의 존립과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예술지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연이은 NEA의 예술지원에 대한 논란은 1990년 NEA 예산 삭감과 총 예산 중 주정부 예술기관(SAAs)에 책정할 예산 비율을 20%에서 27.5%로 늘리는 내용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1993년과 1994년에도 적은 규모지만 NEA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1995년 공화당이 더 많은 의회가결권을 가졌을 시기에는 NEA 해체를 우선순위에 놓았으며, 큰 폭의 예산 삭감(162,000,000달러에서 99,000,000달러로)을 감행하였다(DiMaggio & Pettit, 1999).

흥미롭게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예술가들과 연합단체(National Association of Artists' Organizations)가 NEA를 지키는데 내세운 근거는 바로 미국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였다. 예술가들 역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의 작품은 자유로운 표현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었다(Bedoya,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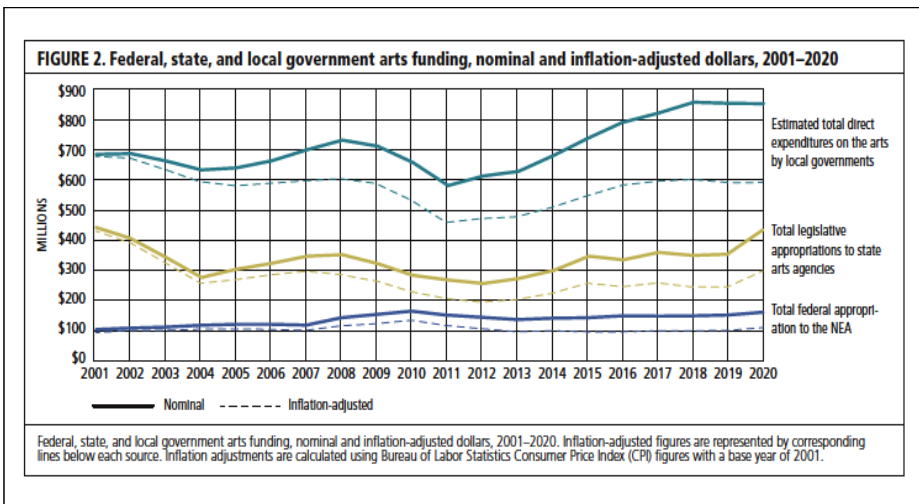
31)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의 추모 사진전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렸으며 NEA가 해당 미술관에 지원한 금액은 30,000달러임.

## 4.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문화정책(2000년대 이후)

### 가. 2000년대 이후 공공 예술지원 및 예산 추이<sup>32)</sup>

2000년대 미국 예술분야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팬데믹 상황 이전까지는 전반적인 공공지원 예산(연방, 주, 시정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산은 미국경제의 성장과 위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드러내었다. 연방정부와 시정부 예술지원금의 경우, 지난 20년간 예산 삭감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등락 지점들이 있었음에도 2011년도 대비 2020년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공공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구증가를 대입한 인구 1인당 예술지원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림 2-3]의 그래프가 제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간예산은 간신히 20년 전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정부 예술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주정부나 시정부의 연간 지원규모는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2001-2020 미국 공공예술지원 추이: 연방(federal), 광역(state), 기초(local)



출처: Stubbs, R. and P. Mullaney-Loss (2021). "Arts Funding Snapshot: GIA's Annual Research on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GIA Reader, 31(3), (Fall 2020/Winter 2021). p.10.

32) Stubbs, R. and P. Mullaney-Loss (2021). "Arts Funding Snapshot: GIA's Annual Research on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GIA Reader, 31(3), (Fall 2020/Winter 2021).

〈표 2-11〉 2001-2021 NEA 예산안 추이

| 연도                | 예산책정액         | 연도                | 예산책정액         |
|-------------------|---------------|-------------------|---------------|
| 2001              | \$104,769,000 | 2011              | \$154,690,000 |
| 2002              | \$115,220,000 | 2012              | \$146,020,992 |
| 2003              | \$115,731,000 | 2013 <sup>2</sup> | \$138,383,218 |
| 2004              | \$120,971,000 | 2014              | \$146,021,000 |
| 2005              | \$121,263,000 | 2015              | \$146,021,000 |
| 2006              | \$124,406,353 | 2016              | \$147,949,000 |
| 2007              | \$124,561,844 | 2017              | \$149,849,000 |
| 2008              | \$144,706,800 | 2018              | \$152,849,000 |
| 2009 <sup>1</sup> | \$155,000,000 | 2019              | \$155,000,000 |
| 2010              | \$167,500,000 | 2020 <sup>3</sup> | \$162,250,000 |
|                   |               | 2021              | \$167,500,000 |

출처: NEA 홈페이지: <https://www.arts.gov/about/appropriations-history>

1. 2009년도 '미국 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기금 \$50M 제외된 금액
2. 책정 예산 일부 집행 철회 및 유예
3.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및 경제보안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75M 제외된 금액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그 체제와 구조를 갖추기까지, 그리고 문화전쟁과 보수 및 진보 진영 간 예술지원을 둘러싼 논쟁을 고려할 때, 지난 20년간 연간 공공지원금의 원가격이 상승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예술분야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술지원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안전 분야에 책정될 예산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술지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NEA를 통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CARES Act 시행으로 기대되는 간접지원이 그 격차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연방, 주, 시정부의 20년간 공공 예술지원 규모의 추이가 금액의 상승과 체감적 축소의 교차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2010년대 미국 행정부의 예술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오바마 행정부 (2009-2016년, 민주당)<sup>33)</sup>

### 1) 주요 대선공약 : 예술교육에 대한 투자 회복

예술정책과 관련된 오바마 대선 후보의 공약은 한 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예술분야 행정부처가 없고, 예술정책은 NEA의 공공지원 전략과 지원금 분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환경에서 예술정책에 대한 대선공약을 제시했다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도 한다. 해당 공약에 오바마 당시 대선 후보는 창의적 표현의 가치와 사회, 경제, 그리고 미국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NEA 예산 증액, 문화외교 강화, 예술가를 위한 건강보험 및 조세제도 보완 등 예술분야 생태계의 회복과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오바마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정책안은 바로 예술교육에 대한 재활성화(reinvestment)였다. 2001년 부시 주니어 재임기간 중 제정된 ‘No Child Left Behind Act’로 인해 평가중심의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 수학) 교육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역사, 사회과학, 예술과 같은 과목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바마가 제시한 예술교육의 재활성화는 1)예술이 효율적인 배움과 학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 제고와 2)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구도 가운데 창의성과 혁신성 강화가 미국을 더욱 부강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도구적 목적에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예술교육의 재활성화를 위해 오바마는 다음 두 가지 공약을 전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와 예술단체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확대 둘째, 예술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부의 예술교육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와 예술단체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안과 재단 및 기업의 지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내세웠다. 더불어 예술과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백악관의 리더십으로 주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실제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의장으로 이끌었던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를 통해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예)Champions of Change: Arts Education) 발간,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업(Turnaround Arts Initiative), 우수 예술교육단체 시상 등 예술교육에 대한 미국 전역의 인식 제고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33) Barack Obama(2008), “Obama National Arts Policy Committee.”

<http://musicalfamilytree.com/files/blogs/1228-ObamaArtsPolicy101608.pdf>



## 2)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모색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할 즈음,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의 국제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쿠바와의 국제관계 회복 초기 전략으로서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예술교류를 선택하였다. 오바마의 대선공약에는 문화외교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문화외교를 담당하던 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의 국무부로의 통폐합을 언급하며, 문화외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국제문화교류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을 정책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재임 기간 동안 이렇다 할 변화나 지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해당 시기에 NEA의 국제활동부(International Activities)는 폐지되었고, 국제교류사업 역시 활발한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외교적 필요에 따라 2016년 4월 18일 NEA(당시 의장: Jane Chu)와 스미소니언 재단 등 문화예술기관의 리더십과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문화사절단을 구성하였으며, 4일간의 쿠바 방문 일정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 직후 NEA는 미국-쿠바 간 문화예술교육 사업-US Artists International과 Southern Exposure-을 발표하였다. 양국 간의 ‘사람 대 사람,’ ‘지역 대 지역’ 교류를 표방하며 상호이해 증진과 장기적 문화교류에 대한 투자를 목표하였다. 우선 아웃바운드 사업으로서 미국 예술가들의 쿠바 현지 공연을 지원하는 ‘US Artists International’ 사업에 50,000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어 인바운드 사업인 ‘Southern Exposure’ 지원사업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사업의 내용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전통 및 현대 공연예술가를 초대하여 미국 현지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 다. 트럼프 행정부 (2017-2020년, 공화당)<sup>34)</sup>

트럼프 대통령의 예술지원에 대한 입장은 명백했고 위협적이었다. 당선 이후 매년 NEA와 NEH, 공공방송공사(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에 대한 예산책정을

34) Robert L. Lynch (2020.2.10.). Americans for the Arts website.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news-room/press-releases/americans-for-the-arts-issues-statement-in-response-to-trump-administration%E2%80%99s-proposed-fy-2021>; LAURA COLBY, ERIK LARSON (2017.8.9.)  
<https://time.com/4893080/donald-trump-diversity-culture-wars/>

거부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중단을 재임 기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다행히도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0달러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음으로써 위기의 4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의회에서 가결된 NEA와 NEH의 예산은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표 2-11). 이러한 성과는 민간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의 주도 아래 예술단체와 예술계 종사자들이 지역별 의원을 대상으로 예술지원 예산 삭감 반대운동과 예술지원 주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지점이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1982-2017)의 해체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백인 민족주의 집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수면에 오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 회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었다며 기관의 해체를 발표한 것이다(Artnet News, 2020.11.2.).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 이후 발의된 'CARES Act'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나마 NEA, NEH, IMLS,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술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예술 관련 매체에서는 최근 행정부별 취임 전까지 드러난 예술지원 및 참여 활동에 대해 조사 및 발표하기도 하였다. 조사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업가로 활동하던 시절 온라인 예술 판매 사업을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예술 관련 단체를 후원한 부분도 확인된다. 이러한 행적이 트럼프가 예술 분야를 지지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면이 있다. 펜스 부통령의 경우, 직접적으로 예술지원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는 공적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흥미롭게도 부인과 자녀가 예술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애나주 주지사 시절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의 예술지원 삭감이 증가했었다는 연구 자료가 남아있었다.

〈표 2-12〉 행정부별 취임 전·후 예술지원 및 참여 활동 비교표

| 구분         | 트럼프-펜스 행정부  | 구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
|------------|---|------------|---|
| 트럼프<br>대통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온라인 예술 판매 사업 등을 '트럼프 아트 콜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으나, 실현되지 못함</li> <li>• 1994-2010년 동안 약 \$500,000 를 예술 "관련" 단체에 후원</li> <li>• 2017년 3월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NEA와 NEH 폐지 계획 발표</li> <li>• 이후 3년 동안 매년 NEA와 NEH 예산 \$0를 의회에 제출</li> <li>• 2017년 8월 트럼프의 백인민족주의 집회에 대한 지지 표현에 대한 항의로 대통령 예술인문위원회 회원들이 전원 사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위원회 지원 중단 발표</li> <li>• 2020년 NEA, NEH, IMLS,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언에 추경예산 책정내용을 담은 CARES Act에 서명</li> </ul> | 바이든<br>대통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3년 상원의원 당시 American Folklife Center 건립 결의안 지지</li> <li>• 1990년대 NEA 예산 삭감 및 미편성에 대한 반대표 행사</li> <li>• 2001년 공동제정한 법안을 통해 2016년 스미소니언 박물관 중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설립 건인</li> <li>•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8-9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급 예술지원금 \$50m 지원 추경</li> <li>• 부통령 재임 시, NEA 예산 \$9m 인상 제안</li> <li>• 대선 당시 전미 송출 미디어를 통해 예술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밝히며 예술에 대한지지 선언</li> <li>• 대선 캠페인 기간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접전지역 8개 주(states)의 예술가를 지원하여 벽화 창작</li> </ul> |
| 펜스<br>부통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중반 인디애나대 법대 재학 시절, 학보에 만화연재</li> <li>•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펜스가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인디애나 주 소재 대학의 예술지원 삭감 또는 철폐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li> <li>• 부인은 예술전공자이면서 예술치료 옹호자임. 더불어 자녀는 예술강사로 활동함</li> </ul>   | 해리스<br>부통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하며 프렌치 혼과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주했으며, 1996-2011년 동안 변호사로서 샌프란시스코 현대박물관의 이사회에서 활동</li> <li>• 샌프란시스코 시향 재원조성 대표로 활동한 약력 있음</li> <li>• 2019년 '이주자 문화유산의 달' 제정할 것을 공동발의</li> </ul>  |

자료: Artnet News (2020.11.2.). "Where Do Trump, Pence, Biden, and Harris Stand on the Arts? We've Comiled There Respective Track Records and Missteps," <https://news.artnet.com/art-world/candidates-art-platforms-1919554> 저작 재구성.

## 라. 바이든 행정부 (2021년-현재, 민주당)<sup>35)</sup>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예술지원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 일각에서는 양쪽 어느 행정부에서도 예술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 또는 정책전략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Artnet News, 2020.11.2.).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대응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예술정책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과 부통령 재임했을 시기에 예술센터 및 박물관 건립을 지지하거나 NEA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등 예술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예술계의 기대는 높다.

이에 상응하듯, 지난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6조 달러에 달하는 FY2022 국가 예산 가운데 NEA 201,000,000달러(예년 대비 33,500,000달러 증가), NEH 177,500,000달러(예년 대비 10,000,000달러 증가), IMLS 265,000,000달러(예년 대비 8,000,000달러 증가)와 같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가을 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예산안이 가결되면, NEA는 1965년 기관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 큰 타격을 입은 예술계에 있어 이처럼 고무적인 지원예산 규모도 의미 있지만, 아직 미국 예술계 재건과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바이든 행정부 앞에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의 한 기고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예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2017년도에 해체된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의 재건립을 촉구하였으며, 예술가 지원 방안, 조세제도 개선, 축소된 국무부 예술교육부(문화외교 업무 담당)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1930년대 뉴딜정

35) Americans for the Arts (2021.6.1.).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news-room/legislative-news/president%E2%80%99s-fy-2022-budget-request-shows-big-arts-support>

Horton, Adrian (2020.11.13.).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20/nov/13/joe-biden-arts-culture-us-president>

HELEN STOILAS (2020.11.25.).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things-are-going-to-change>

Jason Farago (2021.1.13.).

<https://www.nytimes.com/2021/01/13/arts/design/arts-stimulus-biden.html>

HELEN STOILAS (2021.5.21.).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biden-wants-to-boost-culture-funding-to-historic-levels-as-part-of-usd6-trillion-budget-proposal>

책을 상기하며 예술계가 팬데믹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확대된 공공지원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여론과 예술계의 기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대응책을 제시할지 지켜볼 부분이다.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제3장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 제1절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 이해

---

### 1.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 개요

제3장은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 행정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은 미국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문화예술 행정조직을 정리하고 제2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에 대해 서술한다.

미국 연방정부 기준으로 볼 때 문화예술 관련 업무는 입법부를 포함하여 행정부의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며 국무부, 내무부, 교육부, 독립행정기구의 문화예술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무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외교(공공외교)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sup>36)</sup>. 내무부는 생태, 문화유산보호, 고유문화보호(인디언), 문화유산 발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예술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Program Inventory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rts in education(CFDA #84.351)의 내용이 그것이다. 세부 업무는 학비 지원, 데이터 분석, 보조금 지원이며 주정부 교육부와도 협력을 통해 예술교육의 책임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행정기구 중에서 문화예술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국립예술기금이다. 국립예술기금은 제2절에서 자세하게 서술할 예정이다.

---

36) 이는 과거 미소 냉전의 영향, 대외적인 미국 이미지 개선/강화 노력의 일환, 유화적 외교수단의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있음.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사업과 외교부 공공외교사업을 통합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가. 미국 연방 입법부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

미국 입법부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연방의회 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재단이 대표적이다. 연방의회도서관은 저작권청을 가지고 있으며, 스미스소니언재단은 다수의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종합 교육문화과학연구기관이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미국 입법부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부처명  | 주요 기관 및 업무   |
|--|--|
| 연방의회도서관<br>(Library of Congres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li> <li>- 저작권청(Copyright Office)</li> <li>- 저작권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CRB])</li> </ul>   |
| 스미스소니언재단<br>(Smithsonian Institu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시설, 도서관,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식물원, 정원, 연구기관, 역사적 경관 및 역사적 유적 보호, 영화관 등을 운영함</li> <li>- 주요기관으로 도서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초상화미술관, 스미스소니언미술관, 존F케네디센터<sup>37)</sup>, 조셉 H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공원,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우드로윌슨센터, 국립아프리카예술박물관,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 등이 있음</li> </ul> |
| 연방의회 청사단지 건축감처<br>(Architect of the Capitol [AO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의회 청사단지(United States Capitol Complex)의 개발, 관리, 보존 관련 기능을 담당</li> </ul>   |

## 나. 미국 연방 행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sup>38)</sup>

미국 행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부처는 국무부, 내무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표 3-2>와 같다.

<표 3-2> 미국 행정부 문화예술 관련 부처

| 부처명                               | 주요 부서 및 업무   |
|-----------------------------------|--|
| 국무부<br>(Department of State[DO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홍보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li> <li>①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ECA])</li> <li>② 글로벌공보국은(Bureau of Global Public Affairs[GPA])</li> <li>③ 국제박람회 담당 부서(Expo Unit)</li> </ul> |

37) 케네디센터는 연방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였고 개인과 민간단체들의 기부, 영업활동,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됨. 최초 연방의회가 제정하였던 케네디센터 설치의 근거법은 해당 기구의 건설에 필요하였던 비용만을 지원하고 운영은 완전히 자립을 요구하였지만, 나중에 연방의회는 해당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한 부분들을 계속 지원

38)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뒤의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한 내용임.

| 부처명                                      | 주요 부서 및 업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공중외교 홍보 관련 정책, 기획, 자원실은(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Resources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li> <li>⑤ 미국공공외교자문위원회(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ACPD])</li> <li>- 관리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Manag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랄프 J. 번치 도서관(Ralph J. Bunche Library)</li> <li>② 해외건물운영국(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OBO])</li> <li>③ 미술과(Office of Fine Arts)</li> <li>④ 국립미국외교박물관</li> <li>⑤ 역사기록담당관실(Office of the Historian)</li> </ul> </li> <li>- 민간안전보장,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Civilian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li> </ul> |
| 내무부<br>(Department of the Interior[DO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류, 야생생물들, 공원 담당 차관(Assistant Secretary of the Interior for Fish and Wildlife and P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NPS])</li> <li>② 어류야생생물청(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FWS])</li> </ul> </li> <li>- 인디언 관련 사무 담당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Indian Affairs)</li> <li>- 토지광물 담당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Land and Mineral Management)</li> <li>- 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산하 기구</li> <li>- 정책, 관리, 예산실(Office of Policy, Management and Budget[PMB])</li> </ul>  |
| 교육부<br>(Department of Education[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Education)</li> <li>- 커뮤니케이션, 외부지원실(Office of Communications and Outreach)</li> </ul>   |

### 1) 국무부(Department of State[DOS])

국무부의 공공외교홍보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은 교육문화국, 글로벌공보국, 국제박람회 담당, 공중외교 홍보 관련 부서, 미국공공외교자문위원회를 담당한다.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ECA])은 외국과의 교육, 예술, 전문 직업, 학술 위주 인적 교류 제도들을 운영한다. 소속 기관 중 문화유산원(Cultural Heritage Center)은 외국의 주요한 전근대 건축물들과 유적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공보국(Bureau of Global Public Affairs[GPA])은 미국의 공공외교 수행과 관련한 홍보 기능들을 담당한다. 국제박람회 담당 부서(Expo Unit)는 정부 간 협력체 형태 국제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와(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BIE]/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 협력하여서 미국 정부들과

민간 행위자들의 국제박람회 관련 업무들 즉, 국내 유치와 외국 개최 예정 행사들을 대상으로 참여 준비와 미국 전시관들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집행한다. 공중외교 홍보 관련 정책, 기획, 자원실(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Resources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은 공중외교나 홍보와 관련성이 있는 국무부 정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획, 분석, 평가하는 업무들을 담당한다. 미국공공외교 자문위원회(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ACPD])는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공공외교와 관련한 외교정책들을 평가하고 일반 대중, 연방입법부, 연방행정부에게 권고 사항들을 제안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관리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Management)은 도서관, 해외건물 운영, 미술관, 박물관 등을 관리하며, 일부 정신문화 관련 행정기능들을 수행한다. 랠프 J. 번치 도서관(Ralph J. Bunche Library)은 외교 전문 도서관이다. 해외건물운영국(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OBO])은 국무부가 미국 국내와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들(동산과 부동산 포괄)의 관리, 운영한다. 또한 미술과(Office of Fine Arts)와 협력하여서 연방국무부가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외교공관들에서의 미술 전시회 개최와 미술 작가들의 활동 대상 지원 관련 업무들을 수행한다. 미술과(Office of Fine Arts)는 자문위원회인 국무부 미술위원회(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ine Arts Committee)와 협력하여 국무부 본부 청사 내부의 외교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s)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및 장식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연방행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의 관리 및 장식, 국무부 최고위급 간부들에게 배정하는 사무실들과 접견에도 활용 가능한 부속 공간들의 관리 및 장식 업무를 한다. 미국이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외교공관들에서의 미술 전시회들 개최와 미술 작가들의 활동 대상 지원, 미국이 외국에 소유 중이고 역사적 가치들이 높은 공간들 대상 기록, 관리 제도로서의 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운영을 담당한다. 국립미국외교박물관의 개관을 준비 중인데, 이미 일부 인터넷과 타 공간들에서 전시회들을 개최하여 오고 있다. 역사기록담당관실(Office of the Historian)은 관라국 산하 외교연구연수원(Foreign Service Institute[FSI])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무부의 기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표적 사례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시리즈의 출판이다.

민간안전보장,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Civilian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에게 속해 있는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United States 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국제종교자유실(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수장으로서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 관련 업무들을 관장하고 독립행정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2)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DOI])

어류, 야생생물들, 공원 담당 차관(Assistant Secretary of the Interior for Fish and Wildlife and Parks)은 산하기구들인 국립공원청과 어류야생생물청을 관장한다.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NPS])은 국립공원들을 포함하는 자연경관들에서의 관광 관련 기능들과 역사적 경관,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를 담당한다. 어류야생생물청(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FWS])은 첫째, 야생 조류 생물들의 보호에 지출하는 비용을 조달하고, 인지 등을 발행, 판매하며 이것은 야생조류 등이 인쇄된 유가증권으로 구매자들이 우표처럼 수집이 가능하며 내무부 소속의 여가시설에 입장표(티켓)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수렵과 어획과 실외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 규제, 지원을 관할한다. 셋째, 어류야생생물청 소속 국립자연보호훈련원의 부속 박물관기록원은(National Conservation Training Center Museum and Archives) 자연보호와 관련성을 지니는 기록들의 관리 및 전시를 담당한다. 넷째, 역사적 경관들, 역사 유적들을 보호하고 관련 기록들과 유물들을 수집하여서는 관리, 전시한다. 다섯째, 소장 중인 자료들을 디지털 기록들로도 변환시켜서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인디언 관련 사무 담당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Indian Affairs) 소속 인디언도박실(Office of Indian Gaming[OIG])과 연방내무부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인디언도박위원회는(National Indian Gaming Commission[NIGC]) 서로 협력하여서 선주민들에게(인디언들) 부여한 특권인 도박산업 관련 업종들을 감독, 관리한다. 인디언 관련 사무 담당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Indian Affairs) 소속 된 인디언사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은 선주민들(인디언들) 관련 역사적 경관들과 역사적 유적들의 보호 관련 업무들을 수행한다.

토지광물 담당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Land and Mineral Management)가 관장하는 토지관리청(Bureau of Land Management[BLM])은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에서의 실외 여가활동 관련 교육, 규제, 안내, 지원을 총괄한다. 또한 관리하는 토지들에 존재하는 역사적 경관 그리고 역사 유적들의 보호, 그리고 역사적 유적들의 보호와 관련한 선주민(인디언) 종족들과의 조정,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토지들에서의 고생물 화석들의 발굴 지원을 수행한다.

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산하 기구로 인디언미술공예위원회(Indian Arts and Crafts Board[IACB])와 내무부박물관이(Interior Museum) 소속되어 있다.

인디언미술공예위원회는 선주민들(인디언들)의 공예와 미술 관련 전통들 그리고 이들 과 관련한 생산 활동들을 규제, 진흥하고, 관련 박물관을 운영한다.

정책, 관리, 예산실(Office of Policy, Management and Budget[PMB])은 내무부 도서관(Interior Library)이 산하기구로서 소속되어 있다.

### 3)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ED])

미국 교육부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Education)<sup>39)</sup> 관할 초등중등교육실(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이 담당하는 Arts in Education 제도는 다양한 범주들로 분류 가능한 아동들 대상 예술교육 실행에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민간 행위자들과의 협력 실현, 예술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사항들 강화 지원, 예술교육 교과과정들의 개발과 개선, 기여자들 대상 포상, 보조금 지급을 수행한다.

커뮤니케이션, 외부지원실(Office of Communications and Outreach)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부서로 Student Art Exhibit Program 제도에서 초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창작한 미술 작품들의 전시 지원을 수행한다.

39) 미국의 '부장관'과 '차관'은 다른 직급임. 미국 국무부·재무부·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 부(副)장관(Deputy Secretary)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고 있으며,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라는 점에선 우리나라의 차관(次官)과 같지만, 정부 내에서의 위상은 차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 미국 연방 독립행정기구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

미국 연방 독립행정기구 중 문화예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래 <표 3-3>의 현황과 같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국립예술 기금, 국립인문기금,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 정도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종교의 자유, 미디어, 도시경과, 기념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3-3> 미국 연방 문화예술 관련 독립행정기구

| 기관명  | 주요 업무  |
|--|--|
| 국가기록보관기록청<br>(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행정부 기구들이 생성하였거나 수집하였던 기록들을 소장하면서 관리 하고, 연방의회가 위탁한 기록들의 소장, 관리를 담당함</li> <li>- 대통령 기념 도서관, 박물관들의 운영을 담당하고, 다른 연방행정부 기구들의 기록들 관리를 대행하며, 연방입법부(연방의회) 그리고 연방행정부의 공보용 정기간행물들과 기타 자료들 발행을 담당</li> </ul> |
| 국제종교자유위원회<br>(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자유 침해 사례들을 조사, 평가하고서, 산출한 평가 결과들에 근거하여서 대통령, 연방국무부, 연방의회에게 권고사항들을 제시하고 전술하였던 국무부의 대응 조직과 협력</li> </ul>  |
| 공공방송공사<br>(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CP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업적 민간 방송국들과(종합 방송국들과 교육 전용 방송국들을 모두 포함) 이들 가운데에서 라디오 방송국들의 연합체인 전국공중라디오에게(National Public Radio[NPR])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li> </ul>  |
|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br>(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영토 내부에 존재하는 도서관, 박물관 관련 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수준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재정, 지식, 기타 요구조건들의 지원 담당</li> </ul>   |
| 미국글로벌미디어청<br>(U.S. Agency for Global Med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가 외국 대상 홍보용 수단들로써 운영하는 방송국들의 경영을 담당</li> </ul>  |
| 국립예술기금<br>(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진흥 담당(제3장 제2절 내용 참조)</li> </ul>   |
| 국립인문기금<br>(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NE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정신문화진흥 담당(제3장 제2절 내용 참조)</li> </ul>   |
| 역사 보존 관련 자문위원회<br>(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ACH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 지방정부, 민간 행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경관들과 건축 구조물들의(건물들 중심) 개선, 보존,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함</li> </ul>   |
| 미국전투기념물위원회<br>(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ABM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내와 외국에 존재하는 군인 묘지들과 군사 관련 기념물들을 관리</li> </ul>   |

| 기관명   | 주요 업무  |
|---|--|
| 국가수도계획위원회<br>(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NCPC]) | - 경관, 도시계획의 부분인 건축기념물들과 문화시설들의 건설 계획 그리고 사후 평가와 관련한 규제, 인허가를 담당                          |
| 미국미술위원회<br>(United States Commission of Fine Arts[CFA])   | - 수도인 워싱턴 컬럼비아 구역의 건축 설계와 관련한 미적 기준 및 조건들을 검토,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이지만, 규제나 인가와 허가 관련 권한들을 보유하지 않음 |

## 라. 미국 연방 독립행정기구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

미국 백악관 내 종교, 생활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현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미국 백악관 문화예술 관련 부서

| 부서명   | 문화예술 관련 기능   |
|---|--|
| 백악관 종교기능 담당 조직<br>(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OFBCI])      | - 신앙기반지역사회협력실은(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OFBCI]) 연방행정부의 13개 부에 설치하였던 대응 조직들과 협력하여 연방행정부가 민간단체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의 관리와 이들을 활용하는 정책 수행을 감독, 관리 <sup>40)</sup> |
| 대통령 스포츠, 건강, 영양위원회<br>(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PCFSN]) | - 연방 행정부 건강, 인적자원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의 건강 담당 차관보가(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관할<br>- 생활체육과 관련한(엘리트체육과 무관) 정책들 대상 조언들을 제공하는 자문 위원회           |

## 마. 참고 사항

미국 정부 소속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이 현황을 공유하면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5> 미국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비정부 기구(참고사항)

| 구분  | 내용  |
|---|---|
| 국가헌법박물관<br>(National Constitution Center) | - National이라는 이름과 달리 민간기구. 이 기관의 부지는 연방정부의 소유이지만, 입장권 판매수익, 멤버십, 기부 등 민간(비영리)이 운영 |

4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administration/eop/ofbnp>  
[https://en.wikipedia.org/wiki/White\\_House\\_Office\\_of\\_Faith-Based\\_and\\_Neighborhood\\_Partnerships](https://en.wikipedia.org/wiki/White_House_Office_of_Faith-Based_and_Neighborhood_Partnerships)



| 구분  | 내용   |
|---|--|
| 미국 문화예술부<br>(The US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 | -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미국 예술문화부(The U.S.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 <sup>41)</sup> 는 정부부처가 아닌 문화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임. |

## 2. 표현의 자유와 간접 지원

### 가. 표현의 자유 보장

#### 1) 헌법

##### ① 표현의 자유와 NEA 지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제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연방대법원은 국가의 표현의 자유 규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다양한 표현의 자유 규제 관련 심사기준을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는 “일정 기간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Science and useful Arts)의 진흥을 촉진”<sup>42)</sup>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4조의 ‘적법 절차’와 ‘평등한 보호’는 많은 이슈를 낳았다. 19세기 후반에 사법부는 ‘적법 절차’ 조항에 근거해 경제 규제, 노동 시간 등과 관련된 주의 입법을 무효화하였다. 그 이후 사법부는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한 ‘적법절차’ 조항의 ‘자유’에 권리장전 규정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규정들의 적용 범위를 ‘전국화’하였다. 사법부는 수정조항 제14조의 이 부분을 근거로 피의자의 권리, 형사사건의 절차, 신학교의 지원, 사형, 명예훼손, 공립학교의 기도 시간, 음란 및 동성애, 외설 그리고 낙태 등의 다루는 주범 수백 개를 무효화하였다.(조지 캐리, 2004: 111-112)<sup>43)</sup>

41) <https://usdac.us/>

42)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이 조항은 또한 저작권 및 특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의 원천이기 때문에 종종 “특허 및 저작권 조항”이라고도 함. 실용 예술 혹은 유용한 예술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예술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기술에 가까움.

43) 대표적인 사건은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Lochner v. New York 198 U.S. 45 (1905))인데, 뉴욕 주

미국의 헌법은 개인의 권리, 평등한 보호,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된다. 이런 권리는 소위 ‘비도덕적’이거나 ‘외설적’인 작품에 대한 NEA의 지원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다.<sup>44)</sup>

## ② NEA 품위조항

1990년 11월 5일 국립예술인문재단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NEA 위원장이 모든 지원 신청 대상 작품이 미국 공중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품위와 존중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반영하도록 보증하도록 하는 소위 ‘품위 조항(DECENCY CLAUSE)’이 신설되었는데(20 U.S.C. §954(d)), 이에 따라 지원금 수령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NEA가 특정 지원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었다.(강은경, 2018)

이 조항이 Finley 판결<sup>45)</sup>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인 4인의 행위예술가들이 정치적 쟁점인 동성애, 에이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연에 대하여 ‘품위 조항’의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NEA 심의위원회는 애초에 원고 등의 신청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NEA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 제고를 요청하였지만, 다시 동 위원회는 원고 등의 신청을 인정하는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NEA 위원장은 지원금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조항이

의회는 제과점 점원의 근무시간을 1일 10시간, 1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근무시간의 제한이라는 수단이 공공복리(公共福祉)의 증진이라는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과점 점원과 주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동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

44) 비도덕적이거나, 외설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은 Miller 판결을 통해 합의점에 이르고 있음. 이 판결은 음란성 판단을 위한 삼 단계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데,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첫째, 현시대의 지역공동체 기준들(contemporary local community standards)을 적용했을 때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인이 느끼기에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둘째, 그 표현물이 적용 가능한 주법(州法)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대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in a patently offensive way) 묘사하는가,” 셋째, 전체적으로 보아 그 표현물이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를 결하는 것인가”이다.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4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 Finley, 524 U.S. 569 (1998).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 개정으로 ‘품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전미예술가협회연  
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Artists’ Organization)가 소송에 참가하였고, 199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용을 기준으로 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46)</sup>

## 2) 저작권법

### ① 표현의 자유의 동력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인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의 동력(Copyright: The  
engine of Free Expression)<sup>47)</sup>을 제공한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는 “일정  
기간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의  
헌법상 근거가 된다.

미국은 헌법 제정 후 1790년에 저작권법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저작권법 제정  
당시 책, 지도, 도면 등이 주된 대상이었으나 인쇄물을 포함하여 공연, 영화, 음악, 드라  
마, 그림, 녹음물, 건축 등으로 보호 범위가 확장되었고 1980년에 이르러서는 전산 프로  
그램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었다. 1976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공표저작물이나 미등록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1998년 소니 보노(Sony Bono)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  
년으로 더욱 연장하였다. 1996년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  
이행에 따라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제정되었다.

미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며, 다만 베  
른협약 가입국의 국민인 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05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자에 대해 소송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회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제50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 비용’에 전문  
가 증언을 위한 비용 등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 소송

4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 Finley, 524 U.S. 569, 571 (1998).

47) <https://www.copyright.gov/reports/strategic-plan/USCO-strategic2019-2023.pdf>

에 패소한 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세 대상 비용만 부담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  
다.<sup>48)</sup>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22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분과 위원  
장인 Thom Tillis 상원의원은 저작권청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작권청을 의회도서관 소  
속에서 상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제12절), 저작권청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저작권청이 징수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유연성을 부여하고(제11절)  
저작권청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저작권청 공공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도 규  
정하는 내용의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초안을 발  
표한 바 있다.<sup>49)</sup>

## ② 문화예술작품의 재산권 인정

미국의 저작권 보호 정당성의 근거는 공리주의로(Peter S. Menell, 2000: 130) 저작  
권을 저작자의 자연권이라기보다는 복제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권리로 본다.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은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Visual Artists Rights Act)으로 다만, 시각저  
작물(회화·사진·그래픽·조각 등)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만을 인정한다.

미국은 1971년 ‘제네바음반협정’과 1996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협  
정(WPPT) 등 국제조약에 서명하면서 이에 맞게 저작권법을 수정해왔으며 또한 미국저  
작권법은 음반제작자를 저작인접권자로 분류하지 않고 저작권자로서 복제, 2차적 저작  
물작성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2018년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음반 전달을 위한 포괄적 라이선스 및  
집중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규정한 음악저작물 현대화법(Musical Works Modernization  
Act)을 포함하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  
이 개정되었다. 동 법은 ‘음악저작물 현대화법(Musical Works Modernization Act)’,  
‘선대 예술가들의 노래, 서비스 및 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여에 해단 보상법(Compensating  
Legacy Artists for their Songs, Service, and Important Contributions to Society  
Act)’, ‘음악 프로듀서를 위한 분배법(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으로 구성된다.

48)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586 U.S. \_\_ (2019).

49) <https://www.tillis.senate.gov/services/files/0B0551E3-4CA2-4B49-9896-56427B7B7F77>

이에 따라 디지털 음반 전달(digital phonorecord delivery)을 비롯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강제허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Sec.101-104), 1923년 1월 1일 이후 1972년 2월 15일 이전 고정된 녹음물을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방식으로 2007년 2월 15일 이전에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Sec. 201-203).<sup>50)</sup>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 제(f)호의 법정허락 적용 대상인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한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도록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지정된 비영리 집중관리단체는 소정의 경우 예술가에게 지급해야 할 라이선스 사용료의 일부를 해당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mixer)나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분배해야 한다(Sec. 301-301).

동 개정에는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의 디지털 이용과 관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대적 디지털 음악 서비스 운영 체계를 규명하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디지털 권리 단체인 많은 녹음물들을 제작된 후 약 15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학자, 연구자들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박경신, 2018.5.18.)

50) 동 개정 전에는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 및 제303조에 따라 1972년 2월 15일 이후 제작된 녹음물만이 연방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그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주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사용료 지급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irius XM과 같은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Pandora와 같은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는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1960년대 록밴드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1960년대 인기곡들을 Sirius XM이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 및 뉴욕 주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irius XM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2014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 지방법원은 Sirius XM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2014년 1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 역시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도 뉴욕 주의 보통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4 WL 4725382 (C.D. Cal. Sep. 22, 2014) 및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4 WL 6670201 (S.D.N.Y. Nov. 14, 2014) 참조. 박경신, "[미국] 법원,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5.9.8.) 참고.

## 나. 조세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 1) 연방세법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미국 연방차원의 조세지원은 크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연방세 면제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 공제로 나뉘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종류와 법인격 취득에 관해서는 각 주의 전속입법사항으로 통일된 연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다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연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면세조치는 1894년 연방소득세법 제정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모든 소득에 대해 면세가 인정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1894년 연방소득세법은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sup>51)</sup> 실제 소득세 면세는 1913년 내국세법(Revenue Act of 1913) 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쿠로키 마토토·배원기 역, 2017). 그러나 1913년 미국 내국세법의 제정 이후, 빈곤구제 등에 종사하는 비영리조직이 다수를 차지했던 당초의 상황으로부터, 면세혜택을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보고를 포함한 세무신고서의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비관련 사업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율의 과세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미국연방세법(IRC) 제501조에서 면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IRC §501상 비영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비영리(not-for-profit) 조직일 것, (2)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분배 제한(non-distribution constraint)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후 IRC §501와 관련하여, 1969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69)이 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Form 1023 혹은 이를 단순화한 Form1024 중 하나를 IRS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회, 교회 관련기관, 민간재단 또는 총수입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조직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다.(쿠로키 마토토·배원기 역, 2017)

51)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mpany, 157 U.S. 429 (1895).

## 2) 비과세 단체 지원의 주요내용

미국연방세법(IRC) §501(c)에 따른 비과세단체(tax exempt organization)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순수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에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이다.

IRC §501(c)의 단체는 활동에 있어서 공적 관여(public involvement) 수준에 따라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으로 이는 구분되는데, 공공자선단체는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 및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공적 영역과 상당한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민간재단은 전형적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개인 간 소규모 집단에 의해 운영되며 투자소득 및 소규모 자금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손원익, 2011: 16)

공공자선단체의 자격을 갖추고도 공공자선단체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민간재단으로 간주된다. 공공자선단체에는 교회 또는 교회 관련 조직, 병원, 의료연구 조직, 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설, 주 또는 자치 도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위한 자선관리기관, 미국 정부 관련 기관,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등이 해당된다.(손원익, 2011: 16)

미국의 비영리 예술단체가 IRC §501(c)(3)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면세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Form 1023을 통해 IRS에 신청해야 하며 3~6개월 이내에 면세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로부터 면세지위를 부여받더라도, 별도로 주정부에 지방세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화 서류를 주지사나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IRS에 단체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EIN을 부여받아야 하며, §501(c)(3)의 면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IRS에 신청해야 한다. IRS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면세 혜택 범위를 결정한다.

한편 IRC §501(c)호에 해당되면 연방세 면세 지위를 얻게 될 뿐 아니라 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IRC §501(c)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면세 지위를 얻은 비영리단체 중 일부만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인정받는다. 또한 IRC §170(c)(2)에 따라 미국이 미국령 내에서 설립되거나 미국법이나 주법, 콜롬비아 자치구의 법, 미국령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만이 세금공제 대상이다.

IRC §170(c)에서는 IRC §501(c)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의 유형 중 4가지 유형을 포함한 (i) 미연방합중국(The United States), 콜롬비아자치구(District of Columbia), 주(state)나 주의 정치적 하부단체(political subdivision), (ii)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 (iii) 전쟁참전용사회(war veterans posts), (iv) 국내 공제조직(fraternal societies), (v) 묘지단체(cemetery organization)에 대한 기부금만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부금 지급 대상 단체가 IRC §501(c)(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IRC §170(c)(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변혜정, 2013: 6)

IRC §501(c)(3)과 §170(c)(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단체가 (i)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것, (ii)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될 것, (iii) 사익(private inurement)을 위하지 아니할 것, (iv) 실질적인 로비활동(lobbying)을 하지 아니할 것, (v)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직성 테스트(organizational test)와 운용성 테스트(operational test)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i) 조직과 운영 목적의 배타성 요건(exclusivity requirement), (ii) 목적의 비과세성 요건(exempt purpose requirement), (iii) 절차적 요건(procedural rules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변혜정, 2013: 7)

형식적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성 테스트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상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써, 해당 단체의 정관에 IRC 제501조(c)(3)의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운영하는지 여부, 기관의 수입이 이사나 관리자, 수탁자 기타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청산 시 잔여재산을 IRC 제501조(c)(3)의 면세목적으로 분배하거나 다른 면세기관에 분배하며,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임상수·박지혜, 2013: 13)

실질적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운용성 테스트는 해당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써, 단체의 사업 활동이 면세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여부, 비용지출은 규모나 자금조달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것인지 여부, 자금조달에 있어서 투자소득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비율의 정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임상수·박지혜, 2013: 13).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지



만, IRC §501(c)(3)은 해당 단체의 유형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IRC §501(c)(3)의 단체 유형에서 개인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은 제외되는데, 이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체의 순이익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막고 경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허은영, 2004: 25)

이외에도 미술품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 시점의 공정한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가 기부금액으로 책정하여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sup>52)</sup> 공정한 시장 가치는 "구매나 판매에 대한 어떠한 강요가 없고 양자 모두가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구매자와 자발적인 판매자 사이에 매매되는 가격"인데<sup>53)</sup> 미국 조세법원은 공정한 시장 가치란 모든 기록 검토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며 "시장 수치 비교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sup>54)</sup> 자본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공공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한 IRC § 170 (b)(1)(A)에 규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 공제는 총 소득액의 30%까지며, 기부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sup>55)</sup>

한편, 2017년 발의된 바 있는 Comprehensive Resources for Entrepreneurs in the Arts to Transform the Economy(CREATE) ACT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기부했을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격(the fair market value of the work)을 기준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

52) IRC §170 (e)

53) 26 CFR § 1.170A-1(c)(1).

54) Gifford M. Mast, Jr. v. Comm'r, 56 T.C.M. (CCH) 1522 (1989).

55) IRC § 170(b)(1)(C).

## 제2절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제

### 1. 예술 및 인문정신 확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과 같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술 및 인문정신 확산을 위한 국립예술인문재단에 관한 법률은 존재한다. 1964년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 설립을 위해 국립예술문화발전시행법(Nation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이 제정되었고, 이후 1965년 국립예술인문재단에 관한 법률(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에 의해 국립예술인문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는 U.S. Code Title 20 Chapter 26 SUPPORT AND SCHOLARSHIP IN HUMANITIES AND ARTS; MUSEUM SERVICES)에 편제되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951. 소견 및 목적 선언(Declaration of findings and purposes)
- § 952. 정의(Definitions)
- § 953. 국립예술인문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 § 954.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 954a. 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에의 접근(Access to the arts through support of education)
- § 955.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
- § 955a. 삭제(Omitted)
- § 955b. 국가예술훈장(National Medal of Arts)
- § 956.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 § 956a. 국립수도예술문화: 지원프로그램(National Capital arts and cultural affairs: grant programs)
- § 957. 국립인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
- § 957a. 삭제(Omitted)
- § 958. 연방예술인문위원회(Federal Council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 § 959. 행정 규정(Administrative provisions)
- § 959a. 증여, 동산 유증 및 부동산 유증(Gifts, bequests, and devises)
- § 960. 세출승인의 수권(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 가. 국립예술기금(NEA)<sup>56)</sup>

국립예술기금은 예술 장르들 대상 지원 기능들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예술가와 예술 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람객을 지원을 위주로 하였지만, 메이플소프의 전시를 계기로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예술교육 지원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물론 NEA의 목적은 예술발전을 위해 예술가와 예술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수단으로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특히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정철현, 2015: 249)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예술기금은 여러 예술 장르들 관련 공식 자료집들을 제작하여서 공개한다.

#### 1) 국립예술기금이 지원하는 예술 영역 및 연관 주제

국립예술기금이 지원하는 예술영역과 관련 주제는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NEA 지원 예술 영역 및 관련 주제

| 구분                                    | 내용   |
|---------------------------------------|--|
| ① 접근가능성<br>(accessibility)            | - 노인, 제대 군인, 장애인, 집단수용시설(교도소, 양노원 등) 거주자 등 문화 예술 향유가 제약되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의 개발, 집행하는 것을 의미  |
| ② 예술공동체<br>(artist communities)       | - 예술가들 사이에서의 창의적 상호 협력 작업들을 촉진, 지원   |
| ③ 예술 교육<br>(arts education)           | - 교사들, 지방정부 교육 담당 기구들의 예술 교육 관련 관리자, 지역예술기구들의 예술 교육 관련 관리자들, 학생들 그리고 예술교육 관련 정보들에 대한 지원제도<br>- Arts Endowment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원에서 12학년 학생, 그들을 지원하는 교육자 및 시민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 중점<br>- 이 지원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용, 음악, 연극, 시각 예술, 문학 및 미디어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예술 교육을 가장 적게 받는 학생들에게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 |
| ④ 창조적 공간 구성<br>(creative placemaking) | - 예술, 문화 및 디자인 활동을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통합적 노력<br>- 예술가, 디자이너, 문화역량 보유자 등 다양한 수준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고, 지역의 경제, 물리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시스템 변화를 위한 토대 마련<br>- 창조적 공간 구성은 모든 예술 분야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광범위하며, (공중 보건에서 안전, 경제 개발,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   |

56) 제2장 제2절 미국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내용 중 NEA 내용과 연계하여 서술함.

| 구분   | 내용   |
|--|--|
|  | 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 ⑤ 무용<br>(dance)  | -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축제 지원, 청소년을 위한 전문 무용단에 대한 접근성 확보, 댄스 교육을 통한 세대 참여, 댄스 수업, 워크숍, 공연, 전문 무용단과의 레지던시 활동, 건강 및 웰빙 교육, 세대 간 참여 및 가족 활동 등의 활동                                       |
| ⑥ 디자인<br>(design)  | - 커뮤니티 변화를 촉진하는 디자인 활용, 이웃 건축 보존, 소외된 청소년에게 리더십 훈련 및 디자인 기술 제공 등 자신의 이웃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 제공   |
| ⑦ 민속과 전통예술<br>(folk & traditional arts)                                  | - HBCU(Historical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대한 지원은 국립 예술 기금의 직접적인 최우선 과제이며,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 및 대학교의 지도 능력, 교육자 및 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 및 육성 그리고 예술 분야의 진로에 대한 인식 증가 견인          |
| ⑧ 국제 교류<br>(international)   | - 국제 교류 활동은 인지도 향상,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예술의 우수성 및 경험 기회 확장<br>- 다른 정부 기관,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NEA는 국제적 창작 활동(크리에이티브)을 육성  |
| ⑨ 문학<br>(literary arts)  | - 작가, 번역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출판사, 기타 문학 단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청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풍부한 목소리의 다양성 반영  |
| ⑩ 지역 예술기구들<br>(local arts agencies)                                      | -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우선순위에 투자, 예술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br>- 공공 공간의 변화,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공연 및 시각 예술과 방학 캠프의 방과 후 미술 수업 등 지원                 |
| ⑪ 매체예술(미디어아트)<br>(media arts)  | - 영화, 영화, 오디오, 방송, 뉴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코드를 사용하여 전통적 또는 확장된 형태의 스토리텔링 및 시각적 표현을 탐구하는 독립 영화 및 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아트 종사자 지원   |
| ⑫ 박물관<br>(museums)   | - 보존 노력 강화, 지역사회 참여 장려, 혁신적인 전시회 지원, 공공예술 작품 발전 지원, 소장품 연구 지원 등 추진   |
| ⑬ 음악<br>(music)  | - 소외 지역의 청중에게 다가가기, 재즈 지원의 지속, 새로운 작업 시도 지원, 원주민 커뮤니티 봉사, 신진 예술가 발전 장려 등 추진  |
| ⑭ 뮤지컬<br>(musical theater)   | - 훌륭한 원작의 각색, 자폐아동 봉사, 예술가와 협력하여 청각 장애인 청중에게 다가가기, 창작 뮤지컬 제작 지원 등 지원   |
| ⑮ 오페라<br>(opera)   | - 미래 청중 개발, 라이브 공연 기술 혁신 지원, 중고교 학생들의 교육투어 지원, 창작 오페라의 초연 등 지원   |
| ⑯ 전시 기법과 장르 간 융합<br>기반 예술작품<br>(presenting &<br>multidisciplinary works) | - 다양한 분야의 기회 마련<br>- 예술 형식을 결합/통합하고, 예술 분야 간의 경계 탐구, 장르 간 융합 및 초월, 새로운 표현 형식을 찾는 예술 작품 및 이벤트 지원  |
| ⑰ 연구와 분석<br>(research & analysis)  | - 예술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립예술기금의 핵심 기능임<br>- 정확하고 적실성 있는 분석과 보고를 통해 Arts Endowment가 예술 및 예술 환경(현황, 조건, 특성 등)이 미국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br>- 예술/문화위성계정을 작성하고 미국 경제 분석국(미국 상무부)과 협력하여 |

| 구분                                  | 내용   |
|-------------------------------------|--|
|                                     | 예술 및 문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공  |
| ⑮ 주와 지역 관련 사안<br>(state & regional) | - 미국 전역에서 4,500개 이상의 지역 예술 기관(LAA)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
| ⑯ 연극<br>(theater)                   | - 1996-2013년에 연극 프로젝트는 Arts Endowment의 Theatre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을 받았으며 뮤지컬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오페라와 결합<br>-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극장과 뮤지컬 극장이 하나의 펀딩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으나 2018년부터 뮤지컬이 극장과 별개로 자체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리 |
| ⑳ 미술<br>(visual arts)               | - 학습 향상, 공공 공간 활성화, 예술을 통해 재향군인 지원, 원주민 예술가 지원 등의 프로그램 지원  |

## 2) 국립예술기금 지원 방식

국립예술기금이 현재 적용중인 지원금제도들은 지역 협력기구들을 경유하여서 특정 사업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들 위주로 편성시켜 놓았고, 개인들 대상 직접지원 방식들을 적용하는 지원금제도들은 거의 없다.

### ① 간접지원 방식들을 적용하는 국립예술기금의 지원금제도

COVID-19 대유행이 유발한 경기 침체에 대응, 지역 단위 예술 지원, 문화 향유 기회들이 부족한 집단의 예술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진흥과 정서 함양, 예술 관련 학술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 ② 직접지원 방식

개인 직접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국립예술기금의 지원금제도들은 문학 작가들 대상 지원금제도와 외국어 문학 작품들을 잉글랜드어로 번역하기를 희망하는 번역자들 대상 지원금제도가 있다.

## 3) 국립예술기금 시상제도

국립예술기금은 세 가지의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①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ational Heritage Fellowships

해마다 개별 예술 장르들에서 탁월한 성취들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받은 예술가들을 선

정하여서 상금으로써 1인당 25,000달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Jazz Masters Fellowship

해마다 재즈 음악 장르의 명인들을 선정하여서 상금으로써 1인당 25,000달러를 지급한다.

③ 국가예술훈장(National Medal of Arts)

예술가들과 예술 후원자들의 공로들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립예술기금의 자문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가(National Council on the Arts) 해마다 대통령에게 수상 추천 대상 개인들과 단체들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이들 모두에게 시상하는 관례가 지속하여 오고 있다.

4) 예술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능

국립예술기금은 예술 및 정신문화 관련 기능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연방정부 소속 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예술 및 정신문화 관련 기능들을 수행한다. 또한 50개 주들과 자치령의 예술 및 정신문화 담당 기구를 지원한다.

국립예술기금은 다른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상당수는 예술 및 정신문화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보존, 수집, 디지털화한 자료의 공개, 이용, 응용(강연, 교육, 토론, 방송과 예술에서의 활용), 전시, 홍보가 목적이다.

5) 기타 기능들

국립예술기금은 미국 내 예술가들과 예술 활동들을 홍보하며 예술 창작과 향유와 관련하여 대중과 엘리트들의 관심도가 낮은 이슈 및 주제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을 수행한다.

6) 예술 단체와의 파트너십

미 연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은 국립예술위원회(NCA)와 국립예술기금(NEA)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예술기금(NEA)-광역예술기구(RAOs)-주 예술위원회(SAAs)-지역 예술진흥기관로 이어지는 협력적 구조가 중요하다.

NEA에 배정된 7천 5백만 달러 중 40%는 기초 지역예술진흥기관, 전미주예술진흥기관연합회, 장르별·직종별 협회 등 각종 예술서비스기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부서 등을

통해 지원되며, 나머지 60%는 직접 예술단체에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의 용도는 해당 기관의 예술적 미션 수행에 핵심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임금 보전, 예술가 보수, 용역 사례, 임대료, 전기료와 같은 시설 비용 등에 한정한다.

#### ① 광역예술기구(Regional Arts Organizations, RAOs)

미국의 광역예술기구들인 6개 RAO들은 NEA 파트너십 지원금과 회원으로 가입된 주 예술위원회의 분담금을 예산의 뼈대로 하지만, 행정부처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자체 기금 모금이 가능하고, 보다 융통성 있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참고로, 뉴욕주의 경우 중동부 Mid Atlantic Arts Foundation으로 분류된다.

#### ② 주 예술위원회(State Arts Agencies, SAAs)

56개 주 예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체예산이 약 80%, NEA 보조금이 약 10%를 차지한다.

#### ③ 기초 지역예술진흥기관(Local Art Agency)

미국의 4,000개의 기초 지역예술진흥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④ 전미주예술진흥기관연합회(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AA)

전미주예술진흥기관연합회는 1968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미국 주 예술진흥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미주 연합 조직이다. 미국 기초예술진흥기관 연합, 예술 지원정책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 7) 재정규모의 변천과 지원방식 변화

국립예술기금의 재정 규모들 변화와 정치적 통제로 인한 지원방식에 변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미국의 보수주의 우파 집단들을 격분시켰던 상당수 지원금 신청과 지급 결정 사례들은 1980년대부터 예산의 삭감과 폐지 시도를 경험하였고 NEA의 예산은 다른 연방기구들과 상이하게도 단기적 국면에서의 예산 삭감 반복과 장기적 정체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립예술기금의 개별 예술가들 대상 금전 직접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지원금제도들의 수혜 대상들 심사 절차도 일반인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넬 심사, 국립예술기금의 자문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에 서의(National Council on the Arts) 심사, 국립예술기금 이사장과 고위 간부들의 심사로 강화하게 되었다. 현재 국립예술기금은 이사장과 그 자문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가 지배구조의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연방의회 상원이 동의하여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NEA 폐지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화당 진영은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며, NEA 자체가 엘리트주의 성향이 다분하면서도 대중의 인기가 낮고, 좌파 성향인 상당수의 예술가들 대상으로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진영의 논리는 문화적 다양성 보호 증진과 문화향유 가능성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 나.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sup>57)</sup>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은 1965년에 설립된 독립된 기구로 인문학 지원 기구로서 학문적 연구, 역사, 철학, 문학, 종교, 윤리, 고고학, 예술 비평이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문학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인문기금은 정신문화 관련 기능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50개 주와 자치령의 인문학 진흥 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신문화 관련 기능들을 지원하거나 협업하여 수행한다.

국립인문기금은 인문학 관련 자료들의 디지털화, 보존, 수집, 원자료의 디지털화한 자료의 공개, 이용, 응용(강연, 교육, 토론, 방송과 예술 활용), 전시, 홍보 관련 기능들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다.

국립인문기금은 이사장과 자문위원회인 국가인문학위원회가(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 지배구조의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며 연방의회의 상원이 동의하여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57) 인문과학의 하위 영역들 대상 지원 기능들은 배제하였음. NEH는 실제로는 일부 사회과학의 하위 영역들도(거의 대부분 정치학 관련) 지원 대상 범위로 규정하여 왔으므로, 국립인문기금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지만, 통상 사용하는 기관명으로 함.



## 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 1)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 ① 개요

1996년 제정된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은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과 미술관 서비스법(Museum Services Act)을 포함하며 동법은 5년마다 승인을 받는다.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은 1956년 농촌지역 도서관서비스 보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1956년 제정된 도서관 서비스법(Library Services Act)에 연혁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문맹퇴치를 특징으로 한다. 1964년에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도서관과 모든 관중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 및 건설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이 도서관서비스법의 대체 법률로 제정되어 미국 도서관정책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2003년에는 1996년 제정된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이 의회 세출예산지출에 대해 가지고 있던 2002년까지의 권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도서관·박물관 관련 정책의 제도적 개혁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3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03)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정으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 산하에 전미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가 설치되었는데, 이에 따라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의 정책적 자문 기능은 폐지되었고, 동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도서관·박물관 지원기금운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연방기구가 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8; 49-48)

2021년 3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제·경제지원법(CARES Act)이 통과됨에 따라 2조 2천만 달러 규모의 재난지원금 중 5천만 달러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에 배정되었다.

#### ② 주요 내용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이 국립 예술 및 인문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산하에 독립 기구로 설립되며 박물관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Museum Services), 도서관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Library Services)으로 구성된다. 청 아래에 전미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를 둔다.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은 도서관, 교육 및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 프로그램간의 조정, 연구, 교육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정보 기반 시설 내 도서관의 역할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A)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 (B)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서관, (C) 학술도서관(Academic Library), (D) (i) 학술연구에 적절한 도서관서비스 및 도서관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도서관, (ii) 고등교육기관의 불가분한 부분이 아닌 도서관에 해당하는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 (E) 사립도서관 또는 기타 전문도서관(다만, 해당 사립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이 소재한 주가 동법 제III절의 목적을 위한 도서관으로 간주했을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다(Sec. 9122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주 도서관 행정기관은 5개년 계획의 종료 전에 지원받아 수행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Sec. 9134 (c)). 동법 Section 9122(1)(A)또는 (B)에 정하는 도서관은 중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Section 254(h)(6)에 규정된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서관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관련된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A) (i) 해당 도서관이 인터넷·접속의 컴퓨터를 통해 (I) 외설적, (II) 아동 포르노, (III)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시각적 표현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운용을 포함하여 미성년자를 위한 인터넷의 안정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ii) 해당 도서관이 미성년자의 컴퓨터 사용 중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와 (B) 해당 도서관이 컴퓨터를 통해 (I) 외설적, 또는 (II) 아동 포르노인 시각적 표현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의 안정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ii) 해당 도서관이 컴퓨터의 사용 중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Sec. 9134 (f)).

동법은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 상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교육, 문화유산 또는 미학 목적을 위해 영속적으로 조직된 공공, 부족, 사립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로, 전문적인 직원을 활용해 유형물을 소유하거나 활용하고, 관리하는 한편 공중에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곳을 말하며, 유형적·디지털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수족관, 삼림공원, 식물원, 미술관, 어린이박물관, 일반박물관, 역사적 건축물·사적, 역

사박물관, 자연센터, 자연사·인류학 박물관, 천문관, 과학기술센터, 전문박물관, 동물원이 포함된다(Sec. 9172).

청장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정책 조언을 받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계약, 협력협정 및 기타 지원 방식을 포함하여 박물관, 주, 지역정부 및 기타 단체와 다음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모든 연령층의 개인이 다양한 형태(전시, 프로그램, 출판물, 웹사이트를 포함)의 소장품, 정보, 교육 자료를 학습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박물관 지원, (2) 모든 학생들에게 잘 정비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와 지방의 노력을 지원하여 전국의 학교와의 학습협력관계 구축과 박물관 자원, 역량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박물관 지원, (3) (A) 보관, 전시 및 사용을 위한 최선의 조건 제공, (B) 재난과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 및 대응, (C)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 (D) 유형물 관련 정보 큐레이팅, 안정화 및 체계화 및 (E) 소장품 관리 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박물관의 소장품 유지 및 보존을 지원, (4) 주내 박물관 서비스를 개선하여 극대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서비스 및 수요에 대한 평가와 주 계획의 개발을 포함하여 박물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주 단위에서 노력을 지원, (5) 박물관 연합,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체 기반 기관 및 재단과 같은 기관 및 기타 협력 체계를 통해 박물관 서비스를 개선하여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 기술 수단 및 데이터 자원을 만들고 박물관 인력 교육 계획을 개발 (6)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박물관과 도서관, 학교, 고등교육기관, 국제, 연방, 주, 지역, 부족, 지방 단체나 기관, 비정부기관, 기타 지역사회기관 및 기타 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연방분담금 지급 협약 체결이 이에 해당된다(Sec. 9173 (a)).

## 2)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7편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7편은 농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체 시설 용자 및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Community Facilities Direct Loans & Grants)과 공동체 시설 보증대출(Community Facilities Guaranteed Loan Program)에 관한 사항이 PART 1942 및 PART 3570과, PART 5001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운용되는 지역에 유익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인 필수 공동체 시설(essential community facilities)의 구매, 건축 및 개선 관련 프로젝트

비용은 공동체 시설 직접 용자(Community Facilities Direct Loan) 및 보조금 프로그램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문화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 공동체 시설의 건축, 확장 또는 여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2. 종합문화기관의 가치와 역할(스미스소니언재단)

### 가. 설립 및 법적 위상

#### 1) 설립

스미스소니언재단은 1846년 8월 10일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처음 설립됐다. 영국의 화학자이자 광물학자였던 제임스 스미스슨(James Smithson)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수락, 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신탁기구다.<sup>58)</sup> 의회는 스미스소니언재단 설립 법안(9 Stat. 102)<sup>59)</sup>을 통과시키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리젠트 이사회’(Board of Regent)를 구성해 재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다. 리젠트 이사회는 스미스소니언재단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재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 부통령, 상원의원 3인, 하원의원 3인, 시민 9명<sup>60)</sup>이 참여한다.

#### 2) 법적 위상

스미스소니언재단은 연방기관들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먼저 미국 행정부 산하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리젠트 이사회의 일부 위원직에 현직 관료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을 겸임시킬 뿐,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스미스소니언

58) 스미스슨은 1829년 사망하면서 “미국 워싱턴에 ‘스미스소니언’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지식증가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하라”고 유언을 남겼고, 이것이 시행되기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림. 특히 이 법안은 의회는 물론 일반 대중사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의회에서는 국가기관을 만들 헌법적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에, 일반 대중과 학자, 교육자 등 사회 전반에서는 ‘지식 증대와 확산’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었음. 대학은 물론 천체 전망대, 과학연구소, 도서관, 출판사,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로 스미스소니언재단이 출현하게 됨.

59) <https://govtrack.us.s3.amazonaws.com/legislink/pdf/stat/9/STATUTE-9-Pg102.pdf>

60) 시민위원 중 2인은 콜롬비아 디스트릭트(District of Columbia)의 지역주민에 할당되고, 나머지 7인은 50개 주 출신 중 선발함. 같은 주에서 2명의 시민위원이 나올 수 없으며, 리젠트 이사회에서 지명하고 공동결의 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결정. 시민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1979년 리젠트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규에 따라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음.

재단인은 행정부 산하 조직이나 연방 부서가 아니며, 별도의 재단이라며 내무부나 복지부와 달리 스미스소니언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sup>61)</sup> 미국 법원은 이 같은 이유에서 스미스소니언이 정부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스미스소니언이 연방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 및 지방 법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면책특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한다. 스미스소니언은 지역 구역제 법규, ABC면허 조항, 판매 및 사용세, 부동산세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스미스소니언은 대부분 연방 기관들과 달리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자체 수익창출도 가능하다. IRS(국세청)의 분류에 따라 스미스소니언은 501(c)(3)에 속하는 면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 나. 조직 및 사업 운영

### 1)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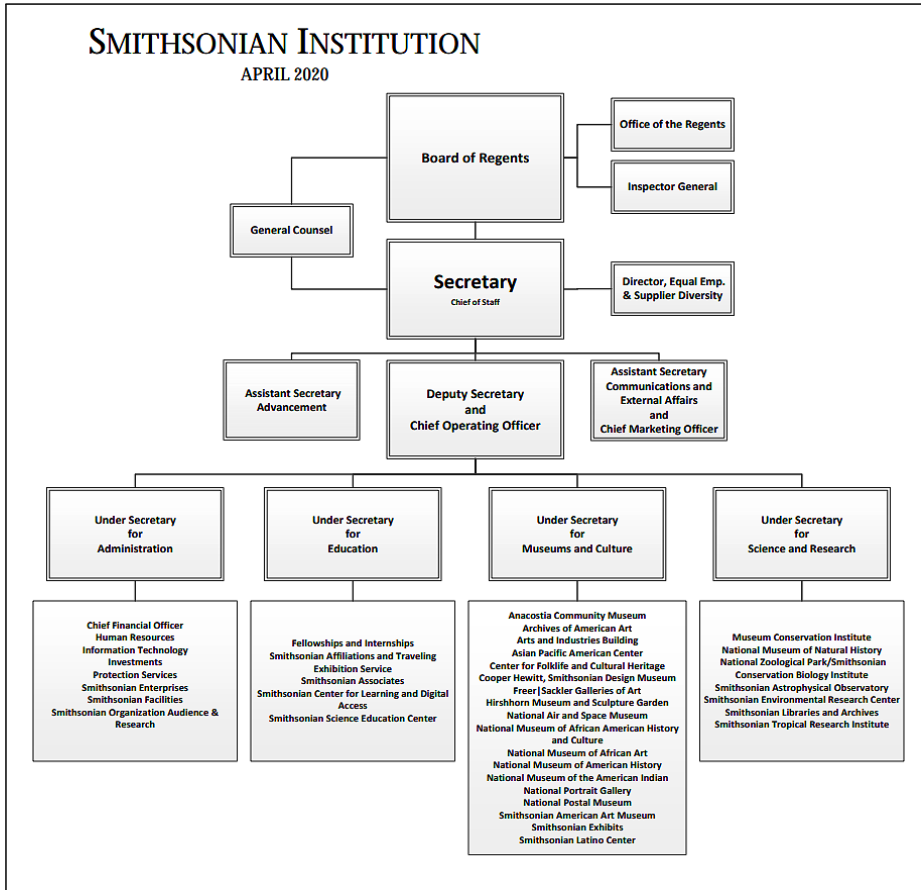
스미스소니언재단은 현재 19개의 박물관, 21개의 도서관, 동물원 및 천체관측소, 열대기후연구센터, 자연환경연구센터, 과학교육원 등 수많은 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예술문화과학교육기관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리젠트 이사회는 스미스소니언의 CEO 격인 사무총장(Secretary-chief of staff)을 선임하며, 이 사무총장이 스미스소니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미술관, 박물관, 교육센터, 연구소들은 분야별로 속한 부서는 다르지만 이 같은 조직도 안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한다. 일상적인 수준의 협력은 큐레이터 대 큐레이터 혹은 각 미술관 박물관 관장 대 관장끼리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되며, 개별 기관의 협력범위를 넘어서거나 스미스소니언 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리젠트 이사회<sup>62)</sup>의 정기회의(연간 4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조직도는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Linda St. Thomas(stthomasl@si.edu; Chief Spokesperson, Smithsonian Institute.) 인터뷰 내용

62) 175년 스미스소니언 역사 동안 총 14명의 사무총장 임명. 평균 재임 기간은 12.5년이며, 가장 오래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초대 총장인 조셉 헨리(Joseph Henry, 1797-1878)로, 1846년부터 1878년까지 32년간 조직을 운영. 현재 14번째 사무총장은 로니 G. 번치 III(Lonnie G. Bunch III)으로 지난 2019년 6월 임명됨. 번치 총장은 스미스소니언의 국립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역사문화 박물관의 관장을 역임했으며, 박물관 설립 초창기 멤버다. 또한 최초의 흑인 사무총장이기도 함.

[그림 3-1] 스미스소니언재단 조직도<sup>63)</sup>



## 2) 스미스소니언재단 이사회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리젠트 이사회(Board of Regent)는 1846년 미국 의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았다. 연간 4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통해 예산 검토 및 승인은 물론 주요 보직의 인사, 정책, 성장 방향 등 굵직한 아젠다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는 매년 사무총장과 재단의 성과를 평가하며 사무총장의 연봉 결정, 주요 정책의 집행 감독,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주도, 감독,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법과 윤리 준수, 재무 보고 및 감사 프로세스의 무결점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업무도 포함한다.

63) <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Admin/smithsonian-organizational-chart.pdf>

리젠트 이사회의 업무 상당부분은 상임위원회(committee)<sup>64)</sup>가 수행하는데, 매년 수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조사 결과와 조치 및 권고사항에 대해 리젠트 이사회에 보고한다.<sup>65)</sup>

가장 최근에 열린 리젠트 이사회(2021년 4월 12일)<sup>66)</sup>에서는 1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펀드레이징 목표액 2억 달러 중 7855만 달러 달성 등 각 상임위의 업무보고에 이어 번치 사무총장의 비전과 전략<sup>67)</sup>, 2개의 미술관 신규 설립<sup>68)</sup>, 코로나19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다. 재정 자원과 기부금 운영

스미스소니언재단은 크게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된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지원금과 재단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다.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기준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10억 달러다. 전체 예산의 약 62%를 차지하며, 나머지 38%는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과 회원권, 스미스소니언 엔터프라이즈 운영 수익(잡지, 우편 주문 카탈로그, 엔터테인먼트, 상점, 레스토랑 등)을 포함하는 신탁기금이다.

2020년 연간보고서(Year Book)<sup>69)</sup>에 따르면, 당해 연방정부 지원금은 7억1,300만 달러다. 전체 수입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외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과 보조금이 23%, 재단의 수익활동에 따른 수익금이 8%, 기부금(endowment payout)이 6%, 기타 수익이 9%의 비율을 보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그림 3-2]와 같다.

스미스소니언재단 자체가 막대한 ‘기부’에서 출발했다. 제임스 스미스슨의 유지가 없었다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미술관, 교육 및 연구 기관은 탄생하지 못했다. ‘기부’는 스미스소니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가치다.

64) 집행상임위(Executive Committee), 선진화 상임위(Advancement Committee), 회계감독상임위(Audit and Review Committee), 인사 상임위(Compensation and Human Resources Committee), 시설 상임위 (Facilities Committee), 재무 상임위(Finance Committee), 거버넌스 및 임명 상임위 (Governance and Nominating Committee), 투자 상임위(Investment Committee), 전략 혁신 기술상임위(Strategy,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ttee)등 9개

65) [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unit/regents/june\\_2021\\_regent\\_committee\\_roster.pdf](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unit/regents/june_2021_regent_committee_roster.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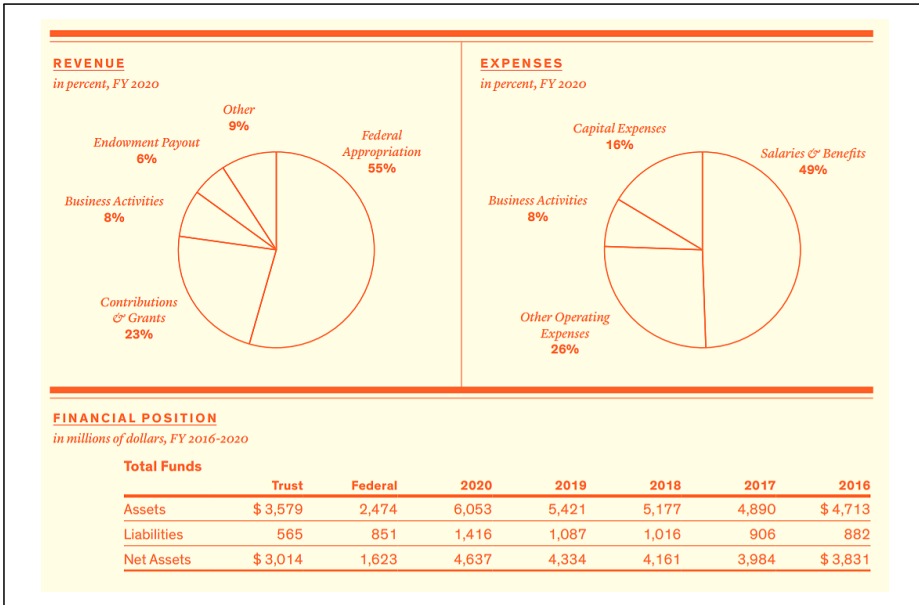
66) [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unit/regents/approved\\_board\\_minutes\\_april\\_2021.pdf](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unit/regents/approved_board_minutes_april_2021.pdf)

67) 5대 미래전략으로 1)미국시민 정체성을 탐구하는 공신력 있는 원천 2)과학 고도화의 전 지구적 관점에서 스미스소니언의 전문지식 활용 3)국가적 학습문화 구축과 발달을 위해 전국적 교육시스템과 협력 4)스미스소니언의 가상 콘텐츠의 전미 가정과 교실 접근성 강화 5)기관의 민첩화와 효율화

68) 미국국립라틴미술관(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Latino·NMAL)과 스미스소니언 미국여성역사박물관(the Smithsonian American Women's History Museum·SAWHM)

69) [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oa/smithsonian\\_2020\\_annual\\_report\\_071521.pdf](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oa/smithsonian_2020_annual_report_071521.pdf)

[그림 3-2] 스미스소니언재단 수입, 지출 현황(2020년~2016)



2020년 9월 30일 기준 재단의 가치는 18억 6,380만 달러로 평가된다. 자산평가를 시작한 1974년엔 2,800만 달러로, 연간 9.6%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의 수익률은 12%다. 투자운용사는 물론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에도 성과를 보였다. 2005년 이후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4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 재단이 민간에 기부한 금액은 8억9,400만 달러다.

재단의 주요 수익원인 예산 확보(펀드라이징) 구성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총 2억 2,980만 달러 중 개인 기부금이 1억1,600만 달러(50%)로 가장 크고 뒤이어 기업(6,700만 달러)이 29%, 재단(4,060만 달러)이 18%, 기타 610만 달러(3%)의 비율을 보였다.

재단의 연간 예산은 책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 연구소 등 산하 기관들이 각자 운영에 필요한 추정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사무총장이 리젠트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검토 후 승인된다. 내부 결제를 마친 사무총장은 승인된 예산안을 미국 행정 관리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의회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의회에서 연간예산이 통과되면 사무총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리젠트 이사회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미리 승인되거나 수정된 예산 안에서만 가능하며, 추가 지출은 불가능하다.

스미스소니언은 1978년 개정된 감찰관법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관 제도(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OIG)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 내 부정 행위, 낭비 및 남용 방지, 경제성과 효율성 증진을 꾀하고 있다. 감사관은 리젠트 이사회와 미국 의회에 매년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라. 조직 비전과 거버넌스

스미스소니언재단은 2017년 ‘5개년 미래전략-스미스소니언 2022’<sup>70)</sup>를 발표했다. 이 계획의 7개 단기과제는 1)하나의 스미스소니언 2)새로운 대화 촉진과 복잡한 과제 해결 3)디지털 우선 전략을 1억 명의 관람객에 도달하기 4)21세기 관객들에 대한 이해 5) 장기적 관점으로 학술 프로젝트 추진 6)이용자산 최적화를 통해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 7)기민하고 효율적인 행정 인프라 구축 등이다.<sup>71)</sup>

스미스소니언재단은 미국 내 미술관 및 박물관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류의 특징은 동등한 기관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스미스소니언은 미국 내 213개 미술관 및 박물관과 제휴하고 있으며,<sup>72)</sup> 다양한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0) <https://www.si.edu/sites/default/files/about/smithsonian-2022-strategic-plan.pdf>

71) 1)하나의 스미스소니언을 통해 재단은 관람객들이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을 경험할 때 끊어짐 없이 통일성 있는 이용자 환경을 구축하고, 전체 전시와 공간을 좀 더 큰 시각으로 접근. 2)새로운 대화촉진과 복잡한 과제 해결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자신들의 국내외 영향력을 통해 새로운 콜라보 가능성 확장 3) 디지털 우선전략은 스미스소니언 소유의 컬렉션에 누구나 자유롭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표. 4)현재 관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21세기 관객 이해 전략’은 미국국민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전시의 다양화를 통해 관객과 접점을 넓히는 것. 5)장기적 관점에서 학술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스미스소니언의 연구기능 강화. 학계, 산업계,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요 과제를 전진시키며, 데이터 과학과 분석 강화를 통해 스미스소니언의 과학적 영향력을 강화. 6)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는 재단전체의 컬렉션 수집계획. 또한 재단 시설 사용의 최적화를 통해 컬렉션 보존과 지속가능성 사이 균형. 7)행정 인프라 효율화는 장기적 관점으로 운영과 재정계획을 세우고,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고려, 행정 기술도 선진화.

72) <https://affiliations.si.edu/wp-content/uploads/PDFs/Affiliate-Directory-List-April2021.pdf> 제휴기관 명단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제휴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투어프로그램 SITES(Smithsonian Institution Traveling Exhibition Service)다. SITES를 통해 스미스소니언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타 박물관·미술관, 문화단체, 교육 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결을 꾀한다.<sup>73)</sup> 스미스소니언재단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모든 협력 관계가 특별한 법률에 의거한 정책이 아닌 스미스소니언과 타 박물관, 미술관들의 자발적 요청과 필요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토마스 대변인은 “타 미술관들은 스미스소니언의 위성기관이 아니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위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 3. 문화예술교육 강화

#### 가. 미국 예술교육 체계<sup>74)</sup>

##### 1) 예술교육의 회복과 정책 재활성화

부시 주니어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의회에서 가결되었던 ‘NCLB Act’와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신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예술교육은 공교육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위기 상황은 뒤이어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예술정책분야 대선공약으로 ‘학교-예술단체 민간 파트너십’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같이 제시했던 예술교육의 재활성화를 시행하면서 일단락되었다.

2011년도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PCAH)에서 발간한 “예술교육 재활성화: 창의적인 학교를 통한 미국의 성공적 미래 확보(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보고서를 통해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전략을 제시 및 권고하였다.

73) <https://affiliations.si.edu/affiliate-directory/>

74) 본 제3항에서 말하는 미국 예술교육은 우리나라 법상의 문화예술교육과 상이성을 갖고 있음. 논의하게 될 미국의 예술교육은 한국 교과과정의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함.

1.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edu standards) 기반 예술교육전문가, 통합교육과정 수료 학교교사, 프로젝트 기반 예술강사 간 협력 기회와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 협회 및 전문가 리더십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간의 협력
2. 통합예술교육 분야 확대: 교사의 전문역량 개발, 예산지원, 현장 인력 간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지식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예술교육의 발전과 확대
3. 학교 내 예술강사 기회 확대: 학교 교사와 전문 예술강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강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때 반드시 양질의 전문적인 교수법과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4. K-12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연방정부 정책을 활용: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적 혜택과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적 교육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재정방안 수립 시, 지출에 대한 “허가” 수준 이상의 집행 근거를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5. 예술교육에 대한 근거 수집 확대: 예술의 혜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의 확대가 필요함. 특히, 학교예술교육의 향상과 창의성 개발에 대한 자료와 근거 수집이 필요함. 기초(local), 광역(state)단위에서 교사의 역량(quality), 자원, 설비 등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본 이행 전략은 1)모든 학생에게 적합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K-12(유치원~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지는지 또는 부여되어야 하는지와, 2)소의 계층 학생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3)양질의 예술교육을 위한 강화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CAH, 2011).

이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할 것을 핵심 기조로 삼는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가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이 예술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양질의 전인적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예술교육에 대한 교육과정(educational standards)과 평가에 대한 정비 및 지원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단, ESSA가 NCLB를 완전히 부인하고 대체하였다는 인식보다, NCLB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ESSA가 그간 소외되었던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재활성화의 정책적 추진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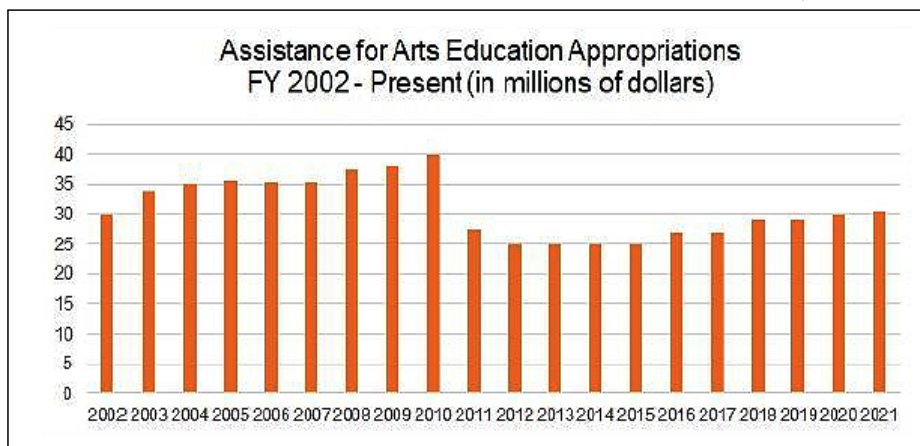
## 2) 미 교육부 Assistance for Arts Education (AAE) 사업 예산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가운데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산은 ‘예술교육지원(Assistance for Arts Education)’ 사업에 대한 예산일 것이다. 이 예산의 법적 근거는 2015년에 제정된 ‘ESSA’에서 찾을 수 있다. 단, 해당 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는 1965년도에 제정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근거하였으며, 사업명 역시 “교육에서의 예술(Arts in Education)”에서 개명된 것이다. ‘ESSA’는 예술을 전인적 교육의 필수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매년 의회의 결정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예술교육지원(Assistance for Arts Education)’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의 전문성 개발, 교육 자료 개발과 제공, 지역과 전국적 아웃리치(outreach) 활동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그림 3-3] 2002-2021 AAE 예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Americans for the Arts (2021). “Arts Advocacy Day 2021: Talking Points.”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by-program/reports-and-data/legislation-policy/legislative-issue-center/arts-education-policy-and-funding>

[그림 3-3]의 2002-2021 재정년도 AAE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뉴욕발 2008년 경제위기로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본예산은 지금까지 2011년도 삭감 이전의 규모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2020년도부터 소액(500,000달러)이지만 증가추세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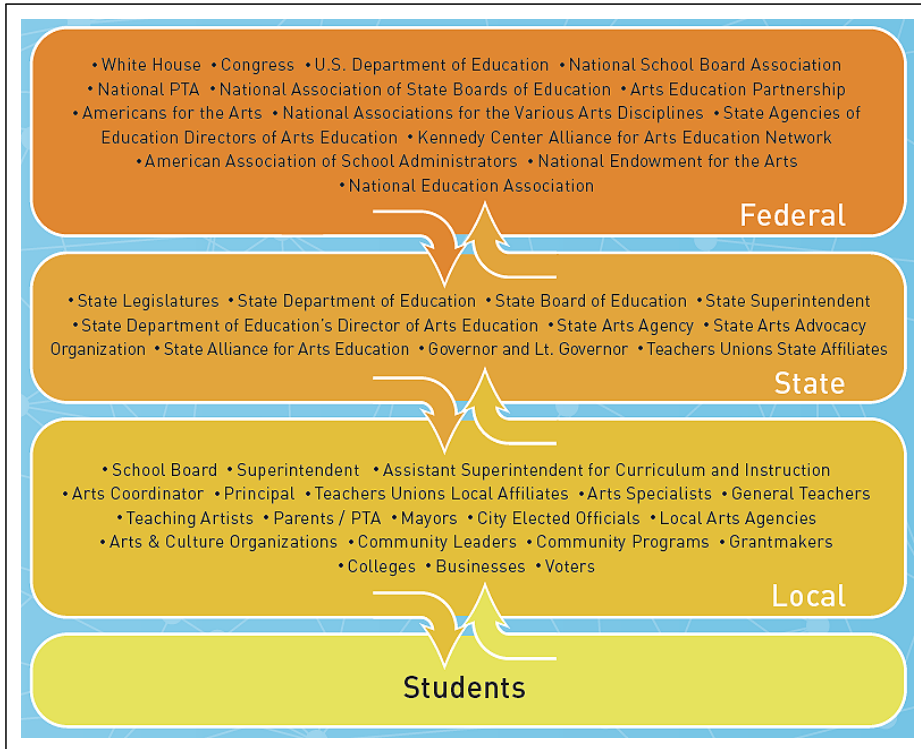
40,000,000달러 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Americans for the Arts, 2021)<sup>75)</sup>. 이에 대해 예술정책 이해단체인 ‘American for the Arts’에서는 상·하원 의회에 AAE 2022년도 예산을 40,000,000달러로 책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3) 예술교육 행정체계와 협력 구조

미국의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 시정부(local) 단위의 예술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와 구조는 다음 [그림 3-4]와 같이 나타난다. 학생을 궁극적인 수혜자로 볼 때, 시 단위 지역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교육감독관, 교장, 예술 강사, 학부모/학부모위원회, 지역교사노동조합, 기초예술위원회(LAAs), 예술가, 예술 강사, 문화예술단체, 재정후원자, 대학, 유권자 등을 기초단위 예술교육 관련 협력주체로 파악하고 있다. 광역행정단위(state level)에서는 광역 조례입안자, 주지사, 주 교육청, 주정부 예술교육부, 광역예술위원회(SAAs), 주 단위 예술교육연합회, 광역교사노동조합 등을 예술교육정책을 위한 협력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단위의 예술교육 협력주체로는 백악관, 의회, 미 교육부, 전국교육위원회, 전국학부모위원회, 예술교육파트너십(AEP), Americans for the Arts, NEA,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등 정부, 각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협회, 위원회 및 단체, 예술분야 민간단체, 공공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예술교육정책을 위해 협력을 촉구하고 논의해야 할 대상이 정부와 예술 및 교육 관련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5) Americans for the Arts (2021). “Arts Advocacy Day 2021: Talking Points.”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by-program/reports-and-data/legislation-policy/legislative-issue-center/arts-education-policy-and-funding>

[그림 3-4] 미국 예술교육 행정단위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구조



출처: Americans for the Arts (2015). "Arts Education Navigator: Making the Case." pp.20-21.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sites/default/files/pdf/networks/arts\\_education/FieldGuide\\_Brochure.PDF](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sites/default/files/pdf/networks/arts_education/FieldGuide_Brochure.PDF)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주창 성격의 활동까지 겸하고 있는 NEA 협력기관 및 정책 개발 단체 및 사업으로 '예술교육파트너십(Ats Education Partnership, AEP)'와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 '예술교육 지역공공기관장연합회(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SEADAE)'를 꼽을 수 있다. 미 교육부와 NEA가 공공으로 1995년에 설립한 AEP는 예술교육, 연구보고서, 예술정책과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기관 역할을 해오고 있다. NEA는 주예술위원회의 연합단체인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와 협력하여 1987년부터 주예술위원회(SAAs)의 예술교육 사업담당자(managers)의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역량 개발 외에도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NEA는 리더십 지원사업을 통해 SEADAE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통해 전미 지역에 있는 참여자들은

STEM교과에 예술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과 전략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나. 미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 1)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NCAS, 미국 예술교과핵심기준)<sup>76)</sup>

‘National Core Arts Standards(NCAS, 미국 예술교과핵심기준)’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준의 주요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 제공할 학습 내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학습 운영 체계의 향상을 견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별 교과목의 주요 개념, 학습 과정, 통용적 학습 규범, 학생, 교사, 행정을 포괄하는 교육 공동체의 기대와 지향 방향 등이 체화된 기준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NCAS(미국 예술교과 핵심기준)’는 철학적 기초와 평생 목표(lifelong goals), 예술적 과정과 창의적인 실행 또는 실천 내용을 포괄하는 예술적 독해력(artistic literacy)의 정의에 바탕을 두어 구조화되었다. 각 학교의 교사들이 개발하게 될 예술교과의 개념적 기본틀로 활용될 해당 내용은 교육의 철학적 개념 적용과 동시에 졸업 후 학생들에게 필요할 역량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다음 <표 3-7>은 예술교육을 통해 목표하는 주요 개념과 개발 역량을 제시한 것이다.

<표 3-7> NCAS의 철학적 기초와 평생 목표

| 철학적 기초(Philosophical Foundation)                         | 평생 목표(Lifelong Goals)   |
|--|---|
| <b>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예술</b>                                     |   |
| -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예술은 상징체계와 메타포를 통한 의미전달의 도구로서 매우 중요          | - 다양한 예술적 매체를 통해 개인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상징체계를 활용한 소통과 상대의 예술적 표현의 의도 파악 및 이해           |
| <b>개인의 창의성 자각을 견인하는 예술</b>                               |   |
| - 창작자, 실연자, 관(람)객 등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 역량을 발견 및 증진에 기여 | - 예술적 문해력(artistic literacy)을 갖춘 성인으로서는 적어도 한 예술 장르에 대해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 개발 |

76) 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 (NCCAS). (2016).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rts Learning,” 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Dover, DE. retrieved from: <https://www.nationalartsstandards.org/content/national-core-arts-standards>

| 철학적 기초(Philosophical Foundation)   | 평생 목표(Lifelong Goals)  |
|--|--|
| <b>문화, 역사, 연결기재로서의 예술</b>  |  |
| - 시대별, 장르별로 다양하게 작품에 담겨있고 드러나는 생각, 감정, 경험, 신념 등에 대한 이해는 여러 문화권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공          | - 예술적 문해력을 갖추어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가치를 향유하고, 예술과 그 밖의 지식 내용의 연관성을 알고자 하는 태도 함양 |
| <b>웰빙을 위한 예술</b>   |  |
| - 창작자, 실연자, 관(람)객 등으로 예술에의 참여는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웰빙을 증진시킴                                  | - 예술적 문해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예술 참여를 통해 기쁨, 영감, 안정, 지적 자극, 의미, 삶의 가치를 찾고 신장                  |
| <b>공동체(사회적) 참여로서의 예술</b>   |  |
| - 예술은 개인이 다른 이들과 즐겁고 포용적 환경에서 협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 예술의 창작, 준비과정,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에 기여 | - 예술적 문해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지역, 국가, 전(全)지구적 차원에서 예술적 경험과 지지를 찾고 얻을 수 있음                    |

출처: 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 (NCCAS). (2016).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rts Learning," p.10. 저자 번역.

NCAS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교육내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육 모형(model)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도 활용된다. 다만 '예술교과 핵심기준'이 각 학교의 예술교육 커리큘럼, 교육 방법 및 내용, 평가의 지침서 기능을 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예술교육의 과정 중심적(process-oriented)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교과 핵심기준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와 같이 결과 중심의 학습 기준을 제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수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주요 철학으로 삼는다. 그보다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술적 목표에 근거한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한 기준으로서 학습기준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점차 확대되는 것을 핵심기준 활용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Understanding by Design (UbD) Framework®'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교육 프레임워크는 학습의 목표 결과를 우선 선정한 후, 학습목표 도달 기준(평가기준)을 결정, 그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존의 교육개발과정을 역순으로 따르는 설계모형을 특징으로 한다. 더불어 전미를 대상으로 NCAS(예술교과 핵심기준)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웹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다. 교사와 지역 교육청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해당 기준내용별로 학생들의 과제물을 사례로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2) 주(state)별 예술교육정책

다음 <표 3-8>은 미국 50개 주와 District of Colombia(워싱턴 DC)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정책 수립 현황을 보여준다. 각 주마다 수립한 교육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학령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이 어떠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자료는 미국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핵심 교과목 포함 여부, 졸업 전 필수이수 교과목 선정 여부, 교사들의 역량 기대 수준, 주정부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파악된다.

<표 3-8> 주(state)별 예술교육정책 현황 비교 (2021.3. 기준)

| 예술교육정책                                    | 있음 | 없음 |
|---|----|----|
| 예술 교과가 핵심 교과목으로 지정                        | 32 | 19 |
| 유아 예술교육기준(arts education standards) 수립    | 51 | 0  |
| 초·중·고 예술교육기준 수립                           | 51 | 0  |
| 초등 예술교육 필수학습내용(instructional requirement) | 42 | 9  |
| 중등 예술교육 필수학습내용(instructional requirement) | 42 | 9  |
| 고등 예술교육 필수학습내용(instructional requirement) | 43 | 8  |
| 예술 교과(학점)를 필수과목으로 고교졸업 조건에 포함             | 28 | 23 |
| 예술 교과(학점)를 선택과목으로 고교졸업 조건에 포함             | 22 | 29 |
|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청, 또는 주(state)정부 평가 의무화    | 13 | 38 |
| 주정부 인증을 위해 예술교육을 학교 교육 의무 명시              | 17 | 34 |
| 비예술교과 교사의 예술 관련 예비교육 자격 취득 조건 명시          | 28 | 23 |
| 예술교과 (전담)교사의 예술교육 자격 취득 조건 명시             | 43 | 8  |
| 주정부 예술교육 지원사업 또는 학교예술교육 지원금 운영            | 23 | 28 |
| 예술과 STEAM 졸업증명서(Diploma Seals) 시상         | 3  | 48 |
| 기타 주정부 예술교육정책                             | 24 | 27 |

출처: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Arts Education Partnerships. (2021.3.). "2021 ArtScan at a Glance." <https://www.ecs.org/artscan-at-a-glance/>

해당 자료를 통해 미국 전 지역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유아, 초·중·고등교육 학습기준(arts education standards)을 수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13개 주에서만 예술교육평가 시행정책이 실행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해당 예술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은 학교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고, 또는 교육청(district)이나 주정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

을 포괄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예술교육에 대한 교육기준은 미국 전 지역에서 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예술교육의 평가를 통해 실행되는 교육에 대한 관리 의무화를 시행 중인 곳은 1/3에 못 미치는 13개 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정책은 비예술교과 교사들에게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28개 주로 적지 않았다. 비예술교과 교사의 예술교육에 대한 예비자격증(certificaitate 또는 initial licensure) 취득 조건은 통합예술교육 과정의 설계와 실행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예술교육 제공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2021년 기준 17개 주에서는 예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공통범주화되기 어려운 지역별 환경에 따른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4. 문화유산 보호

### 가. 미국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관리의 개념

문화유산은 cultural heritage 또는 heritage란 용어를 통해 많이 설명되고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유산으로 번역되는 cultural heritage는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집단의 유형, 무형의 역사적 자산을 주로 의미하며, 여기에 자연유산이나 디지털 유산으로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기도 한다.<sup>77)</sup>

문화유산 관리는 국가의 문화유산을 정책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일체를 지칭하며, 관리 또는 정책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Historic Preservation(영국은 conserv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박물관과 문화역사센터를 통해 역사적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반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UNESCO의 문화유산(cutural heritage) 개념을 받아들이며 보존대상과 관리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77) 무형문화재는 오래된 역사적 건물, 기념탑, 예술작품 등을 포함하고 있고, 무형 문화재는 민속무용, 전통, 언어, 일정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공유된 지식 등을 의미함. 자연유산은 자연경관, 생태계 다양성(biodiversity), 오래된 나무 또는 숲을 포함한다. 디지털 유산은 최근 EU의 문화유산에 포함된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속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의미함.

미국의 문화유산 개념은 국가지정유산(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or National Register))은 미국 문화유산의 대상을 미국 역사, 건축, 고고학, 기술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산(properties significant in American history, architecture, archeology, engineering and culture)으로 정의하고, National Park Service가 만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National Register에 등재되는 문화유산은 구역(districts), 장소(sites), 건물(buildings), 구조물(structures), 물품(objects)으로 대부분이 유형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다.

문화유산 관리(historic preservation)는 역사적 자원<sup>78)</sup>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역 박물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문화재나 역사적 기록을 통해 국가의 역사적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양한 노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문화유산은 경제적, 문화적, 관광자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역사적 자산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결합되고 있다. 즉 정책적으로 보존된 역사유물은 세계화 시대 관광산업의 중심이자, 지역경제개발의 중요한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 나. 미국 문화유산 정책과 제도

### 1) 법적 기반

연방정부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역할은 1890년대 미국 하원이 남서부의 푸에블로 유적지(Puebloan sites)의 보존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연방 하원은 수천 에이커의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국방부(당시 department of war)로 하여금 5개의 남북전쟁 유적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 1890년대 하원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은 Antiquities Act of 1906과 Historic Sites Act of 1935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1906년 제정된 고대유물법(Antiquities Act)은 연방정부 국유지에 있는 문화재를 신속하게 발굴·지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며, 국가문화유산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공하였다. 즉 이 법은 대통령이 문화재가 있는 국유지를 국가 유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 1935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포괄적 정책이 역사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을 통해 수립되었다. 이 법은 내무부 장관(Department of

78) 공동묘지, 일정 지역, 시설 등을 다양한 것들을 포함

Interior)에게 문화유산을 발굴,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역사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적지, 건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National Park Service에게 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National Historic Landmarks를 지정하였다.

1966년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재생, 고속도로건설, 연방 인프라 사업들로 인해 수많은 문화유적과 National Historic Landmarks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파손에 대응하는 정책<sup>79)</sup>을 포함하는 문화유산 관리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지정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지정 및 관리 절차,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국립유적지 보호재단(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설립과 주정부의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연방정부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노력을 규정하였다.

## 2) 추진체계: 조직 및 사업

문화유산 관리는 1935년 역사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에 따라 연방정부의 National Park Service가 담당하고 있다. 이후 1966년 제정된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문화유산보존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주정부의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와 인디언 유적지의 Tribal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현재 59개의 주정부(50개주와 DC)와 인디언 유적지의 문화유산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 Department of Interior)와 함께 문화유산보존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문화재 전문가와 국민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서, 정부사업이 문화재에 영향을 줄 때 연방정부 기관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직은 1976년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기

---

79) 1960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문화재 파손에 대응해 Lyndon Johnson대통령은 1965년 문화재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a special committee on historic preservation)를 설치하였고, 1966년 특별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한 "With Heritage So Rich"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하원은 위원회 통합모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을 제정함.

금(Historic Preservation Fund)으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s)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할 때 재원 역할을 한다. 2016년 연방 하원은 2023년까지 문화유산기금의 규모를 15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금은 산식에 의해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업(formula-based appointment grants)과 경쟁 공모사업(competitive grant program)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산식에 따른 프로그램은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Tribal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그리고 주정부를 통해 시행되는 지방정부인증제 프로그램(certified local governments)을 통해 많은 부분 지급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른 구체적 지급기준을 통해 경쟁입찰 사업을 진행한다.

주정부 수준에서는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와 인디언 문화유산관리소(Tribal Historic Preservation Office)를 통해 주정부와 그 하위의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51개주에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를 설치하고, 주지사에게 주정부 문화유산사업을 추진할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문화유산기금(Historic Preservation Fund)을 통해 지급된다. 주정부 문화유산소의 역할은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과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교육, 도시계획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는 주정부와 주지사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문화유산 또는 문화재의 종합적인 조사 수행
- 문화유산 목록 관리 및 유지
-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주정부 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추진 및 관리
- 국가지정유산에 지정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자문 및 지원
- 주정부의 문화유산 보존계획의 준비 및 집행
-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련 정보,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을 제공
-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보존사업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인증(certified local governments)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역사보존법 106조(the Section 106 provision of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sup>80)</sup>에 따른 연방정부 규제에 대한 자문 제공

연방정부는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이 제시한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정부에게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6:4, 즉 주정부의 40% 매칭펀드(match to the funds by the HRF)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문화유산기금을 운영비와 주정부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중 10%의 재원이 지방정부인증제 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9.7만 달러, 2020년에는 52.7만 달러가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다. 인디언 보호지역 문화유산관리소(Tribal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역시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1.7만 달러, 2020년 13.7만 달러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다.

#### 다. 문화유산 관리조직들 간의 협력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1906년 Antiquities Act of 1906과 Historic Sites Act of 1935에서 시작되어, 1966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서 그 체계를 갖추었다. 문화유산관리를 위한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과 문화유산기금(Historic Preservation Fund)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적 권한과 재정을 통해 적어도 문화유산 관리 분야에서는 내포권위형 모형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독립되어 있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법적, 정책적, 관리적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강제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수단은 크게 주정부를 통해 시행되는 지방정부인증제(Certified Local Government Program)와 국가 지정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

80) 국립역사보존법 106조는 연방정부의 기반시설 도입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국가지정 문화유산(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연방정부의 추진기관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개발업자, 지역의 관련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 조항임. 이런 경우 대부분은 연방, 주,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해결됨.

지방정부인증제(Certified Local Government Program) 사업은 주정부 문화유산 관리소 예산의 10%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은 지방정부는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와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가 공동주관하는 인증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인증과정을 통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문화유산관리·보존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약을 받고, National Park Service guideline을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소 지침(NPS guideline)은 지방정부에 전문성을 가진 역사보존위원회(qualifie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설치·운영, 문화유산 목록관리, 지역 문화재 조사, 주정부와 지방정부 문화유산보존 관련 법령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증제와 인증지침 충족을 강제하며 지방정부에 문화유산 관리를 강제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지방정부인증제(Certified Local Government Program) 사업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문화유산관리소는 인증받은 지방정부에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용도구역(zoning) 지정하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모범조례(model ordinance)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의 개발을 관리·제한하고 있다(NY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그 외에도 국가지정 사적지 목록에 기재된 유적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확대, 지방정부의 문화유산보존 노력을 기록한 연감(annual report) 발간, 지역 내 문화유산 조사, 지역의 문화유산관리기구(local preservation review board or commission)에 교육과 훈련 제공 등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정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는 미국 문화유산의 공식 목록으로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지칭하며, 2020년 약 94,000개 이상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 내무부 속의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 Department of Interior)가 관리하고 있다.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내무부 장관에게 사적지 목록의 관리, 사적지 지정에 관한 내용의 개발과 관리, 사적지 공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National Park Service에게 해당 권한을 위임하였다. 사적지로 지정되면 공인된 문화유산으로서 권위는 물론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지정사적지가 되면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Section 106조에 따라 지정사적지 및 그 주변의 개발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 Section 106조는 지정사적지 주변에 연방정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유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이해관련자들에게 악용·오용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지정사적지 제도 문화유산 보존과 정부 간 협력을 보장하지 못 한다. 정부의 보존 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이라도 연방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이고,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문화유산을 소유한 사람(non-federal owners)은 문화재의 해체(destruction)를 포함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즉 연방정부의 국가유산보존법은 연방정부 영내에 있는 문화유산에만 적용되며, National Register에 있더라도 연방정부 영내에 있지 않거나, 개인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나 제약하지 못한다.

국가지정 유산이 국유지에 있더라도, 개발업자들은 연방과 주정부 의회에 로비를 통해 제정된 다수의 개별법을 만들어 국가유산보존법을 우회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 건설 또는 주요 재난 후 FCC 승인을 받은 통신시설의 복구는 국가유산보존법 106조의 규제에서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국가유산보존법 제106조를 포함한 법령 전반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기보다는 보존을 위한 절차적 요건(procedural requirement)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국립문화유산보존 기금(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의 조사는 2010년 제106조에 따른 주정부문화유산보호소 심사 중 2%만이 문화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법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방안을 따라야할 책임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연방정부의 의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차원에서 현실화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DeSantis, Mark K., 2020).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제4장

미국 지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State of New York 사례)



## 제1절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 이해

---

### 1. 문화예술 공공민간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가. 미국 정부별 문화예술진흥 접근법

##### 1) 미국 연방정부 접근법

1965년 의회에 의해 설립된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은 자금과 지원을 통해 미국인들이 예술에 참여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 연방 기관이다. 주 예술 기관, 지역 대표자, 기타 연방 기관 및 자선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 기금은 예술 학습을 지원하고, 미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기념하며, 모든 지역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립예술기금 모든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 영토에서 예술에 대한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미국 유일의 기금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전역 각 주의 주민들에게 예술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유 매칭 보조금을 지원하며, 출판된 창작 작가 및 번역가를 위한 문학 펠로우십을 제공하기도 한다. 62개에 달하는 주/관할 예술 기관 및 지역 예술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전역을 아울러 문화예술정책을 진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국립예술기금을 통한 비영리조직 자금지원이 그 핵심이다. 연방정부는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기금을 활용해 예술문화 관련 비영리단체를 지원한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조직들은 이를 매개로 정부정책 집행을 지역단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차원과 달리 비영리조직은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와 의사소통을 한다기보다는 기금을 통한 간접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차원에서 비영리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편은 대변자 혹은 옹호자(advocacy) 기능을 통해서이다. 가령 Americans for the Arts는 미국 전역에서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주요 초점을 두고 있는 전국 단위의 비영리 단체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문화의 중심지 뉴욕시에 사무실을 두고, 50년 이상 서비스와 대변자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의 주요 입법 이슈 섹션을 통해 단체의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예술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이를 입법과정의 목소리와 요구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미국 행정부가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도록 비영리단체 소속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직접적 정책형성자 기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구의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 2) 미국 주정부 접근법

각 주정부의 예술위원회 혹은 정부부처는 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주 전역의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가령 뉴저지 지역 사회 구호사업 공연무대 그랜트 프로그램(New Jersey Community Stage Relief Grant Program)의 예를 들면, 공연 예술가의 라이브 이벤트 또는 공연을 조직, 홍보, 제작, 관리 또는 주최하는 영리 시설에 최대 300,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각 주정부의 예술위원회 혹은 문화예술부처는 연방정부의 부분적 지원을 받기도 하며, 연방단위 기관 및 주정부, 주의회 등과도 협력 관계를 맺는다. 가령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술위원회의 재정구조 및 협력 관계를 보면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정부 예술기관 협회, 비영리 지역 예술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sup>81)</sup>

각 주정부의 예술위원회나 주정부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예술 개발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 단위 지원을 하거나 예술가 개인들 혹은 예술 행정가들 개인단위의 경력 및 능력 개발에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주정부 수준에서의 지원 액은 예술제작 및 향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쓰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집행된다. 가령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술위원회의 예술 프로젝트 지원(APS; Arts Project Support)

81) <https://www.southcarolinaarts.com/grant/aps/>

보조금의 목적은 예술가나 조직의 수준 높은 예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예술적으로 예술가 자신 혹은 작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APS 보조금은 기술, 온라인 또는 가상 역량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예술 개발을 위해 그리고 예술가와 예술 행정 직원의 경력 발전, 전문성 개발을 위해 본 보조금은 쓰일 수 있다.

주단위에서 정부와 비영리간의 거버넌스 협력관계는 연방단위와 비교할 때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자금 및 기금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국립예술기금의 영향이 주정부 단위로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정부는 본 연방기금의 집행/전달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는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주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에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삼아 돕는 협력자 기능을 수행한다.

COVID-19 관련 극복 과정에서 주정부들은 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한 공동체의 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위원회들은 문화예술 부문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시시피주의 COVID-19 관련 보조금이 그 예이다.<sup>82)</sup> 미시시피 위기관리 그랜트(MAC CARES Emergency Grants) 프로그램은 연방의 CARES Act 자금을 사용하며 COVID-19로 발생한 사회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시피 예술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시시피의 비영리 예술 단체에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 정책 대응은 공공 예술, 예술 전시회 또는 공연, 중요한 예술 관련 가상 프로그래밍 및 예술 중심 커뮤니티 비전과 같은 예술 중심의 사회적 거리 이벤트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하였고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sup>83)</sup>

### 3) 미국 시정부 접근법

예술은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의 사소한 정책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술이 지방 정부 내의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의 기여자로서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클랜드시의 경우 오클랜드 시 문화 기금 프로

82) 미시시피 예술위원회, <https://arts.ms.gov/grants/>

83) COVID-19 관련 교부금은 조직 및 개인을 위한 신속 대응 미니그랜트(Rapid Response Mini Grants)와 조직을 위한 커뮤니티 대응그랜트(Community Response Grants)가 포함됨.

그램(City of Oakland Cultural Funding Program)은 도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오클랜드 기반의 예술 및 문화 활동에 경쟁적인 보조금 기금 과정을 통해 약 100만 달러를 배분한다.<sup>84)</sup> 이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은 오클랜드에 기반을 둔 비영리 조직들을 지원한다. 조직 지원 프로그램(OAP; Organizational Assistance Program)은 무용, 음악 또는 연극 공연, 수업 및 워크숍, 전시회 등 지역 사회 이익과 개발에 관계된 문화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들은 지역 내 박물관, 대학, 산업파트너, 타정부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문화유산이미지 작업, 고대 문화의 3차원 디지털 문서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다른 정부조직 등 다양한 기관/조직/섹터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접근법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접근법

| 구분   | 내용  |
|------|---|
| 연방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A 통한 자금지원이 핵심(지원 기준 마련)</li> <li>- 예술가들에게 창작 지원금 지원</li> <li>- 미국 각 주의 국민들에게 예술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보조금 지원</li> </ul>  |
| 주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기금의 집행자 및 전달자 역할</li> <li>- 각 주정부의 예술위원회 혹은 정부 부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li> <li>- 연방의회와 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li> <li>- 지역사회 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주정부와 비영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li> </ul> |
| 시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박물관, 대학, 산업파트너, 타정부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li> <li>-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 관계 구축</li> </ul>  |

84) 오클랜드시, 문화기금/그랜트, <https://www.oaklandca.gov/topics/cultural-funding-grant-program>

## 나. 미국 지방정부 문화예술 공공민간파트너십(PPP)

미국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공공민간파트너십을 이해하기 위해 주별 비영리 예술단체 지원기관 및 대표 협력 문화예술 기관의 현황을 <표 4-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주별 문화예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을 확인하였다.

<표 4-2> 주별 비영리 예술단체 지원기관 및 대표 협력 문화예술 기관

| 주             | 주정부기관<br>(비영리 예술단체 지원기관)                        | 주별 대표 협력 문화예술 기관  |
|---------------|---|---|
| Alabama       | Alabama State Council on the Arts               | Alabama Arts Alliance   |
| Alaska        | Alaska State Council on the Arts                | Alaska Arts and Culture Foundation (AACF)                               |
| Arizona       | Arizona Commission on the Arts'                 | Arizona Citizens/Action for the Arts                                    |
| Arkansas      | Arkansas Arts Council                           | Arkansas General Assembly<br>Arkansans for the Arts                     |
| California    | California Arts Council (State Agency)          | 주정부 기관  |
| Colorado      | Colorado Creative Industries                    | Arts for Colorado, Think 360 Arts                                       |
| Connecticut   | Offices of Culture and Tourism                  | Connecticut Arts Alliance   |
| Delaware      | Delaware Division of the Arts                   | Delaware Arts Alliance  |
| Florida       |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 Florida Cultural Alliance, Florida Alliance for Arts Education          |
| Georgia       | Georgia Council for the Arts                    | Georgians for the Arts  |
| Hawaii        | Hawaii State Foundation on Culture and the Arts | Hawaii Arts Alliance  |
| Idaho         | Idaho Commission on the Arts                    | 해당사항 없음   |
| Illinois      | Illinois Arts Council                           | Arts Alliance Illinois  |
| Indiana       | Indiana Arts Commission                         | Indiana Coalition for the Arts  |
| Iowa          | Iowa Arts Council                               | Iowa Alliance for Arts Education  |
| Kansas        | Kansas Creative Arts Industries Commission      | Kansas Citizens for the Arts, Kansas Alliance for the Arts in Education |
| Kentucky      | Kentucky Arts Council                           | Kentuckians for the Arts  |
| Louisiana     | Division of the Arts                            | Louisiana Citizens for Culture  |
| Maine         | Maine Arts Commission                           | ArtsEngageME, Maine Alliance for Arts Education                         |
| Maryland      | Maryland State Council on the Arts              | Maryland Citizens for the Arts, Maryland Citizens for the Arts          |
| Massachusetts |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 MassCreative  |
| Michigan      | Michigan Council for Arts & Cultural Affairs    | Cultural Advocacy Network of Michigan                                   |
| Minnesota     | Minnesota State Arts Board                      | Minnesota Citizens for the Arts,  |

| 주              | 주정부기관<br>(비영리 예술단체 지원기관)                | 주별 대표 협력 문화예술 기관  |
|----------------|---|---|
|                |   | Forum of Regional Arts Councils of Minnesota, Springboard for the Arts  |
| Mississippi    | Mississippi Arts Commission             | 해당사항 없음   |
| Missouri       | Missouri Arts Council                   | Missouri Citizens for the Arts,<br>Missouri Alliance for Arts Education |
| Montana        | Montana Arts Council                    | 해당사항 없음   |
| Nebraska       | Nebraska Arts Council                   | Nebraskans for the Arts   |
| Nevada         | Nevada Arts Council                     | Cultural Alliance Nevada  |
| New Hampshire  | New Hampshire State Council on the Arts | New Hampshire Citizens for the Arts                                     |
| New Jersey     | New Jersey State Council on the Arts    | ArtPride New Jersey   |
| New Mexico     | New Mexico Arts                         | 해당사항 없음   |
| New York       |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 Arts NYS Coalition  |
| North Carolina | North Carolina Arts Council             | Arts North Carolina   |
| North Dakota   | North Dakota Council on the Arts        | Arts North Dakota   |
| Ohio           | Ohio Arts Council                       | Ohio Citizens for the Arts, Ohio Alliance for Arts Education            |
| Oklahoma       | Oklahoma Arts Council                   | Oklahomans for the Arts   |
| Oregon         | Oregon Arts Commission                  | Cultural Advocacy Coalition, Oregon Alliance for Arts Education         |
| Pennsylvania   | Pennsylvania Council on the Arts        | Citizens for the Arts in Pennsylvania                                   |
| Rhode Island   | Rhode Island State Council on the Arts  | 해당사항 없음   |
| South Carolina | South Carolina Arts Commission          | South Carolina Arts Alliance  |
| South Dakota   | South Dakota Arts Council               | Arts South Dakota   |
| Tennessee      | Tennessee Arts Commission               | Tennesseans for the Arts  |
| Texas          | Texas Commission on the Arts            | Texans for the Arts, Texas Cultural Trust                               |
| Utah           | Utah Arts Council                       | Utah Cultural Alliance  |
| Vermont        | Vermont Arts Council                    | 해당사항 없음   |
| Virginia       | Virginia Commission for the Arts        | Virginians for the Arts   |
| Washington     |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        | Washington State Arts Alliance,<br>ArtsEd Washington                    |
| Washington DC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West Virginia  | West Virginia Commission on the Arts    | Appalachian Education Initiative  |
| Wisconsin      | Wisconsin Arts Board                    | Arts Wisconsin  |
| Wyoming        | Wyoming Arts Council                    | Wyoming Arts Alliance   |



## 1) 주정부별 문화예술 담당 기관의 구조

### ① 위원회, 커미션 그리고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

30개의 주에서 위원회(Council 혹은 Board)의 형태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지역 내의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위원회(council) 형태로 운영되는 주에는 알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햄프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즈아일랜드, 사우스다코다, 유타, 버몬트, 와이오밍 등 28개 주가 있다. 미네소타의 Minnesota State Arts Board, 위스콘신의 Wisconsin Arts Board의 경우도 영문표기 단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Board)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이들 주 예술위원회는 주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며, 연방 기관인 국립예술기금의 지원 또한 받고 있다. 주 예술위원회는 지역 내의 학교 및 비영리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예술가들이 정부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이들 주 예술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예술가들과 연계되도록 돕는 매개자 기능을 수행한다.

알라바마 예술위원회의 경우, 알라바마 주의회에서 연간 예산을 받고 연방 기관인 국립예술기금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주 예술위원회는 학교 및 지역 내 비영리 조직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공 예술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조지아 예술위원회의 경우, 예술가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예술가들로 하여금 비영리조직 혹은 정부조직들과 협력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 예술가들이 예술위원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조지아 전역의 학교, 도서관 및 커뮤니티에 조지아 예술가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 예술가 및 커뮤니티 예술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조지아 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술 단체를 위한 자금은 지역 사회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작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한다. 또한 조지아 예술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개발 및 역량 구축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sup>85)</sup>

85) 조지아예술위원회, <https://gaarts.org/about-us/mission/>

13개 주에서 커미션(Commission)의 형태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가령 아리조나,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사스, 메인, 미시시피, 오리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주정부 예술커미션 또한 주정부 소속으로, 예술의 공공성 확보, 형평성 강화,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경제 개발, 예술기초교육 등등 이들 커미션의 주요 임무에 속한다. 가령 워싱턴의 경우를 보면 워싱턴 주예술커미션은 1961년 워싱턴 주 입법부에 의해 설립된 주정부 기관이며 예술 및 예술교육을 진흥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또한 공공예술을 수집 및 보존하는 역할, 보조금 관리, 집행하는 역할, 예술/문화를 경제 발전에 연계시키는 역할,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sup>86)</sup>

위원회와 커미션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들 조직이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와 자율성 면에서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인다.<sup>87)</sup> 가령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관리, 지휘, 통치(lead & govern)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는 전문적 자문, 숙고, 의사결정 등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포함한다. 반면 커미션은 특정 전체 조직의 하부단위체로 일정 기능적 과제를 부여받은 특화된 임무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커미션의 경우 의사결정 및 자체 거버넌스는 필수요소가 아니다.

위원회나 커미션 형태가 아닌 제3의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가령 콜로라도(Colorado Creative Industries), 하와이(Hawaii State Foundation on Culture and the Arts), 뉴멕시코(New Mexico Arts) 등이 그 예이다. 가령 콜로라도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는 인간관계에 영감을 주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며 콜로라도 주 전역의 경제적 활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홍보, 자원 및 자금 조달 기회를 통해 시각, 공연 및 문학예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sup>88)</sup>

86) 워싱턴주 예술커미션, <https://www.arts.wa.gov/about/>

87) Council: 선거로 당선됨. 직분에 근무 기간이 있음. Committee: 하나의 단체로서 결정,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협의 및 심의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됨. Commission: 정부기관에 의해 지명되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음.

88) 콜로라도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https://oedit.colorado.gov/colorado-creative-industries>

주정부 직속 부처나 오피스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코네티컷(Offices of Culture and Tourism), 델라웨어(Delaware Division of the Arts), 플로리다(Division of Cultural Affairs), 루이지애나(Division of the Arts)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델라웨어 주정부의 공식 조직인 델라웨어 예술부(Delaware Division of the Arts)는 델라웨어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술을 지원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한 자문 기관인 델라웨어 예술위원회(Delaware State Arts Council)를 두어 함께 협력한다. 이 부서는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중을 교육하며 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예술 관련 보조금 및 프로그램을 관리한다.<sup>89)</sup>

## ② 문화예술 파트너/비영리 연합의 형태

다수의 주에서 비영리단체 연합 등의 형태로 정부의 위원회 혹은 커미션 등과 협력한다. 해당 사례로는 알라바마(Alabama Arts Alliance), 코네티컷(Connecticut Arts Alliance), 델라웨어(Delaware Arts Alliance), 플로리다(Florida Cultural Alliance, Florida Alliance for Arts Education), 하와이(Hawaii Arts Alliance), 일리노이(Arts Alliance Illinois), 인디애나(Indiana Coalition for the Arts), 아이오와(Iowa Alliance for Arts Education), 캔사스(Kansas Alliance for the Arts in Education), 메인(Maines Alliance for Arts Education), 미주리(Missouri Alliance for Arts Education), 네바다(Cultural Alliance Nevada), 뉴욕(Arts NYS Coalition), 오하이오(Ohio Alliance for Arts Education), 오리곤(Oregon Alliance for Arts Education),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Arts Alliance), 유타(Utah Cultural Alliance), 워싱턴(Washington State Arts Alliance), 와이오밍(Wyoming Arts Alliance)이 있다.

연합체가 아닌 주단위로 개별단체나 옹호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 가령 일부 주는 재단의 형태로 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알래스카(Alaska Arts and Culture Foundation)가 그 예이다.

그 외에 독자적인 비영리기구를 구성해 대민간/비영리조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리조나(Arizona Citizens/Action for the Arts), 콜로라도(Arts for Colorado-Think 360 Arts), 캔터키(Kentuckians for the

89) 델라웨어 예술부, <https://arts.delaware.gov/>

Arts), 루이지애나(Louisiana Citizens for Culture), 메릴랜드(Maryland Citizens for the Arts), 매사추세츠(MassCreative), 미시간(Cultural Advocacy Network of 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Citizens for the Arts), 네브라스카(Nebraskans for the Arts), 뉴햄프셔(New Hampshire Citizens for the Arts), 뉴저지(ArtPride New Jersey), 노스캐롤라이나(Arts North Carolina), 노스다코타(Arts North Dakota), 오클라호마(Oklahomans for the Arts), 펜실베이니아(Citizens for the Arts in Pennsylvania), 사우스다코타(Arts South Dakota), 테네시(Tennesseans for the Arts), 텍사스(Texans for the Arts, Texas Cultural Trust), 버지니아(Virginians for the Arts), 웨스트버지니아(Appalachian Education Initiative), 위스콘신(Arts Wisconsin)이 있다.

## 2) 문화예술 공공민간파트너십(PPP)

미국에서 문화예술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다. 1965년 의회에서 설립된 본 기금은 보조금 제공,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사회 행사 주최를 통해 자금 조달 및 홍보를 돕는다. 본 기금은 각 주정부의 예술정책, 지역 예술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등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각 주의 미션 선언문에는 “예술 발전(아칸소)”, “예술 강화(캘리포니아)”, “예술 옹호(델라웨어)”, “문화와 문화를 증진, 영속화 및 보존(하와이)”과 같은 진술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 주정부들이 예술 분야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주들은 예술의 효용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진흥책을 경제부흥 및 커뮤니티개발 정책과 연계해 정책적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

각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나 자금에는 유형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조금,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협력 단체에 대한 접근성 부여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받는다.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예술정책을 학생들 및 청년층의 교육 및 재능 계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가령 시낭독회인 Poetry Out Loud는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 및 경연 대회를 제공하는

국립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의 대중 연설 능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며 현대 생활의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플로리다, 몬타나, 사우스다코타와 같은 주에서 예술 추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층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소외된 계층이 없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과정에서 예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대부분의 주에는 해당 주에 예술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조직이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기관이 있다. 한편 각 주 혹은 지방에 예술 관련 옹호 및 대변자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들이 있어, 이들이 지역 내의 비영리단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정책/법안 입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술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의 지원함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령 형평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없는 소외계층을 포괄하도록 문화진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주정부/지방정부들의 사례가 그것이다. 한편 인종 간 갈등과 인종 간 형평성 제고라는 가장 미국적인 근본적 요소를 예술진흥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창조 전략 이니셔티브(Creative Strategies Initiative)는 변혁적, 반인종차별적인 조직을 위한 역량 구축 사업인데, 미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 2. 뉴욕주, 뉴욕시 문화예술정책 개요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주 > 카운티 > 시 및 기타 하위행정 단위의 계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각 주마다 그리고 각 주 안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방제도 자체가 각 계층의 정부 간 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 relations)는 상호의존성, 복잡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90)</sup> 이것은 뉴욕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 미국인들은

90)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산하에 88개의 시정부를 포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카운티라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주보다는 뉴욕시로 알아듣는다. 뉴욕시의 정확한 명칭은 City of New York이지만 통상 New York이라고 하거나 뉴욕'시'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New York City로 사용한다.

〈표 4-3〉 뉴욕주 인구<sup>91)</sup>

| City          | 2019 Population  |
|---------------|------------------|
| New York City | 8,336,817        |
| Buffalo       | 255,284          |
| Rochester     | 205,695          |
| Yonkers       | 200,370          |
| Syracuse      | 142,327          |
| Albany        | 96,460           |
| New Rochelle  | 78,557           |
| Mount Vernon  | 67,345           |
| 뉴욕주 총 인구수     | 19.45million(추산) |

이것은 〈표 4-3〉에 있는 것처럼 뉴욕주 인구<sup>92)</sup>의 3분의 2가 뉴욕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뉴욕시(미국 이주 역사의 관문)로부터 발전된 미국 동부의 역사적 맥락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 특성으로 인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뉴욕주의 문화예술 행정체계의 내용에는 뉴욕시를 포함하는 것이 더 적실성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뉴욕시는 뉴욕주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뉴욕시는 뉴욕주 보다 훨씬 먼저 문화예술을 위한 공공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뉴욕시는 1898년에 City Beautiful Movement에 발 맞춰 유서 깊은 The Art Commission<sup>93)</sup>을 구성하였다. 그 후 1960년에 라커펠러 주지사와 뉴욕 주 상원 및 하원은 뉴욕주에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를 설립하였고, 1971년 뉴욕주 의회는 미국 역사상 예술에 대한 가장 큰 정부 지원인 2,020만 달러를 NYSCA에 배정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NYSCA는 1974년 건축 및 환경프로그램,

는 명칭 대신 패리시(parish)라고 부르며, 알래스카 주에서는 버러(borough)로 지칭함.

91) 2019 U.S. Census Bureau Estimate <https://www.biggestuscities.com/ny>

92) 뉴욕주 인구수 1,945만 명(미국 인구조사국 출처)

93) 2008년 Michael Bloomberg 시장은 Art Commission의 이름을 New York City의 Public Design Commission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함.

1980년 동계올림픽 예술 후원, 1985년 예술교육 및 민속 예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 NYSCA 예산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1997년에 NYSCA는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계획을 실시하여 미국 문화예술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2001년에는 Black Theatre Initiative 주도, 2004년에는 뉴욕주 예술가 작업 공간 컨소시엄 창설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뉴욕주가 뉴욕시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평이 지배적이다.<sup>94)</sup>

이와는 별개로 뉴욕시 문화부서 또한 진화를 거듭하여 1962년에는 OCA(Office of Cultural Affairs)가 설립되었고, 1967년에는 OCA는 Parks, Recreation and Cultural Affairs Administration(PRCA)의 일부로 편입, 1976년 Cultural Affairs(DCA)는 별도의 기관이 되었다.<sup>95)</sup> 현재 뉴욕주,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NEA예산 총액보다 그 규모가 크다.<sup>96)</sup>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제 분석에서 있어서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제에 덧붙여 지방정부의 분석 예로 뉴욕주를 선정한 이유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가진 상징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 가. 뉴욕주,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

### 1) 뉴욕주 문화예술 관련 업무

뉴욕주는 주정부 차원의 문화예술 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 환경보호부, 지사행정지원부, 총무부 등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뉴욕주 입법부에는 주 예술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다. 문화예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뉴욕주 행정체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94) NYSCA는 300 Park Ave. S, 10th Fl. New York, New York 10010에 위치해 있음.

95) <https://www1.nyc.gov/site/dcla/about/history.page>

96) <https://www1.nyc.gov/site/dcla/cultural-funding/cultural-funding.page>,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is the largest cultural funding agency in the nation, with a Fiscal Year 2014 expense budget of \$156 million and a capital budget of \$822 million over the next four years.

〈표 4-4〉 뉴욕주 문화예술 행정조직

| 부처명   | 주요 기관 및 업무  |
|---|---|
| 교육부<br>(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방송 지원 : 이사회는(Board of Regents) 뉴욕주 대학교 시스템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USNY])에게 교육방송의 운영을 위탁하고, USNY는 교육방송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민간 방송국들에게 제공</li> <li>- 기록보관소 : 소장중인 기록들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이나 기타 컴퓨터 문서파일 형태들로도 제공</li> <li>- 도서관 : 소장 자료들을 공개할 뿐만이 아니라 뉴욕주 내부와 외부의 다른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연계 서비스들을 제공</li> <li>- 박물관 : 종합박물관으로서 역사학, 인류학, 자연과학 관련 하위 주제 영역들 다수를 포괄하는 자료들을 소장 중</li> </ul>  |
| 환경보호부<br>(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DE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 실외 여가활동들 수행이 가능한 장소 안내</li> <li>- 하천, 호수, 해양에서의 어획과 채집, 육지에서의 사냥, 캠핑, 하이킹, 뱃놀이, 여타 실외 여가활동들 대상 교육, 규제, 지원 병행</li> <li>-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실외 여가활동들 관련 교육 기회들과 교육 자료 제공</li> <li>- 실외 여가활동들의 합법적 수행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등록과 허가 관련 업무 담당</li> <li>- 영구 개발금지 삼림지역인 Forest Preserve 관리</li> </ul>  |
| 지사행정지원부<br>(New York State Executive Depart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박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 도박산업 하위 업종들을 관리, 규제하고 복권 관련 사업들을 독점</li> <li>- 공원여가역사보존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NYS OPRHP])</li> <li>- 영구 개발금지 삼림지역인 Forest Preserve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공원들, 실외 체육 활동 공간들(마리나[여가용 보트들과 요트들이 이용하는 항구와 부대시설들], 수영장,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공원의 방문자 교육용 전시관, 트레킹 경로, 여가용 보트, 요트용 계류장, 해변 등)과 역사적 유적들 관리</li> <li>- 역사적 유적들과 자연 경관들의 보호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고, 관련 민간 이해관계 보유 주체들에게 보조금들을 지급하고 그 산하기구인 자연유산신탁기금을(Natural Heritage Trust[NHT]) 운영하여 자연 경관들의 개발, 훼손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고 건물들, 토지들에 부과하는 세금들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보존 관련 기술적 지원들을 제공</li> </ul> |
| 총무부<br>(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NYS DO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NYSAC]) : 체육 종목들 가운데에서 격투기 종목들을 규제하고 격투기 선수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한 교육 그리고 기술적 지원들을 제공</li> <li>- 조지 호수 공원위원회(Lake George Park Commission) : 휴양지인 조지 호수와 그 주변 호안지대들에서 진행 가능한 수상 여가활동들과 관련한 규제</li> </ul>  |
| 뉴욕주(입법부) 예술위원회<br>(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NYSC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 뉴욕주 내 기초지방정부들, 선주민 종족집단들, 비영리기구인 단체들과 개별 예술가들</li> <li>- 개인들보다는 단체들 위주로 지원하지만, 소수 예술가들도 지원. 예술 교육과 예술 체험 기회들 향유가 제약받는 집단들 대상 지원도 수행</li> <li>- 뉴욕주 내부의 지방정부들 소속 예술, 기타 정신문화 진흥 담당 기구들과 민간 예술, 기타 정신문화 진흥 담당 기구들에게 재정 지원을 수행</li> </ul>   |



## 2) 뉴욕시 문화예술 관련 업무

뉴욕시(New York City)는 Manhattan, Bronx, Brooklyn, Queens, Staten Island의 5개 구(boroughs)가 합쳐져서 하나의 시를 이룬 것이다.<sup>97)</sup> 특이하게도 5개의 구는 각각 하나의 카운티(county)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시는 역사적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향유, 예술인 생활 향상 그리고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 노력을 병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NEA의 예산은 167.5백만 달러<sup>98)</sup>이며, 2020년 뉴욕시 문화예산 212백만 달러<sup>99)</sup>로 책정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뉴욕시 행정부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뉴욕시 문화예술 행정조직

| 부서명  | 문화예술 관련 기능  |
|--|---|
| 문화국<br>(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DCL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예술단체들,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과 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들과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 대상 지원정책들을 수행하고, 미술작품 창작 수단들로 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제공하는 정책인 Materials for the Arts를 담당</li> <li>- 문화국은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문화 기금 지원기관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문화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뉴욕시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에 대하여 특정 문화 기관에 대한 기금 지원, 33개 뉴욕시 소유 문화시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지정 시설에 대한 건축 및 보수를 위한 자본지출 방식</li> <li>- Program Services Unit, Cultural Institutions Unit, Capital Projects Unit으로 구성</li> </ul> |
| 공원여가국<br>(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DP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을 관리</li> <li>- 공원 내부에 있거나 독립시설들이 실내/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용 시설, 역사적 건축물과 기념물, 가로수와 삼림을 관리하며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li> </ul>   |
| 기록물정보서비스국<br>(New York C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Information Services[DoR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를 구성하는 5개의 구 정부에서 생성하였거나 수집한 기록물들과 여타 자료들을 보관하면서 교육에 활용하거나 전시하는 역할을 수행</li> </ul>   |
| 청년지역사회개발국<br>(New York City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DYC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들의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서 아동, 청소년, 청년들 대상 예술 교육이나 예술 체험 관련 기회들을 제공</li> </ul>  |

97)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York\\_City\\_agencies](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York_City_agencies)

98) <https://www.arts.gov/about/appropriations-history>

99) <https://news.artnet.com/art-world/nyc-art-budget-createnyc-1615219>

| 부서명   | 문화예술 관련 기능  |
|---|---|
| 시장 직속 미디어엔터테인먼트실<br>(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MOM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연극, 음악, 출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 관련 업종들의 지원 기능들을 담당</li> <li>- 산하기구로서 지방정부 소속 공익 목적 종합방송국인 NYC Media 운영</li> </ul>  |
| 공공디자인위원회<br>(New York City Public Design Commission[PD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설치하는 건물들, 경관 조경, 미술 작품들과 관련한 심사, 평가를 수행</li> <li>- 탁월한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선정하고 시상</li> <li>- 심사, 평가하였던 디자인 구상들의 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구성요소들을 대중에게 공개</li> </ul>   |
| NYC & Compan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YC &amp; Company는 뉴욕시 정부의 산하기구로서 뉴욕시에서의 관광 홍보 관련 기능들을 담당</li> </ul>   |
| 시장 직속 도시 전역 행사조정관리실<br>(Mayor's Office of Citywide Event Coordination and Management[CEC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가 관리하거나 주최하고 시 전역이 적용 가능한 범위인 축제행사 관리</li> </ul>  |
| 시장 직속 특별기획 지역사회행사실<br>(New York Foundation for Arts, NYF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과 배우자가 지역사회 수준 소공동체들이 결속과 유대를 증진하려고 개최하는 행사들에 참여하는 과정들과 관련한 기능들을 수행</li> </ul>   |
| 뉴욕예술재단<br>(New York Foundation for Arts, NYF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예술재단(NYFA)은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주도 하에 뉴욕주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뉴욕주의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 추진되었으나, 1971년에 정부, 재단, 기업, 개인 등 후원자들이 구성되면서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 예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출범</li> <li>- 뉴욕 지역만이 아닌 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예술가 공동체를 위한 지원금, 학습/전문성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 온라인 정보 및 자료 제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 목적</li> </ul>   |
| 뉴욕공동체기금<br>(New York Community Trust, NYC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들의 순수 자발적인 출연으로 뉴욕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뉴욕공동체신탁(New York Community Trust, NYCT)로 알려진 단체는 실제로는 New York Community Trust와 Community Funds, Inc.라는 두 개의 조직</li> <li>- 자선 신탁 비법인단체인 New York Community Trust의 경우 기금이 단체의 승인을 받은 은행 신탁관리인 중 한 명에 의해 관리되며, "뉴욕공동체기금을 조상하는 기금에 관한 결의문 및 선언서 (Resolution and Declaration of Trust creating The New York Community Trust)" 채택</li> <li>- Community Funds, Inc.는 뉴욕주 비영리법인으로 Community Funds 내에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신탁관리인이 없으며, Community Funds 내의 자선기금은 단체의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의 감독을 받는 자산관리인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짐. 두 조직 모두 공적 자선단체로 연방 국세청에 보고서 제출</li> </ul> |

이 중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주무부서인 뉴욕시 문화국은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비영리 예술단체들,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과 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들과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 대상 지원정책들을 수행하고, 미술작품 창작 수단들로 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제공하는 정책인 Materials for the Arts를 담당한다. 또한 문화국은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문화 기금 지원기관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문화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뉴욕시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에 대하여 특정 문화 기관에 대한 기금 지원, 33개 뉴욕시 소유 문화시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지정 시설에 대한 건축 및 보수를 위한 자본지출 방식이다.<sup>100)</sup>

뉴욕시 문화국은 크게 Program Services Unit, Cultural Institutions Unit, Capital Projects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Program Services Unit은 뉴욕시 거주자 및 방문자들을 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881개 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Program Services Unit은 뉴욕시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을 위한 연례 보조금 조성 절차인 문화개발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CDF 절차를 통해 뉴욕시는 기관들을 지원한다. CDF 신청은 매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Cultural Institutions Unit은 뉴욕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단체들을 위한 운영상 지원(무제한 운영 지원금 및 모든 에너지 요금 지급의 형태)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Capital Projects Unit은 뉴욕시 소유 시설 및 뉴욕시 비소유 시설 내의 주요 문화 단체와 기타 문화 집단을 위한 디자인, 건축 및 장비 보조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sup>101)</sup> 이에 따라 Capital Projects Unit은 뉴욕시 소유 34개 시설과 약 200개 뉴욕시 비소유 시설에서의 디자인, 건축 및 주요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영리 문화기관들이 공공서비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전시 또는 공연 공간을 확대하고, 역사적 건물의 유지 및 보존을 강화하고, 식물학, 동물학 및 순수예술 수집품의 보호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시 문화국은 CIG(Cultural Institutions Group)이라는 34개의 뉴욕시 소속 문화예술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운영이 아닌 사적 기관과의 공적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은 공

100) <https://www1.nyc.gov/site/dcla/cultural-funding/cultural-funding.page>

101) <https://www1.nyc.gov/site/dcla/about/about-cultural-affairs.page>

연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34개 CIG 기관들이 뉴욕시정부 소속 건물  
을 사용하고, 더불어 막대한 운영상 지원(보안 및 시설관리보수 비용 등)을 받는 대신  
뉴욕시민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대가로 한다. CIG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BAM), 플러싱 타운홀 등이  
있다. 뉴욕시 문화국은 또한 뉴욕시를 구성하는 5개 구(Boroughs)와 협력하여 이들과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과 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그 이사회  
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한다.

## 나. 뉴욕주,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법령

### 1) 뉴욕주 통합법 예술 및 문화 업무법

(New York Consolidated Laws,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 ACA)

미국 각 주는 연방과 같이 자신들만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주 역시 뉴욕주 헌  
법(Constitution of the State of New York)을 가지고 있다. 뉴욕주 헌법은 뉴욕주  
정부의 구조를 확립하고 뉴욕주 주민들의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

뉴욕주의 법률은 통합법(Consolidated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과 비통합  
법(Unconsolidated Laws of New York)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뉴욕주 통합법은 뉴  
욕주 의회가 제정한 영구적인 법들을 법전화한 것이며, 비통합법은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통합법이 아닌 법으로 법원법(court acts), 뉴욕시 헌장(NY City Charter)과 행정법규  
(Administrative Code), 통합법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법 및 여타 특별법이 여기에 해  
당한다. 뉴욕주 통합법에는 예술 및 문화 관련법(Arts and Cultural Affairs)이 포함되  
어 있으며 구성은 아래의 <표 4-6>과 같다.

문화예술업무법의 주된 내용은 연방헌법, 주헌법의 기준 아래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  
가의 권리 보장,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자원의 확보와 신  
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4-6> 뉴욕주 통합법 중 문화예술 내용

| 구분      | 명칭                           |
|---------|------------------------------|
| Title A | 법명(Short Title)              |
| Title B | 예술 진흥(Promotion of the Arts) |

| 구분        | 명칭  |
|-----------|---|
| Title C   | 예술가 및 예술품 관련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Artists and Their Works)   |
| Title D   | 영화를 통한 공공오락 및 전시에 대한 규제<br>(Regulation of Public Entertainments or Exhibitions by Cinematograph)                              |
| Title E   | 뉴욕주문화자원법(New York State Cultural Resources Act)   |
| Title F   | 극장연합 자금조달(Theatrical Syndication Financing)   |
| Title G   | 극장입장권 판매에 대한 규제( Regulation of Sale of Theatre Tickets)   |
| Title J   | 사진 무단 사용과 저작권 자료 관련 위반(Offenses Relating to Unauthorized Photographs and Certain Copyrighted Materials)                       |
| Title K   | 상표(Trade-Marks)   |
| Title L   | 아동 출연자 및 모델 보호(Protection of Child Performers and Models)   |
| Title M.  | 연극 고용 계약: 특정 공연자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Theatrical Employment Contracts; Safety Precautions for Certain Performers; Performing Artists) |
| Title P   | 뉴욕주 문화 교육 신탁(New York State Cultural Education Trust)   |
| Title S   | 주지사 행정관사 신탁(Executive Mansion Trust)  |
| Title T   | 자연 유산 신탁(Natural Heritage Trust)  |
| Title U   | 역사 및 공공기록(visions of History and Public Records)  |
| Title V   | 미국 자연사 박물관, 천문관<br>(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Planetarium Authority)   |
| Title V-1 | 사인인 된 스포츠수집품 판매(Sale of Autographed Sports Collectibles)  |
| Title W   | 기타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  |

## 2) 뉴욕시 문화예술 법, 제도

### ①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뉴욕시는 뉴욕시 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CITY CHARTER라고 한다. 이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든 최고 규범으로 시의 운영규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뉴욕시 헌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Chapter 37의 예술위원회, Chapter 67의 문화부 내용이 대표적이다.

〈표 4-7〉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중 문화예술 내용

| 구분   | 명칭  |
|--|---|
| Chapter 9:<br>자본프로젝트 및 예산<br>(Capital Projects and Budget) | Section 224. 예술작품(Works of art.)                    |
| Chapter 37:  | Section 851. 헌법 및 임명(Constitution and appointment.) |

| 구분   | 명칭  |
|--|---|
| 예술위원회<br>(Art Commission)                              | Section 852. 회원의 조건 및 공개(Terms of members; vacancies.)  |
|  | Section 853. 임원; 절차; 경비(Officers; procedure; expenses.)   |
|  | Section 854. 위원회 승인(Approvals by the commission.)   |
|  | Section 855. 의사결정 시간제한(Time for decision limited.)  |
|  | Section 856. 예술작품의 유지, 보수, 제거, 재배치, 변경(Maintenance, repair, removal, relocation or alteration of works of art.) |
|  | Section 857. 예술작품에 대한 자문 감독<br>(Advisory oversight of works of art.)  |
|  | Section 858. 의제 통지(Notice of agenda.)   |
|  | Section 859. 연례보고(Annual report.)   |
| Chapter 67: 문화부<br>(Department of<br>Cultural Affairs) | Section 2501. 부서; 위원(Department; commissioner.)   |
|  | Section 2502. 대리인(Deputies.)  |
|  | Section 2503. 위원의 권한과 의무<br>(Powers and duties of commissioner.)  |
|  | Section 2504. 문화기관의 예산 수립<br>(Budget estimates of cultural institutions.)                                       |
|  | Section 2505. 문화업무자문위원회<br>(Cultural affairs advisory commission.)  |
|  | Section 2506. 문화계획(Cultural plan.)  |
|  | Section 2507. 문화기관그룹의 정보<br>(Data on cultural institutions group.)  |

## ② 뉴욕시 행정법(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뉴욕시 행정법(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Title 18 공원편에 어린이 박물관과 미술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8〉 뉴욕시 행정법(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중 문화예술 내용

| 구분                      | 명칭  |
|-------------------------|---|
| Title 18: 공원<br>(Parks) | Chapter 1: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
|                         | § 18-123 Brooklyn Children's Museum in Brower Park. |
|                         | § 18-124 Art museum.                                |

## ③ 뉴욕시 행정규칙(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뉴욕시 행정규칙(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중 Title 43: 시장편에는 예술을 위한 비율법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술위원회 업무 및 절차와 문화국의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표 4-9〉 뉴욕시 행정규칙(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중 문화예술 내용

| 구분                                  | 명칭  |
|-------------------------------------|---|
| Title 43: 시장<br>(Mayor)             | Chapter 2: 예술을 위한 비율법 절차<br>(Percent for Art Law Procedures)                              |
|                                     | § 2-01 정의(Definitions.)   |
|                                     | § 2-02 적용(Applicability.)   |
|                                     | § 2-03 패널(Panel.)   |
|                                     | § 2-04 절차(Procedures.)  |
|                                     | § 2-05 자격 및 면제(Eligibility and Exemptions.)   |
|                                     | § 2-06 프로젝트 적격성 감시(Project Eligibility Monitoring.)                                       |
|                                     | § 2-07 예술위원회; 예술작품의 제거 또는 변경<br>(Art Commission; Removal or Alteration of Works of Art.)  |
|                                     | § 2-08 집행(Implementation.)  |
| Title 57: 예술위원회<br>(Art Commission) | Chapter 1: 업무 및 절차 규칙(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
|                                     | § 1-01 위원회 회의(Commission Meetings.)   |
|                                     | § 1-02 회의에 대한 위원회 통지<br>(Notice of Commission Meetings to Members.)                       |
|                                     | § 1-03 정족수(Quorum.)   |
|                                     | § 1-04 제출일정(Calendar of Submissions.)   |
|                                     | § 1-05 특별위원회의 보류 중인 제출 검토<br>(Review of Pending Submissions by a Special Committee.)      |
|                                     | § 1-06 회의 중 제출된 제안 회부<br>(Referral of Matters Presented Between Meetings to a Committee.) |
|                                     | § 1-07 승인사항 제출(Submission of Matters for Approval.)                                       |
|                                     | § 1-08 추가자료 요청(Additional Materials Required.)  |
|                                     | § 1-09 위원회사무실에 보관된 기록물<br>(Records Kept in the Office of the Commission.)                 |
|                                     | § 1-10 제출 및 인증서 기록<br>(Records of Submissions and Certificates.)                          |
|                                     | § 1-11 인증서 준비 및 전송<br>(Preparation and Transmission of Certificates.)                     |
|                                     | § 1-12 관할 시 공무원의 회의 통지<br>(Notice of Meetings to City Officials Having Jurisdiction.)     |
|                                     | § 1-13 관할권이 있는 공무원 승인<br>(Approval of Official Having Jurisdiction.)                      |
|                                     | § 1-14 최종 지불을 위한 통지(Certification for Final Payment.)                                     |
|                                     | § 1-15 규칙 수정(Amendment of Rules.)   |

| 구분   | 명칭  |
|--|---|
| Title 58: 문화국<br>(Department of<br>Cultural Affairs) | Chapter 1: 예술가를 위한 공동 생활-작업 공간<br>(Joint Living-Work Quarters for Artists)            |
|  | § 1-01 적용(Applicability.)   |
|  | § 1-02 예술가를 위한 인증위원회 및 항소위원회<br>(Artist's Certification Committee and Appeals Board.) |
|  | § 1-03 예술가 인증 코디네이터(Artist's Certification Coordinator.)                              |
|  | § 1-04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dures.)  |
|  | § 1-05 예술가 인증기준 부여<br>(Criteria for Granting Artist's Certification.)                 |
|  | § 1-06 재고 또는 항소 권리(Right to Reconsideration or Appeal.)                               |
|  | § 1-07 예술가 인증 효과(Effect of Artist's Certification.)                                   |
|  | § 1-08 양도불가능성(Nontransferability.)  |
|  | § 1-09 허위 또는 사기정보 제출<br>(Submission of False or Fraudulent Information.)              |



## 제2절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 행정체제

### 1. 문화예술진흥과 안전망

#### 가. 문화예술진흥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 제도의 내용은 뉴욕주 통합법, 뉴욕시 헌장, 뉴욕시 행정법 등에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뉴욕주 통합법 Title B<sup>102)</sup>는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한 위원회, 커미션, 연구소, 재단 등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헌장 Chapter 37과, 뉴욕시 행정규칙 Title 57에 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1) 뉴욕주 문화예술진흥

###### ① 뉴욕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 구성

뉴욕주 예술에 대한 지원과 철학은 뉴욕 통합법 내 예술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선언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선언은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문화향유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되게 하여, 지역 사회의 삶에서 예술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과 관련된 개인후원자, 기관, 전문조직이 함께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의무를 살펴보면, 뉴욕주 주민들의 예술향수 증진, 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자원의 증대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첫째, 공연 및 순

102) Title B. Promotion of the Arts 제3조(3.01-3.19) 예술위원회(Council on the Arts), 제4조(4.01-4.11) 엠파이어스테이트 예술 커미션(Empire State Plaza Art Commission), 제5조(5.01-5.05) 예술 커미션(Art Commission), 제7조(7.01-7.15) 뉴욕주 여름예술학교(New York State Summer School of the Arts), 제8조(8.01-8.13) 뉴욕주작가연구소(New York State Writers' Institute), 제10조(10.01-10.13) 허드슨 리버 컬렉션 연구소(Institute for the Hudson River Collection)로 구성.

수예술 연구 및 공개와 이에 대한 공중의 이익 및 참여 고양한다. 둘째, 뉴욕주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 참여 및 감상을 고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권고한다. 셋째, 뉴욕주 문화유산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고양하고 문화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노력을 한다. 넷째, 공개 또는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섯째, 지출승인 범위 내에서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위한 개인, 기관 및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여섯째, 개인, 재단, 회사 및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증여, 기부 및 유증을 수령 등을 할 권한 및 의무, 마지막으로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객을 위한 뉴욕주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예술 및 문화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 ②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활용

뉴욕주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활용 대상 및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 지원, 예술인 지원, 연구조사 지원 등이다.

첫째, 예술 목적을 위한 건물 및 대중 접근을 증가시키거나 보장하기 위한 건물의 개선, 확장, 재건 사업 중 적격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비용(타당성 조사, 설계 활동 제외)의 최대 50%를 주 재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건물의 운영 비용 절약, 건강 및 안전 결함 해결,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도 포함된다. 둘째, 공연예술 분야 기금 신청자의 경우 관광객의 증가, 외부인이 볼 때 지역 매력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할 수 있다.

## 2) 뉴욕시 문화예술진흥

### ① 뉴욕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 구성

뉴욕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뉴욕시 행정규칙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뉴욕시 행정규칙에 나타난 뉴욕시 예술위원회 역할은 예술작품과 관련된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욕시 예술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뉴욕주 예술위원회와 달리 제한적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뉴욕시의 공공예술(예술작품, 공공디자인, 건축 등)과 관련된 구매, 설치, 이전, 보수와 관련된 최종 승인 권리를 갖는 점이다. 이런 위원회의 노력은 뉴욕시 문화경관의 보존, 시민 문화접근성의 강화, 도시에 속한 예술작품의 관리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 ② 예술을 위한 일정 비율법(Percent for Art) 운영

뉴욕시 문화국은 1982년 관련 법규의 제정에 따라 뉴욕시 Percent for Art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뉴욕시 소유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미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2천만 달러까지는 1%이고, 2천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2천만 달러를 제외한 프로젝트 예산의 0.5%(1%의 50%)로 감소한다.

뉴욕시 규칙(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43편(Title 43) 제2장(Chapter 2)에서 Percent for Art와 관련된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관련 법규의 제정 이후, 뉴욕시 문화국은 1983년부터 Percent for 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100만 달러 규모로 약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02년 이후 약 100개의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sup>103)</sup>

### ③ 예술가 인정 기준 마련

뉴욕시 행정규칙 Title 58에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예술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가의 인증 여부를 결정할 때 뉴욕시 문화부(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는 뉴욕주 주거법(Section 276 of Article 7B of the New York State Multiple Dwelling Law)에 명시된 “예술가” 인증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 기준의 내용은 첫째, 정기적 참여해야 하며, 일관되고 헌신적인 예술 작업의 수행을 보여야 한다. 둘째, 순수예술 분야 신청자는 예술형식, 작업과 관련된 독립적인 미적 판단의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 즉 상업적, 산업적, 기능적이면 순수 예술을 추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셋째, 신청자의 예술은 해당분야의 다른 사람들이 전문적이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문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예술로 번 소득의 금액을 말하지는 않는다.

103) <https://www1.nyc.gov/site/dclapercentforart/about/about.page>

## 나. 예술가 및 소비자 안전 보장

### 1) 예술가 보호

#### ① 유아청소년 실연자 보호

뉴욕주 통합법은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은 아동공연자 및 이들이 수익금의 보호와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보호이다.

우선 영유아 실연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뉴욕 통합법 Title L은 노동법 15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을 예술행사의 수단(고용 등)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연, 전시, 곡예, 체조, 경마쇼와 같은 행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한 관계는 성립하며 이 활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유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계약은 특정계약 형태로 사법 승인이 필요하며, 이들이 번 수익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 ② 공연예술 전문인력 보호

뉴욕주 통합법은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연극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연극 고용 계약은 극단과 예술가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총수수료와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공평하고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공중 공연자(aerial performers)의 우발적인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의무화 한다. 예를 들어, 서커스, 카니발, 박람회, 극장, 영화관에 공중공연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행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 2) 소비자 보호

#### ① 경제적 보호

뉴욕주 통합법은 극장연합의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Regulation of Theatrical Syndication Financing)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입장권을 사전에 판매하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핵심은 행사의 취소 혹은 일정 조정 시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② 신체적 보호

뉴욕주 통합법은 카니발, 박람회, 유원지에서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놀이기구 및 임시 구조물의 조립, 분해,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상해를 보호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예술품 거래 보호와 신탁제도

### 가. 예술품 거래 보호

뉴욕주 통합법 Title C는 작가와 미술품과 연관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12.01-12.03)는 작가와 미술상 관계(ARTIST-ART MERCHANT RELATIONSHIPS), 제13조(13.01-13.07)는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 제14조(14.01-14.08)는 순수예술; 조각과 복본 일반(Works of Fine Art; Sculpture and Multiples Generally), 제15조(15.01-15.19)는 복본으로 제작되는 시각예술품 및 조각의 판매(Sale of Visual Art Objects and Sculptures Produced in Multiples)를 규정하고 있다.

#### 1) 미술품 거래

순수미술 작품의 매매나 교환에 있어 미술상이 아닌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해당 서면은 1) 거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매매 일이나 교환일에 진술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이 되며(§13.01.1), 이때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와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에서의 거래 관습과 용례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고려하였다면 이러한 보증은 부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13.01.2).

뉴욕주법 상 진품증명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1) 아무런 제한 문구 없이 작품이 기명된 작가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 또는 작품의 작가가 기명된 자라는 진술은 명백하게 해당 작품이 해당 작가에 의한 것 또는 해당 작품의 작가가 기명된 자임을 의미하며, 2) 작품이 “특정 작가의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는

진술은 해당 작가의 해당 시기의 작품이 해당 작가의 것으로 보이거나 확실하지는 않음을 의미하고, 3) 작품이 “기명 작가의 화파”의 작품이라는 진술은 해당 작품이 해당 작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제자 또는 가까운 아류 작가에 의한 해당 작가의 시기의 작품을 의미한다(\$13.01.3).

## 2) 예술품 보증

뉴욕주 문화예술법에 따라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습이나 용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진품증명서상의 모든 기재 사항이 명시적 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장할 수 있지만, 책임부인의 규정은 눈에 잘 띄이도록 서면으로 작성되고 명시적 보증과 별개로 매도인이 해당 작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르지 않은 경우 해당 책임부인 조항상의 보증의 부정이나 제한은 비합리적이어서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책임부인 문구는 명시적 보증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4).

## 나. 신탁제도

### 1) 신탁(信託)제도 이해

신탁제도(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이다. 즉 내 재산을 이전시켜 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Trustee: 피 신탁인)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일종의 법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안병찬, 2018). 또한 신탁은 주(州)에 근거한 계약으로 설정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조항에 따르며, 신탁조항(Trust term)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통일신탁법(The Uniform Trust Code : UTC)에 따른다(김병일·김종해, 2010: 340).

미국의 경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국 가계와 기업의 자산축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의 이전 수요가 증가했다. 19세기 전후로 상속·증여 등 재산관리 목적의 신탁이 발전했으며, 영리 목적 신탁회사에 의한 영업신탁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신탁을 활용해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신탁을 널리 활용하기 시작했다(송홍섭 외, 2021: 13-14). 이런 현상은 미국

의 역사성과도 연결된다. 미국인의 경우 혈연과 지연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신뢰할 수 없는 관리자가 없었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했다. 공신력 있는 법인 조직인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수탁자나 유언집행자가 되어 신탁이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다.(배정식, 2020.2.23.)

신탁제도는 구성원은 위탁자, 신탁관리인, 수혜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다. 신탁관리인<sup>104)</sup>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는 재산을 쓰는 사람이다. 위탁자의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신탁관리인인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관리의 방법을 위탁자가 설정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재산이 정해지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증여할 때 다양한 조건을 계약사항에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자산 분배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은 신탁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조세제도와 결합하여 공익 목적의 재단 설립, 재원 마련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 2) 뉴욕주 문화자원법(Title E. New York State Cultural Resources Act)

뉴욕주 통합법은 문화예술 관련 신탁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Title E 안에는 제20조 뉴욕주 문화자원법, 제 21조 뉴욕시 문화자원에 대한 신탁, 제22조 Onondaga 카운티의 문화 자원에 대한 신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뉴욕주와 뉴욕시와 관련된 신탁의 생성 및 목적, 신탁 관리 및 권한, 과세 관련 조항으로 공익적 목적 신탁 설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3) 뉴욕공동체기금(New York Community Trust, NYCT)

뉴욕공동체기금은 뉴욕시와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공동자선단체이다. 또한 개인, 재단, 기업의 힘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를 선도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며, 1924년에 시작되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자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 운영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프로그램을 조정하여 현재와 미래의 관심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는 노력에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기금 역시 기부 및 신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04) 신탁의 위탁자는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음.

### 3. 문화향유와 문화기반시설

뉴욕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향유의 중심에는 공공문화시설이 있다. 뉴욕공공도서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링컨센터는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다. 뉴욕시 대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문화예술정책 최전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집행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 가.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sup>105)</sup>

##### 1) 현황<sup>106)</sup>

뉴욕공공도서관<sup>107)</sup>은 1911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세기 중반 당시 세계 주요도시로 급부상하던 뉴욕은 모든 시민들이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 성장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추진력으로 '공공도서관'을 선택했다. 당시 뉴욕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애스터 도서관과 레녹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돈만 들어가고 시민의 불평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뉴욕 전 주지사였던 틸튼(Samuel J. Tilden)이 뉴욕시에 무료도서관을 설립해달라며 24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자 이 돈을 바탕으로 두 도서관을 통합, 도심에 시를 대표할 공공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뉴욕시 전체 도서관 방문자 수는 시내의 모든 문화시설 방문자와 메이저 스포츠팀 관전자를 합친 수를 능가하고 도서관은 뉴욕의 시민 서비스 중에서 항상 1위에 랭크된다. 도서관 정문 앞의 두 마리의 석조 사자상은 1930년대 뉴욕 시장이던 라가디아가 공황을 견뎌내고 개척정신을 다짐하자는 뜻에서 세운 것으로 '인내'와 '불굴'을 의미한다.<sup>108)</sup>

105) 별도 출처 표기가 없는 내용은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nypl.org](http://www.nypl.org)) 참조

106)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nypl.org/help/about-nypl/history](http://www.nypl.org/help/about-nypl/history)) 참조

107) “외지인이 뉴욕에 이사를 오면 자유의 여신상이 환영 인사를 하고 도서관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진정한 뉴욕어로 만들어 준다.”라는 뉴욕식 농담이 있음.

108) 2014.10.29. 매일신문 “[대구의 미래 공공도서관에서 찾다]④시민들의 대학, 뉴욕 공도서관-누구에게나 ‘지식창고’로 개방”(news.imaail.com/page/view/2014102907312103511) 검색일: 2021.09.10. 2012.02.09. 울산신문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1. 뉴욕공공도서관” ([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840](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840)) 검색일: 2021.09.15.



뉴욕공공도서관은 세계 제일의 규모이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도서관이다. 설립 때부터 독자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 활동에 관여하면서 행정과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으로 도서관이 보다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NPO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널리 드러내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미술관들이 NPO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뉴욕공공도서관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운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김효숙, 2004: 133-136)

## 2) 조직 및 거버넌스<sup>109)</sup>

뉴욕공공도서관은 현재 맨해튼에 4개의 연구센터와 맨해튼(40개), 스탠포드 아일랜드(13개), 브롱크스(35개)에 걸쳐 88개의 분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sup>110)</sup>

분관이 통상의 공공도서관이고, 대학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구센터는 스티븐 A. 슈워츠먼관(Stephen A. Schwarzman Building), 뉴욕 공공 공연예술도서관 도로시 & 루이스 쿨먼 센터(Dorothy and Lewis B. Cullman Center), 솜버그 흑인문화

109) [www.nypl.org/about/locations](http://www.nypl.org/about/locations)

110) 88개의 분관은 다음과 같음

- Manhattan 지역 도서관 : 115th Street, 125th Street, 58th Street, 53rd Street, 67th Street, 96th Street, Aguilar, Andrew Heiskell Braille & Talking Book, Battery Park City, Bloomingdale, Chatham Square, Columbus, Countee Cullen, Epiphany, Fort Washington, George Bruce, Grand Central, Hamilton Fish Park, Hamilton Grange, Harlem, Hudson Park, Inwood, Jefferson Market, Kips Bay, Macomb's Bridge, Morningside Heights, Muhlenberg, Mulberry Street, New Amsterdam, Ottendorfer, Riverside, Roosevelt Island, Seward Park, St. Agnes, Stavros Niarchos Foundation, Terence Cardinal Cooke-Cathedral, Tompkins Square, Washington Heights, Webster, Yorkville Library

- Bronx 지역 도서관 : Allerton, Baychester, Belmont Library and Enrico Fermi Cultural Center, Bronx Library Center, Castle Hill, City Island, Clason's Point, Eastchester, Edenwald, Francis Martin, Grand Concourse, High Bridge, Hunts Point, Jerome Park, Kingsbridge, Melrose, Morris Park, Morrisania, Mosholu, Mott Haven, Parkchester, Pelham Bay, Pelham Parkway-Van Nest, Riverdale, Sedgwick, Soundview, Spuyten Duyvil, Throg's Neck, Tremont, Van Cortlandt, Wakefield, West Farms, Westchester Square, Woodlawn Heights, Woodstock Library

- Staten Island 지역 도서관 : Dongan Hills, Great Kills, Huguenot Park, Mariners Harbor, New Dorp, Port Richmond, Richmondtown, South Beach, St. George Library Center, Stapleton, Todt Hill-Westerleigh, Tottenville, West New Brighton Library

연구센터(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스타브로스 니아코스 재단 도서관(Stavros Niarchos Foundation Library: SNFL)의 Thomas Yoseloff 비즈니스 센터이다.

특히 '스티븐 A. 슈워츠먼관'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이자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 도서관이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처럼 듀이십진법(000~999번)에 따라 도서를 나누지 않고 예술과 건축, 유대인, 회귀본, 지도 등 16가지 연구주제에 따라 공간이 나뉘어져 있으며, 구텐베르크성서 초판본,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 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알린 첫 번째 편지,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 친필본 등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보기 어려운 고급 장서, 필사본, 그림, 마이크로필름 등이 있다. 1층 지도실(Map Division)에는 전 세계에서 모은 50만 개 이상의 지도와 관련 도서가 보관되어 있다. '뉴욕시는 이 빌딩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으로 영원히 유지하겠다.'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 누구나, 관광객까지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자료 열람용 도서관 카드의 경우 뉴욕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관광객에게도 임시카드를 발급해준다(전계 2014.10.29. 매일신문).

공연예술을 위한 뉴욕 공공도서관 '쿨먼센터'에는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및 녹음사운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 컬렉션이 있다.<sup>111)</sup>

할렘에 있는 흑인문화 연구를 위한 Schomburg 센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춘 자료의 연구, 보존 및 전시에 집중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 기관이다.<sup>112)</sup>

SNFL의 토마스 요슬로프 비즈니스 센터는 개인 금융과 투자, 소기업 연구, 금융연구 및 경력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무료 자원을 제공하는 뉴욕공공도서관 최고 비즈니스 도서관으로서 2021년 5월에 개관하였다(구 Mid-Manhattan 도서관 리노베이션). 신생기업부터 확장을 추구하는 기성 기업까지, 입사에서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프리미엄 전자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sup>113)</sup>

111) <https://www.nypl.org/locations/lpa>

112) <https://www.nypl.org/locations/schomburg>

113) <https://www.nypl.org/locations/snfl/yoseloff-business>

〈표 4-10〉 뉴욕공공도서관 연구센터

| 스티븐 A 슈워츠먼관  | 뉴욕 공공 공연예술 도서관 도서관 & 루이스 쿨먼 센터  | 썬버그 흑인문화연구센터  | SNFL 토마스 요슬로프 비즈니스 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연구부</li> <li>• 드윅 월라스(DeWitt Wallace) 정기간행물실</li> <li>• 도로트(Dorot)<sup>114)</sup> 유대인부</li> <li>• 헨리 앤 베르그(Henry &amp; Berg) 영미문학컬렉션</li> <li>• 원고 및 기록물부</li> <li>• 라이오넬 핀커스와 프린세스 피랄(Lionel Pincus &amp; Princess Firyal) 지도(Map)부</li> <li>• 어마와 폴 밀스타인(Irma and Paul Milstein) 미국사, 미국지역사 및 계보학부</li> <li>• 칼 포르츠하이머(Carl H. Pforzheimer) 컬렉션</li> <li>• 희귀도서부</li> <li>• 조지 아렌츠(George Arents) 컬렉션</li> <li>• 미리암과 월라치(Miriam &amp; Ira D. Wallach) 예술, 인쇄 및 사진부</li> <li>• 미술 및 건축 컬렉션</li> <li>• 사진 컬렉션</li> <li>• 그림 컬렉션</li> <li>• 인쇄 컬렉션</li> <li>• 스펜서(Spencer) 컬렉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및 테이프 보관소</li> <li>• 빌리로즈(Billy Rose) 극장부</li> <li>• 제롬 로빈스(Jerome Robbins) 무용부</li> <li>• 음악부</li> <li>• 로저스앤해머스타인(Rodgers &amp; Hammerstein) 녹음기록보관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및 공예과</li> <li>• Jean Blackwell Hutson<sup>115)</sup> 연구참조부</li> <li>• 원고, 기록물 및 희귀도서부</li> <li>• 영상 및 녹음된 사운드부</li> <li>• 사진인화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금융 및 투자, 소규모 비즈니스, 금융 연구 및 직업 서비스 제공</li> <li>• 신생 기업, 확장을 모색하는 기존 기업에 서비스 제공</li> <li>• 신규 구직자와 중역 수준에 이르는 구직자에게 서비스 제공</li> </ul> |

출처: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nypl.org/about/divisions](http://www.nypl.org/about/divisions))

### 3) 재정

뉴욕공공도서관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민간자원에 부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연구도서관들은 맨해튼의 4개 자치구에서 민간자금, 투자수입, 주정부, 시정부, 연방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되고 있다. 맨해튼, 브롱크스, 스탠포드 아일랜드 자치구에서 뉴욕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88개의 분관 운영을 위한 기금은 1901년 뉴욕시와의 협정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주에 의해 주로 제공된다.<sup>116)</sup>

뉴욕공공도서관의 2020회계연도 운영수익은 3억 2,959만 달러로, 그중 뉴욕시로부터의 보조금이 59.5%를 차지한다. 뉴욕주와 연방정부의 보조를 더하면 약 65.5%로 정부 지원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과 보조금은 11.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총지출은 3억 1,280만 달러로 그중 도서관서비스가 79%를 차지한다.<sup>1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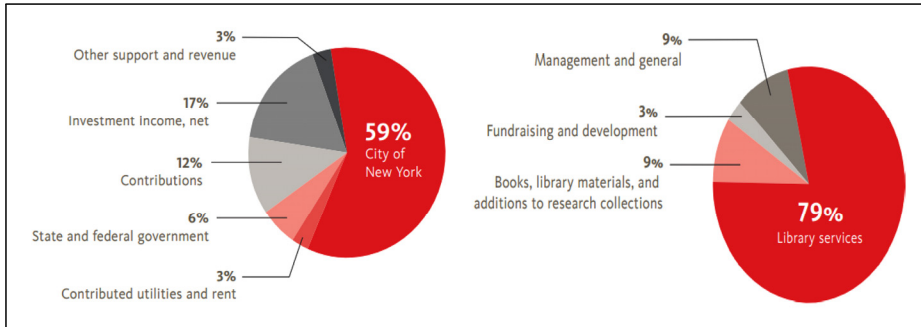
114) Dorot: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기부처([en.wikipedia.org/wiki/Dorot](http://en.wikipedia.org/wiki/Dorot))

115) Jean Blackwell Hutson: 미국 사서, 작가, 큐레이터, 교육자, Schomburg 흑인문화 연구 센터 소장

116) NYPL(202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inancial report 2020」. p.6

117) NYPL(202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2020」.

[그림 4-1] 뉴욕공공도서관의 2020 회계연도 영업수익과 지출



출처: NYPL(202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2020」. p.49

#### 4) 미션 및 프로그램

뉴욕 공공도서관의 사명은 1) 유능한 학습자와 연구자를 만들어 평생의 배움을 고취시키고, 2) 뉴욕의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을 통해 지식을 발전시키며, 3) 완전한 시민권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컬렉션, (물리적 및 디지털)공간 등 세 가지 리소스를 제공한다.

〈표 4-11〉 뉴욕 공공도서관 사명

| 사명         | 내용  |
|------------|---|
| 평생의 배움을 고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및 정보 탐색 기술 교육</li> <li>• 툴, 리소스 및 일하기 좋은 장소 제공</li> <li>• 탐색적인 대화에 참여</li> <li>• 후원자들이 그들의 가정(assumption)에 도전하도록 유도하는 질문&amp;답변</li> <li>• 창의성, 연구 및 문제 해결 지원</li> <li>• 사람들이 창의적 시너지를 촉발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함</li> </ul> |
| 지식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공공도서관 고유한 전문분야를 향상시키는 항목 식별, 획득 및 보존</li> <li>• 뉴욕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보완하는 다른 조직과의 연결</li> <li>• 흥미를 유발하고,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다양하게 함</li> <li>• 전문 분야에서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도구 구축</li> </ul>   |
| 공동체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기술 및 역량 개발 촉진</li> <li>• 후원자가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 제공</li> <li>• 뉴욕공공도서관과 후원자들이 즐기고, 예우하고, 축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구축</li> <li>• 역사적으로 중요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자료 제공</li> <li>• 우리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음</li> </ul>   |

출처: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nypl.org/help/about-nypl/mission](http://www.nypl.org/help/about-nypl/mission))

이러한 미션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연간 55,000개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www.nypl.org/about/locations](http://www.nypl.org/about/locations)).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학자나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각종 펠로우십 프로그램, NEH 여름학교 교사 연구소, Schomburg-Mellon 인문학 여름연구소, 쉰버그 주니어 장학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테크넥트(TechConnect) 프로그램 등이 있다.

## 나.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

### 1) 현황<sup>118)</sup>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등과 비견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박물관)은 웅장한 건물과 함께 5,000년에 걸친 인류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매우 광범위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메트’라고도 불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1870년 뉴욕 시민지도자, 사업가, 예술가, 미술 수집가, 자선가 등이 힘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문화기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제도, 근동, 그리스와 로마 및 이집트의 고대 문명부터 현재까지 세계 모든 지역의 회화, 중세미술, 건축, 무기·갑옷, 조각·공예·판화, 사진, 드로잉, 의상, 악기, 직물, 장식미술 등의 유물은 물론 장서와 정기간행물, 사진 슬라이드 등 약 200만 점의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은 대부분 개인 수집가들이 기증한 것으로, 금전적 이득보다는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활용된다. 특히, 아시아 미술 섹션에 전시된 2천여 점의 아시아 미술품 중에는 신라시대 도예와 금속 공예, 고려 및 조선 시대의 회화, 조각, 도예, 옷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은 19세기 유럽 회화와 조각실로, 르누아르, 고흐, 고갱, 세잔 등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파, 후기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특징은 이처럼 소장 유물의 폭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시대와 지역에 걸쳐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나 정부기관의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이

118)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2020).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2019-2020」. p.54,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홈페이지([www.metmuseum.org/about-the-met](http://www.metmuseum.org/about-the-met), [www.newyork.kr/metropolitan-museum-of-art-new-york](http://www.newyork.kr/metropolitan-museum-of-art-new-york), 신하순(2012).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대한토목학회지, Vol. 60(7). p.115

주도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등이다. 메트는 소규모로 개관했다가 1880년 맨하탄 센트럴 파크의 현재 위치로 옮겼으며 1954년에 대규모 개축으로 근대식 전시장을 완비한 이후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었다. 미술관 건물은 뉴욕시 소유이지만 미술관의 운영과 관리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는 선출직과 뉴욕시 공무원, 운영 위원에 의해 지명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 2) 조직 및 거버넌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이사회(the Board of Trustee)에서 이루어진다. 실무조직으로는 관장 겸 최고경영자 Daniel H. Weiss 아래 인사부, 재무부, 건설(시설운영)부, 전시부, 대외업무(커뮤니케이션)부, 개발부, 보존 및 과학부, 큐레이터부, 디지털·교육·출판·영상 및 도서관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sup>119)</sup>

2018년 4월 메트 미술관 감독으로 부임한 Max Hollein은 ‘마리나 켈렌 프랑스’<sup>120)</sup> 디렉터로서 미술관의 예술적 비전, 프로그래밍, 연구, 컬렉션 이니셔티브를 책임지고 있으며, 큐레이터부, 보존 및 과학부서, 전시 및 인지활동(acquisition activities), 교육 및 공공아웃리치 활동, 도서관, 디지털 프로젝트, 출판물, 이미징 및 디자인 역시 담당하고 있다. 수집 및 행정관리부는 박물관 소장품을 연구, 전시 및 관리한다. 조직개선행(Institutional Advancement)은 미술관 발전을 위해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현재 및 향후 기증자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개인, 재단, 정부 등의 계획기부뿐만 아니라 캠페인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겸 재무관, 수석부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 다양성 최고책임자 등의 내부기관이 있다. 특히 2021년 1월에 신설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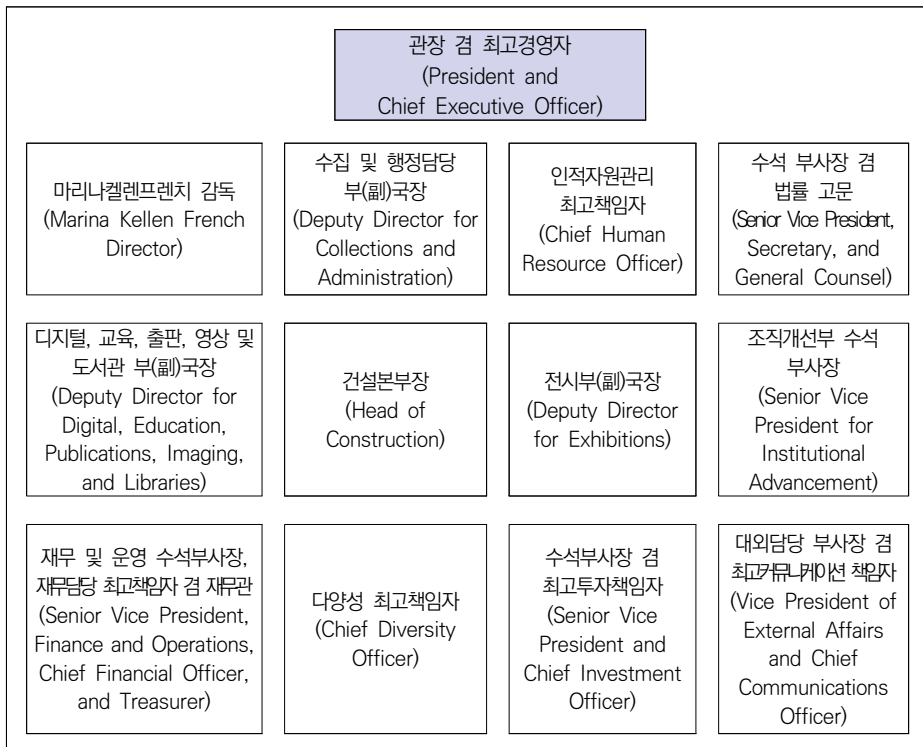
119)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부서 조직도가 아니라 담당자 직위 표기로 조직도를 대신하고 있는데, 다만 큐레이터부와 보존 및 연구부는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큐레이터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미술, 미국 미술(The American Wing), 고대 근동미술, 무기 및 갑옷, 고대 북중미, 남미 미술, 아시아 미술, 의상연구소, 회화/판화, 이집트 미술, 유럽 회화, 유럽 조각/장식미술, 그리스/로마 미술, 이슬람 미술, Robert Lehman 컬렉션(개인 수집, 20세기 미국), 중세 및 비잔틴 예술, 현대 및 현대미술, 악기, 오세아니아 해양예술, 사진을 다룬다. 보존 및 연구부는 3차원예술작품·회화·종이·사진·섬유·의상 등 보존, 관련 과학적 연구, 미디어 작업 등을 수행한다([www.metmuseum.org/about-the-met](http://www.metmuseum.org/about-the-met)).

120)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2021년 1월 19일 Marina Kellen French 재단과 Anna-Maria & Stephen Kellen 재단의 기부를 받으면서 감독직의 명칭을 ‘마리나 켈렌 프랑스 감독’으로 변경했다. 2018년 이후 메트의 감독직을 맡아온 막스 할레인은 마리나 켈렌 프랑스 감독직을 맡은 첫 현직 감독이 되었다. ([www.metmuseum.org/press/news/2021/marina-kellen-french-directorship](http://www.metmuseum.org/press/news/2021/marina-kellen-french-directorship))

양성 최고책임자는 다양한 부서 및 인력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박물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 계획의 실행을 감독한다. 이를 통해 인종차별 반대, 지역사회에 대한 더 강력한 약속<sup>121)</sup>과 더 포괄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한 직위이다.

한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분관을 운영 중이다. 맨해튼 5번가의 The Met Fifth Avenue는 세계 최고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본관이고, 분관은 중세 미술과 유물, 건축 등을 전시하고 있는 The Met Cloisters이다(뉴욕 Fort Tryon Park 소재).<sup>122)</sup>

[그림 4-2]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실무조직



출처: [www.metmuseum.org/about-the-met/leadership](http://www.metmuseum.org/about-the-met/leadership)

121)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타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레나페 인디언(Lenape diaspora)들의 고향인 레나페호킹(Lenapehoking)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 섬에서 계속 살고 일하는 다양한 원주민들을 위한 모임과 교류 장소로 활용된다. 2021년 5월, 메트는 5번가 정면에 원주민 레나페족의 고향인 레나페호킹을 인정하는 명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www.newyork.kr/metropolitan-museum-of-art-new-york](http://www.newyork.kr/metropolitan-museum-of-art-new-york)).

122) 현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던 The Met Breuer는 2020년 3월 이후 폐관됨

### 3) 재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2020년 영업 수익은 3억 1,170만 달러로, 그중 출연금 지원이 36.6%를 차지하고 있고 소매업(18.7%), 기부금(15.9%), 입장수입(12.0%), 뉴욕시의 운영비 지출(7.8%), 멤버십(7.3%)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아 미술관 내 식당이나 각종 유료강좌, 주차료 등의 수입이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뉴욕시의 보조와 멤버십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여, 멤버십이 전체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 수입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출은 3억 5,937만 달러로 그 중 프로그램 서비스(60.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 미션, 프로그램 및 소장품<sup>123)</sup>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뉴욕시에 위치한 미술관의 설립과 유지, 미술의 연구 장려와 발전, 미술품의 제조와 실용 생활, 관련 주제에 대한 일반지식 증진, 그리고 관련하여 대중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목적 하에 140년 이상 운영되어 오다 2015년 1월 13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사회는 이 목적을 재확인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으로 이를 보완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사람들을 창의성,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에 연결하기 위해 모든 시대와 문화에 걸쳐 중요한 예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전시한다.”

메트에서는 미술관 취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물론 뉴욕시 지역 고등 학생에게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메트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는 예술사, 고고학, 박물관 교육, 보존 및 관련 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학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매년 전 세계의 학자에게 50개 이상의 펠로우십을 수여하여 메트를 예술과 아이디어의 실험실로 만들고 있다.

약 200만점의 작품들 중 미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럽계 미국인, 원주민,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들의 약 2만 점의 작품은 물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예술가들에 의해 2천년에 걸쳐 만들어진 3천 개의 작품들도 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 미술 컬렉션은 구석기 시대부터 로마 시대(기원전 30만년 전~AD4세기)까지 문화적으로 중요한 약 26,000개의 물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 로마 미술

123) [www.metmuseum.org/about-the-met](http://www.metmuseum.org/about-the-met)



관의 소장품은 신석기 시대(기원전 4500년경)부터 서기 31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시기까지의 3만 점 이상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근동 미술품에는 기원전 8천년부터 기원후 7세기 아랍 정복기 직후에 이르는 7천 여 점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슬람 미술품들은 7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 있는 15,000개 이상 작품들이며, 클로이스터 박물관의 중세 및 비잔틴 미술품 컬렉션은 로마 몰락부터 르네상스 초기까지 지중해와 유럽의 미술품을 망라한다. 아시안 아트의 경우 기원전 3천년부터 21세기에 이르는 35,000개 이상의 유물이 전시된다. 유럽 회화 컬렉션은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2,500점 이상의 작품을 포함한다. 유럽 조각과 장식예술 컬렉션에서는 15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유럽 국가들의 5만 점의 유물들을 선보인다. 해양 미술 컬렉션은 태평양 섬들을 상징하는 창조적 표현을 보여주는 2,800여 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 및 갑옷 부서의 주요 목표는 갑옷 제작자, 대장장이, 총기 제작자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례를 수집, 보존, 연구, 출판 및 전시하는 것이다. 의상연구소는 15세기부터 현재까지 33,000벌 이상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다. 드로잉과 판화의 경우 1880년 박물관 수탁자인 Cornelius Vanderbilt로부터 670점의 작품을 기증받았다. 1992년에 독립적 큐레이터 부서로 설립된 Met's Photographure 부서에는 1830년대부터 현재까지 75,000개 이상의 사진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1870년 설립 이래로 살아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현재까지 12,000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였다.

## 다. 링컨공연예술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1) 현황

링컨공연예술센터(이하 링컨센터)는 1950년대 후반, 존 라커펠러(John D. Rockefeller) 3세 외 뉴욕의 지도자들이 이끈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특히 “링컨광장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56년 존 라커펠러 3세가 첫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961년에 1억8천450만 달러에 달하는 사적 기금을 모아 링컨센터 캠퍼스 단지를 건설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62년에 종합예술센터로서 문을 열었고 이후 뉴욕 필하모닉을 시작으로 줄리어드 음악학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의 단체가 차례로 상주단체로

계약을 체결하여 뉴욕시 맨하탄에 아트 콤플렉스(Art Complex)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예술센터이다. 1975년부터 약 40년간 학교·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전문가양성 워크숍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해와 학생·교사·학교관계자·학부모·커뮤니티 구성원·예술강사·예비교사·교수·예술가 등 2천만 명 이상의 뉴욕시민이 링컨센터의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sup>124)</sup>

## 2) 조직 및 거버넌스

링컨센터는 다양한 조직들이 뭉쳐 하나의 링컨센터를 이루고 있다. 입주기관들은 링컨 챔버뮤직 소사이어티(The Chamber Music Society of Lincoln Center: CMS), 링컨영화센터(Film at Lincoln Center), 링컨재즈센터(Jazz at Lincoln Center), 링컨센터씨어터(Lincoln Center Theater), 뉴욕시발레단(New York City Ballet), 뉴욕필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 뉴욕 공연예술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줄리어드음악학교(Juilliard), 메트로폴리탄오페라(The Metropolitan Opera), 아메리칸발레스쿨(The School of American Ballet) 등이다. 일반적으로 링컨센터라고 할 경우 상주기관과 공연장 전체를 이르고, 좁은 의미로는 링컨공연예술센터(LCPA)만을 의미한다.

[그림 4-3] 링컨센터 입주기관



출처: 링컨센터 홈페이지([www.lincolncenter.org/lincoln-center-at-home/footer-orgs](http://www.lincolncenter.org/lincoln-center-at-home/footer-orgs))

링컨센터는 이사회와 Senior Team이 운영하는데, 이사회는 당연직(2020.12.31. 기준 4명)에 비해 일반이사(73명)가 훨씬 많다.<sup>125)</sup> Senior Team은 링컨센터 사장 겸 최

124) 김소연(2014). 해외 문화예술교육 살펴보기-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연대 [2014 이웃나라 문화예술교육 힐끔! 워크숍] 자료집. p.19, 전병태·이은미(2008). 세계 주요 아트센터 평가 사례 비교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125) [www.aboutlincolncenter.org/about/board-of-directors](http://www.aboutlincolncenter.org/about/board-of-directors)

고경영자, 부사장 겸 CPO(Chief People Officer: 직원 정신건강 및 근무환경 책임자), 최고전략혁신책임자(Chief Strategy & Innovation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 재무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 Chief Financial Officer), 부사장 겸 최고개발책임자(Executive Vice President, Chief Development Officer), 총괄고문 겸 수석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 General Counsel & Corporate Secretary), 최고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책임 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 Chief Communications & Marketing Officer), 부동산 담당 부사장 겸 링컨센터 개발 프로젝트 전무(Real Estate and Executive Director, Lincoln Center Development Project)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링컨센터 예술가위원회(Lincoln Center Artist Committee)가 있는데 2020-2021 시즌에 3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링컨센터는 거버넌스 활동도 활발한데 특히 다른 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2021년 현재 셔먼페어차일드재단(Sherman Fairchild), 로버트 우드존슨 1962 자선트러스트(Robert Wood Johnson 1962 Charitable Trust), 앤드류멜론재단(Andrew W. Mellon), 로리 티쉬 일루미네이션 펀드(Laurie M. Tisch Illumination Fund), Ford재단, 뉴욕커뮤니티트러스트(Community Trust), 슈버트재단(The Shubert Foundation), 하워드길먼재단(Howard Gilman) 등 27개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경우, 뉴욕시(장), 맨하탄 자치구(장), 뉴욕시 의회(대변인 1인 및 위원 11인 포함), 주택 및 경제발전국,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문화국, 교육국,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소방국, 경찰국, 교통국, 뉴욕주(지사), 뉴욕주 상원, 뉴욕주의회, 예술위원회, 미의회, NEA 등 30개의 정부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sup>126)</sup>

### 3) 재정

2020년 링컨센터의 수입은 약 1,943억 5,177만 달러인데, (민간)기부가 약 1,258억 달러로 총수입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서비스(15.8%)나 임대수익(12.9%), 투자수익(5.8%)도 상당한 편이다. 티켓판매·기타프로그램서비스 수입(4.0%)과 특별이벤트 수입(4.0%) 각각은 비중이 낮지만 공연 등 행사성 수입으로 통합하여 본다면 투자수익보다도 많은 금액이 된다. 지출의 경우 시설관리가 6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26) [www.aboutlincolncenter.org/support/institutional-support](http://www.aboutlincolncenter.org/support/institutional-support)

아웃리치 지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6.5%) 약 74억 달러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미션 및 프로그램<sup>127)</sup>

링컨센터는 공연예술을 후원하고 대중들의 예술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미션으로 하면서, 1)세계 최고의 예술 프로그램 진행자, 2)예술 교육 및 지역사회 관계(community relations) 분야의 미국 내 선도자, 3)링컨센터 캠퍼스 관리자<sup>128)</sup>로서의 세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링컨센터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 외에도 1년 내내 높은 수준의 예술 축제와 시리즈를 제작하고 무료 공연을 제공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링컨센터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세계 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예술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29)</sup> 매년 약 3,000개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을 제공하는데, 공연 시리즈에는 아메리칸 송북(American Songbook), 위대한 연주자들(Great Performers), 링컨센터 아웃도어스(the Lincoln Center Out of Doors), 여름 댄스 야외 댄스 축제(Midsummer Night Swing), 모스틀리 모차르트(Mostly Mozart), 화이트 라이트 페스티벌(White Light Festivals), 라이브 프롬 링컨 센터(Live From Lincoln Center) 등이 있다.

공연 관련 가족프로그램으로 수백 명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공연 전 워크숍을 보고 인기 공연의 황금 좌석에 입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링컨센터는 이러한 축제나 공연 외에도 아티스트 보조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에이버리 피셔(Avery Fisher) 예술가 프로그램은 뛰어난 악기 연주자들에게 그들의 경력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상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음악가들이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학생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Summer Forum: 전세계 교사들이 3주 동안 집중적인 워크샵), 학교 프로그램(중학교 단계에서 고품질의 예술 경험을 높이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링컨센터 에듀케이션은 1975년에 설립된 이래 전문 예술강사(Teaching Artists) 양성 기관

127) [www.aboutlincolncenter.org/about/about-overview](http://www.aboutlincolncenter.org/about/about-overview), [www.aboutlincolncenter.org/programs/program-overview-2](http://www.aboutlincolncenter.org/programs/program-overview-2)

128) LCPA는 2012년 10월에 완공된 12억 달러의 캠퍼스 혁신을 주도한 바 있음.

129) Lincoln Center(2018). 「Lincoln center annual report 2017-18」

으로 성장해왔다. 뉴욕에서는 많은 학교가 예산이 적어지면서 더 이상 예술교육을 다루지 않게 되었고, 링컨센터나 케네디센터 같은 기관이 나서서 예술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교, 지역문화센터, 보호소 등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130)</sup>

---

130) [www.lincolncenter.org/lincoln-center-at-home/footer-orgs](http://www.lincolncenter.org/lincoln-center-at-home/footer-orgs), Lincoln Center(2018). 「Lincoln center annual report 2017-18」. pp.46~47, 2016.09.05. 아르떼 “예술적 기량부터 파트너십 구축까지, 예술강사 핵심역량을 생각하다-미국 링컨센터 에듀케이션의 예술강사 역량개발 과정”(arte365.kr/?p=53794)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제5장

결론





## 제1절 요약

---

### 1.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개요 및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연방정부 문화예술정책과 주정부 문화예술정책을 분석하였다.

제 2장 제1절에서는 미국 행정체계와 법,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행정체계는 연방제, 지방분권, 견제와 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행정조직은 개인 자율성, 민간 중심, 책임과 권리, 최소 규제라는 그 나름의 합리적 질서가 존재한다. 이는 문화예술 행정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연방 헌법에 명문화된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저작권 등의 권리를 도출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 개입의 억제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었다. 이런 다원주의, 개인주의, 시장주의 문화예술정책의 특징은 미국 행정체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특징지어진다.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권리의 보장과 간접적 지원이다. 미국은 헌법에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예술지원에 대한 법률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헌법, 연방제도, 조세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또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향유는 국민의 자유 영역이라는 믿음 때문이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적법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숙의하고 방향성을 설정 후, 법률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대공황 시기의 예술인 지원, NEA 설립, 농촌 지역 도서관 설립을 위한 도서관박물관서비스법 등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예술교육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은 교육부와 NEA를 중심으로 전략화되어 주정부 단위의 조직에서 구체화된다. 예술교육은 문화향수라는 목적

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역량강화라는 목적이 더 크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장 제2절에는 미국의 시대별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예술지원정책의 내용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정리하고,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930년 정부 예술지원의 시도를 시작으로 1960년 NEA의 설립과 예술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문화전쟁으로 알려진 1990년대 NEA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예술지원에 대한 방향성, 정당성에 대한 숙제를 문화예술계에 던져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지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미국 정치, 예술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대중과 함께 고민되었고 표현의 자유, 예술지원, 공적자금 활용의 정당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과 논리들이 정리되었다. 현재 NEA를 통한 문화예술 재정은 과거의 수준에 비해 조금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내용은 예술의 정치화와 탈정치화의 반복이었다. 오바마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내용은 예술지원 확대가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 NEA증액, 문화외교 강화, 예술가를 위한 건강보험 및 조세제도 보완이 그것이다. 트럼프정부의 예술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반대 입장이었다. NEA, NEH, 공공방송공사, 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에 대한 예산 삭감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상승하였다. 2020년 시작된 바이든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과 부통령시절 예술지원 삭감에 구체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예술계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제3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독립행정기구 그리고 백악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입법부의 경우 연방의회 도서관의 저작권청, 스미스소

니언재단이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행정부의 경우 국무부의 공공외교, 내무부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관리, 교육부의 경우 예술교육이 핵심적인 정책 영역이었다. 독립행정기구들의 경우 국가예술기금, 국가인문기금이 대표기관이며, 미디어, 종교, 역사문화유적, 기록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백악관의 경우 종교 및 생활체육 관련 담당부서가 있다.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영역별 특징은 문화유산(자연유산, 경관 포함)정책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31)</sup>. 예술교육의 경우 NEA와 교육부가 지방정부(주정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스미스소니언재단은 문화예술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미국의 정책들은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 고려된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계약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 추구 행위가 사회문제로 바뀌는 경우, 즉 시장 실패가 일어난 경우에 한해서 정부의 개입이 용인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보면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법과 제도들을 이해하기 쉽다. 이런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 헌법이다. 미국 헌법에는 문화 국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과 인문정신 확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NEA, NEH를 분석하였다. NEA는 지역사회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에게 다양한 예술 기회를 제공한다는 선언을 통해 기관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목표 설정을 통해 그 실행력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전략목표는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최고 수준의 예술을 지원하며, 둘째, 공공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국의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의 지식증진 및 예술의 이해에 기여하며, 넷째 NEA 임무 활성화한다. 이런 전략적 노력을 통해 NEA 예산 사용에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1) 입법부의 청사단지 건축감처, 행정부의 국무부, 내무부, 독립행정기구의 국가기록보관기록청, 역사보존 관련 자문위원회, 미국전투기념물위원회, 국가수도계획위원회, 미국미술위원회가 문화유산 관리 업무 수행

미국인들이 NEA에 대하여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산 과정과 집행에 대한 것이다. 의장을 포함한 NEA 직원은 공식적으로 세출 예산, 법률, 입법과 관련하여 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로비활동을 할 수 없다. 이는 NEA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NEA의 보조금은 모든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예술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중 하나는 과거 예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소외지역(시골, 도시 내 저소득 지역)에서 예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사적 후원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NEA 예산은 필요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로 NEA의 설립과 관련된 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 먼저 민간에서 시작된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정부 내부에서도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1965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라커펠러가 유명해지면서 그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정부의 예술지원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정철현, 2015: 241). 두 번째로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경쟁으로 인해 미국의 예술분야를 당시 대규모 우주개발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과학력 프로그램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배려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미국의 입장에서 집단을 내세우는 소련에 대항하는 적절한 분야로 예술을 선택한 결과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신 뉴딜 파의 인문예술에 대한 이상주의 관점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시켜 정부 기구의 설립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다(김세준, 2004: 131).

종합문화기관의 가치와 역할을 가진 스미스소니언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이 어떻게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교육과 연계되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는 워싱턴의 내셔널 몰이다. 내셔널 몰에는 국회의사당과 링컨기념관을 양극으로 전쟁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기념관과 백악관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엔 스미스소니언이 있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문화, 예술, 과학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스미스소니언의 조직이다.

스미스소니언재단 조직은 연방 행정부 부처들(departments)과 유사하다. 정부의 축소판인 셈이다. 독립 재단이지만 연방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고 통제와 독립의 균형을 만들어 냈다. 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

면서 기관의 방향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 이사는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들이다. 그것도 미국 각 주에서 대표자를 선별했다. 미국은 스미스소니언재단을 통해 미국 문화예술의 힘은 공공, 기업, 시민의 거버넌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방 정부의 하향식 행정체계를 가지고 문화예술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정책 내용은 미국 각 주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독립이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기를 멈추지 않았던 국가다. 이런 고민의 단면이 스미스소니언재단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사항인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예술정책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학교-예술단체 민간 파트너십’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같이 제시했던 예술교육의 재활성화를 시행하였다. 2011년도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PCAH)에서 발간한 “예술교육 재활성화: 창의적인 학교를 통한 미국의 성공적 미래 확보(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생에게 적합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K-12(유치원-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소외계층 학생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노력하며, 양질의 예술교육을 위한 강화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부 Assistance for Arts Education (AAE)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술교육 행정체계와 협력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 시정부(local) 단위의 예술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성, 학생을 궁극적인 수혜자로 볼 때, 시 단위 지역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교육감독관, 교장, 예술 강사, 학부모/학부모위원회, 지역교사노동조합, 기초예술위원회(LAAs), 예술가, 예술 강사, 문화예술단체, 재정후원자, 대학, 유권자 등을 기초단위 예술교육 관련 협력주체로 파악하고 있다.

National Core Arts Standards에 따르면 교육기준의 핵심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학습운영 체계의 향상 견인, 개별 과목의 주요 개념, 학습 과정, 통용적 학습 규범, 학생, 교사, 행정을 포괄하는 교육 공동체의 기대와 지향방향 등이 체화된 기준을 개발,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문화유산 개념은 국가지정 유산(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or National Register))은 미국 문화유산의 대상을 미국 역사, 건축, 고고학, 기술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산(properties significant in American history, architecture, archeology, engineering and culture)으로 정의된다. National Park Service가 만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대상을 결정하며 National Register에 등재되는 문화유산은 구역(districts), 장소(sites), 건물(buildings), 구조물(structures), 물품(objects)으로 대부분이 유형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1966년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재생, 고속도로건설, 연방 인프라 사업들로 인해 수많은 문화유적과 National Historic Landmarks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파손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문화유산 관리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지정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지정 및 관리 절차,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국립유적지 보호재단(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설립과 주정부의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연방정부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노력을 규정하였다. 방정부 수준에서는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 Department of Interior)와 함께 문화유산보존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가 핵심 역할을 한다.

미국 문화유산 관리조직들 간의 협력 : 1966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서 체계화, 문화유산관리를 위한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과 문화유산기금(Historic Preservation Fund)을 중심으로 운영,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독립되어 있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법적, 정책적, 관리적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강제하게 된다.

### 3. 미국 지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제4장에서는 미국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을 조사하고, 이 부처와 부서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역사유적, 자연유산, 경관을 포함하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업무가 대표적이었다. 연방정부와 조금 다른 점은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여가, 야외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문화기반시설, 예술교육도 중요한 업무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뉴욕시의 경우는 뉴욕주와 조금 다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 전담 조직인 문화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더불어 축제, 공동체 활성화, 관광 홍보 전담 부서가 있다는 것은 뉴욕시가 문화행사, 관광, 축제,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뉴욕주는 뉴욕주 통합법 내 문화예술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술진흥을 위한 통합법 B편은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예술위원회, 예술 커미션, 뉴욕주 예술학교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욕주의 문화예술 관련 법은 뉴욕주 통합법 예술 및 문화 업무법(New York Consolidated Laws,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 ACA)이 있다. 뉴욕시의 문화예술 관련 법령은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뉴욕시 행정법(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뉴욕시 행정규칙(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이 있다.

뉴욕주와 뉴욕시의 문화예술 행정체제를 살펴보면, 뉴욕주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보조금을 활용한다. 뉴욕주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문화향유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되게 하여, 지역 사회의 삶에서 예술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과 관련된 개인후원자, 기관, 전문조직이 함께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활용 대상 및 기준을 가지고 있다.

뉴욕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뉴욕시 행정규칙에 따르면 뉴욕시 예술위원회는 예술작품과 관련된 자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을 위한 일정 비율법, 예술가 인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예술가의

보호 특히 유아청소년 실연자와 공연예술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예술 소비자들의 경제적,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예술품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미술품의 거래, 예술품의 보증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자원 관련 신탁제도를 제도화 하여 문화자원 신탁 생성, 관리, 권한, 과세 관련 조항으로 공익적 목적의 신탁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뉴욕주와 뉴욕시의 신탁제도, 예술을 위한 일정 비율법 같은 제도들의 핵심은 개인의 선의와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마크 트웨인과 찰스 더들리 워너는『도금시대』<sup>132)</sup>의 1873년 서문에서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더 잘살기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앨런 그린스펀·에이드리언 올드리지, 2018: 509) 미국인들은 금전적 성공을 추구하며 이 성공을 획득한 다음에는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미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미국의 꿈(America Dream)의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동의 위한 선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의 정부 역할이다. 미국 정부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예를 들어,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법률을 만드는데 약 20년이 걸렸고, 세계 최고의 공공도서관인 뉴욕공공도서관은 공립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뉴욕시 문화기관그룹(Cultural Institutions Group, CIG)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CIG는 뉴욕시와 민간 문화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육성하려는 노력으로 이 그룹에 소속된 34개의 구성원<sup>133)</sup>은 각 뉴욕시 소유의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지를 위한 자본과 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뉴욕시민은 누구나 이 시

132) 도금 시대(鍍金 時代, Gilded Age)는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고 1873년에 시작되어, 불황이 오는 1893년까지 미국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한 28년간의 시대를 말함.

133) ○브루클린: 브루클린 음악원, 브루클린 식물원,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 브루클린 박물관, 워싱턴 헤리티지 센터, 야생 동물 보호 협회 / 뉴욕 수족관; ○브롱크스: 브롱크스 카운티 역사 모임(society), 브롱크스 미술관, 뉴욕 식물원, 웨이브 힐, 야생 동물 보호 협회 / 브롱크스 동물원; ○맨해튼: 미국 자연사 박물관, 카네기 홀, 링컨 공연 예술 센터, Inc.,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엘 무세오 델 바리오, 뉴욕시 박물관, 유대인 유산 박물관, 뉴욕 시티 발레, 뉴욕시 센터, 공공 극장, 할렘 스튜디오 박물관; ○퀸즈: 플러싱 타운 홀, 자메이카 예술 및 학습 센터, 움직이는 이미지의 박물관, 뉴욕 과학관, 모마 PS 1, 퀸즈 식물원, 퀸즈 박물관, 퀸즈 극장; ○스테튼 아일랜드: 스너그 허버 문화 센터 및 식물원, 스테튼 아일랜드 어린이 박물관, 스테튼 아일랜드 역사 모임(society), 스테튼 아일랜드 박물관, 스테튼 아일랜드 동물 모임(society).



설들을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IG와 뉴욕시 문화국(DCLA)은 협력에 의해 이 기관들을 관리하며,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 지출을 감독하게 된다.<sup>134)</sup> 이런 정책 집행 방법은 미국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민간이 먼저였다. 라커펠러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주장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문화의 민주화 실현이었다. 즉, 미국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카네기재단과 포드 재단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예술지원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문화예술정책은 민관파트너십의 확장과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부는 민간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심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또한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실질적 활동은 연방정부보다 민간(기업, 독자가 등)과 지방정부(주정부, 시정부)의 파트너십이 결합되는 공간에서 태어났다. 즉, 자본, 제도, 시민 세 가지 요소가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다.(정철현, 2015: 249-250)

뉴욕공공도서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링컨센터의 사례에서 보았듯 뉴욕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들은 여러 기관들을 묶어 하나의 조직으로 기능함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여타 기관들, 특히 민간조직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일례로 뉴욕시의 Culture Pass는 13세 이상의 도서관 카드 소지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여 뉴욕 시민들은 패스를 예약하고 박물관, 역사 협회, 문화유산센터, 공공정원, 브룩클린 공공도서관, 브룩클린 식물원, 뉴욕공공도서관, 퀸즈 공공도서관, 미국자연사박물관, 브롱크스 미술관, 브롱크스 뮤직헤리티지 센터, 맨해튼 어린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NYC 문화기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sup>135)</sup>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뉴욕 공공도서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시 컬처패스에는 링컨센터가 제외되어 있지만 링컨센터 자체가 이미 많은 무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산하 입주단체들을 통해 공공 아웃리치 활동 및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4) <https://www1.nyc.gov/site/dcla/cultural-funding/city-owned-institutions.page>

135) 뉴욕시 컬처패스 홈페이지([www.culturepass.nyc](http://www.culturepass.nyc)), 무료 공립 도서관 카드를 받으려면 뉴욕주 거주자이거나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함.

결국 뉴욕 공공도서관은 여러 자치구 내 분관 도서관들을 묶어 하나의 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도시 내 다른 분야 문화예술기관들과 연계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본관과 분관의 연계 하에서 뉴욕시 내 다른 많은 문화예술기관들과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링컨센터는 자체적으로 여러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을 상주 입주시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이든 여러 기관들 및 단체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 제2절 시사점

---

### 1.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 비교

#### 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 차이점

한국과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양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화예술정책’이라는 표현도 미국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의 문화예술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문화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 존재하는 즐거움을 찾는 과정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미술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습과정으로 접하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즉 문화는 재미거리다.

예술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의 예술진흥법 체계에서 파생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예술진흥정책은 없지만,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책(직접지원, 간접지원)은 마련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NEA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예술교육의 경우도 교육정책 틀 안에서 타교과목들과의 연계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행정체제는 가장 대표적인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있으며, Kennedy Center(공연예술, national symphony, national opera 포함), Smithsonian Institution(총 19개 박물관, 1개 동물원)과 같은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정부, 시정부와 같은 지방정부는 상이한 예술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예술위원회(SAAs), 기초 지역예술진흥기관 등이 다수 혼재하여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정책의 총괄, 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본으로 다수의 장르별, 기능별 법령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분야 총괄 조정,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 예술정책의 대표기관인 NEA는 종합 정책개발 기능을 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 분석 등의 총괄 연구(research) 활동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런 행정체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집권적 시스템과 분권적 시스템에의 차이에서 온다. 한국은 문화예술위원회, 지방정부 및 지방예술위원회, 지역 문화재단 등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집권적 지원체계와 지방분권적 지원체계가 혼재되어 간다고 정의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 예술인, NPO 등이 각자에게 맞는 지원방식을 찾아서 협력, 연계하는 분권적 지원체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립예술기금, 스미스소니언재단 구성원은 연방정부 공무원 신분(Federal employees)과 민간인 신분(regular Civil Service employees, 실무적으로 Contractor라고 함)이 혼재되어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 나. 한국과 미국의 문화예술 담당 부처(부서) 비교

미국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문화예술의 기획, 조정 기능 역할을 하는 연방 부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문화예술정책 영역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정책적 편의성을 위해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처(부서)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영역 중 연방정부의 경우 NE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경우 예술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한국과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처(부서) 비교

| 대한민국 정부                                    |                            | 미국                 |                                       |   |
|--|----------------------------|--------------------|---------------------------------------|---|
|  |                            | 연방정부               | 주정부(뉴욕주)                              | 뉴욕시   |
| 문화정책<br>[문체부<br>문화정책관]                     | 인문정신문화                     | NEA, NEH           | 예술위원회                                 | 문화국   |
|  | 국제문화교류<br>문화분야 ODA<br>국제협력 | 연방 국무부             | 예술위원회                                 | 문화국   |
|  | 전통문화                       | 연방 내무부(고유문화)       | 지사행정지원부                               | 문화국   |
| 예술정책<br>[문체부<br>예술정책관]                     | 문화예술 기부                    | 연방 국세청             | 예술위원회,<br>Trust(공공, 민간)               | 예술위원회,<br>Trust(공공, 민간)                     |
|  | 문화예술교육                     | 연방 교육부             | 교육부                                   | 청년지역사회개발국                                   |
|  | 공연예술                       | NEA                | 예술위원회                                 | 예술위원회,<br>시장직속 미디어엔터테<br>인먼트실               |
|  | 시각예술<br>디자인                | NEA,<br>미국미술위원회    | 예술위원회                                 | 예술위원회,<br>문화국                               |
|  | 전통예술                       | NEA                | 예술위원회                                 | 예술위원회,<br>문화국                               |
| 지역문화정책<br>[문체부<br>지역문화<br>정책관]             | 여가                         | 연방 내무부             | 환경보호부,<br>지사행정지원부                     | 공원여가국                                       |
|  | 도서관, 박물관,<br>미술관           | NEA,<br>박물관도서관서비스청 | 교육부                                   | 문화국   |
| 범문화<br>영역<br>[문체부<br>총무실,<br>저작권국,<br>체육국] | 총무                         | 백악관,<br>국제종교자유위원회  | -                                     | -   |
|  | 저작권                        | 연방 입법부 의회도서관       | -                                     | -   |
|  | 생활체육                       | 백악관                | 총무부                                   | -   |
| 문화유산정책<br>[문화재청]                           |                            | 연방 내무부<br>(국립공원청)  | 지사행정지원부<br>(역사유적),<br>환경보호부<br>(자연유산) | 공원여가국,<br>기록물정보서비스국,<br>공공디자인위원회<br>(경관 규제) |

## 2.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다면성

### 가. 자유주의 문화정책과 미국 예외주의

미국인들은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상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추구한다. 문화예술영역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미국인들은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체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 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헌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하게 했다. 둘째, 저작권 제도를 고도화시켜 문화예술 진흥의 기초 토양인 표현과 창작에 힘을 실어 주었다. 셋째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유인구조(인센티브)를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적보존법, 인디언법 등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과감하게 개입하여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sup>136)</sup>

문화예술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더디게 된 이유는 미국 학계, 특히 사회과학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예술정책 이론화, 과학화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도로시 로스(a, 2008: 21-23)는 미국 사회과학이 지닌 자유주의적 가치, 실용주의 경향, 희박한 역사적 상상력, 기술주의에 대한 확신 등은 바로 20세기 미국의 두드러진 특징들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사회과학을 두드러지게 만든 원인 중 한 가지는 사회과학이 역사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에 모델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 exceptionalism)라고 보았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과학을 모델로 하는 연구방법은 보편적 추상화와 계량적 방법을 획득하려는 욕구를 강화하고 학자들의 역사학, 문화인류학의 해석적 모델, 막스 베버가 제공한 일반화 해석 모델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도로시 로스b, 2008: 362) 이런 사회과학적 경향성은 계량화가 어려운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풍토를 척박하게 만들었다. 둘째,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은 다르다는 신념을 강화시켰다. 특히 구대륙과는 달라야 한다는 신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영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 왕과 귀족 중심으로 후원, 향유하는 구대륙 방식의 문화예술지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신대륙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문화예술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왕과 귀족에서 정부로

136)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인 자신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방법을 1, 2차 대전과 냉전의 승리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사용했다는 점임.

치환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문화외교(공공외교)와 외부효과

미국 연방정부 문화예술 관련 행정조직으로 국무부, 내무부, 교육부를 소개하였다. 그 중 국무부는 내무부와 교육부와 달리 복잡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무부는 미국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문화외교와 관련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외교로서의 문화외교는 국제문화교류와 외교를 혼합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양한 수단과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예술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무부의 역할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을 짧게 소개한다.

정철현(2015)은 문화정책을 소개하면서 미국 문화정책의 특징을 문화외교정책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미국 문화예술정책은 자유주의와 시장주의가 핵심이며, 문화예술 영역에 정부 개입은 없다고 말하면서,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정책”은 거의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독일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33년 선린우호조약(Good Neighbor Policy)은 남미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명목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독일의 영향력을 견제,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1938년 미국 국무부가 문화교류국(Division of Culture Relations)을 설립하고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항하여 지식의 자유와 종교의 진실성을 강조한 것은 문화외교는 1939년까지 시급한 안보문제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정철현, 2015: 247)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소련을 봉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외교를 활용하였고 미국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소련의 강압적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추상주의 예술을 이용하였다. 이때 국가적으로 선택되어 활용된 작가가 잭슨 폴락 등과 같은 미국의 추상주의 화가였다.(프랜시스 스톤너 손더스, 2016: 433)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 함께 현대미술이 부상하였다. MoMA(Museum of Modern Arts)는 라커펠러의 지원으로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전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히틀러가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적, 세계적, 진보적, 자유적, 도전적인 예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남미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문화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되는데,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김려실, 2019: 14)<sup>137)</sup> 트루먼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추상예술과 자유주의 현대미술로 소련의 전체주의에 대항하였다. (정철현, 2015: 247)

미국은 자유주의 정치 리더십과 문화 리더십의 결합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NEA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시기의 NEA는 문화예술 진흥기관이면서 동시에 반공주의 문화정책의 수단이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된 미국의 문화 정책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국제사회에 미국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한다. 둘째, 위대한 예술작품을 창조하여 미국의 우월성을 선전한다. (정철현, 2015: 248)

#### 다. 인센티브 제도화를 통한 공공문화자원 확보: 신탁과 기부

세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비영리단체 운영 활성화, 기부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의 특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측면이 크다. 그중에서도 신탁제도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 공익 자본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 계약은 자산 관리의 편의성, 상속의 목적성, 기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 공익신탁(Charitable Trust)은 재단(foundation)과 같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실체(Legal entity)가 아닌 신탁을 설립하고 연방세에 대한 조세적인 혜택을 얻으면서 수혜자(donee)는 수탁자(trustee)가 되어 신탁자산을 관리 또는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공익신탁이 재단과 더불어 자산가들의 계획 기부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이유는 기부자(donor) 개인도 기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준석, 2016: 182)

공익신탁은 크게 공익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과 공익선행신탁(charitable lead trust: CLT)구분된다. 공익잔여신탁은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은 용수익과 원본자산의 일부분을 신탁자 또는 기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돌려받은 후, 나머지 잔여자산(remainder)을 수혜자에게 기부하게 된다. 기부자는 자신이 보

137) 김려실(2019)에 의하면 미국은 냉전에 승리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포해야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전략적 가치는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음.



유하고 있는 재산이 주거용 집인 경우에 공익신탁을 통해 사회에 기부하고 조세상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노후를 보내는 동안에는 자신이 공익신탁에 기부한 집에서 그대로 살지만, 사후에는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공익잔여신탁의 예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자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공익선행신탁은 이와 반대로 기부자가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기부를 먼저 하고, 일정기간 후에 나머지를 수혜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공익선행신탁을 기부자가 지정한 수혜자에게로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가 자칫하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잔여신탁에 비해 조세상의 혜택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다.(오준석, 2016: 183-4)

미국은 세법 이외에도 기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그림, 공예품, 가구, 디자인 제품, 음식기, 엔틱 제품 등을 사들인다.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이 같은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데, 개인 취향의 반영이기도 하고 소비지향적 자본주의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수요는 이를 공고히 하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바로 개인자산감정(Personal property appraisal) 분야가 그렇다. 이는 민간의 자격제도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관된 개인자산을 감정해주는 ‘개인자산감정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특정한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 어느 곳에서도 이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정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USPAP’(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를 운영하고 있다.<sup>138)</sup>

개인자산감정이 왜 중요직업군인가 하는 것은 ‘기부’와 관련이 있다. ‘기부’는 ‘감세’와 짝을 이룬다. 한국 미술계에서 최대 이슈가 된 ‘물납제’는 소장자의 사망 이후 자산 상속에만 한정된 논의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속과 상관없이 생전에도 기부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준다. IRS form 8283은 비현금기부(Noncash charitable contribution)에 특정한 양식이다. 자신의 컬렉션 중에서 특정 물건을 기부하고자 할 경우, 그 자산 가치를 개인자산감정사들이 감정해주고 이것을 IRS에 제출해 세금을 면제 받는다.

138) 워싱턴 ‘감정평가사 협회’(Appraisal Foundation)에서 규정한 자격시험. 개인자산감정사들의 최대 이익 단체인 AAA(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USPAP를 매 2년마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도록 함. USPAP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개정된 법률, 각 주별로 개인자산 감정에 관한 바뀐 사항을 주로 교육시키고 있음.

이 같은 정책은 예술가-컬렉터-미술관(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생성하는데,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고, 컬렉터는 이를 사서 즐기다가 기관(IRS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함)에 기증하고, 기관은 기부를 받아 컬렉션을 키울 수 있다. 이런 형식도 일종의 간접지원인데, 예술가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컬렉터와 기관까지도 지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물론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기부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다. 가장 흔한 사례는 미술작품을 산 뒤, 개인 이름의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곳에 작품을 장기간 대여해 일반에 전시함으로써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2021년 1월 소더비 뉴욕에서 9,200만 달러에 낙찰된 르네상스 거장 보티첼리의 ‘원형장식을 든 남자 (Portrait of a Young Man Holding a Roundel)’ (1480)는 뉴욕 부동산재벌인 셸든 솔로가 소유하던 작품이다. 1982년 130만 달러에 구매한 뒤, 자신의 건물 1층에 전시실을 갖춘 문화재단을 만들고 재단에 작품 일부 지분을 기증해 수십 년 간 개인소득세를 감면받아 왔다. 문화재단은 아들의 명의로 운영되며, 해당 작품을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은 재단을 통해 사실상 아들에게 상속된다. 물론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sup>139)</sup>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감세를 통한 기부 장려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편익을 대중과 나누는 것을 합리적인 재분배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3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3&aid=000028170>

---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08),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 강은경(2018), 文化藝術과 國家의 關係 研究 - 公共支援의 中立性 原則을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범준(2010),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비교법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김석은(2017),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주는 교훈, 정부학 연구 제23권 제1호.
- 김소연(2014), 해외 문화예술교육 살펴보기-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연대 [2014 이웃나라 문화예술교육 힐끔! 워크숍] 자료집.
- 김세준(2004), 미국NEA,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1) 미국연방예술기금의 탄생과 역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문화예술월간 문화예술, 2004년 11월호.
- 김려실(2019), 문화냉전 미국의 공보선전과 주한미공보원 영화, 현실문화.
- 김정수(2014), 한류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 그리고 문화정책의 역할.
- 김병일·김종해(2010), 미국의 신탁과제제도와 그 시사점, 조세연구 10-1.
- 김효숙(2004), 뉴욕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도로시 로스a(2008),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1. 나남.
- 도로시 로스b(2008),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2. 나남.
- 박경신(2018), “[미국] 음악현대화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다”, 저작권 동향 2018년 제5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8.5.18.).
- 박종준(2017),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 분석,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3-06. 한국법제연구원.
- 박용만(2011),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한국학술정보.
- 배관표·박종석·신현기(2021),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2권 1호.

- 변혜정(2013),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최신 외국 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미래인력연구원(2004),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제2장 미국인의 자아, 가치, 그리고 행복(최인철),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원익(2011), 현안분석 :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179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송홍섭·이효섭·황세운(2021), 고령화 시대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 신하순(2012),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대한토목학회지, Vol.60(7): 1115-1119.
- 안병찬(2018.7.24.), 유산상속을 위한 트러스트(trust)란 무엇인가?
- 양건열(2003),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양혜원(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김현경·윤지연(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앨런 브링클린, 황혜성 옮김(2005),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휴머니스트.
- 앨런 그린스펀·에이드리언 울드리지, 김태훈 옮김(2018),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세종서적.
- 오준석(2016),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제상 비교연구, 조세학술논집 32(2), 한국조세조세협회.
- 윤광재(2004),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미국의 연방정부 조직.
- 이원화·고길곤·김태희·김도형·김윤희·나종민·노은주·류신규·박성호·여정원·윤정아·이주호·정복교·허형조(2020), 현직교수가 전하는 미국 행정 풀어쓰기, 대영문화사.
- 이정은(2011), 미국의 사적지 조사 및 관리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 이현경·손오달·이나연(2019),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판. 문화논총 제33권3호: 5-27.
- 이현송(2020), 미국 문화의 기초, 한울렘플러스(주).
- 이현우(2017), 미국의 정부형태별 역할분담과 지방재정구조 분석 시사점, 경기연구원.
- 임상수·박지혜(2013),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2013년 일몰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장윤금(2017),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Vol.51(1): 289-306.

- 전병태·이은미(2008), 세계 주요 아트센터 평가 사례 비교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홍익·이종열·박광국·주효진(2008),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 정보람(2016),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철현(2015),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 장석정(2013), 미국 문화지도, 살림.
- 조지 캐리 저, 이재만 역(2004), 미국 정치사상 공부의 기초: 미국의 토대를 이해하는 법, 유유.
- 최보연(2016),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니 예거 파인 저, 이현환·김선화 역(2016), 미국법제도 입문.
-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2016),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4), NEA의 예술교육지원정책 현황과 분석.
- 행정안전부(2016),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 체계 현황(2016년).
- 허은영(2004), 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미국의 비영리 세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홍익희(2021),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 7 미국 근대 산업사는 재벌의 역사 근대 미국 경제사 上, 한스미디어.

## [국외 문헌]

- Americans for the Arts(2015), Arts Education Navigator: Making the Case.
- Americans for the Arts(2021), Arts Advocacy Day 2021: Talking Points.
- Barack Obama(2008), "Obama National Arts Policy Committee."
- DeSantis, Mark K(2020), The Federal Role in Historic Preservation: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Education Commision of the States & Arts Education Partnerships.(2021.3.). "2021 ArtScan at a Glance.
- frey(1999), State Support and Creativity in the Arts: Some New Considerations.
- John K. Urice(2003), Three Contemporary Reports That Influenced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 Retrospective,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3:1, 5-16.

- Lincoln Center(2018), 「Lincoln center annual report 2017-18」.
- Lincoln Center(2020), 「Lincoln Center fiscal report 2020」.
- 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 (NCCAS). (2016),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rts Learning,” 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 NYPL(202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2020」.
- NYPL(202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inancial Report 2020」.
- Paul DiMaggio and Becky Pettit(1999),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Vulnerability: Why has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een Such an Attractive Target?, Sociology Department and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 Peter S. Menell(2000), “in Bouckaert, Boudewijn and Geest, de Gerrit(eds). Encyclopedia of Law & Economics. vol. II. Cheltenham : Edward Elgar Publishing.
- PCAH(2011), 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 Roberto Bedoya(2004), U. S. CULTURAL POLICY Its Politics of Participation, Its Creative Potential,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 Stubbs, R. and P. Mullaney-Loss (2021), “Arts Funding Snapshot: GIA’s Annual Research on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GIA Reader, 31(3), (Fall 2020/Winter 2021).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2020),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2019-202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2020),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nual Report 2019-20」.
- Wyszomirski(2004), From Public Support for the Arts to Cultural Policy, Review of Policy Research, 21(4).

#### [웹 페이지]

- 뉴욕공공도서관([www.nypl.org](http://www.nypl.org))
- 뉴욕시 컬처패스([www.culturepass.nyc](http://www.culturepass.nyc))
- 두산백과([terms.naver.com](http://terms.naver.com))

- 링컨센터 홈페이지([www.lincolncenter.org](http://www.lincolncenter.org))
- 매일신문([news.imaeil.com](http://news.imaeil.com))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www.metmuseum.org](http://www.metmuseum.org))
- 배정식(2020.02.23.) 미국 유명인사의 신탁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9309>
- 아르떼([arte365.kr](http://arte365.kr))
- 울산신문([www.ulsanpress.net](http://www.ulsanpress.net))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http://en.wikipedia.org))
- 쿠로키 마코토, 배원기 역(2017.9.16.), 비영리 조직의 세제 및 재무보고 - 미국의 사례 참고로, 한국가이드스타.  
[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uid=6485](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uid=6485)
- 프럼에이([froma.co](http://froma.co))
- Eric's New York([www.newyork.kr](http://www.newyork.kr))
- Artnet News (2020.11.2.). "Where Do Trump, Pence, Bide, and Harris Stand on the Arts? We've Comiled There Respective Track Records and Missteps,"  
<https://news.artnet.com/art-world/candidates-art-platforms-1919554>
- LAURA COLBY, ERIK LARSON (2017.8.9.)  
<https://time.com/4893080/donald-trump-diversity-culture-wars/>
- NY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ertified Local Government Program. at  
<https://www.phmc.pa.gov/Preservation/Community-Preservation/Pages/Certified-Local-Government.aspx>
- Robert L. Lynch (2020.2.10.). Americans for the Arts website.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news-room/press-releases/americans-for-the-arts-issues-statement-in-response-to-trump-administration%E2%80%99s-proposed-fy-2021>
- US Library of Congress, "New Deal Programs: Selected Library of Congress Resources," <https://www.loc.gov/rr/program/bib/newdeal/fap.html>
- Wulf, Karin(2020), How Historic Preservation Shaped the Early United States: A new book details how the young nation regarded its recent and more ancient pasts. Smithsonian Magazine.  
<https://www.smithsonianmag.com/history/how-historic-preservation-shaped-early-united-states-180974871/>





---

# ABSTRACT

## **A Study on the US Arts and Culture Administration System and Institution**

Park, jongw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merican cultural arts administrative system and institution.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American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ve system. Firs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US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on system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culture and arts policy was formed, the analysis of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 the establishment of the NEA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rt support, the cultural war that became a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and the cultural policies of President Obama,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Biden proceed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al arts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an overview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culture and arts policy was conducted. In order to show the indirect support system,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 of supporting American culture and art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and Copyright Act were analyzed. In addition, tax law was analyzed as the subject of analysis to understand implications related to support for non-profit corporations.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federal government's cultural arts administrative system in detail. First, policy cases of NEA and NEH related to the spread of arts and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were introduced. Second, the Smithsonian Foundation was introduced and analyzed. Third,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ies of the NEA and the US Ministry of Education were analyzed. Fourth,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were introduc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al arts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US local government, an analysis of the US state government's cultural arts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was conducted. Based on this, the cultural arts administrative system of New York State and New York City was analyzed.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ve system of New York State in detail. First, culture and art promotion and safety net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ew York Consolidated Laws, The New York City Charter, 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and 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Second, the art transaction and trust system were analyzed. Third, cultural enjoyment and cultural infrastructure wer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American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ve system,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federal, local, and municipal governments. First, the United States implements culture and arts polic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NEA is the representative department that establishes American culture and arts policy, but it promotes the project in cooperation with various ministries. Third, the provincial government is the center of civil culture and arts-related projects. Fourth, the US government is using culture and arts as a means to achieve various policy goals, such as creativity, competitiveness,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mechanisms. Fifth, to improve the quality of culture and art, systems such as copyright guarantee and fairness in art trade were prepared. Sixth,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secure cultural resources by utilizing the trust system.

## **Keywords**

US Arts and Culture Administration System

부록

제3장. 스미스소니언재단·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일부)

제26장. 인문학 및 예술분야 지원의 지원과 장학,  
박물관, 서비스(일부)

제56장.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문화·예술 개발(일부)

제72장.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 부 록

### 제3장. 스미스소니언재단·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 제I절. 인가 규정(제41조~제70조)

##### 제41조. 협회의 설립

대통령, 부통령, 대법원장, 행정부서의 장은 인류의 지식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스미스소니언재단을 설치하고, 다음에 포함된 권한과 제한을 알고 영구적으로 계승한다.

##### 제42조. 이사회 및 위원

- (a) 협회의 사업은 이사회가 워싱턴시에서 주재하며, 이사회는 부통령, 대법원장,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 그리고 의회 의원이 아닌 다른 9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2명은 워싱턴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7인은 다른 주의 거주 주민으로 하되 2명이 동일한 주의 거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 (b)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소니언재단 이사회는 스미스소니언재단 관할 하의 위원회나 위원 수, 위원 임명 방식, 위원 임기를 변경할 수 없다. 다음의 기관은 제외한다.
  - (1) 스미스소니언재단 이사회
  - (2) 국립미술관, 존 F. 케네디센터, 우드로윌슨센터

##### 제43조. 위원의 임명·임기·공석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하원의원은 하원의장이, 그 밖에 9명은 의회의 공동결의로 각각 선임한다. 그와 같이 임명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격년으로 12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동일한 인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위원은 임명된 후 두 번째 연도의 12월 넷째 주 수요일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임명된 상원의원은 의원직 직책을 재임 없이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망, 사임,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해 이사회 공석을 채워야 한다. 그 밖에 위원 9명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새로 선출하는 위원은 의회의 공동결의로 임명하여야 한다. 사망, 사임, 그 밖에 사유로 결원이 되면 의회의 공동결의로 공석을 채워야 한다.

##### 제44조. 이사회 조직·경비·무보수 직무

이사회는 워싱턴시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 중 1명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해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의장으로 명명하며, 이사회의 사무총장 또한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겸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사회 내부에서 3명을 집행위원회로 선출하여 정기회의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위원 중 3명이 협회의 사무총장에게 특별회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결정족수는 8명으로 한다. 이사회의 각 위원은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여비와 기타 실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사무총장이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로 한다.

#### 제45조. 위원 특별회의

협회의 위원은 협회의 업무와 이사회의 권고 및 지도를 위하여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정기 및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주재한다. 다만, 대통령 부재 시 부통령이 주재한다.

#### 제46조. 사무총장의 직무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협회의 건물과 재산을 관장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이를 협회에 보존하여야 하며, 사서와 박물관 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다.

#### 제46a조. 사무총장의 외국인 고용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사무총장은 특정 직위에 적격의 미국 시민이 없다는 사전 판정과 안전 및 기타 조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인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정 규정에 관계없이 책정된 보상 비율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권한을 가진다.

#### 제47조. 사무총장 대행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의장은 총장실에 제출된 서면 문서를 통하여 사무총장직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사무총장이 질병, 부재,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 사무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지정하고 임명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임명된 사무총장 대행은 공석이 채워지거나 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법률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부과된 모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의장은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명 및 임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8조. 사무총장과 보좌관의 보수 및 해임

사무총장과 그의 보좌관은 각각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이사회가 허용하는 금액을 수령하며, 이사회는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 제49조. 생략

#### 제50조. 표본 및 작품의 접수와 배치

접수를 받는 대로 적절한 준비가 수시로 가능한 경우, 워싱턴시에 소재할 수 있는 모든 예술품과 외국 및 특이 연구의 작품, 미국 소유의 자연사·식물학·지질학·광물학적 표본은 그 소지자에 관계없이 이사회가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그러한 표본 및 작품의 조사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가 건축한 건물에 분류·배치하여야 한다. 기부나 이사회 재량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복제 표본과의 교환을 통하여 협회 소속 박물관을 위한 자연사·지질학·광물학적 신규 표본을 획득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신규 표본을 적절하게 분류·배치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가 접수한 제임스 스미스슨의 광물, 서적, 원고 및 그 밖에 재산은 협회의 다른 재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보존한다.

### 제50a조. 겔라틀리 아트 컬렉션의 보존 및 유지에 필요한 금액의 추산

스미스소니언재단은 존 겔라틀리의 아트 컬렉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 책정액에 포함할 권한을 가진다.

### 제51조. 도서관

이사회는 모든 인문교육 부서의 중요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점진적으로 형성을 위하여 연간 평균 미화 2만5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예산을 기금의 이자로부터 할당한다.

### 제52조. 부지 및 건물 명의에 대한 증거

스미스소니언재단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선정된 부지와 토지는 협회에 편입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책정된 토지의 범위와 경계를 관할하는 모든 법원에 해당 부지와 토지 내역에 대한 기록 또는 사본 1부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제53조. 재산의 보호

위싱턴시 공공재산 보호에 대한 모든 법률은 스미스소니언재단의 토지, 건물 및 그 밖에 재산 보호에 적용되며 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협회가 회수하거나 협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스미스소니언 유산의 신용으로 미국 재무부에 납입하고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53a조. 책정액의 승인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관측소의 유지 및 높은 고도에서의 태양 관측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며, 콜롬비아특별구 및 그 밖에 지역에 있는 스미스소니언재단 소유의 건물과 부지의 보수·변경과 간행물에 실릴 원고, 그림, 삽화에 대한 책정액을 승인한다.

### 제54조. 이자의 책정

제임스 스미스슨의 재산 중 상당 부분에 달하는 미화 약 54만달러는 미국 재무부에 화폐로 납입되어 재무부가 차용하고 재무장관이 정하는 요율의 이자로 스미스소니언재단이 요청한 만기가 있는 공공채 무증권에 투자한다. 미국의 상응하는 만기가 있는 시장채무에 대한 현재 시장 수익률을 근거로 한다. 그러한 이자는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영구 유지 및 지원에 배정되며,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총당금액은 기금의 원금이 아닌 이자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임스 스미스슨이 유증한 기금으로 인하여 미국 재무부에 접수되었거나 이후 취득될 수 있는 모든 돈과 주식은 그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재무부에 환급하기로 서약한다.

### 제55조. 기타 금액의 접수

재무장관은 제임스 스미스슨의 최초 유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사회가 수시로 예약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유증과 함께 미화 1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재무부에 수납할 권한을 가지며 지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부·유증·증여에 의하여 금품을 수령하거나 해당 목적을 위하여 이를 보유·처분할 수 있는 스미스소니언재단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56조. 미책정 금액의 처리

이사회는 유언자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스미스소니언 기금의 이자로 발생한 금액 중 본 협정에 규정된 목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금액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R.S. 제5592조.)

### 제57조. 지출

이 편의 제41조~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제53조, 제54조~제57조,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협회의 부채 상환이나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위 조항에 따라 인가된 물건의 매입 및 이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그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여 그러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사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경우, 재무부의 관련 담당자에게 지불을 인증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경비 및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매 회기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 생략

### 제59조. 국립박물관에 기탁된 국립해양연구소, 미국지질조사국 등의 수집품

국립해양연구소, 미국지질조사국, 또는 그 밖에 미국 정부의 연구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제공한 모든 암석, 광물, 토양, 화석과 자연사·고고학·민족학적 수집품이 더 이상 조사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에 기탁한다.

### 제60조. 국립박물관에 제공되는 육군 물품

미국 육군성 장관은 국립박물관장의 요청에 따라 일반인의 흥미를 끌 수 있거나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육군 무기, 물자, 장비, 의복을 국립박물관에 전시 용도로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물품은 보류할 수 있다.

### 제61조 내지 제64조. 폐지

1951.10.31. 법령 65권 702면에 수록된 공법 제654장 제1조(37)-(40)

### 제65조. 폐지

1966. 10. 15. 법령 80권 953면에 수록된 공법 제89-674호 제3조

### 제65a조. 국립박물관장

#### (a) 직무, 프로그램 및 연구, 의회에 대한 연간 보고

국립박물관장은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박물관 문제와 기회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그 전문기관과 협력한다.
- (2) 스미스소니언재단 또는 협력 박물관·단체·기관과 박물관 및 그 전문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경력직원 박물관 실무교육을 위한 보조금 또는 계약을 마련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고 수행한다.
- (3) 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을 제작·배포한다.
- (4) 박물관 유지와 박물관유지기관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 박물관의 역량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여한다.
- (5) 박물관의 운영과 지원, 또는 그 밖에 박물관 유지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한다.
- (6)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 (b) 책정액의 승인

1981년 회계연도에는 미화 80만3천달러를, 1982년 회계연도에는 미화 1백만달러를 스미스소니



언재단에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66조. 폐지

#### 제67조. 폐지의 권리

의회는 이 편 제41조~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제53조, 제54조~제57조의 규정을 변경·수정·추가·폐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에 따라 체결하거나 취득한 계약 또는 개인의 권리는 그에 따라 소멸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한다.

#### 제68조. 폐지

#### 제69조. 인류학 연구를 위한 주정부·교육기관·과학기구와의 협력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은 미국의 관할이나 보호 하에 있는 미국 원주민과 토착민에 대한 인류학 연구와 고고학 유물의 발굴·보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미국의 모든 주정부·교육기관·과학기구와 협력할 권한을 가진다.

#### 제70조. 책정액의 승인, 협업

달리 책정되지 않은 재무부 자금에서 미화 2만달러를 배정하여 이 편의 제69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지출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재단의 판단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정부·교육기관·과학기구가 그러한 연구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해당 연구가 가치 있는 경우에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은 어느 역년 동안 한 주정부에 미화 2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정부·교육기관·과학기구가 기여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협력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모든 협업과 그 결과물의 분배는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인디언사무국 또는 국립공원관리청의 관할 하에 있는 토지의 경우, 이에 관한 협업은 내무장관이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른다.

### 제III절. 국립미술관 (제71조~제75조)

#### 제71조. 부지 지정

콜롬비아특별구 컨스티튜션 애비뉴 노스웨스트, 7번가 노스웨스트, 4번가 노스웨스트, 노스몰 드라이브 노스웨스트로 둘러싸인 지역은 국립미술관 부지로 스미스소니언재단에게 책정한다. 스미스소니언재단은 앤드루 멜론 교육공익신탁(이하 “기증자”라 한다)이 해당 부지에 기존 구조물과 조경을 철거하고 국립미술관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콜롬비아특별구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노스웨스트, 4번가 노스웨스트, 3번가 사우스웨스트, 노스몰 드라이브 노스웨스트로 둘러싸인 지역은 국립미술관의 추가 부지로 남겨둔다. 프로젝트는 미술위원회가 승인한 계획 및 세부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71a조. 추가 부지에 대한 신탁기금의 건설비용 지불

국립미술관 수탁자는 이 편 제71조 제3문에 따라 향후 추가 부지로 남겨둔 구역 내에 하나 이상의 국립미술관 별관을 건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건물의 건설비용은 위 수탁자가 집행하는 신탁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한 건물에 대한 계획 및 세부사항은 미술위원회와 국가수도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1b조. 완공된 추가 건물의 지위

이 편 제71a조에 따라 건축된 건물은 완공 시 국립미술관의 일부가 된다.

## 제72조. 이사회

### (a) 설치

국립미술관의 수탁자인 이사회가 지휘하는 사무국을 스미스소니언재단에 설치한다. 사무국은 국립미술관과 그 부지를 유지·관리하고 기타 이 절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사회는 미국 대법원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아래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선출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반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직원은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b) 선출방법과 임기

처음 취임하는 일반위원은 기증자의 승인을 받아 스미스소니언재단 이사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1939년, 1941년, 1943년, 1945년, 1947년 7월 1일에 각각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자는 일반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0년 후에 만료된다. 다만, 임기 만료 전에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73조. 앤드루 멜론의 기부 수취

## 제74조. 유지

### (a) 유지 기금의 서약, 책정액의 승인

이 절의 규정에 따른 기증자에 의한 국립미술관 완공과 기증자로부터 취득한 아트 컬렉션에 대하여, 미국은 예술작품 보호 및 관리를 포함하여 국립미술관의 유지에 필요한 행정 경비와 운영비용을 제공하며, 국립미술관이 적절히 유지되고 국립미술관에 속한 예술작품이 정기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전시될 수 있도록 함을 미국의 선의에 따라 서약한다. 국립미술관의 완공에 앞서, 예술작품 보호 및 관리와 일반 공중에게 미술관을 개방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필요한 행정 경비 및 설비 비용을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 (b) 기부 및 기타 재산의 수취, 기금의 투자

이사회는 스미스소니언재단이 국립미술관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증여·유증된 금전, 증권, 그 밖에 모든 성격의 재산을 접수하고 이를 보유·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기부·증여·유증의 조건에 따라 달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국립미술관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증여·유증된 신탁기금을 구성하는 금전, 증권, 기타 재산을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하여 투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수납된 수입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공탁소에 예치하여 야 하며, 이사회 경비의 대상이 된다.

### (c) 임직원의 임명 및 보수

이사회는 국립미술관의 관장, 부관장, 사무관, 수석 학예사와 이사회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필요한 임직원을 임명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와 업무를 규정한다. 관장, 부관장, 사무관, 수석 학예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신탁기금에서 보수를 받으며, 이들에 대한 임명 및 보수는 공무원법이나 제5편 제51장과 제53장 제III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관장, 부관장, 사무관, 수석 학예사는 실무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직위에 대한 최초 임명은 기증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 이사회의 조치 검토

신탁기금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하도록 지시한 금액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는 법원 이외에 어떠한 임원이나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다.

## 제74a조. 이사회의 재무부에 대한 영구적 자금 대출, 이사회에 대한 반기별 이자 지급

미국에 대한 국립미술관 이사회의 영구적 대출로써, 재무장관은 미화 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현금을 수시로 재무부에 귀속시키며, 연 4%의 이율 또는 재무장관이 정한 이율보다 0.25% 낮은 이율 중 높은 이율로 그러한 대출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미발행 장기시장채무에 대한 현재 시장 수익률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지급되는 1%의 8분의 1에 가장 근접한 이율로 조정한다. 그러한 이자는 국립미술관 이사회에게 영구적으로 책정된다.

### 제75조. 이사회의 권한과 직무

- (a) 직인, 내규, 규칙 및 규정, 정족수  
이사회는 사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인을 채택하고, 예술작품의 인수, 전시 및 대출, 신탁기금의 운영, 이사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내규,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하여 이 절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규,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공식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3명으로 한다.
- (b) 예술작품의 품질  
국립미술관의 컬렉션은 항상 그 수준이 높고, 불량한 미술품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증자로부터 취득한 수집품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의 미술품이 아니면 국립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c) 권한과 의무  
이사회가 관리하는 모든 신탁기금과 이사회가 취득한 모든 예술작품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모든 통상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d) 연차보고서  
이사회는 예술작품의 모든 수집 및 대출과 모든 공공 및 사적 자금의 수령·지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절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스미스소니언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III절. 국립초상화미술관(제75a조~제75g조)

### 제75a조. 정의

-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이사회"란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이사회를 말한다.
  - (b) "위원회"란 이 절에 규정된 국립초상화미술관 위원회를 말한다.
  - (c) "미술관"이란 이 절에 의해 설립된 국립초상화미술관을 말한다.
  - (d) "기부"란 직접 또는 신탁 형태의 기부·증여·유증 및 기부의 효력이 있는 모든 법률 문서를 말한다.
  - (e) "초상화"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발명되거나 개발되는 모든 기법이나 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초상화와 그 복제물을 말한다.

### 제75b조.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설립과 기능

- (a) 스미스소니언재단 내에 국립초상화미술관이라는 기관을 둔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은 이 절에 따라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58년 3월 28일에 발효된 법령(72권 68면)에 따라 스미스소니언재단으로 이전된 일부 건축물을 미술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 (b) 미술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 발전, 문화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자의 초상화나 조각상, 그러한 초상화 및 조각상을 만든 예술가에 대한 전시·연구를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료 개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75c조. 국립초상화미술관위원회의 설치, 위원, 직무, 권한

국립초상화미술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의 수, 임명 방식 및 임기는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는 미술관의 기능 또는 미술관과 관련된 이사회의 직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미술관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권고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75d조. 기부의 접수, 재산의 명의

- (a) 이사회는 스미스소니언재단이 미술관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재산의 기부를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 (b) 미술관의 사용이나 이익을 위하여 보유한 모든 재산(미국 재산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스미스소니언재단에 귀속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제한을 따를 것과 기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부의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가 보유한 모든 성격의 재산을 판매, 교환, 처분하여 투자 또는 재투자하거나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75e조. 이사회의 권한

이 편 제75b조에 따라 승인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 (1) 초상화, 조각상, 기타 품목을 보존·전시·연구 목적으로 구매, 수취, 대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사회는 흥미로운 역사적 주제, 예술적 가치, 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거나 그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근거한 당해 품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초상화 및 조각상의 전시를 증대하기 위하여 시대별 가구 및 기타 품목을 취득할 수 있다.
- (2) 문단(1)에 따라 취득한 품목을 보존·복원한다.
- (3) 그러한 품목을 전시, 대여, 보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보유한다.
- (4) 그러한 품목을 판매, 교환, 기부, 반납, 폐기할 수 있다.

### 제75f조. 관장과 임직원의 임명과 보수

### 제75g조. 책정액의 승인

## 제IV절. 스미스소니언 미술관(제76조~제76g조)

### 제76조, 제76a조. 생략

### 제76b조. 이사회의 직무

- (a) 건설자금의 모집  
이사회는 이 절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개인 출처로부터 자금의 기부를 모집하고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상기 문장에 따라 수취한 자금은 미국 재무부의 특별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를 얻기 위하여 비품과 설비를 포함한 건물의 건축비용 총당과 필요한 조사 및 비용 추산과 행정 경비 지출, 기타 필요한 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그러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 (b) 건물의 건축  
이사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부지 조성과 조경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연방총무청 청장은 계획서와 시방서의 작성을 감독하고 모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를 감독한다.

(c) 건물의 명칭, 감독 및 관리

건물의 명칭은 스미스소니언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과 이사회는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76c조. 고전 및 현대 미술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a) 민간 기부의 모집

이사회는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의 접수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유지하고 워싱턴과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수시로 공개 전시회를 열어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높이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작품 매입을 목적으로 작품에 대한 민간 기부 및 개인 출처로부터의 자금 기부를 모집·수취할 권한을 가진다. 상기 문장에 따라 수취한 자금은 미국 재무부의 특별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작품 매입을 위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b) 예술품의 취득 및 판매, 예술가 고용, 장학금 수여 등을 위한 자금의 모집

현대 미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광범위한 예술문화 향유 및 진흥을 위하여, 이사회는 개인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집·수취하여 현대 미술작품이나 그 사본을 취득(구입 또는 그 밖에 방법에 의함) 및 판매하고, 예술가 및 기타 인력을 고용하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일반적으로 이 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권한을 가진다. 이 절에 따라 수취한 자금은 미국 재무부의 특별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 조항에 열거된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는 그러한 지출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는 가용 자금을 초과하면서까지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6d조. 정부부처의 미술품 기증**

연방총무청 청장과 그 밖에 정부부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미술품을 미술관에 기증할 수 있다.

**제76e조. 스미스소니언재단 소장 예술품의 보관과 전시**

정부 또는 스미스소니언재단이 소장하고 있거나 향후에 취득할 예술품은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과 이사회는 승인을 받아 규정에 따라 미술관에 보관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제76f조. 미술관장의 임명·보수·직무와 직원 고용**

이사회는 미술관장을 임명하고 그의 보수와 직무를 정할 수 있으며,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76g조. 책정액의 승인**

관장과 임직원의 급여를 포함하여 미술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과 워싱턴 및 그 밖에 지역에서 열리는 특별 공개 전시회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년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V절. 존 F. 케네디센터(제76h조~제76s조)**

**제76h조. 이사회**

(a) 설치

(1) 총칙

스미스소니언재단 내에 존 F. 케네디센터라는 기관을 두고 존 F. 케네디센터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존 F. 케네디를 기념하는 국립공연 예술센터로서 존 F. 케네디센터와 그 부지를 유지·관리하고, 이 절에 따라 부여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A) 보건복지부 장관
- (B) 의회도서관장
- (C) 국무장관
- (D) 미술위원회 위원장
- (E) 콜롬비아특별구 시장
- (F) 콜롬비아특별구 교육감
- (G) 국립공원관리청장
- (H) 교육부 장관
- (I)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
- (J)
  - (i) 하원의장 및 소수당 원내대표
  - (ii)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최고위원
  - (iii) 하원의장이 임명한 하원의원 3명
- (K)
  - (i)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및 소수당 원내대표
  - (ii)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최고위원
  - (iii) 상원의장이 임명한 상원의원 3명
- (L) 제(b)항에 따라 임명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반위원 36명

(b) 일반위원

일반위원은 미국 대통령이 선임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임기 만료 전에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후임자는 선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2)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3) 1994년 7월 21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지정된 바에 따라 만료된다.

(c) 예술자문위원회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위원들로 구성된 예술자문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원을 포함하여 예술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자는 존 F. 케네디센터가 다루는 예술 분야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대통령은 예술분야 국가기관이 수시로 제출하는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예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예술자문위원회는 존 F. 케네디센터의 현재 및 향후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고 권고를 행한다. 예술자문위원회는 이 편 제76k(a)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사회를 지원하여야 한다. 예술자문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76i조. 존 F. 케네디센터**

(a) 총칙

이사회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콜롬비아특별구 포트맥 리버 프리웨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메모리얼 브릿지, 록 크릭 파크웨이, 뉴햄프셔 애비뉴와 F 스트리트 노스웨스트로 둘러싸인 지역을 존 F. 케네디센터 부지로 스미스소니언재단에게 책정한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존 F. 케네디센터와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收用)할 수

있다. 그러한 건물은 미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와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b) 주차장 증축 및 부지 개선

(1) 총칙

"현장기본계획(1997년 4월 29일, 도면번호 1997-2 및 지도번호 NCR 844/82571)"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설계·건설을 할 수 있다.

(A) 존 F. 케네디센터의 북쪽과 남쪽 끝에 주차장 증축

(B) 부지 개선 및 수정

(2) 채택 가능성

계획서는 센터 비서실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책정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제한

책정된 자금은 다음의 비용(비용 조달로 발생한 채무상환 포함)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A) 제(1)(A)항에 따라 승인된 주차장 증축의 설계 및 건설

(B) 이사회의 특별 지정으로 제(1)(B)항에 따라 승인된 부지 개선 및 수정을 위한 설계와 건설은 책정된 자금 이외의 출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C) 자막 삽입을 위한 극장용 대형 스크린 장비 구매나 자막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특별 지정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책정된 자금 이외의 출처를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c) 확장공사

(1) 건설 권한

(A) 총칙

이 절에 따라 이사회는 확장공사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B) 이사회의 책임

이사회는 확장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확장공사를 위한 계획, 설계, 토목,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지낸다.

(C) 제한

(i) 임무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존 F. 케네디센터가 국립공연예술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속한다.

(ii) 자금조달

확장공사를 위한 계획, 설계, 토목, 건설에 대한 비용은 미사용 자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2) 연간 운영·유지비

(A) 예상금액

이사회는 확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연간 운영·유지비(또는 절감액)를 산정하여야 한다.

(B) 예산요청

이사회는 2014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할 때 제(A)항에 따라 확인된 추가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C) 예산의 우선순위

이사회는 제(A)항에 따라 확인된 추가비용을 예산 우선순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장공사의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실의 인정

이사회는 사업 내부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민간기부금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 외부의 민간 기부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민간기부금의 인정은 어떤 제76j(b)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확장공사의 정의

이 조항에서 “확장공사”란 존 F. 케네디센터 남쪽 끝에 다음과 같은 건물의 증축을 말한다.

(A) 10만 제곱피트 미만인 건물

(B) 센터의 현재(2012년 6월 8일 기준) 접근성 및 교육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건물

(C) 센터의 현재(2012년 6월 8일 기준) 구조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제76j조. 이사회의 직무**

(a) 프로그램 활동과 목표

(1) 총칙

이사회는

(A) 미국 및 다른 나라의 고전·현대 음악, 오페라, 드라마, 무용, 그 밖에 공연예술을 제공한다.

(B)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국립공연예술센터로서 존 F. 케네디센터를 홍보하고 유지한다.

(i) 특별히 일반 대중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성인, 교육자를 위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예술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포함하여 국가적 공연예술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유지한다.

(ii) 다른 공연 및 교육기관의 번안물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유지한다.

(iii) 존 F. 케네디센터와 제휴하여 장애인을 위한 예술사업의 발굴·개발·구현을 위한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Very Special Arts와 공동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C) 존 F. 케네디센터의 교육 및 지원활동 프로그램이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충족하고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D) 존 F. 케네디센터를 그 밖에 시민활동을 위한 시설로 제공한다.

(E) 존 F. 케네디센터 내부에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적절한 기념물을 세운다.

(F) 1994년 7월 21일 현존하는 존 F. 케네디센터의 특징을 위한 종합적인 건축필요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매년 갱신한다.

(G) 존 F. 케네디센터의 건물과 부지의 기능을 현재의 생활, 안전, 보안 및 접근성에 맞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수리, 교체, 개량, 개축, 개조, 변경을 계획하고 설계 및 건설한다.

(H) 다음의 사항을 제공한다.

(i) 정보와 해석

(ii) 존 F. 케네디센터의 높은 수준의 유지를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건물과 부지의 모든 필요한 유지, 보수, 개조와 건물과 부지의 운영을 위한 모든 관리, 보안, 기타 서비스 및 장비

(I) 보행자와 차량이 존 F. 케네디센터 부지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 권한 및 의무

(A) 계약체결권한

이사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절에 의한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이나 기타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기 문장에 명시된 권한에는 내부부, 총무청, 스미스소니언재단을 포함한 다른 기관의 서비스 및 시설 사용을 포함한다.

(B) 예산의 준비

이사회는 제31편 제1104조, 제1105(a)조, 제1513(b)조에 따라 예산을 준비한다.

(C) 기관 인력의 활용

이사회는 연방정부나 콜롬비아특별구의 관련 부처나 부서의 동의를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처나 부서 직원의 용역을 이용하거나 고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무보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D) 계약자의 선정

이 절에 따른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i) 이 편 제76q-1항에 따라 존 F. 케네디센터 플라자에 건축할 건물의 계획, 설계, 토목, 또는 플라자 조경 및 그 밖에 개량의 목적을 가진 계약

(ii) 존 F. 케네디센터에 대한 환경·보호시스템, 유지 보수, 복원의 목적을 가진 계약

(E) 홀의 유지

이사회는 대통령기념공간으로서 국립공연예술센터에 적합한 방식과 다른 국가의 대통령 기념공간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존 F. 케네디센터의 Nations 홀, States 홀, Grand Foyer 로비를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F) 부지의 유지

이사회는 1994년 7월 21일에 발효된 국립공원관리청 규정 및 계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존 F. 케네디센터의 부지를 유지·운영한다. 의회와 내무장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부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아니한다.

(b) 기념물 추가 제작에 대한 제한

(1) 이 절의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1983년 12월 2일 이후에 어떠한 기념물 또는 기념물 성격의 명판을 존 F. 케네디센터의 공공장소에 지정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다.

(2) 1983년 12월 2일에 발효된 이사회의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다음의 기념물이나 명판은 이 절의 문단(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외국에서 받은 기부 사실을 인정하는 패(牌)

(B) 극장 좌석 및 박스석에 부착된 기부 사실을 인정하는 명판

(C) 북쪽이나 남쪽 갤러리, States 홀, Nations 홀의 대리석 벽면에 새겨진 주요 기부 사실을 인정하는 글

(3) 이 조항의 목적으로 기념품이나 자선공연은 기념물의 성격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76k조. 이사회의 권한

(a) 기부금 접수와 수취

이사회는 존 F. 케네디센터를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지국으로 수락하고, 존 F. 케네디센터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증여·유증된 금전, 증권, 그 밖에 모든 성격의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기부·증여·유증의 조건에 따라 달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존 F. 케네디센터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증여·유증된 신탁기금을 구성하는 금전, 증권, 기타 재산을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하여 투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수납된 수입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공탁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사회 경비의 대상이 된다.

(b) 임직원의 임명

(1) 회장과 사무관

이사회는 존 F. 케네디센터의 최고경영자인 회장과 사무관을 임명하고 각각에 대한 보수와 직무를 규정한다. 회장과 사무관은 실무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고위급 임원 및 일반 직원

존 F. 케네디센터 회장은 다음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A) 시설 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지기에 적합한 경력을 갖춘 제5편의 규정과 관계없이 책정된 자급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고위급 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수는 제5편제

5315조에 따라 행정부 부록의 제4급에 규정된 최대 지급률을 초과할 수 없다.

(B)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 F. 케네디센터의 다른 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c) 재산의 이전

‘1994년 존 F. 케네디센터 개정법’에 따른 개정사항에 따라 내무장관에게 이전된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 또는 보유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책정액, 승인금액, 할당금액 및 기타 기금의 재산, 부채, 계약, 기록 및 미지출 잔액은 이사회와 내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 제31편 제1531조를 조건으로 늦어도 1995년 10월 1일까지 이사회에 이전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전된 미지출 자금은 당초 승인되고 책정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d) 직원 정보

(1) 총칙

이사회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배정된 국립공원관리청 직원은 늦어도 1995년 10월 1일까지 그 직무와 함께 이사회로 이동하여야 한다.

(2) 권리와 혜택

전보된 직원은 경쟁직 공무원으로 속하여 제5편에 따른 모든 권리와 혜택을 유지한다. 문단(1)에 따라 직원이 이동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동안 전보된 직원은 내무부 내 모든 공석에 대하여 성과승진절차에 따른 우선적 고려와 재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공원경찰

존 F. 케네디센터에 배치된 모든 공원경찰과 공원경비대원은 국립공원관리청 직원으로 속한다.

(4) 비용

1995년 10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른 직무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리한 조치나 고충 처리를 위한 모든 통상적·관계적 비용은 존 F. 케네디센터에 책정된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5) 조직개편 권한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이사회가 조직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 F. 케네디센터의 직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 이사회 조지 검토

신탁기금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하도록 지시한 대금지급에 대한 이사회 조지는 법원 이외의 어떠한 임원이나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다.

(f) 단체교섭

(1) "극장직원"의 정의

이 조항에서 사용된 "극장직원"은 기술 발전에 따른 업계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1994년 1월 1일 현재 노사 단체 협약의 대상인 박스오피스, 공연 및 극장업에 종사하는 이사회 비세출 자금 직원을 말한다.

(2) 단체교섭

(A) 총칙

‘전국노동관계법’(29 U.S.C. 151 이하 참조) 및 ‘1947년 노사관계법’(29 U.S.C. 141 이하 참조)의 목적으로

(i) 각 극장직원은 ‘전국노동관계법’(29 U.S.C. 152(3)) 제2(3)항에서 의미하는 "피용인"으로 본다.

(ii) 이사회는 극장직원에 대하여 ‘전국노동관계법’(29 U.S.C. 152(2)) 제2(2)항에서 의미하는 "고용인"으로 본다.

(B) 권리와 의무

모든 극장직원과 이사회는 상기 법률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g) 보행자 및 차량의 진입

이 편 제76j(a)(2)(F)항에 따라 내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보행자와 차량이 존

F. 케네디센터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제76j조. 직인, 이사회 공석 및 정족수, 이사회 권한과 의무, 보고서, 지원 서비스, 검토 및 회계감사

- (a) 인장의 채택, 공석 발생시 이사회 직무와 정족수  
이사회는 사법상 인정되는 직인을 채택하고, 이 하위 장에 따라 신탁기금의 관리와 이사회의 조직 및 절차 규정을 포함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규,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12명으로 한다.
- (b) 신탁기금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이사회는 이사회가 관리하는 모든 신탁기금의 통상적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 (c)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연차보고서  
이사회는 이사회가 수령·지출한 모든 공적 및 사적 자금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포함하여 이 하위 장에 따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스미스소니언재단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d) 감찰관  
이 편 제76r조에 따라 책정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이사회의 직무는 '1978년 감찰관법'(5 U.S.C. App.)에 따른 연방기관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스미스소니언재단의 감찰관은 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상환을 조건으로 이사회를 대신하여 상기 법의 요건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e) 재산 및 직원 보수
  - (1) 총직  
이사회는 이사회가 관리하는 자산과 관련된 손실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미국의 공무원(제5편 제8101조 제1항에 정의된 "직원"을 의미한다)으로 간주한다. 다만, 존 F. 케네디 센터가 소재한 관할권의 근로자보상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비세출 자금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입은 신체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 이사회는 계속해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편 제81장 또는 근로자보상법령에 따라 상기 문장에서 언급한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급여는 이사회의 모든 직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배타적인 책임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 (2) 연방 불법행위청구  
제28편 제171장에 따라 이사회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이사회는 "연방기관"으로 본다. 이사회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입은 신체적 상해로 발생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이사회의 직원은 제28편 제171장의 연방 불법행위 청구절차에 따라 미국이나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76m조. 태양광 발전 시스템

- (a) 총직  
이사회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연구·기획하여 존 F. 케네디센터의 지붕에 설계·구축할 수 있다.
- (b) 보고  
제(a)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60일 전까지 이사회는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와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6n조. 폐지

#### 제76o조. 주차시설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권한

- (a) 특정재원채  
센터에 필요한 주차시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이사회에 발생한 수익으로 재무장관

에게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행된 모든 채권의 액면가는 미화 2천40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채무는 이사회와 재무장관이 합의한 만기로 하되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채무는 채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 전에 이사회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된 채무는 이사회가 차환할 수 없다. 재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이사회에 채무를 매입할 권한을 가지며, 그 목적으로 재무장관은 제31편 제31장에 따라 발행된 증권의 매도수익을 공공부채거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제31편 제31장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증권의 목적은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 채무의 매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b) 이자

1984년 10월 12일 부로 이 조 제(a)항에 따라 발생하는 이사회 채무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채무에서 발생한 미지급 이자를 지불하여야 할 이사회에 의무는 종료한다.(c) 케네디센터 특정재원채 감채기금

미국 재무부에 ‘케네디센터 특정재원채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조항의 제(a)항에 따라 발생하는 이사회 채무를 각 만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198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채무의 원금 상환과 관련하여 연간 총 미화 20만달러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한 총액은 기금의 요구에 맞는 만기와 재무장관이 정한 비율의 이자를 보유한 공공채무증권에 재무장관이 투자하여야 하며, 미국의 미지급 시장성 채무에 대한 현재 시장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투자에 대한 이자는 기금에 예치되고 기금의 일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이 조 제(a)항에 따라 발생하는 이사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투자기간 동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시정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액에서 5%를 가감한 금액의 조정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전체 손익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환기간 종료일에 이사회와 재무장관 간에 최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정의 조건은 기금에 대한 최초 지급이 있는 때나 그 이전에 체결되는 이사회와 재무장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제76p조. 고(故)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추모하여 미국에 기증된 기부금의 수취와 처분**

재무장관은 고(故) 존 F. 케네디대통령을 기념·추모하기 위하여 기증된 기부를 미국을 대표하여 수취하고 기부의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 하위 장에 따라 설정된 충당계정이나 그 밖에 계정에 금전을 지급할 권한을 가진다.

**제76q조. 워싱턴시와 그 주변지역에서 존 F. 케네디를 기리는 유일한 국립기념관**

이 절에 따른 존 F. 케네디센터는 워싱턴시와 그 주변지역에서 고(故)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를 기리는 유일한 국립기념관이다.

**제76q-1조. 존 F. 케네디센터 플라자**

(a)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권

“공중권”이란 사업 범위 내 거리와 골목 사이의 지상공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증서, 임대, 허가를 통하여 이전되는 부동산 이익을 말한다.

- (2) 센터  
“센터”란 존 F. 케네디센터를 말한다.
  - (3) 녹색공간  
“녹색공간”이란 사업 범위 내 또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중 잔디, 나무 또는 그 밖에 식물로 덮인 공간을 말한다.
  - (4) 플라자  
“플라자”란 사업 시행 범위에 속한 교통요소(도로, 보도,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및 비교통요소(조경, 녹지, 공개공지, 상하수도 및 시설 연결 통로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존 F.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5) 프로젝트  
“프로젝트”란 센터 주변에 플라자 설치 및 센터와 그 주변에 자전거, 보행자 및 차량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TEA-21 보고서에 기술된 플라자 사업을 말한다. 이 용어는 플라자, 플라자에 건축되는 건물, 관련 교통 개선사항에 관한 계획, 설계, 토목, 건축을 포함하며, TEA-21 보고서에서 명시된 프로젝트의 기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6) 장관  
“장관”이란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 (7) TEA-21 보고서  
“TEA-21 보고서”란 ‘21세기 교통형평법’(20 U.S.C. 76j note; 112 Stat. 204 참조) 제121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장관의 보고서를 말한다.
- (b) 장관의 책무
- (1) 총칙  
장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며, TEA-21 보고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플라자에 건축하는 건물 이외에 프로젝트 구축에 필요한 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2) 계획, 설계, 토목, 건설  
장관은 플라자에 건축하는 건물 이외에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토목, 건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다..
  - (3) 이사회 및 기타 기관과의 계약  
장관은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토목,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적절한 연방이나 다른 정부기관과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 (4) 이사회와의 협의  
장관은 플라자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5) 계약  
장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를 대표하여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토목,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6) 프로젝트팀
    - (A) 설치  
장관은 프로젝트의 추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설치한다.
    - (B) 위원  
프로젝트팀은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i) 교통부 장관(또는 장관의 피지명자)
      - (ii) 총무청 청장(또는 청장의 피지명자)
      - (iii) 이사회 의장(또는 의장의 피지명자)
      - (iv) 그 밖에 프로젝트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C) 프로젝트 책임자  
장관은 총무청 청장과 이사회 의장의 조언을 받아 프로젝트팀 책임자를 임명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를 프로젝트팀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c) 이사회 의 책무

(1) 총칙

이사회는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플라자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공중권 이전의 수취

이사회는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토목, 건설에 필요한 공중권의 이전을 콜롬비아특별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

(3) 건물의 건축

이사회는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비세출 기금으로 플라자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의 계획, 설계, 토목, 건설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4) 기부사실의 인정

(A) 총칙

이사회는 플라자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민간 기부금을 건물 내부에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 외부에 대한 민간 기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B) 기타 요건의 적용가능성

이 문단에 따른 민간 기부금에 대한 인정은 이 편 제76j(b)조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5) 프로젝트팀의 승인

이 편 제76k(e)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팀이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결정한 프로젝트 요소(플라자에 건축할 건물은 제외한다)의 범위, 비용, 일정,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회 의 결정은 프로젝트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콜롬비아특별구의 책무

(1) 고속도로 시스템의 변경

주정부나 지방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특별구 시장은 국가수도계획위원회와 장관의 조언에 따라 프로젝트의 요건 및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콜롬비아특별구 고속도로의 영구적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2) 양도

(A) 관계당국

주정부나 지방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특별구 시장은 프로젝트의 요건 및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콜롬비아특별구가 소유·관리하는 부동산(콜롬비아특별구 법률에 따라 정의된 공중권이나 공중공간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익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B) 이사회에 양도

장관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요건 및 필요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콜롬비아특별구 시장은 문단(A)에서 기술한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보상 없이 양도하거나 이사회에 처분한다.

(3) 이사회와의 합의

콜롬비아특별구 시장은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토목,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연방이나 다른 정부기관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 소유권

(1) 도로와 보도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변경 또는 개선된 도로 및 보도의 유지·감독 책임은 해당 도로 및 보도의 소유자에게 있다.

(2) 녹색공간의 유지

제(3)항을 조건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변경 또는 개선된 녹색공간의 유지·감독 책임은 해당 녹색공간의 소유자에게 있다.

(3) 플라자 내 건물 및 녹색공간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회는 플라자에 설치된 건물과 녹색공간을 소유·운영·유지하여야 한다.

(f) 국도 경계

(1) 경계의 재정비

장관은 센터 부근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TEA-21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북부 및 남부 인터체인지와 E Street Approach에 대한 변경 제안과 관련 국도를 재정비할 수 있다.

(2) I-66에서 센터로의 진입

장관은 주간고속도로 제66호선과 센터 및 주차장 간 직접적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와 출구를 개선할 수 있다.

(g) 회계감사원(GAO)의 검토

회계감사원장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이사회와 프로젝트 시공 관리와 감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와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6r조. 책정액의 승인

제76s조. 정의

이 하위 장에서 사용되는 “존 F. 케네디센터 건물 및 부지”와 “존 F. 케네디센터 지면”이란 수도권, 국립공원관리청, 내무부에 공람용으로 제출되어 사용할 수 있는 1994년 4월 20일자 “존 F. 케네디센터의 이전”이라는 제목의 도면(제844/82563호)에 기재된 바(1997년 5월 22일자 “존 F. 케네디센터의 이전”이라는 제목의 도면(제844/82563A호)으로 수정됨)에 따라, 존 F. 케네디센터 건물이 건축되고 동쪽으로 포토맥 리버 프리웨이의 서쪽 옹벽과 연석의 서쪽 측면, 남쪽으로 테오도르 루즈벨트 메모리얼 브릿지의 북쪽 옹벽과 연석의 북쪽 측면, 북쪽으로 뉴햄프셔 애비뉴와 F 스트리트 노스웨스트의 남쪽 연석의 경계까지 뻗는 콜롬비아특별구 내 부지를 말한다. 이 편 제76q-1조에 따라 승인된 존 F. 케네디센터 플라자 설치를 위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사회는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기 문장에 따라 공람용으로 제출된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VI절. 조셉 H.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공원 (제76aa조~제76ee조)

제76aa조. 미술관 및 조각공원의 부지

제76bb조. 조셉 H.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공원

제76cc조. 이사회

제76dd조. 관장, 관리자, 학예사 및 기타 직원의 임명·보수·직무

제76ee조. 책정액의 승인

제VII절. 국립항공우주박물관(제77조~제77d조)

제77조.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제77a조. 박물관의 직무

제77b조. 폐지

1966.07.19. 법령 80권 310면에 수록된 공법 제89-509장 pt. I 제5조.

제77c조. 박물관 이사회

제77d조. 박물관에 항공·우주 장비의 양도나 대여

#### 제VIII절. 고생물학 조사(제78조~78a조)

제78조. 지속적인 고생물학 조사를 위한 스미스소니언재단과 주정부 기관의 협력

제78a조. 책정액의 승인, 기금의 활용 가능성, 회계연도 중 기금 사용의 한도, 감독, 규칙 및 규정

#### 제IX절. 파나마 운하지대 동식물 서식지(제79조~제79e조)

제79조. 별도 구역: 가톤 호수의 바로콜로라도 섬

제79a조. 과학적 관측 및 연구를 위한 자연 환경 보존

제79b조.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직무

제79c조. 상주 관리인의 권한·의무·보수

제79d조. 재무부에 영수증 예치, 지출

제79e조. 책정액의 승인

#### 제X절. 국립국군박물관 자문위원회(제80조~제80d조)

제80조. 국립국군박물관 자문위원회

제80a조. 국군의 기부사실 표시

제80b조. 부지의 선정

제80c조. 스미스소니언재단에 물건, 장비, 기록의 양도나 대여

제80d조. 책정액의 승인

#### 제XI절. 우드로윌슨센터(제80e조~제80j조)

제80e조. 의회의 정책 선언

제80f조. 우드로윌슨센터 이사회

제80g조.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80g-1조. 사회·정치사상 분야 휴버트 H. 험프리 펠로우십

휴버트 H. 험프리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지정된 국가에서 온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0h. 이사회 활동을 위한 의결정족수제80i조. 책정액의 승인과 제한

제80j조. 회계감사



## 제XII절. 국립아프리카예술박물관(제80k조~제80p조)

제80k조. 스미스소니언재단에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토지 및 개량, 예술품, 기타 자산과 재산의 기부와 이전

제80l조.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설립과 직무

제80m조. 이사회에 관한 권한

제80n조.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위원회

제80o조. 관장, 임직원의 임명·보상·의무

제80p조. 자금조달

## 제XIII절.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제80q조~제80q-15조)

제80q조. 사실의 인정

제80q-1조.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제80q-2조. 헤이어 재단의 자산을 스미스소니언재단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이사회의 권한

제80q-3조.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이사회

제80q-4조. 관장 및 직원

제80q-5조. 박물관 시설

제80q-6조. 세관 사무실 공간 및 강당

제80q-7조. 오듀본 테라스

제80q-8조. 특정 계약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이사회 직무

제80q-9조. 스미스소니언재단 소유 인디언 유해 및 장례품의 목록, 확인, 반환

제80q-9a조. 관련 없는 장례품, 성물, 문화유산의 요약 및 송환

제80q-10조. 인디언 유해 및 장례품의 목록, 확인, 반환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

제80q-11조. 스미스소니언재단 소유 하와이 원주민 유해 및 장례품의 목록, 확인, 반환

제80q-12조. 인디언 유해 및 장례품 반환을 위한 합의와 관련하여 인디언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내무장관의 보조금

제80q-13조. 박물관 시설 및 전시관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인디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내무장관의  
보조금

제80q-14조. 정의

제80q-15조. 책정액의 승인

## 제XIV절.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제80r조~제80r-9조)

제80r조. 사실의 인정

제80r-1조. 정의

제80r-2조. 박물관의 설립

제80r-3조. 협의회

제80r-4조. 관장 및 직원

제80r-5조.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제80r-6조.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의 건물

제80r-7조. 의회예산법의 준수

제80r-8조. 대통령위원회의 권고 심의

제80r-9조. 책정액의 승인

## 제26장 인문학 및 예술 분야의 지원과 장학, 박물관 서비스(제951조 - 961조)

### 제1절 예술 및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립재단

#### 제951조. 사실 및 목적의 선언

의회는 아래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 (1) 예술과 인문학은 모든 미국 시민에게 속한다.
- (2) 인문학과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국가 진보와 장학금 장려·지원은 주로 민간 및 지역 이니셔티브의 문제이지만 연방정부에게도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된다.
- (3) 선진문명은 과학기술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과거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현재에 대한 더 나은 분석,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기 위하여 다른 학문적·문화적 활동에도 많은 가치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4)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와 비전을 요구한다. 정부는 인문예술 교육을 육성·지원하고, 시민이 분별력 없는 현대기술의 하인이 아닌 상식을 두루 갖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하여야 한다.
- (5) 연방정부는 지역, 주, 민간 기관과 그 조직의 인문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보완·지원·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후원의 특성에 신중하여야 한다.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공적기금은 공공 사용을 규율하는 조건에 따른다. 그러한 기금은 납세자 자금 사용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에 기여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기금은 궁극적으로 의회가 규정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6) 예술과 인문학은 미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모든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상호존중을 촉진하는 데 부합하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 (7)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투자와 헌신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부도 위대한 예술인이나 인문학자를 창조할 수 없지만, 연방정부는 사고, 상상력, 탐구의 자유를 장려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물리적 상황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8) 미국이 가진 세계 리더십은 상위 권력, 부, 기술에만 머무를 수 없고 사상과 정신 영역의 리더로서 국가의 위상을 위한 세계적인 존중과 경의를 바탕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 (9) 미국 국민은 학교에서 예술과 인문학의 기초를 함양하여 삶의 미적 영역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화유산과 예술적·학문적 표현을 구성하는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 (10)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다문화의 예술적 전통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바, 예술인과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 교육적 사명과 자유 사회의 연속성을 성취하고 미국 국민에게 우수한 교육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문명의 가치와 업적을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여 미래까지 전달하고, 가장 위대한 예술적 업적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12) 이 절은 상기 목표와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예술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립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52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인문학"이란 현대 및 고전 언어·언어학·문학·역사학·법률학·철학·고고학·비교종교학·윤리학 등의 학문과 예술의 역사, 비평 및 이론, 인문학적 내용과 방법론을 수용하는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와 해석, 다양한 유산과 전통 및 역사를 반영하고 국민 생활 실태와 인문학의 연관성에 기반을 둔 인류 환경에 대한 연구 및 적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 (b) "예술"이란 음악(기악과 성악), 무용, 연극, 민속 예술, 창작, 건축과 유관 분야, 회화, 조각, 사진, 그래픽과 공예, 산업디자인, 의상과 패션 디자인,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녹음 및 녹화, 발표와 관련된 예술, 공연, 제작, 이와 유사한 예술 형태의 전시, 미국 내 다양한 부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전통예술, 인류 환경에 예술을 적용하는 연구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 (c) "제작물"이란 연극(음악 유무에 관계없음), 발레, 무용 및 합창공연, 콘서트, 독주회, 오페라, 전시회, 낭독회,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테이프 및 녹음, 그 밖에 예술의 수행과 공연을 포함하고 이 장의 제954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예술기금이 승인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을 말한다.
- (d) "프로젝트"란 이 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사업을 말하며 국민의 예술창의성 육성사업, 예술 작품 의뢰 사업, 이 정의에 달리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발전하는 사업, 예술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고취하여 대중화시키는 사업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 시설의 임대나 구입, 토지 매수나 임대, 장비의 조달을 포함한다. 또한 이 용어는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한다.
  - (1) 시설물의 보수
    - (A) 그러한 목적을 위한 연방기금 지출액이 미화 2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 (B) 사안에 따라 국립예술위원회나 국립인문학위원회 위원(출석자 및 투표자)의 3분의 2가 그러한 목적의 지출액이 포함된 보조금이나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
  - (2) 이 장의 제954(p)조, 제956(c)(10)조 및 제956(h)조의 목적에만 관련된 시설물의 건축
    - (A) 그러한 건축물이 시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예술적·인문학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 (B) 사안에 따라 국립예술위원회나 국립인문학위원회 위원(출석자 및 투표자)의 3분의 2가 그러한 목적의 지출액이 포함된 보조금이나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
- (e) "단체"란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주정부나 기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기관, 조직, 협회, 박물관, 시설을 말한다.
- (f) "워크숍"이란 아마추어, 학생, 기타 비(非)전문인 참가자의 예술 활동을 육성·장려하고 참가자의 학문 및 교수 증진이 주된 목적인 활동을 말한다.
- (g) "주정부"란 미합중국의 각 주 이외에,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특별구,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말한다.
- (h) "지역예술기관"이란 전체 지역사회 이익을 위하여 예술인·예술단체에 재정지원, 서비스, 기타 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사회단체 또는 지방정부기관을 말한다.
- (i) "예술진흥단체"이란 예술적 가능성을 가진 다음의 지역예술단체를 말한다.

- (1) 지역사회 예술 활동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단체
- (2) 농촌 및 도심지역, 그 밖에 문화예술 소외지역에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적·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을 가진 단체
- (j)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이란 미국에서 법정기록과 관할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음란한 것으로 판결되었는 것을 말한다.
- (k) "확정판결"이란 다음의 각 판결을 말한다.
  - (1)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권한을 가진 다른 법원의 재심을 받지 않는 판결
  - (2) 그 밖에 다른 법원이 재심할 수 없는 판결
- (l) "음란한"이란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현대사회가 통용하는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외설적인 관심에 호소하는 경우
  - (2)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이 명백히 불쾌한 방식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경우
  - (3)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볼 때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제953조. 국립예술인문학재단

- (a) 설치 및 구성  
‘국립예술인문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재단 내에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학기금, 국립예술인문학위원회,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을 둔다.
- (b) 목적  
재단은 미국의 인문학과 예술 및 이 절에 따라 미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관을 위한 광범위한 국가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c) 학교나 기타 비(非)연방 기관의 정책 결정, 인사, 교육과정 또는 관리·운영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 금지  
이 절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의 어떠한 부처, 기관, 임직원도 학교, 기타 비연방 기관, 기관, 조직, 협회의 정책 결정, 인사, 교육과정 또는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 단속을 할 수 없다.

### 제954조. 국립예술기금

- (a) 설치  
재단에 ‘국립예술기금’을 둔다.
- (b)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의 임기 및 공석  
  - (1) 국립예술기금의 위원장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위원장의 임기는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c) 프로젝트 및 제작물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이하 소외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수급자)에 대한 계약,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  
 위원장은 국립예술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단체 또는 적합한 경우 예술에 종사하거나 예술과 관련하여 뚜렷한 재능을 가진 인재에게 다음의 각 활동을 제공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나 개인과 관련된 계약,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수 있다.
  - (1) 미국의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 우수한 전문성의 유지와 장려를 강조하고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예술적·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 및 제작물
  - (2) 출처에 관계없이 전문성, 진위, 전통성의 기준을 충족하고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 관련 지원이 없다면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및 제작물
- (3) 예술인이 작품을 홍보하고, 창작활동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에 주거하고, 우수한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제작물
  - (4) 소수, 도심, 농촌, 부족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고 상당한 예술적·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프로젝트 및 제작물
  - (5) 예술에 대한 대중의 지식, 교육, 이해, 감상을 장려하는 프로젝트 및 제작물
  - (6) 국민의 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워크숍
  - (7) 지역 차원의 예술 활동
  - (8) 관리 및 조직적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 (9)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영화, 라디오, 비디오,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하여 창작된 문단(1)부터 문단(8)까지의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 (10) 그 밖에 이 절의 목적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출판에 포함한 관련 프로젝트  
이 하위조항의 문단(10)에 따른 출판의 경우, 위원장이 의회합동출판위원회와 협의하고 제44편제501조에서 면제됨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상원 노동인적자원위원회와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출판물은 제501조를 따르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재무장관이 승인한 약관을 따라야 한다. 우수한 인재와 단체를 재정지원 수급자로 정할 때 위원장은 소외계층에 속한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 (d) 보조금 지급 신청 규정 및 절차
- 위원장이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국립예술기금에 제출한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른 지급은 할 수 없다. 그러한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예술적 우수성 및 성과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판단하고, 미국 대중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품위 및 존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신청은 이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정성은 예술적 가치가 없고 보호대상 표현이 아니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은 국립예술기금으로부터 이 절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거부나 승인은 신청인이 재정지원을 요청한 프로젝트, 제작, 워크숍, 프로그램이 음란하거나 음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증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e) 단체에 대한 보조금액의 제한, 국립예술기금의 보조금 및 계약
- 하위조항(c)에 따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해당 프로젝트나 제작물의 총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위조항(c)의 목적으로 특정 회계연도의 보조금 및 계약을 위하여 국립예술기금이 할당한 자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f) 재정지원의 수급 요건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 (1) 순이익의 일부가 주주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제26편제170(c)조에 따른 자선기부로 허용되는 경우
- (g) 프로젝트 및 제작물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신청, 주정부 계획의 조건, 최소 할당량, 초과 충당. 비용제한, 지역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연방 자금지원, 정의
- (1) 위원장은 국립예술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하위조항(c)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및 제작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를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2)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정부는 위원장이 지정한 시기에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의 각 요건에 충족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A) 주정부 계획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해당 주정부 기관(이하 이 하위조항에서 "주정부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설치할 것
  - (B) 이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에게 지급되는 자금은 하위조항(c)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주정부 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 및 제작물에 대하여만 지출되도록 규정할 것
  - (C) 위원장이 요구하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여 주정부 계획의 목표와 달성 경과에 대한 설명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것
  - (D) 다음의 내용을 제공할 것
    - (i) 모든 예술인 단체와 관심이 있는 조직 및 일반인이 주정부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주정부 기관이 합당한 통지를 한 이후 공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보장
    - (ii) 권고안에 대한 요약과 주정부 기관의 대응
  - (E)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 (i) 전년도에 이 하위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및 제작물에 대하여 예술인, 예술인 조직 및 예술 단체가 정보를 이용한 수준에 대한 설명
    - (ii) 전년도에 주정부 예술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및 제작물을 지역사회가 이용한 정도에 대한 설명
    - (iii) 하위조항 문단(i)에 따른 지역사회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단(ii)에 따른 예술인, 예술인 조직 및 예술 단체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 또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 및 제작물에 대한 설명  
제출된 계획서가 이 하위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신청도 승인될 수 없다.
- (3)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가진 주정부는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액에서 최소 미화 20만달러를 할당 받는다. 상기 문장에 따라 총당된 금액이 총액을 할당할 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총액은 주정부들에 동일한 금액으로 할당한다.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따른 할당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초과액은 위원장이 주정부 및 지역단체에 이 하위조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B) 위원장에게 (A)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전액 보류한 후 남은 초과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마련한 주정부들 사이에 할당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 2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이 특정 주정부에 할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 (A) 이 하위조항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각 주정부 할당금액은 문단(1)에 따른 프로젝트나 제작물의 총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첫날에 유효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마련한 각 주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및 제작물을 해당 주정부 거주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문단(3)에 따라 미화 12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정 회계연도에 대해 이루어진 할당금액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프로젝트 및 제작물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50% 한도에서 면제되는 특정 회계연도의 할당총액은 그 회계연도 할당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주정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 (i) 요청 당시 주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것
    - (ii) 재량권이 해당 주정부와 관련하여 영구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할 것
  - (B) 문단(3)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주정부에게 할당된 금액 중 회계연도의 종료 60일 이전에 주정부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액은 지역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다.

- (C) 이 하위조항에 따라 받게 되는 기금은 비연방 기금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이나 제작물 비용의 50%를 지불하기 위하여 하위문단(A)가 요구하는 비연방 기금은 해당 주정부가 직접 관리·충당하며 주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제공한다.
  - (D) 이 조항의 문단(3) 및 문단(4)의 목적으로, "지역단체"란 인접한 주정부들을 대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주정부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 (E) 문단(3)(B)의 목적으로, "주정부"란 미합중국의 여러 주정부 이외에 최근 10년 단위의 인구 조사에 따라 인구가 20만명 이상인 이 편(title) 제952(g)조에 명시된 특별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 (5) 특정 회계연도에 문단(3)에 따라 할당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한 모든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어떠한 주정부에도 부여되지 않은 금액은 하위조항(c)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예술기금이 그 회계연도 종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h) 채무불이행, 규정 및 계획의 불이행, 자금의 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지와 상환 청문에 대한 합당한 통지와 기회가 있는 후에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모든 경우
    - (1) 단체가 이 조항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주정부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주정부 계획의 규정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이 조항에 따라 단체나 주정부 기관에 할당된 기금이 지급된 목적으로부터 전용된 경우 위원장은 더 이상 단체나 기관의 채무불이행,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용을 시정할 때까지 또는 그러한 이행이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하게 전용하거나 지출한 연방 기금을 상환하거나 그러한 상환을 준비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추가 보조금도 해당 단체나 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무장관과 관련 단체 및 주정부 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 (i) 재정지원의 신청과 요건
    - 이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나 주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신청인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지원을 요청하여 제안된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 (2) 제안된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의 완료 일정
    - (3) 신청인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장
      - (A) 신청인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 중간 보고서
        - (i)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의 수행 경과
        - (ii) 이 하위조항 및 보조금 수급 요건의 준수 사실
      - (B) 제안된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이 1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수행될 경우, 신청인의 다음 사항을 기술한 연간 보고서
        - (i)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의 수행 경과
        - (ii) 이 하위조항 및 보조금 수급 요건의 준수 사실
    - (C)
      - (i) 신청인이 지원금을 수령한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 (ii)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 이 하위조항 및 수급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준수 여부를 기술하여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나 주정부 기관에게 올리는 최종 보고서
  - (4) 지원을 요청한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이 이 하위조항이 요구하는 예술적 우수성과 성과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장
- (j) 재정지원의 분할 분배 규정과 시행
  - 위원장이 분할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지급자에게 분배할 재정지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분할지급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1) 신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2/3 이내의 금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지원금 수급자가 이 조항 및 지원이 제공되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위원장이 판정할 때까지 지원금의 잔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 (k)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검토
- 국립예술기금의 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 수급자가 회계 및 재정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그 지원에 적용되는 이 하위조항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검토를 수행한다.
- (l) 음란성 프로젝트, 제작물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사용 및 지원금의 상환과 예외사항
- (1) 기록에 대한 합당한 통지 및 청취 기회가 있는 후에 위원장 또는 비연방 기관으로부터 이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지원금을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그 수급자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금액, 규정 및 조건에 따라) 해당 지원을 국립예술기금에 상환할 때까지 차후에 어떠한 재정지원도 이 조항에 따라 그 수급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
  - (2) 이 조항에 따라 국립예술기금에 상환된 재정지원은 미국 재무부에 예치하고 잡수입으로 신용 처리한다.
- (3)
- (A) 이 하위조항 발효일 이전에 제공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하위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이 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의 최종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에 이 하위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m) 전문 공연자 및 직원의 근로기준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
- 이 조항에 따른 수령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는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주정부 기관이나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다음의 사실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이 조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나 제작물과 관련하여 고용된 모든 전문 공연자, 관련한 협력 전문가(이 조항의 하위조항(n)에 따라 근로기준이 규정된 근로자 및 정비인력은 제외), 구좌에 대한 차후 공제나 환불 없이 유사 활동에 고용된 자에 대한 현행 최소 보상금으로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다.
  - (2) 이 조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나 제작물의 어떠한 부분도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비위생적이거나 유해하고 위험한 영향을 주는 근로조건 하에서 수행되거나 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공연이나 그 일부가 주정부의 안전위생법을 준수한 사실은 법률준수에 대한 1차적인 증거가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 하위조항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규정, 절차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 (n) 인부 및 정비인력의 근로기준
- 이 조항에 따른 수령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는 우수 단체나 개인, 또는 주정부 기관이나 단체는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계약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모든 인부 및 정비인력이 제40편제3141조~제3144조, 제3146조~제3147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해당 지역의 유사 건설에 적용되는 이상의 요율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 하위조항에 따른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1950년 조직개편계획 번호 제14호 및 제40편제3145조에 따른 권한과 직분을 가진다.
- (o) 기타 연방·비연방 프로그램과 기금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한 개발 및 지출
- 위원장은 가능한 한 국립예술기금의 프로그램을 기존 연방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하며, 기타 연방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 하위조항의 목적에 대한 기여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상환 또는 비상환 여부에 따라 기타 연방기관의 예술 관련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할 기관 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위조항(c)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하도록 승인된 기금을 그러한 활동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 (p)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계약 또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급 제한과 위원장의 권한



- (1)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은 국립예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하위조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주정부, 지역 차원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통한 우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A) 문화예술 활동 단체 및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수준을 증대하고 그러한 단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 (B) 특히 장기 재정계획에 있어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행정적·관리적 개선사항을 제공한다.
  - (C)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의 참여와 감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D) 주정부 및 지방 차원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지역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한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다음의 지원을 포함한다.
    - (i) 지역사회 거주 전문 예술인 지원
    - (ii) 농촌예술 개발 지원
    - (iii)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지방·지역·광역 단체에 대한 지원과 모델
    - (iv) 시각 및 공연예술 지원과 모델
    - (v) 예술단체 전문인력과 재정기반 안정 및 확충을 위한 지원과 모델
  - (E)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문화단체 및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 (F)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민 참여 증진을 도모한다.
  - (G) 국가의 다문화 특성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 및 인식을 장려한다.
- (2)
  - (A)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은 국립예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하위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i) 다음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 (I) 직원 교육을 포함하여 예술적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예술적·프로그램 개발
      - (II) 경영 및 조직 체계화, 재무시스템 관리, 장기적 재정계획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 (ii) 농촌 및 도심지역, 그 밖에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예술 활동 및 인식의 고취와 접근성 확대
  - (B) 이 문단에 따른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위원장은 하위문단(A)(i)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C) 위원장은 하위문단(A)(i)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회계연도 3개년을 초과하여 특정 신청인에게 이 문단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 (3)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 하위조항에 따라 지급된 총액은 해당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4) 이 하위조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은 하위조항(c) 및 이 편(title) 제959조에 따른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q) 예술·예술인·예술단체·참여층에 대한 국가 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및 시행계획과 예술 보고서의 현황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은 주정부 및 지방기관, 관련 단체 및 관련 연방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예술·예술인·예술단체·관객에 대한 국가 정보·데이터 수집과 대중 보급을 위한 실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체계에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예술적·재정적 동향, 관객 참여 동향,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예술교육 동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체계에는 농촌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객층에 대한 예술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체계는 하위조항(g)에 따라 주정부 계획과 함께 제출된 데이터 요약문과 국가의

예술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용한다. 예술현황보고서에는 신생·농촌·다문화 예술인 및 교육문화단체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국립예술기금 프로그램의 가용성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인, 예술단체,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예술현황보고서는 1992년 10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주정부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954a조. 교육지원을 통한 예술 활동의 접근

##### (a) 목적

이 조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 중등, 고등 정규교육과 모든 연령군에서의 비정규교육을 연계함으로써 모든 수준에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개발하여 다문화, 도시 및 농촌 인구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 (2)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 (3) 예술인 및 예술기관과 연방, 주정부, 지역, 지방기관의 예술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 (b) 계약 체결과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과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정부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 개인, 예술인, 비영리단체, 공연·비공연 예술 및 교육기관, 협회 또는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1) 미국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도 및 예술분야의 평생학습의 활용가능성을 촉진·개선한다.
- (2) 교원의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 (3) 예술 관련 교수 인력과 인재를 개발한다.
- (4) 예술교육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자료의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 (5) 예술 프로그램 및 지도 관련 교육을 평가하고 개선한다.
- (6) 교육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주정부 및 지방 차원의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예술단체, 대학 간 연계 사업을 장려한다.
- (7) 예술인, 예술교사를 위한 견습 및 인턴십과 그 밖에 진로중심 실무 경험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 수준에서 예술인의 거주를 장려한다.
- (8) 모든 수준의 예술 프로그램 교육에서 개선된 기술과 시설 및 자원의 활용을 지원한다.
- (9) 시범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시행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c) 예술교육자문위원회

예술교육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예술교육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955조. 국립예술위원회

##### (a) 국립예술기금 내 설치

국립예술기금 내에 국립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b) 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

-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 (A)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B)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임명된 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다.
    - (i)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의원 2명
    - (ii) 하원 소수당 대표가 임명하는 하원의원 1명
    - (iii) 상원 다수당 대표가 임명하는 상원의원 2명
    - (iv) 상원 소수당 대표가 임명하는 상원의원 1명

이 하위문단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C)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18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i) 미국 시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

(I) 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 전문성, 헌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

(II) 예술에 대한 현저한 공헌을 남겼거나 덕망이 있는 자

(ii) 따라서 실용 예술인, 시민문화 지도자,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 및 기타 예술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고려 대상에 포함한다.

(iii) 따라서 주요 예술업계와 관심있는 시민단체 간 회원권 배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예술에 참여하는 여성, 소수자, 장애인과 미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임명을 한다.

(2) 위원회의 전환

(A) 제(b)(1)(B)조에 관계없이 이 하위조항에 따라 처음 선임된 위원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한다. 해당 위원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에 수행하도록 임명한다.

(B) 이 하위조항의 발효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의 수가 14명 미만이 될 때까지는 하위조항(b)(1)(C)에 따라 신규 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c) 위원의 임기 및 공석

하위조항(b)(1)(C)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임기에는 시차를 둔다. 하위조항(b)(1)(C)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연도의 9월 3일로 종료한다. 하위조항(b)(1)(C)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2년 동안 재임할 수 없다.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하위조항(b)(1)(C)에 따라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하위조항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하위조항(b)(1)(C)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d) 위원회 회의, 정족수, 서면 기록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연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10명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는 서면 기록을 작성한다.

(i) 위원회의 회의 및 토론

(ii)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B) 그러한 기록은 개별 신청인, 패널 위원,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 위원에 대한 보수

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요율로 보수를 받되 제5편제5332조에 따라 GS-18 등급에 부여된 요율에 해당하는 일당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부 업무에 임시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법률(제5편 제5703조)에 따라 생계유지 대신에 일당을 포함한 여비를 받는다.

(f) 자문 권한,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 권장사항, 위원장의 권한, 권한위임에 따른 위원장의 조치  
위원회는 이 하위조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의무 또는 책임 수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이 하위조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각 신청의 승인과 재정지원 금액(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자문을 위원장에게 제공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다음에 관한 권고를 한다.

(1) 이 편(title) 제959(c)조에 따라 패널이 예술적 우수성과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특정 신청에 대한 이 편(title) 제954조 하위조항(c) 및 (p)에 따른 재정지원 승인 여부

(2) 위원회가 승인을 권고한 각 신청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재정지원 금액  
위원회가 적절한 기한 내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원장은 해당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때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이나 거부를 할 수 없다. 위원회가 권고한 재정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각 신청을 승인할 최종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권고를 한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할 수 없다.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신청인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표명하고 직접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때에 그 요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각 조치는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되, 이 하위조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통상적인 관행이 되어서는 아니한다. 권한위임의 조건은 이 편(title) 제960(a)조 하위문단(A)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충당된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채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955a조. 생략

## 제955b조. 국가예술훈장

### (a) 설립

국립예술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디자인에 대한 훈장으로, 하위조항(b)의 규정에 따라 수여한다.

### (b) 훈장의 수여, 조건, 수령자, 발표식

(1) 대통령은 국립예술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미국 예술의 우수성, 성장, 지원 및 활용성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시로 국가예술훈장을 수여한다.

(2) 매년마다 수여할 수 있는 훈장은 12개 이하여야 한다.

(3) 국가예술훈장을 수여받는 시기에 개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미국인(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

(B) 영구적 거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i) 제8편제1445조에 따라 귀화 신청서나 청원서를 제출한 자

(ii) 영구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자

(4) 미국에서 조직되거나 설립된 단체에 한하여 국가예술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다.

(5) 국가예술훈장은 대통령의 의례에 의하되, 적절한 의회 의원의 참석과 함께 대통령이 수여한다.

### (c) 기금의 활용

국립예술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제956조. 국립인문학기금

### (a) 설치

재단에 ‘국립인문학기금’을 둔다.

### (b)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의 임명·임기·재임·공석·임기만료

(1)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위원장의 임기는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c) 기금의 권한, 출판물,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수급자

위원장은 국립인문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언을 받아 다음의 목적에 대하여 계약, 보조금, 대출 및 그 밖에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인문학 진흥 및 학문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의 개발을 추진하고 장려한다.

(2)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기금에 의한 대출은 재무장관이 승인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개인 또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문학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지원한다(이 권한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은 적절한 비영리기관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학문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4) 상당한 학문적·문화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소수, 도심, 농촌, 부족 공동체 문화를 포함하여 미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및 연구를 실시·지원한다.
- (5)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6) 인문학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 (7)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 및 감상과 집단 교육을 촉진한다.
- (8) 인문학 학술작품 출판을 지원한다.
- (9)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 경우, 시민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10) 인문학 연구, 교육, 대중화에 대한 주요 자료를 열람·보존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육성한다.  
이 하위조항의 문단(8)에 따른 출판물의 경우, 위원장이 의회합동출판위원회와 협의하고 제44편제501조의 규정에서 면제됨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상원 노동인적자원위원회와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출판물은 제501조를 따르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인재와 단체를 재정지원 수급자로 정할 때 위원장은 소외계층에 속한 학자나 교육적·문화적 기관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 (d) 기타 연방·비연방 프로그램과 기금 프로그램의 조정 및 개발  
위원장은 가능한 한 국립인문학기금의 프로그램을 기존 연방 프로그램이나 지정 주정부 인문학 기관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조정하고, 기타 연방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 하위조항의 목적에 대한 기여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기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e) 일반인 입장료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하는 워크숍 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제한  
일반인에게 입장료나 기타 요금을 부과하는 워크숍 활동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한 하위조항(c)(3)에 따른 보조금 총액은 해당 활동의 총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f) 보조금 프로그램, 주정부 시행기관의 지정, 매칭펀드, 신청 및 계획, 할당, 비용제한, 지역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연방 자금지원, 정의, 보조금 중단, 단독 단체의 제한
  - (1) 위원장은 국립인문학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이 조항의 하위조항(c)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현행 프로그램의 비용의 50% 이하를 지원하고 각 주정부에 적합한 인문학진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문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하위조항의 규정에 따라 각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2)
    - (A) 주정부 계획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해당 주정부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하려는 모든 경우에, 주정부는 그 기관이 설치된 날에 존속하고 있는 국립인문학위원회를 해당 주정부 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주정부 최소 보조금은 문단(4)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한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가 수령한 연방 금융지원 일부의 50% 또는 이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가 수령한 연방 금융지원 총액의 25% 중 큰 총액을 주정부 보조금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이 하위문단에 주어진 선택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정부는 각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서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i) 주정부 계획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해당 주정부 기관(이하 이 하위조항에서 "주정부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설치할 것
    - (ii) 주정부 인문학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임명될 때까지 주정부 최고시행담당관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하위단락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원을 임명할 것

- (iii)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주정부 최소 보조금은 문단(4)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한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가 수령한 연방 금융지원 일부의 50% 또는 이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가 수령한 연방 금융지원 총액의 25% 중 큰 총액을 주정부 보조금으로 제공할 것
- (iv) 하위조항(c)의 목적을 수행하고 인문학을 대중화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에게 지급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 (v) 이 하위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정부 기금이 새로 충당된다는 점을 보장할 것
- (vi) 위원장이 요구하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여 주정부 계획의 목표와 달성 경과에 대한 설명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것
- (vii) 다음의 내용을 제공할 것
  - (I) 학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및 일반인이 주정부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주정부 기관이 합당한 통지를 한 이후 공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보장
  - (II) 권고안에 대한 요약과 주정부 기관의 대응
- (viii)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 (I) 가장 최근의 연도 동안 이 하위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자 및 학술단체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참여 수준에 대한 설명
  - (II) 가장 최근의 연도 동안 이 하위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 (III) 하위조항 문단(I)에 따른 학자 및 학술단체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고 문단(II)에 따른 지역사회의 인문학 활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 또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제출된 계획서가 이 하위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신청도 승인될 수 없다.
- (B) 하위문단(A)에 따른 신청서를 주정부 최고시행담당관이 제출하지 않은 주정부의 경우, 해당 주정부의 보조금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i) 해당 보조금 수급자의 관리부 6명은 해당 주정부의 적합한 임원 또는 기관이 임명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인원수는 해당 관리부 전체 인원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ii) 해당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에 따라 모든 재원으로부터 보조금 수급자가 받은 연방 재정지원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제공한다.
- (3) 주정부가 문단(2)(B)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에 따른 연방 재정지원을 받기를 선택한 경우, 해당 지원을 수령하고자 하는 적합한 단체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시기에 해당 지원 신청서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A) 보조금 수급자가 문단(2)(B)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보장할 것
  - (B) 보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기금은 하위조항(c)의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만 지출되도록 규정할 것
  - (C) 해당 보조금 수급자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공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자격 정책을 수립할 것
  - (D) 인문학적 성취, 연구, 창의성으로 특히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개인을 포함하여 해당 주정부 내의 다양한 집단과 인구 부문에서 회원을 지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지명 절차를 제공할 것
  - (E) 회원자격 및 해당 보조금 수급자의 임원의 정기적 순환을 보장하는 회원자격 순환절차를 제공할 것

- (F) 해당 주정부의 최고시행담당관과 그 밖에 적합한 담당관 및 기관에게 해당 보조금 수급자의 활동을 통지하는 보고 절차를 마련할 것
- (G)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것
- (H) 해당 보조금 수급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의 목표와 달성 경과에 대한 설명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
  - (I) 다음의 내용을 제공할 것
    - (i) 학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및 일반인이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해당 보조금 수급자가 합리적인 통지 이후에 공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보장
    - (ii) 권고안에 대한 요약과 해당 보조금 수급자의 대응
  - (J)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 (i) 가장 최근의 연도 동안 이 하위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자 및 학술단체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참여 수준에 대한 설명
    - (ii) 가장 최근의 연도 동안 이 하위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 (iii) 하위조항 문단(i)에 따른 학자 및 학술단체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고 문단(ii)에 따른 지역사회의 인문학 활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 또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제출된 계획서가 이 하위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신청도 승인될 수 없다.
- (4)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마련한 주정부 및 보조금 수급자는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액에서 최소 미화 20만달러를 할당 받는다. 상기 문장에 따라 총당된 금액이 총액을 할당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총액은 주정부들에 동일한 금액으로 할당한다.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하위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따른 할당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 보조금을 신청한 주정부, 지역기관 및 단체에게 이 하위조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초과금액의 34%는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다.
  - (B)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초과금액의 44%는 위원장이 승인한 계획을 가진 주정부 및 보조금 수급자들 간 동일한 금액으로 할당한다.
  - (C)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초과금액의 22%는 계획이 승인된 주정부의 인구(또는 주정부 외의 보조금 수급자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소재한 주정부의 인구)가 모든 주정부 인구에서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을 가지는 금액으로, 위원장이 승인한 계획을 가진 주정부들 및 보조금 수급자들 간 할당한다.
- (5)
  - (A) 이 하위조항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각 주정부 할당금액은 문단(1)에 따른 프로젝트나 제작물 총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첫날에 유효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이나 신청을 한 각 주정부나 보조금 수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단(4)에 따른 특정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i) 미화 12만5,000달러를 초과할 것
    - (ii) 해당 할당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프로그램을 해당 주정부 거주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재량으로 이 하위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 (B) 문단(4)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주정부에게 할당된 금액 중 회계연도의 종료 60일 이전에 주정부 기관 또는 보조금 수급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액은 지역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다.
  - (C) 이 하위조항에 따라 받게 되는 기금은 비연방 기금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D) 이 문단의 목적으로, "지역단체"란 인접한 주정부들을 대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주정부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 (E) 문단(4)(B)의 목적으로, "주정부" 및 "보조금 수급자"란 미합중국의 여러 주정부 이외에 최근 10년 단위의 인구 조사에 따라 인구수가 20만 명 이상인 이 편(title) 제952(g)조에 명시된 특별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 (6) 특정 회계연도에 문단(4)에 따라 할당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한 모든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어떠한 단체에도 부여되지 않은 금액은 하위조항(c)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인문학기금이 그 회계연도 종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7) 청문에 대한 합당한 통지와 기회가 있는 후에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모든 경우
- (A) 단체나 보조금 수급자가 이 하위조항의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B) 주정부 기관이나 보조금 수급자가 이 하위조항에 따라 승인된 주정부 계획이나 보조금 신청의 규정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C) 이 하위조항에 따라 단체, 주정부 기관, 또는 보조금 수급자에 할당된 기금이 지급된 목적으로부터 전용된 경우
- 위원장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용을 시정할 때까지 또는 그러한 이행이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나 주정부 기관, 또는 보조금 수급자가 부적합하게 전용하거나 지출한 연방 기금을 상환하거나 그러한 상환을 준비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추가 보조금도 해당 단체, 주정부 기관, 또는 보조금 수급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무장관과 관련 단체, 주정부 기관, 또는 보조금 수급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 (8) 문단(4)의 세 번째 문장 및 문단(5)와 (6)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이 하위조항에 따라 주정부 내 하나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g) 공연자 및 보조인력의 대금지급에 대한 기준·규정·절차
- 이 조항에 따른 수령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주정부 기관이나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다음의 사실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이 조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나 제작물과 관련하여 고용된 모든 전문 공연자 및 관련한 협력 전문가(이 조항의 하위조항(n)에 따라 근로기준이 규정된 근로자 및 정비인력은 제외)는, 구직에 대한 공제나 환불 없이 유사 활동에 고용된 자에 대한 현행 최소 보상금으로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다.
- (2) 이 조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나 제작물의 어떠한 부분도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비위생적이거나 유해하고 위험한 영향을 주는 근로조건 하에서 수행되거나 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공연이나 그 일부가 주정부의 안전위생법을 준수한 사실은 법률준수에 대한 1차적인 증거가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 하위조항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규정, 절차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 (h)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계약 또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급 제한과 위원장의 권한
- (1)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국립인문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하위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A) 문화예술 활동 단체 및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수준을 증대하고 그러한 단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 (B) 특히 장기 재정계획에 있어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행정적·관리적 개선사항을 제공한다.
- (C)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의 참여와 감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D)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단체나 기관 간 활발한 협력을 장려한다.



(E)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 증진을 도모한다.

(F) 공화국 건국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평가하는 200주년 기념사업은 미국이 제3세기에 당면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을 찾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2)

(A) 이 문단의 하위문단(B)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 하위조항에 따라 지급된 총액은 해당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B)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문단의 하위문단(A)에서 규정한 매칭펀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절에 따른 보조금 및 계약에 대한 고도의 공적 제안들은 비연방 또는 이 편의 제960(a)(3)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금 이외의 비연방 재원으로부터 달리 지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문단(1)의 하위문단(F)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만 포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포기는 특정 회계연도에 할당되고 이 하위조항의 목적으로 국립인문학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하위조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하위조항(c) 및 이 편(title) 제959조에 따른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i) 기관 간 협정

위원장은 상환 또는 비상환 여부에 따라 기타 연방기관의 인문학 관련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할 기관 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위조항(c)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하도록 승인된 기금을 그러한 활동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j) 적정요율에 의한 임금 지급과 노동부 장관의 권한

이 조항에 따른 수령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는 우수 단체나 개인, 또는 주정부 기관이나 단체는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계약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모든 인부 및 정비인력이 제40편제3141조~제3144조, 제3146조~제3147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해당 지역의 유사 건설에 적용되는 이상의 요율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노동부 장관에게 장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 하위조항에 따른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1950년 조직개편계획번호 제14호 및 제40편제3145조에 따른 권한과 직분을 가진다.

(k) 인문학 · 인문학자 · 교육문화단체 · 참여층에 대한 국가 정보 ·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및 시행계획과 인문학 보고서의 현황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주정부 및 지방기관, 관련 단체 및 관련 연방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문학 · 인문학자 · 교육문화단체 · 참여층에 대한 국가 정보 · 데이터 수집과 대중 보급을 위한 실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체계에는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문화적 · 재정적 동향, 관객 참여 동향, 국가나 지역 및 주정부 차원의 인문학 교육 동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체계는 하위조항(f)에 따라 주정부 계획과 함께 제출된 데이터 요약문과 국가의 인문학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용한다. 인문학현황보고서에는 신생 · 다문화 학자와 교육문화단체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국립인문학기금 프로그램의 가용성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학자, 학술단체,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인문학현황보고서는 1992년 10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주정부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l) 재정지원의 수급 요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순이익의 일부가 주주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2)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제26편제170(c)조에 따른 자선기부로 허용되는 경우

(m) 연간 시상

위원장은 국립인문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제퍼슨 인문학 강의상(Jefferson Lecture in the Humanities Award)은 인문학 분야에서

- 뚜렷한 교수 업적을 달성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2) 찰스 프란켈상(Charles Frankel Prize)은 인문학 대중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최대 5명을 선정한다. 각 상금은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956a조. 수도의 예술·문화 업무와 보조금 프로그램

미술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미국 수도의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콜롬비아특별구에 소재하여 예술 공연, 전시 및 발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 일반적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연간 미화 1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급받는 해를 기준으로 전 3년 동안 연방 기금을 제외하고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간 소득을 가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비영리·비학술기관으로 제한한다. 자격을 갖춘 단체는 콜롬비아특별구에 소재한 시설에 주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미술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절차를 수립하고 국립예술기금 위원장,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과 함께 신청기관들의 자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조금으로 제공된 기금 중 70%는 자격을 갖춘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할당하고, 30%는 해당 단체의 연방 기금을 제외한 연간 소득의 총 합산액과 비교하여 특정 단체의 연간 기금을 제외한 총소득의 규모에 따라 할당한다. 다만, 어떠한 단체도 특정 연도에 미화 65만달러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절차는 1986년 3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은 늦어도 1986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 제957조. 국립인문학위원회

##### (a) 설치

국립인문학기금 내에 국립인문학위원회를 둔다.

##### (b)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방식, 이익 대표성, 국가기관의 자문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대통령이 민간부문에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26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 (1)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 전문성, 헌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인
  - (2) 미국 전역의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하여 대변할 수 있는 뚜렷한 인문학적 서비스 및 학술 실적과 창의성을 지닌 자
- 대통령은 그러한 임명에 있어서 인문학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수시로 제출하는 권고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문학과 관련된 여성, 소수자, 장애인과 미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임명을 한다.

##### (c) 위원의 임기·공석·재임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대통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처음 취임하는 위원 중 9명은 2년 동안, 9명은 4년 동안, 8명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2)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어떠한 위원도 임기가 만료된 후 2년 동안 재임할 수 없다. 이 하위조항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d) 위원회 회의 및 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연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14명이여야 한다.

##### (e) 위원에 대한 보수·여비

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요율로 보수를 받되, 제5편제5332조에 따라 GS-18 등급에 부여된

요율에 해당하는 일당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부 업무에 임시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법률(제5편제 5703조)에 따라 생계유지 대신에 일당을 포함한 여비를 받는다.

- (f) 자문 권한,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 재정지원 신청 검토, 위원장에 필요한 권고, 위원장 조치의 사전요건, 권한위임에 따른 위원장의 단독 조치
- 위원회는 (1)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2) 재정지원 신청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자문을 위원장에게 제공한다. 위원회가 적절한 기한 내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원장은 해당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때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이나 거부를 할 수 없다.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신청인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표명하고 직접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때에 그 요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편(title) 제960(a)조 하위문단(B)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총당된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채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957a조. 생략

## 제958조. 국립예술인문학위원회

### (a) 설치

본 기금(국립예술인문학기금) 내에 국립예술인문학위원회를 둔다.

### (b) 구성, 의장, 프로그램 및 행정부 조직의 변동사항 충족을 위한 회원자격 변경

위원회는 국립예술기금 위원장,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 교육부장관,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 국립과학재단 이사장, 의회도서관장, 국립미술관장, 미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기록보관소장, 공공건물관리청 청장, 총무청 청장, 인구고령화관리청 사무차장, 국무장관이 지명한 위원, 내무장관이 지명한 위원, 상원 예술 및 골동품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하원 의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이 중 위원회 의장을 지명한다. 대통령은 연방 프로그램이나 행정부 조직의 변동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회원자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c) 직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국립예술기금 위원장과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에게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 (2) 국립박물관서비스 이사회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에게 관련 협회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 (3) 적절한 경우에 공동의 활동지원을 포함하여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학기금,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자문을 제공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 (4) 재단의 프로그램 및 활동과 기타 연방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 간 연계 사업을 촉진한다.
- (5) 제작물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역사적 국가 행사에 대한 참여를 계획하고 조정한다.
- (6) 특히 경제적 필요나 문제와 관련하여 예술 및 인문학의 현황을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7) 연방 기관의 예술 및 인문학 활동을 지원하여 기관들 간 지속적 대화를 장려한다.

## 제959조. 행정규정

### (a) 위원장의 일반적 권한

이 하위조항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별도로 국립예술기금 위원장과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각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2) 위원장의 재량으로 해당 국립기금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건이나 제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금에 기증·유증·증여한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 편(title) 제955(f)조 및 제957(f)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권고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신청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권고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위원회가 적절한 기간 내에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권고 없이 미화 1만5천달러 이하의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편(title) 제954(c)조 및 제956(c)조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재산을 사용,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할 수 있다.
- (3) 공무원법에 따라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고, 그러한 직원의 임무를 명백히 하며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권한을 가진다.
- (4) 제5편제3109조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을 포함한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다.
- (5) 제5편제5703조에 따라 자발적 및 무보수 직원의 용역을 수락·활용하고 무보수 정부 근로자에게 일당을 포함한 여비를 보상한다.
- (6) 제31편제3324조에 따르지 않고 선불금, 중도금 및 기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7) 콜롬비아특별구에 소재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 (8) 기타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 (b) 기증·유증·증여의 분배규칙, 조건부 기증, 조세 목적의 이전
  - (1) 재단을 위한 출연자의 지정 없이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기증·유증·증여한 경우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기금의 지정 없이 재단에 기증·유증·증여된 경우, 또는 재단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재단에 기증·유증·증여된 경우, 그러한 재산은 각 기금에 동일한 지분으로 기증·유증·증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각 기금의 위원장은 해당 재산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 (2)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재단에 기증·유증·증여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관련 조건이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언급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출연자에게 기증·유증·증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각 기금의 위원장은 해당 재산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 (3) 상기 문장의 목적으로, 해당 조건이나 제한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이 두 기금의 직무에 포함되거나 해당 조건이나 제한의 목적의 일부가 하나의 기금의 직무에 포함되고, 또는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의 목적이 다른 기금의 직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예술인문학위원회는 그와 같이 기증·유증·증여된 재산을 해당 기금들 간 분배하는 공평한 방식을 결정한다.
  - (4) 미국의 소득세, 증여세 및 유산세법의 목적으로, 이 하위조항에 따라 파생된 권한에 따라 재단이나 기금들 중 하나의 기금에 기증·유증·증여되고 특정 기금의 위원장이 수령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은 미국에 기증·유증·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 (c) 자문위원회 회원자격과 절차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은 모든 사안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국립예술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 패널을 활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이 편(title) 제955(f)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서를 검토할 때 자문 패널은 예술적 우수성과 가치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제작물, 워크숍 신청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절차를 수립한다.

  - (1) 모든 패널은 가능한 한 예술적·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리적, 민족적, 소수민족적 대표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모든 패널에는 예술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직업으로 예술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예술인 단체나 예술단체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 (3) 패널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절차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도록 한다.
  - (4) 패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는 서면 기록을 작성한다.
      - (i) 패널의 모든 회의 및 토론
      - (ii) 위원회에 대한 패널의 권고

- (B) 그러한 기록은 개별 신청인, 패널 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5) 패널 위원의 권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인의 작업 경과를 확인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6) 각 패널의 위원이 해마다 실질적으로 변동되도록 규정하고, 각 개인이 3년 이상 연속으로 패널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패널을 선임할 때 이 하위조항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보류 단계에 있는 단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 자격의 개인이 관련한 패널의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문장에 명시된 금지는 해당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보류 중인 기간 동안 존속한다.
- (d) 기금 활동보고서  
국립예술기금 위원장과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의회에 전달할 연례 보고서를 매년 4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전년도 기금의 활동을 요약하고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 (e) 위원회 활동보고서  
국립예술기금 위원장과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각각 의회에 전달할 전년도 활동의 요약이나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매년 4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각각 제출한다.
- (f) 지원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후속평가·보고서·준수기한 연장·지원 목적 미달
- (1) 국립예술기금 위원장과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은 이 편(title) 제954(c)조와 제956(c)조에 따라 각 기금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생산물,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평가를 진행한다. 그러한 평가에는 문단(2)(A)의 하위 절(i)와 (ii)에 따라 수급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러한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프로젝트, 제작물,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문단(2)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 (A) 각 기금의 재정지원 수급자는 관련 기금의 위원장에게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 해당 재정지원이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지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된 재정보고서(ii) 해당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생산물,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보고서
- (iii)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 제작물, 프로그램의 사본
- (B) 해당 수급자는 재정지원이 제공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이 문단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3) 해당 수급자가 그러한 재정지원이 제공된 목적과 하위조항(c)(3)(A)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재정지원을 제공한 기금의 위원장은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차후 재정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하위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후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
- (B) 그러한 재정지원의 수급자가 재정지원을 제공한 기금의 프로젝트, 제작물, 프로그램의 명칭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C) 관련 프로젝트, 제작물, 프로그램이 출판물로 공표된 경우, 그러한 출판물에는 다음의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 표현된 의견, 사실, 결론 및 권고 사항은 국립예술기금 또는 국립인문학기금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제959a조. 기증·유증·증여

국립예술기금 또는 국립인문학기금은 2005년 8월 2일이나 그 이후에 미국의 명의로 금전, 기타 재산, 용역의 기증·유증·증여를 요청, 수락, 수령 및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국립예술기금과

국립인문학기금의 직무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국립예술기금 또는 국립인문학기금의 수락 이후 해당 기증·유증·증여로 발생한 수익금은 기증자 또는 기증자 대리인이 위원장에게 지불한다. 위원장은 각 경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특별 이자가 붙는 계정에 그 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 제960조. 책정금액의 승인

(a) 단체, 개인,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계약·보조금 지원·대출 금액의 가용성 및 지침  
(1)

(A)

(i) 이 편(title) 제954(c)조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1년 회계연도에는 미화 1억2천5백80만 달러를,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는 필요한 금액을 국립예술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ii)

(I) 1991년과 1992년 각 회계연도에 총당된 금액의 25% 이상

(II) 1993년 회계연도에 총당된 금액의 27.5% 이상

이 편(title) 제954(c)조를 수행하기 위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iii)

(I) 1991년과 1992년 각 회계연도에 총당된 금액의 5% 이상

(II) 1993년 회계연도에 총당된 금액의 7.5% 이상

이 편(title) 제954(p)(2)조에 따른 프로그램(농촌 및 도심지역 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농촌 지역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문단에 따른 자금의 50% 이상은 프로그램의 시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B) 이 편(title) 제956(c)조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1년 회계연도에는 미화 1억1천9백90만 달러를,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는 필요한 금액을 국립인문학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 중 20% 이상은 이 편 제956(f)조의 시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A) 1993년 10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각 회계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립예술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i) 해당 기금에 기증·유증·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이 편 제959(a)(2)조에 따라 해당 기금이 수령한 총액

(ii) 이 편(title) 제954(c)조의 문단(1)~문단(10)에 따른 프로젝트 및 그 밖에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기증·유증·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비연방 재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총액

다만, 국립예술기금에 그와 같이 책정된 금액은 1991년 회계연도에 미화 1천3백만 달러를,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B) 1993년 10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각 회계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립인문학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i) 해당 기금에 기증·유증·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이 편 제959(a)(2)조에 따라 해당 기금이 수령한 총액

(ii) 이 편(title) 제954(c)조의 문단(1)~문단(10)에 따른 프로젝트 및 그 밖에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기증·유증·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비연방 재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총액

다만, 국립인문학기금에 그와 같이 책정된 금액은 1991년 회계연도에 미화 1천2백만 달러를,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 (A) 1993년 10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각 회계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립예술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 (i) 이 편(title) 제959(a)(2)조에 따라 이 편 제954(p)(1)조에서 정한 목적으로, 해당 기금에 기증·유증·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해당 기금이 수령한 총액
  - (ii) 이 편(title) 제954(p)(1)조의 하위문단(A)~(F)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기증·유증·증여된 가액을 포함하여 비연방 재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총액
- 다만, 해당 기금에 그와 같이 책정된 금액은 1991년 회계연도에 미화 1천5백만달러를,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B) 1993년 10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각 회계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립인문학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 (i) 이 편(title) 제959(a)(2)조에 따라 이 편 제956(h)(1)조에서 정한 목적으로, 해당 기금에 기증·유증·증여된 가액을 포함하여 해당 기금이 수령한 총액
  - (ii) 이 편(title) 제956(h)(1)조의 하위문단(A)~(F)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기증·유증·증여된 가액을 포함하여 비연방 재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총액
- 다만, 해당 기금에 그와 같이 책정된 금액은 1991년 회계연도에 미화 1천5백15만달러를,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C) 하위문단(A) 및 (B)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은 지출될 때까지 채무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 (4) 문단(2) 및 문단(3)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은 국립예술기금 위원장과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발표한다. 그러한 지침은 이 하위 장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 프로그램, 프로젝트, 제작물에 대한 연방지원의 총액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이 편(title) 제954(e)조, 제954(l)(2)조, 제956(f)조 및 제956(h)(2)조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b) 미지출 자금의 가용성, 사전 책정된 자금의 가용성 통지
- (1) 하위조항(a)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은 지출될 때까지 채무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 (2) 이 하위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기 위하여 하위조항(a)에 따라 승인된 책정금액은, 그 책정금액이 의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책정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c) 행정예산 책정
- (1) 공식 접수 및 공시 경비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에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하위장의 규정 및 그 밖에 국립예술기금 위원장이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1년 회계연도에 미화 2천1백20만달러,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총액을 국립예술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1995년 회계연도에 계상된 자금 또는 그 밖에 재원을 사용하여 해당 경비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2) 공식 접수 및 공시 경비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에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하위장의 규정 및 그 밖에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이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1991년 회계연도에 미화 1천7백95만 달러와 1992년과 1993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총액을 국립인문학기금에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1995년 회계연도에 계상된 자금 또는 그 밖에 재원을 사용하여 해당 경비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d) 총 책정금액
- (1) 국립예술기금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총 책정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A) 1986년 회계연도에 미화 167,060,000달러
    - (B) 1987년 회계연도에 미화 170,206,400달러

- (C) 1988년 회계연도에 미화 177,014,656달러
- (2) 국립인문학기금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총 책정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A) 1986년 회계연도에 미화 139,878,000달러
  - (B) 1987년 회계연도에 미화 145,057,120달러
  - (C) 1988년 회계연도에 미화 150,859,405달러
- (e)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참가비 수익을 사용한 제작 워크숍에 대한 보조금 금지  
고도의 예술적 우수성을 개발하거나 시민의 예술 및 인문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목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수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참가비를 요구하는 제작물을 위한 워크숍(학교, 대학, 대학에서 수행하는 워크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f) 예술교육을 위한 책정금액의 가용성
  - (1) 하위문단(2)를 조건으로 국립예술기금에 책정된 총액이 미화 1억7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의 50%를 이 편(title) 제954a조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2) 각 회계연도에 이 편(title) 제954a조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합쳐서 미화 4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3) 이 편(title) 제954a조를 수행하는데 쓰이는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II절 박물관 서비스

### 제961조~제969조. 생략

## 제26A장. 예술 및 공예 전시품에 대한 보상(제971조~제977조)

### 제971조. 손실·손해에 대한 보상계약

- (a) 국립예술인문학위원회의 승인  
이 편의 제95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예술인문학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이 편 제972조에 따른 보상·합의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손실·손해 보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 (1)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 (2)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고 미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및 조건에 따른다.
- (b)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 (1) 이 장의 목적으로, 위원회는 제5편에서 정한 적절한 정의에 따라 "기관"으로 한다.
  - (2) 이 장의 목적으로, 스미스소니언재단 사무총장, 국립미술관장, 상원 예술 및 골동품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하원의장이 지명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72조. 보상계약 대상품목

- (a) 예술작품, 인쇄 및 출판자료, 공예품이나 물건, 사진·동영상·테이프  
위원회는 다음의 품목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태피스트리(tapestries), 회화, 조각, 민속 예술, 그래픽, 공예를 포함한 예술작품



- (2) 원고, 회귀 문서, 서적, 기타 인쇄 및 출판자료
- (3) 기타 공예품이나 물건
- (4) 사진, 동영상,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 (A) 교육·문화·역사·과학적 가치가 있는 품목
  - (B) 국제 전시회의 경우 국무장관이나 그 지명자가 국가적 이익이 된다고 인증한 품목
- (b) “전시 중”의 정의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 (1) 이 장에 따라 체결된 보상계약은 전시 교환의 일환으로 가급적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시 중인 적격 품목을 포함한다.
  - (2) 이 하위조항의 목적으로, “전시 중”이라는 용어는 적격 품목이 대여기관의 부지나 대여기관이 지정한 장소를 떠나는 날부터 해당 품목이 대여기관의 부지나 대여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반환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 제973조. 보상계약 신청

- (a) 당사자
 

이 장에 따른 적격 품목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 비영리기관, 단체, 정부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그 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 (b) 내용
 

하위조항(a)에 따라 신청서는

  - (1) 계약에 포함될 각 품목(해당 품목의 평가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설명한다.
  - (2) 해당 품목이 이 편 제972(a)조에 따라 적격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 (3) 해당 품목의 전시와 운송에 관한 정책, 절차, 기술, 방법을 정한다.
- (c) 승인
 

이 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이 장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고 신청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한 승인에 따라 해당 계약은 위원회와 신청자 간 계약이 되며, 위원회는 계약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지불할 것을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서약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서약할 권한을 가진다.

### 제974조. 보상한도

- (a) 평가액의 승인
 

이 편 제973조 하위조항(a)와 (b)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약에 따른 보증이 필요한 품목의 평가액을 검토한다. 이 장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해당 평가액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편 제973조 하위조항(c)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청서를 승인한 후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 (b) 보상의 최대한도
 

이 장에 따라 체결된 보상계약이 적용되는 손실·손해의 총액은 국제 전시회의 경우 1회에 미화 150억 달러, 국내 전시회의 경우 1회에 미화 7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c) 단일 전시의 한도
 

단일 전시회에 대한 보상계약은 국제 전시회의 경우 미화 18억 달러를, 국내 전시회의 경우 미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 (d) 공제 한도
 

단일 전시회에 대한 보상계약이 적용되는 품목의 평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 (1) 미화 2백만 달러 이하의 품목의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1만5천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2) 미화 2백만 달러 초과 ~ 미화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 미화 2만5천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3)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미화 1억2천5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4) 미화 1억2천5백만 달러 이상 ~ 미화 2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5) 미화 2억 달러 이상 ~ 미화 3억 달러 미만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6) 미화 3억 달러 이상 ~ 미화 4억 달러 미만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30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7) 미화 4억 달러 이상 ~ 미화 5억 달러 미만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8)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이 장에 따른 보장은 해당 품목의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최초 손실·손해에 대하여만 제공한다.

#### 제975조. 손해배상의 청구

- (a) 신속한 조정을 위한 규정  
위원회는 이 편 제974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가 적용되는 유효한 손해배상청구의 신속한 조정을 규정하는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합의에 적용이 되는 대상물의 완전한 손실 또는 파손보다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액과 관련된 사안의 중재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b) 인증  
이 편 제974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가 적용되는 품목의 유효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원회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에게 해당 청구의 효력과 손실액을 인증한다.

#### 제976조. 책정금액의 승인

- (1) 위원회가 이 장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위원회는 이 편 제975(b)조에 따라 증명된 청구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977조. 생략

## 제56장.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문화·예술 개발

### 제I절.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제4411조~제4426조)

#### 제4401조. 사실의 인정

의회는 아래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 (1) 아메리칸 인디언 및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문화는 국가의 예술적, 문화적 풍요로움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아메리칸 인디언 및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문화는 우리의 유일한 원주민 예술형식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미국 역사에서 특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3) 국가 고유의 예술과 문화를 향상시키고 보존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아메리칸 인디언 및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공예에 대한 장려와 지원은 주로 민간, 지역, 원주민 이니셔티브의 문제이지만 연방정부의 적절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 (5) 연방정부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학문을 지원하고 부족, 민간,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그러한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
- (6) 아메리칸 인디언 및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문화 분야에 대한 연방의 현행 이니셔티브는 단편적이고 부적합하다.
- (7) 아메리칸 인디언 및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문화를 보존·지원·활성화·보급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
  - (B) 하와이 원주민 문화예술 개발 프로그램

#### 제4402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디언 예술과 문화"란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역사·시각 및 공연예술·공예의 전통적 및 현대적 표현을 말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 (2) "하와이 원주민 예술과 문화"란 하와이 원주민 언어·역사·시각 및 공연예술·공예의 전통적 및 현대적 표현을 말한다.
- (3) "연구원"이란 이 장에 따라 설치된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을 말한다.
- (4) "인디언"이란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5) "인디언 부족"이란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알래스카 원주민 지원 정책’에서 정의하거나 동법에 따라 설립됨[미국연방법전 제43편제1601조 이하 참조])을 포함하여 인디언 부족, 집단, 국가 또는 기타 조직적 단체나 지역사회를 말하며, 인디언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미국이 인디언에게 제공하는 특별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6) "하와이 원주민"이란 1778년 이전에 하와이 제도의 원주민이었던 자의 후손을 말한다.
- (7) "장관"이란 내부장관을 말한다.
- (8) "이사회(Board of Trustees)"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의 이사회를 말한다.

### 제I목.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 제4411조. 연구원의 설치

- (a) 총칙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으로 알려진 법인을 설립하고, 연구원은 이 편 제4412조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 (b) 정관의 승계 및 개정
 

제(a)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의회가 법률에 따라 해산될 때까지 승계된다. 의회만이 그러한 법인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4412조. 이사회

- (a) 구성
  - (1) 연구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보유한 13명과 의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6명으로 구성한다.

- (A) 제(i)항의 규정을 따를 조건으로 의결권을 보유한 위원은 인디언 지위의 민간인, 또는 인디언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금융, 법률, 미술, 고등교육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개인이어야 하며, 1986년 10월 17일 이후 18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 (B)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 (i) 하원의 소수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2명
  - (ii)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상원 의장이 임명한 상원 의원 2명
  - (iii) 당연직 연구원장
  - (iv) 연구원 내 당연직 학생대표
- (2) (1)(A)에 따라 임명할 때 미국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인디언 부족 및 다양한 인디언 조직과 상의한다.
  - (B) 임기 만료 최소 4개월 전에 그러한 만료 사실을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 (C)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인디언 부족 및 다양한 인디언 조직에서 지명을 요청한다.
  - (D) 지역 및 부족을 적절히 대표할 개인이 이사회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고려한다.
  - (E) (1)(A)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의 과반수가 인디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대통령은 이사회를 통하여 (2)(B) 및 (2)(C)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접수된 추천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심사를 받은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을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4)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나 그 피지명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에 자문할 권한을 가진다.
- (b) 임기
- (1)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2) 하원 및 상원 의원의 이사회 임기는 의회 임기 만료 시 만료된다.
  - (3) 제(a)항(1)(A)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이사회 위원 중
    - (A) 4명의 임기는 2년
    - (B) 4명의 임기는 4년
    - (C) 5명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 이사회 회의에서 추천으로 결정한다.
  - (4) 제(a)항(1)(A)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c) 공석
-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제(a)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a)항(1)(B)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후임자를 임명한다.
- (d) 해임
- 이사회 위원 누구도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동안 해임되지 아니한다.
- (e) 위원장과 부위원장
- 미국 대통령은 제(a)항(1)(A)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 중 초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그와 같이 지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a)항(1)(A)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자리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석은 제(a)항(1)(A)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 중에서 충원하며 그러한 공석을 채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f) 정족수  
연구원 내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a)항(1)(A)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 (g)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연구원의 정책을 수립한다.
  - (2) 연구원의 관리를 지시한다.
  - (3) 이사회의 조직 및 절차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규와 규칙을 마련한다.
- (h) 보수  
제(a)항(1)(A)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은 이 장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기간 동안 여행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미화 125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이사회의 모든 위원은 자택이나 직장 밖에서 외근하는 기간 동안, 정부 업무에 임시 고용된 자에 대하여 제5편제5703조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라 생계급여 대신 일일경비를 포함한 여비를 받는다.
- (i) 지속성을 위한 임명 예외사항
  - (1) 이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이사회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위원의 존속을 권고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그러한 권고를 할 때에 이사회 위원장은 늦어도 위원의 임기 만료일 75일 이내에 그 권고 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2) 대통령이 그 권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위원의 직위를 채우기 위한 임명을 상원에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은 모든 적절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충분한 임기로 이사회에 재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이 조항은 7명 미만의 인디언이 이사회 위원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임기의 연장이 7명 미만의 인디언 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항의 적용 없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간주하는 날로부터 60일 후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체자가 있을 때까지 직무의 지속성과 관련된 제(b)항(4)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 제4413조. 집행위원회

- (a) 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 (1) 이사회 위원장
  - (2) 이사회 부위원장
  - (3) 이사회 사무관
  - (4) 이사회 재무관
  - (5) 최초 회의에서 이사회가 임명한 이사회의 일반 위원
- (b) 공석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그 임기를 완료할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c) 회의  
집행위원회는 매년 4회 이하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회의는 위원장 또는 집행위원회 3명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 (d) 정족수  
집행위원회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 (e) 권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제4414조. 이사회 일반 권한

### (a) 총칙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할 때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법인 인감을 채택, 사용, 변경할 수 있다.
- (2) 개인, 인디언 부족, 민간 또는 정부기관과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제31편제3324조에 관계없이 그러한 협약이나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 또는 선지급을 한다.
- (3) 법률의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임무와 관련되고 이를 증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 편 제4426조에 따라 요구하는 계획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의 상업·비상업적 단체와 합작개발사업을 체결한다.
- (4) 법인의 명칭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대상이 되며, 법인 명칭으로 관할 법원에서 이익을 제기하고 방어한다.
- (5) 모든 사법, 법적, 그 밖에 소송 절차에서 법인을 대표하거나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6)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 이사회, 위원회, 독립된 기관, 또는 행정부의 집행기관이나 부서의 서비스·시설·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사용을 위한 대금을 지불한다(그러한 대금지급액은 경비를 발생시킨 해당 책정액에 신용으로 적립한다).
- (7) 미국 정부의 행정부와 동일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미국 우편물을 사용한다.
- (8) 제5편제310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자문인의 용역을 획득하고, 제5편제5703조에 따라 무보수 자원 봉사직의 용역을 수락 및 활용하며 일당을 포함한 여비를 보상한다.
- (9)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 증권 및 기타 재산의 기증·증여·유증을 권유, 수취, 처분할 수 있다.
- (10)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조직,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하고 계약 및 기타 협약을 체결한다.
- (11) 이사회가 이 장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관련 개량을 포함한 부동산·인적 재산·장비·기타 품목을 취득, 보유, 유지, 사용, 운영 및 처분한다.
- (12)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산 및 책임에 관한 보증을 포함한 연구원의 모든 활동을 보장하고 기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 (13)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수취한 기금이나 재산을 이 장의 제4451조에 따라 책정된 자금 중 10%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을 1년 단위로 지정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금의 수익률과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으로 할당된 자금의 투자나 처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14)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고 연구원의 권한, 목적, 기능, 직무 및 승인된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하거나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타 모든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b) 비연방 기금에 대한 회계

연방기금이 아닌 연구원이 수취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연방기금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c) 이자 및 투자

제(a)항(12)에 따른 투자로 이 편 제4451조에 따라 연구원이 수취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수익은 연구원의 재산이며 이 장의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제(a)항(12)에 따른 자금 투자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결정 당시 존재하는 정보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중한 주의의 기준에 따른다.

## 제4415조 원장

### (a) 임명

연구원에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원장을 둔다.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이사회의 지시와 이사회 위원장의 일반적 감독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정책과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원의 모든 직원 및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 (b) 보수  
원장은 일반직 보수표의 GS-18 등급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급의 최고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 제4416조. 연구원의 직원

- (a) 공무직 예외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5편은 연구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임명 및 보수
  - (1) 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들의 임명과 보수(보건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를 결정하고 이들의 직무를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2) 원장은 제5편제51장이 적용되는 상응하는 자격과 직위를 가진 개인에 대하여 일반 보수표에 따라 유효한 요율과 동등한 요율로 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기본보수를 정한다. 연구원의 직무에 필요한 임직원의 채용이나 보유를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공식 조치를 통해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가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요율과 동등한 기본보수의 요율이나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3)
  - (A) 연구원장은 임명된 후 180일 이내에 다음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다.
    - (i) 연구원 직위의 수립
    - (ii) 해당 직위에 대한 기본보수(보건급여 및 퇴직금 포함)
    - (iii) 보수의 자격
    - (iv) 고용조건
    - (v) 고용해고
    - (vi) 휴가제도
    - (vii) 기타 적절한 사안
  - (B) 해고 및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관련 개인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ii) 정당한 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여 해고사유 및 청문의 기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해고되지 아니한다.
- (c) 이사회 항소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다시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하기로 한 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시 이사회는 해당 임직원의 고용에 관한 원장의 결정을 서면으로 번복할 수 있다.
- (d) 직급의 강등 및 보수의 감액 없음  
공무원으로 남기로 선택한 개인은 직무 및 인력의 이동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이동이 있는 날부터 최소 1년간 그 개인에 대한 직급의 강등 또는 보수의 감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e) 휴가
  - (1)
    - (A) 제(g)항에 따른 선택으로 이 조항의 규정에 포함되는 개인이나
    - (B) 다른 휴가제도에 따른 연방정부의 직위에서 연구원으로 직무상 중단 없이 전보 또는 재임용된 개인은 제(b)항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한 휴가제도의 목적에 따른 신용으로

인정되며 연가와 병가는 해당 선출·전보·재임용의 효력 발생일 직전에 그 개인에 대한 신용으로 인정된다.

- (2) 연구원의 고용이 종료된 경우, 이 조항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신용으로 남은 연차휴가는 제5편제5551(a)조 및 제6306조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제(b)항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획득하였거나 발생한 휴가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 (3) 다른 휴가제도에 따른 직무상 중단 없이 연방정부의 직위로 전보·승진·재임용된 자의 경우, 제(b)항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획득하였거나 인정받은 신용으로 남아있는 휴가는 인사팀이 공포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기준으로 해당 고용기관에서 해당 개인의 신용으로 이전된다.
- (f) 적용 가능성
- (1) 이 조항은 1986년 10월 17일 이후 연구원에 고용되어 임명된 모든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d)항 및 제(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제정은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1986년 10월 17일 이전에 고용된 개인의 계속적 고용
    - (B) 직위에 부속된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
  - (2) 이 조항은 서면 조달계약에 따라 연구원이 용약을 조달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이 조항은 연구원과 서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단체의 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g) 공무원 직위의 종료
- (1) 1989년 6월 30일로 공무원 직위에 있는 개인이 종사하는 연구원의 직위는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 그러한 개인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최종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5편제83장제III절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나 제5편제84장의 적용을 받는 개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제5편제83장제III절 또는 제5편제84장의 적용을 계속 받기로 선택을 한 개인은 사안에 따라 제84장의 적용을 받아 직무상 중단 없이 연구원에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한, 제84장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취급된다. 직무상 중단 없이 연구원에 고용된 것은 사안에 따라 이 장이나 제84장의 목적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고용으로 간주한다. 연구원은 사안에 따라 이 장이나 제84장에 따라 고용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을 가진다.
- (h) 단체교섭
- 연구원은 제5편제71장의 목적상 기관으로 간주한다.
- (i) 근로자 보상
- 연구원의 직원은 제5편제81장에 따라 업무상 손해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 제4417조. 연구원의 직무

- (a) 주요 직무
- 연구원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인디언 예술과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제공한다.
  - (2) 인디언 예술과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수여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b) 행정기관
- (1) 이사회는 연구원의 모든 하위부서, 행정기관 및 부처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정책과 내부 감시기구를 설립할 책임을 가진다.
  - (2) 연구원의 각 하위부서, 기관 및 부처의 구체적인 책임사항은 전적으로 이사회 또는 그 피지명인의 재량에 따른다.
  - (3) 이사회는 연구원에 문화예술 연구를 위한 부서, 조사 및 교류를 위한 부서와 박물관을 설치한다. 이사회는 이 문단에 따라 설치된 부서에 대한 역량 영역을 설정한다. 여기에는 예술과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언어, 문학 및 박물관학 관련 부서, 학습자료센터, 기관지원개



발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 펠로우십 프로그램, 세미나, 출판물, 상주 연구자 프로그램 및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c) 기타 프로그램

제(b)항에 기술된 센터 및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연구원은 이사회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프로그램 및 센터를 개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디언 예술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학문을 육성한다.

(A) 상주 프로그램

(B) 협력 프로그램

(C) 보조금 프로그램

(2) 인디언 예술과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기존 인디언 부족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3) 인디언 예술과 문화를 보존, 지원, 재활성화 및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한다.

#### 제4418조. 인디언 우대

(a) 총칙

연방법 또는 주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인디언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는 정책을 개발할 권한을 가진다.

(1)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및 등록

(2) 연구원의 고용

(3) 연구원이 부여하는 계약, 펠로우십 및 보조금

(b) 채용 우대

이 장 제4416조(b)(1)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장은 가능한 한 최대의 범위에서 인디언을 우대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제4419조. 연구원의 비영리 및 비정치적 성격

(a) 주식

연구원은 어떠한 주식도 발행하거나 배당금을 공개 또는 지급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b) 비영리적 성격

급여나 용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어떠한 수입이나 자산 중 일부도 이사, 임직원 또는 기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되어서는 아니한다.

(c) 비정치적 성격

연구원은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게 기부하거나 이들을 지원할 수 없다.

#### 제4420조. 조세상황 및 불법행위의 책임

(a) 조세상황

연구원과 연구원의 독점 판매권, 자본, 준비금, 수입 및 재산은 현재 또는 앞으로 미국, 인디언 부족, 주정부, 그 정치적 하위조직이 부과하는 모든 과세에서 면제된다.

(b) 불법행위의 책임

(1) 연구원은 연방기관이 제28편제171장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책임을 진다.

(2) 제28편제171장의 목적으로 연구원은 이 장 제2671조의 정의에 따른 연방기관으로 취급된다.

(3) 제28편제171장의 목적으로 연구원장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로 간주한다.

#### 제4421조. 직무의 이관

(a)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 연구원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으로 이전되며, 해당 연구원은 1962년에 설치된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 연구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 이관된 직무와 관련 사안

- (1) 제(d)항을 조건으로 (해당 이관일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과 관계없이) 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관된 직무와 관련하여 활용, 보유, 사용될 관리예산처장이 결정한 모든 인사, 채무, 계약, 부동산(박물관 건물이 아닌 “산타페 인디언 스쿨”로 알려진 장소에 위치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포함한다), 인적 재산, 자산 및 기록은 연구원으로 이관된다.
- (2) 이 장에 의하여 이관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직무 이관에 관한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보된다. 다만, 전보 후 1년 동안 직급의 강등이나 보수의 감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c) 다른 법률의 언급

1962년에 장관이 설립한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 연구원에 관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은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적절하고 이 장의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하며 연구원에 적용된다. 기타 연방법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 연구원’을 언급하거나 제(b)항에 따라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으로 전보된 임원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의 임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 채무의 면제와 면책

- (1) (2)를 조건으로
  - (A) 연구원은 1988년 6월 2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연구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 (B) 사무관은 1988년 6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연구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1988년 6월 2일 이후 2년 내에 지불의무가 발생하고, 1988년 6월 2일 이전에 법정, 계약상,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된 채무를 포함한다.
- (2) 연방정부의 모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형식이나 출처와 관계없이, 연구원은 보고서, 회계감사 및 기타 요구되는 정보 제출을 포함하여 1988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규제적 또는 법적 성격의 조치 및 요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미국은 1988년 6월 2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사건의 발생 또는 행정적, 규제적 요건의 부작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422조. 보고서

(a) 연차보고서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고일 이전 12개월 내에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특히 해당 12개월 동안 연구원이 수취한 모든 사적, 공적 자금, 기증 및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한 명세서와 연구원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b) 예산안

- (1) 1988년 9월 30일 이후 및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 조항에 따른 예산안은 매년 4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안건이 제출된 회계연도의 다음 2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연구원의 예산을 제안하여야 한다.
- (3) 해당 안건에 근거하여 연구원에 책정되는 기금 금액을 결정할 때, 의회는 이전 회계연도 중 연구원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사적 모금이나 유증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제4423조. 본부

뉴멕시코주 산타페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예술개발연구원’의 위치로 유지한다.

이러한 조치와 아메리칸 인디언 예술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토지의 교환이나 이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교섭할 수 있다.

#### 제4424조. 기타 법률의 준수

##### (a) 총칙

연구원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아메리칸 인디언 종교자유법'으로 널리 알려진 공법 제95-341호(미국연방법전 제42편제 1996조, 제1996a조)
- (2) '1979년 고고학 유산 보호법'(미국연방법전 제16편제470aa조 이하 참조)
- (3) 제54편제III장제(A)절

##### (b) 형법

미국의 기금이나 자산의 절도, 횡령, 또는 부정유용과 관련된 모든 연방 형법은 연구원의 기금 및 자산에 적용된다.

##### (c) 기타 연방 지원

- (1) 이 장에 따라 연구원이 수취한 기금은 연방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에 대한 매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자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2) 연구원은 비연방 기금이나 기타 자금이 연방지원의 신청 또는 수취의 조건으로 보조금, 계약, 협력 협약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에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프로그램의 어떠한 신청이나 제안에 대한 검토, 우선순위 지정, 수락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4425조. 기금 프로그램

##### (a) 프로그램 강화 기금

- (1)
  - (A) 이 편 제4451(a)조에 따라 이 조항과 관련하여 책정된 총액 중 자금은 연방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이나 저축기관에서 연구원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 (B) 연구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마련한다.
    - (i) 다음의 자금을 (A)에서 언급한 신탁기금에 예치하는 것
      - (I) 각 연방 분담금과 동일한 금액의 연구원 출자금
      - (II) 이 조항에 따라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ii) 연구원의 비현금적 사용만을 유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인적 재산의 현물 출자금은 사용하도록 하는 것(그러한 재산은 (A)에서 언급한 신탁기금에 대한 출자로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 (C) 언제든지 연구원이 (A)에서 언급한 신탁기금에 대한 연구원의 (B)(ii)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출자금을 철회하거나 (B)(ii)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모든 재산을 연구원만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방 분담금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신탁기금에서 인출하여 잡수입으로 재무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 (2) (1)(B)(ii)에 따라 신탁기금에 예치된 이자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그 지정인의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운영 및 유지, 관리, 학업 및 지원 인력, 지역사회 및 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기술지원의 비용이 포함된다.
- (3) (1)(B)의 출자금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이 조항에 따라 투자된 자금으로 획득한 이자를 포함하여 민간이나 부족 출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하게 평가된 부동산 또는 인적 재산의 자금이나 현물 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현물 출자는 완전한 상각자산 또는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으로 추가 지정된 재산이 아닌 다른 자산이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재무장관이 수립한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으로, 1990년 11월 29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1988년 6월 2일 이후에 수취하였지만 이 조항에 따른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현물 및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출자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책정된 연방 자금과 매칭할 수 있다. 1988년 6월 2일 이후에 재무장관이 연구원으로 이체한 모든 자금은 1992년 7월 23일 현재 적정하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이 조항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이 편 제4451(a)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은 자금의 금액이나 현물 출자금의 가액에 상응하는 연방 분담금으로 재무장관이 연구원에 지급한다. 해당 금액이 이 조항에 따라 연구원의 출자금으로 연구원이 관리했거나 연구원의 사용에 조건 없이 할당된 사실은 연구원이 증명하여야 한다.

(b) 자본 개선 기금

- (1) 제(a)항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 외에 부지 선정과 준비, 부지 계획과 건축설계 및 계획, 신축 공사, 자재 및 장비 조달, 개조, 변경, 수리 및 기타 연구원의 건축 및 확장 비용과 관련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본 개선을 위한 특별 기금(이하 이 조항에서 “자본기금펀드”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 제4451(a)조에 따라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유보된 금액에서 연방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이나 저축기관에 연구원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 (2) 연구원장은 각 연방 분담금의 금액과 자본금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구원 지출액의 자본금 기본재산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3) (5)에 따른 연방 분담금과 매칭하여 연구원이 예치한 자금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본금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연구원이 위 2년의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예치되기 전에 자본금 기본재산에 대한 출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방 분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자본금 기본재산에서 인출하여 잠수입으로 재무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상기 2년 기간이 종료되면, 연방 매칭 부분을 포함하여 이 기간 동안 예치된 자금의 전체 원금과 이자는 유보 없이 연구원에 적립되며 (1)에서 언급한 자본 인수 및 개선과 관련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4) (2)의 출자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민간, 비연방 정부 또는 부족 출처에서 제공되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5) (3)을 조건으로 이 조항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이 편 제4451(a)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은 재무장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한다. 이 금액은 연구원이 관리했거나 연구원의 사용에 조건 없이 할당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연구원의 출자금으로 예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원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 (6) 이 조항에 따른 출자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부동산이나 인적 재산의 자금이나 현물 출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1990년 11월 29일부터 연구원이 보유하고 1988년 6월 2일 이후에 수취하였으나 이 조항에 따른 산정에는 그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현물 및 부동산 출자금은 특정연도에 할당된 연방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c) 일반 행정규정

- (1) 제(a)항 및 제(b)항에 규정된 신탁기금의 자금은 이 장의 제1065조(c)(2) 및 그 조항의 시행규정(해당 자금이 투자되는 시점에 유효한 규정)에 따라 투자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제한을 두고 투자하여야 한다.
- (2)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의 순이익 중 어떤 부분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되지 아니한다.
- (3) 제(a)항에 따라 승인된 신탁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연구원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조달된 대출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4) 연구원장은 미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재무장관, 이사회나 그 지정인이 합의한 바에 따라 이 장의 목적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이 조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제(b)항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수취된 자금투자를 위한

기록보관절차 및 기타 재무장관이 이 조항에 따라 활동을 회계감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a)항에 따른 신탁기금의 누적이자에 대한 기록보관절차가 포함된다.

#### 제4426조. 시설의 제공

(a) 계획

이사회는 연구원의 장단기 시설 수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을 포함하여 기존 연구원의 사업 현황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연구원의 신규 캠퍼스 부지로의 이전에 대한 영향 예측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이사회가 승인한 육성계획에 기초한다) 개발 및 건축요건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모든 연구원의 사업과 계획된 기능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기반시설 및 부지 분석, 건축 및 엔지니어링 연구를 통한 단계별 계획개발, 비용 예측, 조정 및 관련 연구를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b) 회부의 마감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계획은 1992년 7월 23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부한다. 그러한 계획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72장.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 제I절—총칙(제9101조~제9111조)

#### 제9101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이란 미국 법정기록과 관할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음란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란 다음과 관련된 능력을 말한다.

(A) 사용자가 정보를 발견·평가·정리·생성·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B)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과 책임감 있는 기술활용능력

(3) 원장

"원장(Director)"이란 이 편 제9103조에 따라 임명된 원장을 말한다.

(4) 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다음의 각 판결을 말한다.

(A)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권한을 가진 다른 법원의 재심을 받지 않는 판결

(B) 그 밖에 다른 법원이 재심할 수 없는 판결

(5) 인디언 부족

"인디언 부족"이란 연방정부가 인디언에게 제공하는 특별 사업이나 서비스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내무장관이 인정하는 부족, 무리, 민족 또는 그 밖에 단체나 공동체를 말한다. 알래스카 원주민 지원 정책(미국연방법전 제43편 제1601조 이하 참조)에 따른 모든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지자체 또는 마을 조합도 이에 포함한다.

(6) 연구원

"연구원(Institute)"이란 이 편 제9102조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을 말한다.

- (7)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란 이 편 제9105a조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 위원회를 말한다.
- (8) 음란한  
"음란한"이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A) 현대사회가 통용하는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외설적인 관심에 호소하는 경우
  - (B) 해당 프로젝트가 명백히 불쾌한 방식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경우
  - (C) 해당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제9102조.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

- (a) 설치  
국립예술인문학재단 내에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을 둔다.
- (b) 부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은 박물관지원실과 도서관지원실로 구성한다.
- (c)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이 편 제9105a조에 따라 연구원 내에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둔다.

#### 제9103조. 연구원장

- (a) 임명
  - (1) 총칭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연구원장을 임명한다.
  - (2) 임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1년 이하의 기간 또는 후임자의 임명이 확정되는 시점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재임할 수 있다.
  - (3) 자격  
1996년 9월 30일 이후 원장직에 임명된 최초의 개인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원장은 문헌정보 분야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자들로 선출하여야 한다. 1996년 9월 30일 이후 원장직에 두 번째로 임명된 개인부터는 박물관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들로 선출하여야 한다.
- (b) 보수  
원장은 제5편 제5314조의 고위직 보수표 III 등급에 규정된 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 (c) 의무와 권한
  - (1) 일차적 책임  
원장은 정보·교육·연구·경제·문화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 (2) 직무  
제1호에 규정된 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지식의 창출·보존·체계화·보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및 의회와 박물관, 도서관, 정보 서비스 관련 연방 기관과 부서에 조언을 한다.
    - (B) 연방, 주(州) 및 지방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계획, 정책, 활동 개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C) 국민의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데이터 수집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D)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가 미국의 정보 및 교육 기반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d) 위임 금지

원장은 연구원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원장의 직무를 위임하지 아니한다.

(e) 기관 간 협약

원장은 기관 간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다른 연방기관의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비정산 또는 비용변제불요를 조건으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2) 이 장에 따라 책정된 자금을 해당 활동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f) 조정

원장은 연구원의 정책 및 활동과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 개선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는 연방정부의 타기관 및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원장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정책과 활동이 다음의 활동과 조정이 되도록 한다.

(1) 「1965년 초·중등교육법」(미국연방법전 제20편제6301조 이하 참조)(제II편 B부 2, 3장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IV편 A, B부(미국연방법전 제20편 제7101조 이하 및 제7171조 이하 참조)에 따른 프로그램과 활동

(2) 「빈민층 아동 조기교육법」(미국연방법전 제42편제9831조 이하 참조)에 따른 프로그램과 활동(동법 제641조의 (d)(H)(vii)과 (J)(iii)(미국연방법전 제42편제9836조의 (d)(2)에 따른 프로그램과 활동을 포함한다)

(3) 「고용혁신 및 근로의 기회 제공에 관한 법률」(미국연방법전 제29편제3101조 이하 참조)에 따른 활동(동법 제121조제(e)항(미국연방법전 제29편제3151조제(e)항)에 따른 활동 포함을 포함한다)

(4)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교육 및 연구 지원, 디지털 문해력 개선, 국민안전 및 보건 의식 향상에 있어서 도서관과 박물관이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연방 프로그램과 활동

(g) 기관 간 협력

원장은 다음에 관한 직무를 관련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 수행자에는 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립과학재단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장관, 환경보호청장, 내무장관, 주택도시개발부장, 국립예술기금 위원장, 국립인문학기금 위원장, 관리예산처장, 상무장관, 재향군인국장,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농무부 장관, 국가사회봉사단장, 의회도서관장, 국가기록보관소장, 국립인쇄소장 또는 전술한 각 기관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

(1)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인력개발, 경제 및 산업발전 및 관련 활동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자료·기술·연구

(2) 국민의 조기교육, 평생학습, 문맹퇴치, 디지털 문맹퇴치, 인력개발 및 교육 요구를 지원하는데 있어 도서관 및 박물관의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를 막기 위한 자원 및 정책 접근방식

(3) 박물관이 수행하는 교육, 문화, 역사, 과학, 환경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자료·기술·연구

(h) 규제 권한

원장은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i) 신청 절차

(1) 총칙

이 장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와 평가

원장은 이 장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 장에 따른 절차의 수립·변경·취소에 대한 조치는 연구원과 원장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한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원장은 대중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품위와 존중의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 프로젝트의 처리

(A) 총칙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는 선정성은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가 없으며 보호 대상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B) 금지

음란한 것으로 판결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이 장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C) 신청의 거부 처리

원장의 신청 거부는 재정지원을 요청한 프로젝트의 선정성 유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증거로도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제9104조. 부원장

도서관지원실에 부원장 1명을 두되,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와 문헌정보 서비스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여야 한다. 박물관지원실에 부원장 1명을 두되, 박물관 서비스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제9105조. 인사

(a) 총칙

원장은 제5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을 임용하고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b) 기능직 및 전문직 직원의 임용과 보수

(1) 총칙

경쟁직 임용을 규율하는 제5편의 규정에 관계없이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능직 및 전문직 직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제5편제51장 또는 제53장제III절(공무원 등급 및 일반직 보수표 급여율 관련)에 관계없이 직원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2) 직원의 수와 급여

(A) 총칙

제(1)항에 따른 임용 및 보수를 받는 직원의 수는 연구원의 상근 정규직 또는 전문직 직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B) 보수 요율

(i) 총칙

아래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임용 및 보수를 받는 직원의 기본급은 제5편제5332조에 따라 일반직 보수표 GS-15등급에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ii) 예외

원장은 제(1)항에 따라 (i)에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기본급으로 3명 이내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본급은 제5편제5315조에 따라 고위직 보수표 IV 등급 직위의 기본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c) 자발적 용역

원장은 개인의 자발적 용역을 수락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 업무에 간헐적으로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 제5편제5703조에 따라 승인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 내에서 생계급여 대신 일일경비를 포함한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

(d) 전문가와 자문위원

원장은 제5편제3109조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포함한 전문가 및 자문위원을 고용·활용할 수 있다.

**제9105a조. 국립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a) 설치

연구원 내에 "국립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둔다.

(b) 위원

(1) 위원의 수와 임명

국립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원장

(B) 도서관지원실 부원장

(C) 박물관지원실 부원장

(D) 미국 시민으로 도서관서비스 분야에 관한 교육, 훈련,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자 중 대통령이 임명한 10인

(E) 미국 시민으로 박물관서비스 분야에 관한 교육, 훈련,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자 중 대통령이 임명한 10인

(2) 특별 자격

(A) 도서관 위원

(i) (D)에 따라 임명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위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5명은 전문 사서(司書)나 정보 전문가여야 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적어도 1명은 문헌정보 서비스 및 학술에 관한 전자 정보와 기술 부문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II) 적어도 다른 1명은 농어촌을 포함한 서비스 소외 지역의 문헌정보 서비스 수요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ii) 나머지 위원은 미국의 문헌정보 서비스 수요에 관한 적성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B) 박물관 위원

(i) (E)에 따라 임명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위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5명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소속해 있거나 소속되었던 박물관 전문가여야 한다.

(I) 미국의 학예, 보존, 교육 및 문화 자료를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인적자원 집단

(II) 과학·역사·기술·예술·동식물 관련 박물관과 어린이용 박물관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을 대표하는 박물관

(ii) 나머지 위원은 박물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이 있거나 박물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이어야 한다.

(3) 지역 대표 및 그 외 대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위원은 농어촌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임명하여야 한다.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는 하나의 주(州)에서 3명 이상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박물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관여하는 여성, 소수자, 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4) 의결

원장, 도서관지원실 부원장 및 박물관지원실 부원장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c) 임기
- (1) 총칙  
제(b)항의 (1)(D)나 (1)(E)에 따라 임명된 각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위원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2) 임기 조정 권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에 임명된 위원 중 같은 해에 4명 이상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도록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은 임명 시 조정 기간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 (3) 결원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재임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에 7년 이상 연속으로 있던 위원은 재임할 수 없다.
  - (5)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d) 직무와 권한
- (1) 총칙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는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에 대한 연구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방침에 있어 원장에게 조언을 한다.
  - (2) 국가 포상과 훈장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는 이 편 제9107조에 따라 국가 포상과 훈장을 수여함에 있어 원장에게 조언을 한다.
- (e) 위원장  
위원장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f) 사무관  
연구원의 법률 고문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사무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g) 회의
- (1) 총칙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는 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의결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직무 이행 및 권한 행사에 대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의결권 한을 가진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h) 정족수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공식 회의 진행을 위한 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청문회는 이보다 적은 수의 위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 (i) 보수와 여비
- (1) 보수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위원 중 연방정부의 고위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직무 수행에 종사하는 날(이동 시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보수를 받되, 제5편제5108조에 따라 일반직 보수표 GS-15등급 이상 직위의 최대 연봉에 따른 일일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 위원 중 연방정부의 정규직 고위직 및 일반직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근무를 이유로 추가 급여, 수당 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 (2) 여비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위원은 제5편제57장제I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 대신 일일경비를 포함한 여비를 수령한다.
- (j) 조정

원장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이 편 제9103조제(f)항과 제(g)항에 규정된 정책 및 활동의 개발과 이행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9106조. 기부

연구원은 연방정부의 명의로 금전 및 기타 재산이나 용역을 증여, 유증 또는 유치, 접수, 수령, 투자할 권한을 가지며, 연구원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산이나 용역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증여, 유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연구원이 수락한 후 기증자 또는 기증자 대리인이 원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장은 각 경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수익금을 연구원의 잔고로 특별이자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9107조. 포상과 훈장

원장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지역사회에 뚜렷한 공로를 남긴 우수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하여 매년 국가 포상과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108조. 정책의 연구·분석·데이터 수집과 평가 및 보급

##### (a) 총칙

원장은 국가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모델링, 평가 및 정보 보급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b) 목적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정책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모델링, 평가 및 정보 보급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의 필요성과 제공에 관한 동향 및 추이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대중의 진화하는 요구를 예측하고 대응 및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강화·확대한다.
- (2) 지역사회와 대중의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활용성 및 사용에 대한 동향과 잠재적 격차를 파악하여 박물관·도서관의 역할과 가치 및 영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 (3)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연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의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의 실효성을 측정한다.
- (4)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의 실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결과를 식별한다.
- (5)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 사례와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여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
- (6) 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계획과 구축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한다.
  - (A) 국가, 주, 지방 및 지역 수준의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
  - (B) 국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네트워크
- (7) 박물관 및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고하고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 (c) 계약 및 기타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원장은 제(b)항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f)항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그리고 그 밖에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보조금, 계약, 협력 협정 및 기타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d) 협의 및 사회 연계 활동

원장은 제(a)항을 수행하고 제(b)항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의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협의한다.
  - (A) 주립도서관 행정기관

- (B) 국가, 주정부, 부족, 지역 박물관 및 도서관 조직
- (2) 원장은 다음의 기관과도 협력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A) 지리학적 또는 학문적 기반의 박물관과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 (B)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조직(국제기구를 포함한다), 단체(데이터 수집, 분석, 모델링, 평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 (e)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
 

원장은 데이터 보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가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그 밖에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f) 보급
  - (1) 총칙
 

원장은 제(b)항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매년마다 보급하여야 한다.

    - (A) 이 조항에 따라 얻은 결과, 데이터, 보고서, 결과, 연구, 설문조사 및 기타 정보
    - (B) 제(b)항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접근 방식
    - (C) 제(d)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협력 및 협의를 수행하는 방식과 범위에 관한 정보
  - (2) 사용되는 형식
 

제(f)항의 (1)에 따른 정보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검색이 가능한 형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g) 책정액의 승인
  - (1) 총칙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미화 3백50만 달러를 책정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 (2) 자금의 사용
 

제(g)항의 (1)에 따라 각 회계연도마다 책정된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채무에 사용할 수 있다.

#### 제9109조. 건축을 위한 자금 사용 금지

이 장의 제II절 및 제III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책정된 어떠한 자금도 건설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9110조. 청문회

원장은 이 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진다.

#### 제9111조. 행정 자금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한 연방 행정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편 제9108조제(g)항, 제9123조, 제9176조에 따라 책정된 총 자금 중 미화 1천7백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상기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II절—도서관 서비스와 기술(제9121조~제9165조)

#### 제9121조. 목적

이 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 교육,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2) 국민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장려한다.
- (3) 시민의 교육과 정보 습득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도서관 자원에 대한 열람을 용이하게 한다.
- (4) 일반 대중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도서관 간 자원을 공유를 장려한다.
- (5) 부족민 학교를 포함한 전국 학교 도서관과의 학습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균형 잡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부족·지방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맹퇴치, 정규교육, 평생학습을 촉진한다.
- (6) 도서관이 다양한 지리적·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민, 미국 원주민, 군인가족, 재향군인과 간병인 등 미국 전역의 지역 공동체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7) 인력개발, 경제 및 비즈니스 개발, 비판적 사고력, 건강정보, 디지털 문해력, 금융 및 기타 분야의 이해력, 그 밖에 새로운 기술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증진 및 확대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추적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8) 현 도서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및 소수층 인재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 장래의 문헌정보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고용한다.
- (9) 모든 형태의 지식과 도서관 장서를 보존하고, 재해 발생 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10) 연구,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보기반시설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 (11) 국가, 주, 지방, 지역, 국제적 기관 간 협력과 연계 활동을 통하여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촉진한다.
- (12) 도서관과 박물관 간 협력 활동에 대한 모델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 및 보급한다.

#### 제9122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
 

“도서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A) 공공도서관
  - (B) 공립 초·중등학교 산하 도서관
  - (C) 부족민 도서관
  - (D) 대학도서관
  - (E) 이 절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래의 학술도서관
    - (i) 학술연구 외에는 달리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없는 도서관 서비스와 자원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 (ii) 고등교육기관의 필수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도서관
  - (F) 사립도서관 또는 기타 전문도서관. 다만, 그러한 사립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이 소재한 주가 이 절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도서관을 공식적인 도서관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2) 도서관 컨소시엄
 

“도서관 컨소시엄”이란 도서관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정보센터의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정부, 지방, 지역, 국제적 차원의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 (3) 주정부
 

“주정부”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의 50개 주,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그리고

팔라우를 말한다.

(4) 주립도서관 행정기관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이란 주정부 법률에 따라 주 전역에 걸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확장과 개발을 담당하는 주정부 관공서를 말한다.

(5) 주정부 계획서

“주정부 계획서”란 공식적으로 지정된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이 이 절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적·법적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증하고, 이 절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주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원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주립도서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이 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아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9123조. 책정액의 승인

(a) 총칙

다음과 같이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 (1) 제1, 2, 3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회계연도에 미화 2억3천2백만달러를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 (2) 제4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회계연도에 미화 2천4백50만달러를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사전 자금지원

(1) 총칙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진행 중인 도서관 활동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기 위하여, 이 절의 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계약, 기타 대금지급을 위한 책정액은 그러한 활동 및 사업이 수행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법에 포함될 수 있다.

(2) 책정액의 추가 승인

제(a)항에 따라 승인된 책정조치 시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 절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충당금을 (동일한 세출예산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2개년 회계연도에 걸쳐 제정할 수 있다.

### 제9131조. 유보와 할당

(a) 유보

(1) 총칙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은 특정 회계연도에 대하여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유보하여야 한다.

- (A) 이 편 제916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25%를 유보하여야 한다.
- (B) 이 편 제9162조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발주하기 위하여 3.75%를 유보하여야 한다.

(2) 특칙

(1)(B)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유보된 자금이 그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자금은 제(b)항에 따라 유보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할당한다.

(b) 할당

(1) 총칙

원장은 특정 회계연도에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책정되었으나 제(a)항에 따라 유보되지 아니한 금액 중 (3)에 따라 결정된 최소 할당액에서 보조금을 각 주정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대한 최소 할당액의 잔여액은 (2)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배분한다.

(2) 잔여액

특정 회계연도에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 제(a)항에 따라 유보되지 아니하고 (1)에 따라 할당되지 아니한 잔여액에서 원장은 해당 주정부 인구가 전체 주정부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잔여액에 대해 동일한 관계를 갖는 금액을 각 주정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최소 할당액

(A) 총칙

이 조항의 목적으로 각 주정부에 지급되는 최소 할당액은 미화 68만달러로 한다. 다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팔라우의 최소 할당액은 미화 6만달러로 한다.

(B) 비례 감액

특정 회계연도에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책정되었으나 제(a)항에 따라 유보되지 아니한 금액이 (A)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각 최소 할당액은 비례적으로 감액한다.

(C) 적용의 예외

(i) 총칙

특정 회계연도에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책정되었으나 제(a)항에 따라 유보되지 아니한 금액이 2019년 회계연도에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주정부에 대한 할당액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I) (A)에 따라 최소 할당액이 미화 68만달러인 각 주정부에 대하여 최소 할당액을 미화 1백만달러로 인상한다.

(II) (A)에 따라 최소 할당액이 미화 6만달러인 각 주정부에 대하여 최소 할당액을 미화 10만달러로 인상한다.

(ii) 대체 최소 금액을 결정할 자금의 부족

특정 회계연도에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책정되었으나 제(a)항에 따라 유보되지 아니한 금액이 2019년 회계연도에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주정부에 대한 할당액 합계를 초과하지만 (i)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러한 초과액은 각 주정부에 대한 최소 할당액이 미화 68만달러 이상으로 균등하게 증액되도록 (i)(I)에 명시된 주정부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i)(I)의 요건이 특정 회계연도에 완전히 충족된 후, 그러한 초과액의 잔액은 (i)(II)에 명시된 각 주정부에 대한 최소 할당액이 미화 6만달러 이상으로 균등하게 증액되도록 할당하여야 한다.

(4) 데이터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은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최근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각 주정부와 전체 주정부의 인구수를 결정한다.

### 제9132조. 시행

(a) 총칙

주정부는 특정 회계연도에 이 절에 따라 받은 자금의 총액 중 4% 이하를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b) 해석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원을 이 편 제9134조제(c)항에 따른 평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9133조. 지급, 연방 분담금, 활동 요건의 유지

(a) 지급

이 편 제9123조에 따른 책정액을 조건으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은 이 편 제9134조에 따라 승인된 주정부 계획서를 보유한 각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에게 주정부 계획에 기술된 활동의 비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 연방정부의 분담금

(1) 총칙

연방정부의 분담비율은 66%로 한다.

(2) 비연방정부 분담금

비연방정부 분담금은 비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원에서 제공한다.

(c) 활동의 유지

(1) 주정부의 지출

(A) 요건

(i) 총칙

(2)의 규정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의 주정부 지출액 수준이 그 이전 3개년 회계연도의 평균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부의 할당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주정부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할당액의 감소액은 할당액에 다음의 분수식을 곱한 값으로 한다.

(I) 감액이 결정된 회계연도 이전 3개년 회계연도의 주정부 평균 지출액에서 감액이 결정된 회계연도의 주정부 지출액을 뺀 금액을 분자로 한다.

(II) 감액이 결정된 회계연도 이전 3개년 회계연도의 주정부 평균 지출액을 분모로 한다.

(ii) 산정

(B)에 따른 주정부 지출 감액분은 (A)(i)에 규정된 3개년 회계연도의 주정부 평균 지출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B) 연방 지원금 감액

이 절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경우, (A)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지출액은 그 가용액의 감소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

(2) 주정부 지출 수준

(1)의 목적을 위한 주정부 지출에는 이 절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관 사업을 위해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이 지출한 모든 주정부 예산을 포함한다. 이 항의 활동유지비용 산정 시 포함된 모든 금액은 결정이 내려진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하며, 자본 지출이나 일회성 특별사업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우발적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면제

원장은 자연재해 또는 주정부 재원의 예외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감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1)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134조. 주정부 계획서

(a) 주정부 계획서 요건

(1) 총칙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이 절에 따른 교부금을 받기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원장에게 주정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간

주정부 계획서는 5개년 회계연도동안 적용한다.

(3) 수정사항

주정부 계획서를 수정할 경우,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개정 내용을 포함한 주정부 계획서 수정안을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내용

주정부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이 절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정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 (2)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1)에 따라 수립된 목표 및 우선순위와 이 절의 목적 및 이 편 제9141조에 부합하는 활동을 기술하고, 그러한 활동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수행하여야 한다.
- (3) 행정기관이 (2)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절차를 기술한다.
- (4) 행정기관이 (1)에 규정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2)에 따라 수립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할 방법을 기술한다.
- (5) 행정기관이 이 절의 시행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주 전역의 도서관과 도서관 사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절차를 규정한다.
- (6)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이 자료, 사업, 활동 등의 조정을 위하여 다른 주정부 기관 및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다만, 다음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 투자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 (A) 「1965년 초·중등교육법」(미국연방법전 제20편제6301조 이하 참조)(제II편 B부 2, 3장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IV편 A, B부(미국연방법전 제20편 제7101조 이하 및 제7171조 이하 참조)에 따른 프로그램과 활동
  - (B) 아동 조기교육(다음의 활동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
    - (i) 제42편제9837조(b)(4)와 (e)(1)에 따라 수행되는 주정부의 활동
    - (ii) 제42편제9837b조(a)(4)(B)(i)에 따른 주정부 전략계획서에 기술된 활동
  - (C) 인력개발(다음의 활동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
    - (i) 「고용혁신 및 근로의 기회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1조(미국연방법전 제29편제3111조)에 따라 주정부 인력개발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
    - (ii) 동법 제121조 제(e)항(미국연방법전 제29편제3151조제(e)항)에 따라 마련된 주정부 원스톱 집배 시스템
    - (iii) 동법 제II편(미국연방법전 제29편제3271조 이하 참조)에 따라 성인교육 및 문맹퇴치와 관련하여 주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 (D) 경제·비즈니스·지역사회 개발, 건강정보,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 금융 및 기타 분야의 이해력을 포함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
- (7) 주정부가 제(f)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한다.
- (8) 해당 기관이 이 절을 이행하고 이 절에 따라 제공된 자금이 이 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보장을 한다.

(c) 평가와 보고

이 절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각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5개년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이 절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정보

이 절의 지원을 받은 각 도서관은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이 제(c)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 승인

(1) 총칙

원장은 이 절의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주정부 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일반 공개

이 절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각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주정부 계획서를 전자 장비를 통해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리

원장은 주정부 계획서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그러한 결정 및 사유를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B)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에 주정부 계획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C)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D)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에 청문회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f) 인터넷 보안

(1) 총칙

제47편제254조(h)(6)에 따라 할인 요율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 편 제9122조(1)(A) 또는 (B)에 명시된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금도 해당 도서관을 위한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 구입이나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해당 도서관이

- (i)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각적 묘사에 대한 접속을 막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운영을 포함하여 미성년자를 위한 인터넷 보안정책을 마련한 경우

- (I) 음란성
- (II) 아동 음란물
- (III)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

- (ii) 미성년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그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B) 해당 도서관이

- (i)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각적 묘사에 대한 접속을 막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운영을 포함하여 인터넷 보안정책을 마련한 경우

- (I) 음란성
- (II) 아동 음란물

- (ii) 그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작동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

이 조항의 어느 규정도 도서관이 (1)(A)(i)의 (I), (II), (III)에 규정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제한 또는 보호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3) 특정 기간 동안의 해제

관리인, 감독관, 기타 당국은 선의의 연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1)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4) 시행 시기 및 적용

(A) 총칙

(1)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이 절에 따른 차기 프로그램 자금증달 연도에 대한 신청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도서관이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B) 절차

- (i) 인터넷 보안정책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도서관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보안정책을 수립한 (1)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이 절에 따른 연간 프로그램 신청 주기마다 (1)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 (ii) 인터넷 보안 정책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은 도서관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보안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1)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 도서관이 이 절에 따라 자금을 신청한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1차 프로그램 연도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인터넷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달절차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II) 도서관이 이 절에 따른 자금을 신청한 이 조항의 유효일 이후 2차 프로그램 연도에는, 도서관이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2차 프로그램 연도에 관련 요건을 준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도서관은 그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위 2차 프로그램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모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iii) 면제

상기 조항 (ii)(II)에 따른 증명 대상이지만 달리 증명을 할 수 없는 도서관은 주정부 또는 지역의 조달규칙, 규정, 경쟁입찰 요건이 위 규정이 요구하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도서관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 연구원장에게 상기 규정의 적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도서관이 이 절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는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3차 프로그램 연도 개시 전에 (1)의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불이행

(A) ‘일반교육규정법’상 구제조치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이 이 절에 따른 자금 수급자가 이 조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 이 절에 따른 자금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을 보류한다.
- (ii) 정지 명령을 통해 수급자의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장을 발부한다.
- (iii) 수급자가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 준수 협정을 체결한다.

(B) 자금회수의 금지

(A)에 의해 승인된 조치는 도서관이 이 조항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구제조치이며, 원장은 그러한 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자로부터 자금회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C) 지급 재개

원장이 (A)(i)에 따라 지급보류의 대상이 된 자금 수급자가 (증명서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지급보류의 근거가 된 사항을 시정하였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원장은 이 조항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지급보류를 정지한다.

(6) 분리성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도, 그 나머지 규정은 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 아동 음란물

"아동 음란물"이란 제18편제2256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B)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 사진, 그래픽 이미지 파일, 기타 시각적 묘사를 말한다.

- (i) 전체적으로 나체, 성행위, 배설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선정적 관심을 유도하는 묘사
- (ii)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된 성행위나 성적 접촉, 음란한 성행위 또는 성기 노출을 표현·기술한 묘사
- (iii)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학적·예술·정치적·과학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묘사

(C)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17세 미만의 개인을 말한다.

(D) 음란한

"음란한"이란 제18편제1460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E) 성행위, 성적 접촉

"성행위"와 "성적 접촉"이란 제18편제2246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 제9141조.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a) 총칙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이 편 제9123조에 따라 받는 자금 중 직접 또는 하위 보조금이나 공동 협약의 방식으로 그러한 자금의 최소 96%를 다음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1)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교육, 평생학습, 인력개발, 경제 및 비즈니스 개발, 건강정보,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 금융 및 기타 분야의 이해력에 대한 모든 연령대 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정보 및 교육 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 (2) 이 편 제9134조(b)(6)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문헌정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 및 기타 연결을 구축하거나 개선하고, 도서관과 타기관 간 연계를 확립하거나 강화한다.
- (3)
  - (A) 현 도서관 인력의 역량과 지도력을 강화하고 문헌정보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 연수와 지속적인 교육 등을 제공한다.
  - (B) 다양한 문화와 소수의 지위에 있는 배경을 가진 인재를 장래의 문헌정보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으로 고용한다.
- (4) 타기관 및 지역사회기관단체와 민간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
- (5) 다양한 지리적·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장애인, 문맹인, 정보 습득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가족단위 소득이 빈곤수준(관리예산처가 정의하고 제42편제9902조제2호에 따라 매년 개정됨)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출생부터 17세까지)를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소외된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7) 국가, 주정부, 지방, 지역, 국제적 기관 간 협력과 연계 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촉진한다.
- (8)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 편 제9121조에 규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b) 특칙

이 부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주립도서관 행정기관은 개별 주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a)항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 제9151조. 주정부 자문위원회

이 절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각 주정부는 주 내 도서관 단체들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주정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도서관 단체에는 다양한 지리적·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 농촌 및 도시지역 거주민, 미구 원주민, 군인가족, 재향군인과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족, 학교, 학술, 특수 및 기관 도서관이 포함된다.

### 제9161조. 미국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

원장은 모든 회계연도에서 이 편 제9131조(a)(1)(A)에 따라 유보된 금액 중 인디언 부족과 주로 하와이 원주민(이 편 제7517조에 따른 정의)을 대표하는 관련 조직에게 보조금을 수여하고 이 편 제9141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162조. 국가 리더십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 (a) 총칙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은 모든 회계연도에서 이 편 제9131조(a)(1)(B)에 따라 유보된 금액으로 전국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과 박물관 간 연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한다.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1) 국가정보기반시설을 관리하고 대중의 정보 및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과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활동

### (2)

(A) 도서관 사용자가 디지털 문해력을 습득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신기술의 효과적·효율적 사용을 통한 도서관 개선 또는 문헌정보 서비스의 강화와 관련된 연구 및 시범 사업

(B) 상기 사업에서 파생된 정보를 보급하는 활동

(3) 도서관 자료와 자원을 보존·보전·전자화하고, 보관 및 향후 사용을 위한 최적화된 조건, 직원교육 제공, 복제 방지, 사업 수행 기관이나 도서관 단체를 넘어 연구원의 접근 권한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의 합동을 강조한 활동

(4) 비상사태 또는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의 능력을 제고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

(A) 국가, 주, 지역의 비상사태 및 재난 관리 계획을 개발하는 활동

(i)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 및 서비스의 소통과 조정

(ii) 지식 및 도서관 수집물 보존에 대한 보장

(B) (A)에 기술된 비상사태 및 재난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활동 또는 비상 사태나 재해 발생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이 이 장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활동

(5) 도서관과 박물관 간 협력 활동을 보여주는 시범 사업

### (b)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 (1) 총칙

원장은 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및 협회, 고등교육기관, 박물관 및 그 밖에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와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제(a)항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2) 경쟁의 원칙

이 조에 따른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및 그 밖에 협약이나 지원 형태는 경쟁에 따라 부여한다.

### (c) 특칙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활동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적합한 도서관 및 박물관 종사자나 전문가가 그러한 활동을 관리한다.

(2) 각종 도서관 유형과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반영하고 제공한다.

(3) 평가, 분석 및 배포 내용을 포함한다.

(4)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도서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도서관에 대한 향후 응용 방법을 제공한다.

## 제9163조. 주정부와 지방의 주도적 계획

이 절은 도서관 서비스 수행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의 주도적 계획과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도서관 행정, 인사 및 도서·자료의 선정, 이 절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절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에 대한 최선의 사용 결정은 주정부 및 그 지방 부처를 위하여 유보하여야 한다.

## 제9165조. 로라 부시 21세기 사서 프로그램

### (a)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 (1)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에게 문헌정보학으로 경력을 쌓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세대 사서를 모집하고 교육한다.
- (2)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제도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와 소수의 지위에 있는 배경을 가진 교수진과 도서관 지도자를 양성한다.
- (3) 교육, 평생학습, 인력개발, 경제 및 비즈니스 개발, 건강정보,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 금융 및 기타 분야의 이해력, 신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서 및 도서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강화한다.

### (b) 활동

원장은 이 편 제9123조(a)(2)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으로 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및 협회, 고등교육기관(이 편 제1001조에 따른 정의) 및 그 밖에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단체와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 부의 목적을 촉진하는 다음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국가 공인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여 도서관 직무로 경력을 희망하는 학생수를 늘린다.
- (2) 장래가 유망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에게 문헌정보학으로 경력을 쌓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세대 전문인력을 모집한다.
- (3) 사서와 도서관 인력을 위한 전문 훈련 과정을 개발하거나 강화한다.
- (4) 국가 공인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5) 차세대 도서관 전문인력과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을 늘리기 위하여 박사과정을 강화한다.
- (6) 유능한 사서를 채용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 (c) 평가

원장은 이 부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III절—박물관 서비스(9171조~제9176조)

### 제9171조. 목적

이 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박물관이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학습의 핵심 제공자로서 가지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 (2) 박물관이 미국의 다양한 유산을 구성하는 문화, 예술, 역사, 자연, 과학에 대한 이해와 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 (3) 국제, 국가, 주, 지방 및 지역 간 연계와 제휴를 통해 박물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십, 혁신, 최신 기술의 활용을 권장한다.
- (4) 차세대를 위하여 미국의 문화, 역사, 자연, 과학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박물관의 관리 책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5) 박물관이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박물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 (6) 박물관, 도서관, 학교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 간 자원 공유와 제휴를 지원한다.
- (7)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 (8) 미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박물관이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9) 박물관 자원을 활용하고 박물관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주정부 수준의 활동을 지원한다.
- (10) 모든 미국 시민이 양질의 박물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박물관의 노력에 협조한다.

### 제9172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박물관  
“박물관”이란 근본적으로 교육, 문화유산 보존, 미학적 목적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유형물을 수집, 연구,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시하는 공공, 부족, 사립 비영리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유형 및 디지털 소장품을 보유한 박물관을 포함하여 수족관, 수목원, 식물원, 미술관, 어린이 박물관, 일반 박물관, 역사적 건물과 유적지, 역사 박물관, 자연보존센터, 자연사 및 인류학 박물관, 천문관, 과학관, 전문 박물관, 동물원을 포함한다.
- (2) 주정부  
“주정부”란 미국의 50개 주정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팔라우를 말한다.

### 제9173조. 박물관 서비스 활동

- (a) 총칙  
원장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정책 자문에 따라 다음의 비용에 대한 연방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박물관, 주정부, 지방정부, 그 밖에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와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박물관이 모든 연령대 개개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전시회, 프로그램, 간행물, 웹사이트를 포함한다)의 소장품, 정보 및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박물관이 부족한 학교를 포함한 국·공립학교와 학습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형 잡힌 교육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주 및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박물관 자원과 역량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 (3)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박물관 소장품의 보존을 지원한다.
    - (A) 보관, 전시,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 (B) 재해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이에 대응한다.
    - (C) 보존을 위한 교부금을 설정한다.
    - (D) 소장품 관련 정보를 선별, 안정화 및 조직한다.
    - (E) 소장품 관리에 대한 박물관 직원 교육을 한다.
  - (4) 주 전체의 박물관 서비스 및 요구에 대한 평가와 박물관 서비스 개선 및 극대화를 위한 주정부 계획의 수립을 포함하여 박물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 (5) 박물관협회, 전문네트워크, 지역사회기반단체 및 재단과 같은 조직과 그 밖에 협력 매커니즘을 통해 박물관 서비스를 개선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기술 도구 및 데이터 자원을 창출하고 박물관 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개발한다.
  - (6)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과 광범위한 협력을 촉진한다.
    - (A) 도서관
    - (B) 학교
    - (C) 고등교육기관
    - (D) 국제, 연방, 주, 지방 및 지역의 기관이나 조직
    - (E) 비정부기구
    - (F) 기타 지역사회단체

- (G) 기타 관련 연구 및 정책조직
- (7) 정보를 보급하고, 다양한 청중이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박물관 소장품·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여 신기술과 미디어의 사용을 장려한다.
  - (8) 박물관이 다양한 지리적·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 농촌 및 도시지역 거주민, 미국 원주민, 군인가족, 재향군인과 간병인 등 미국 전역의 지역 공동체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행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9) 박물관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직원의 능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박물관 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 (10) 박물관 연구 및 사업 평가와 박물관 전문인력 및 대중에 대한 정보 보급을 지원한다.
  - (11) 박물관 및 도서관 협력사업의 모델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 및 보급한다.
  - (12) 박물관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발전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13) 박물관 서비스를 확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기관 및 지역사회기반단체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 (b) 연방 분담금
- (1) 50%
    -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a)항에 따른 연방정부의 분담금은 50% 이하로 한다.
  - (2) 50% 초과  
원장은 연방의 분담금이 50%를 초과할 수 있는 제(a)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절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3) 운영비  
이 절에 따른 운영비를 위한 자금은 박물관이 아닌 기관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c) 검토와 평가
- (1) 총칙  
원장은 이 절에 따라 체결된 제(a)항에 규정된 협약을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 (2) 보조금 배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원장은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박물관, 다양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의 공평한 배분을 고려한다.
  - (3) 기술지원 신청
    - (A) 총칙  
원장은 이 절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정된 자금의 10% 이내의 금액을 기술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 (B) 개별 박물관  
개별 박물관은 (A)에 따른 3회 이내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에 대한 후속판정은 기관 외부의 평가에 따른다.
- (d) 미국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  
원장은 인디언 부족 및 관련 조직이 제(a)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주로 하와이 원주민(이 편 제7517조에 따른 정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인디언 부족과 관련 조직에게 보조금을 부여하거나 이들과 계약이나 공동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편 제9176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의 2.25%를 유보하여야 한다.



## 제 9174조. 폐지

### 제9175조. 21세기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 (a) 목적

이 조항의 목적은 다음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중의 요구를 가장 잘 예측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직종의 다양한 인력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 (1)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이 박물관 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와 소수의 지위에 있는 배경을 가진 인재를 장래의 박물관 전문인력으로 모집하고 교육한다.
- (2) 박물관 관리·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전문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과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전문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역량 확대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소수의 지위에 있는 배경을 가진 인재를 박물관 지도자로 개발한다.
- (3) 현재 박물관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 (b) 활동

원장은 이 편 제9176조에 따라 제공된 금액으로 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및 협회, 고등교육기관(이 편 제1001조에 따른 정의) 및 그 밖에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단체와 보조금, 계약, 공동협약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 부의 목적을 촉진하는 다음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 (1) 대학원 및 학부 박물관 관련 프로그램과 주정부, 지방정부, 협회, 비영리단체와 같은 교육중심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기타 관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박물관 서비스 분야로 경력을 희망하는 다양하고 소수의 지위에 있는 학생수를 늘린다.
- (2) 다양하고 소수의 지위에 있는 인재를 장래 박물관 전문인력으로 채용한다. 유급 인턴십, 멘토링, 장학금 기회 제공 등 박물관 업무 경력을 고려하는 유능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3) 박물관 전문인력을 위한 현행 전문성 개발·유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중간 경력 직장인의 능력 개발, 멘토링 및 펠로우십이나 그러한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 및 지방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4) 차세대 박물관 전문인력을 성공적으로 모집·준비·교육·유지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 평가, 모델 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수행한다.

#### (c) 평가

원장은 이 절에 따라 지원되는 조치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9176조. 책정액의 승인

#### (a) 보조금

이 절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3천8백60만달러를 원장에게 책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 (b) 사용 가능한 잔여액

제(a)항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채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c) 자금조달 규칙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a)항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이 2020년 회계연도에 책정된 금액보다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 편 제9173조(a)(4)에 기술된 주정부 평가를 수행하고 그러한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이 편 제917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관련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의 증액 중 30% 이상, 50% 이하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박종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제5장, 연구총괄

### 연구진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제3장, 제4장 법·제도 분석

### 연구 자문(가나다 순)

김정훈 워싱턴한국문화원장: 제5장 제2절 일부

명성준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3장 제2절 제4항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백혜미 워싱턴한국문화원 공연 담당

신혜선 위컬처리서치 앤 컬선티ング 대표: 제2장 제2절, 제3장 제2절 제3항

여태은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the Arts 재학 중

오현주 한국ESG연구소 선임연구원: 제4장 제2절 제3항

윤지영 워싱턴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이한빛 헤럴드경제 차장: 제3장 제2절 제2항

정복교 Kean University 교수: 제4장 제1절 제1항

최정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한 효 뉴욕한국문화원 공연 담당

### 연구 참여(가나다 순)

김현진 국가근로장학생(인천재능대학교)

박종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3장 제1절 일부, 제4장 제1절 일부

### 번역

코리아헤럴드통번역원

##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97-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27>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박종웅(2021), 미국 문화예술 행정체계 및 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27>



9 788960 358973  
ISBN 978-89-6035-897-3